

인천 문화공간
문화현장

2021 DECEMBER Vol.45

인천 문화공간 현장

2021 **DECEMBER** Vol.45

(사)인천민예총

제작·공급 **다이나메**
DYNAMART

+ 포토에세이

4 언덕과 손 그림자 : 이영욱

+ 권두언

12 솟아날 구멍을 생각하며 : 윤진현

+ 특집

16 [2021 인천문화예술아카데미 이슈포럼] 인천, 문화도시를 말하다 : 김창길 외

+ 문화이슈

62 지금, 이 순간 ‘동물’을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 김정현·김산·김학중·조은영·이기현·주향수·문종필

+ 한 시인의 팬데믹 표류기

88 “나는 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문계봉

+ 지상강연

116 노동문화 활동가에게 듣는 ‘인천지역 노동문화의 역사와 흐름과 과제’ : 김창곤

+ 지상인터뷰

144 봄으로 가는 길 : 이종구 구술

+ 현장통신

166 기한 없는 숙제의 길 : 4·16 인천순례 : 김은별
169 한강하구의 평화는 배가 다니는 것이다 : 박홍열
175 2021 인천평화축제 ‘평화로운 평화들’ : 이찬영
182 인천 연안환경미술행동, 전시 의의와 전망 : 성효숙
188 미래적 전통, 도시 풍물 : 시지은
193 인천의 마을신앙 동막도당굿의 내력 : 변진섭
203 한국민예총 풍물굿한마당을 되돌아보며 : 이성호
209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마음이 닿는 길 : 최금예
216 30년 경력 신진 연출가의 자득 연출론 : 이은진

+ 활동가 노트 : 지금/여기 있는 나

224 취향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 옥승희
228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몰입 : 신나래
231 증가하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장시진
233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 라정민

+ 삶과 생각

238 낯선, 낯설지 않은 우리의 자산 : 이소영
243 ‘견담’만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 송아름
248 디아스포라 영화제, 라운드 테이블 ‘공항 난민’ : 김영주
252 인천독립영화 제작 지원은 변화가 필요하다 : 인천독립영화협회 회원 일동
256 택배 노동자의 삶과 영화 <미안해요, 리키> : 오석균
262 백년가게의 가치 : 손다혜

포토에세이

언덕과 손 그림자

사진·글 이영욱

인천 서해 5도(백령도, 연평도, 소연평도, 대청도, 소청도)에 가면 북한과 가까운 접경지대에 반공대피소, 교통호, 초소 등 군사목적의 시설물이 쉽게 눈에 띈다. 적군의 시선을 피해 숨는 이 시설물은 은폐와 엄폐물로서 현재 안보관광목적으로 일부 개방되어 있으나, 유사시 적을 공격하는 기능도 한다. 은폐(隱蔽)와 엄폐(掩蔽)를 한자어로 풀어보면 은(隱)은 언덕이란 뜻이고, 엄(掩)은 손과 그림자란 뜻이다. 결국 은폐와 엄폐는 언덕 뒤에 숨어 자신의 손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덮어 가린다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현실적으로 적을 향해 총구를 조준하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노출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탱크는 전시용이고, 폐허 속 군인형상의 모형은 연평도 폭격사건의 현장을 재현한 안보교육장의 시설물이다. 진짜 경계초소에는 사람이 없거나, 가짜 군인이 대신한다. 그것도 멀리서 보면 진짜처럼 보인다. 어쩌면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엄폐와 은폐의 진짜 목적일지 모른다.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배제 되어 있어야만 바라볼 수 있는 이 모순은 그것을 부인하고 파괴한다.

“역사는 히스테릭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만 구성되기 때문이다.”

_롤랑 바르트

이영욱 李榮旭 Lee, Youngwook (lirongxu@naver.com)

사진 재현의 사실성과 객관성에 의심을 가지고 맥락에 따라 이야기를 변주하고 배치시키는 픽션도큐먼트 Fiction Document 방법론으로 창작중이다. 현재 '인천 사진아카이브연구소'와 전시공간 '프로젝트룸 신포'를 운영 중이다.



대청도 _ 초소 _2018



백령도 _ 관광전시용 탱크 _2015



연평도 _ 교통호 공사 _2016



연평도 _ 반공호 대피소 _2016 년



연평도 _ 사격장 _2016 년



연평도 _ 안보교육장 _ 2016



연평도 _ 해안가 초소 _ 2016 년

숫아날 구멍을 생각하며

‘천라지망(天羅地網)’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이라는 뜻이다. 무협지나 무협영화에서 상대를 향해 신묘한 무공을 펼쳐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포박하는 장면이 연상된다. 『명심보감(明心寶鑑)』에서는 ‘천망회회 소이불실(天網恢恢 疎而不失)’이라 하여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지만, 빠뜨리는 게 없다.”고 변주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물이란, 잡히는 존재로서는 끝이다 싶은 절망이겠지만, 잡는 입장에서는 잡는 순간 죽으라는 도구는 아니다. 목표물을 포획하면서도 동시에 숨 쉴 구멍은 열어놓았으니 ‘하늘이 무너져도 숫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기억하면 무너지는 하늘은 말하자면 그물 같은 형태이었던가?

‘하늘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애써 이룬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부정해야 하는 순간, 혹은 부정당하는 순간, 최선을 다한 결과가 가치 없고 나아가 해악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평범한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결코 만나고 싶지 않은 순간이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의가 그대로 선한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일호의 의심도 없이 당당하게 최선을 다한 성과, 결과를 넘어서야 할 때가 있다. 그때는 그랬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그때로부터 이룬 것이 이제는 태산 같은 장애물일 수 있다는 사실에 마주 서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인간을 위한 최선이 다른 생명에게 위해가 되고 모든 생명에게 해악의 시작이었음을 인정해야 하는 환경문제는 뼈가 아프다. 우리가 애써 이룬 가슴 벅찬 노동의 가치와 노동조합의 깃발이 더 이상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청년세대에게 외면당하며 시들어가고 있다는 엄혹한 현실이 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그 그물에 붙잡힌 꼴에 다름없다.

이번 호는 가슴이 먹먹하다. 현황을 짚어보아도 과거를 돌이켜 보아도 쉽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다. 그러나 온갖 질문이 숫아난다는 점에서 결코 무위는 아니다.

인천은 부평구, 서구, 연수구가 ‘문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인천이 문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져야 하겠으나 실제 지역의 문화예술인에게는 실감이 부족하다. 특집으로 2021년 인천문화예술 아카데미의 이슈포럼에 전 지역문화진흥원장 김영현 선생이 발제하고 연수구와 서구 문화재단의 담당자가 참석하여 토론한 결과를 담았다. 문화를 중심에 둔 큰 그림을 보며 작은 데서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을 들을 수 있다. 지상강연으로는 전 민주노총 인천본부장 김창곤 님의 강의를 실었다. 1980년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민주노총의 산 역사로서, 노동문화운동의 주체로서 살아온 뜨거운 시간을 만날 수 있다. 문화이슈에서는 ‘동물권’에 대한 작가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담았다.

쉽지 않은 주제들이지만 진중히 경청하다 보면 저절로 질문이 떠오른다. ‘문화’의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은 그렇게 통계적인 수치와 양적 확산밖에 없는 것일까? 문화도시로 가는 지자체의 파트너로 노조, 노동자가 아니고 ‘기업’이 불려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마을 주체를 만난다면 이장을 떠올리는 건 너무 뻔한데, 그걸 넓히는 것이 청년이장, 여성이장이라는 상상 또한 결국은 비슷하지 않은가? 마을이면 왜 뻔하게 이장뿐일까? 동물을 돌보는 비용을 생각하며 배고픈 어린이를 떠올리는 것은 당연할까? 수천, 수억짜리 명품 소비에는 더 이상 아무 이의도 달지 않는 세상에서 몇 만 원 길냥이 사료값을 쓰면서는 몇 만 원으로 돌볼 수 있는 어린이를 떠올리며 선택을 요구 받을 때, 어느 지점에서 답변을 궁리해야 하는 것일까? 청년들은 더 이상 노조에 관심을 갖지 않고 문화활동가도 점점 고령화되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런 노조에 꼭 젊은이가 가입해야만 하는 걸까? 청년들에게 저희끼리라도 노조를 만들든, 취향공동체를 만들든 무엇이든 해보라고 격려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편집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퇴임하신 이종구 선생을 뵈었다. 탁월한 예술가로, 평생의 스승으로, 인천 민예총의 산 역사로 이종구 선생의 말씀의 울림은 묵직하다.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걸으신 선생의 걸음을 짚어가며 따르다 보면 선생이 꿈꾸는 봄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게 된다. 이를 시작으로 인천민예총의 역사를 스스로 기록하는 작업이 이어지기 바란다.

문계봉 시인은 판·돌아 기획은 쉬는 대신 팬데믹 상황을 견뎌온 기록을 실었다. 현장통신 섹션에서는 ‘4·16 인천순례’를 김은별 님이 짚어주었다. 아무리 고통스러

위도 앞으로는 우리는 오랫동안 4월 16일 세월호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박홍열님은 한강하구에 ‘평화의 배 띄우기’ 사업을 돌아보며 한강하구의 평화는 배가 다니는 것이라는 간명하면서도 벽찬 희망의 답안을 제출하였다. 이찬영님은 인천민예총이 앞장서서 평화축제조직위원회로 확대해 온 2021 인천평화축제 ‘평화로운 평화들’의 성과를 검토하였다. 언제나 세계와 지역의 이슈를 드러내고 설득해 온 미술인들의 활동이 환경운동과 만났다. 성효숙님은 인천 연안환경미술행동의 의의와 전망을 짚어주었다. 시지은님은 도시 풍물이 어떻게 미래의 전통이 될 것인가를 살폈으며 변진섭님은 인천의 마을 신앙이던 동막 도당굿의 내력을 소개하였고 이성호님은 한국민예총 풍물굿위원회의 창립에 즈음한 풍물굿한마당을 돌아보았다. 최금예님은 ‘네이처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들려주고 있으며 2020년 ‘전태일 50주기 콘서트’와 ‘2021 인천 민중가요페스티벌’을 연출하면서 30년 경력자로 드디어 신진연출가로 예술인 등록을 마친 이은진님은 자득한 연출론을 들려주었다.

활동가 노트 섹션은 43호에 시도하였으나 44호에는 이어가지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사회적협동조합 모씨네 및 인천독립영화협회의 젊은 예술가들과 현재 각자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하였다. 스스로 행복하기, 함께 하기, 함께 행복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들을 수 있다. 삶과 생각 섹션에서는 북의 미술인과 작품을 소개한 〈조선화의 거장전〉 총감독 이소영님의 소회를 들을 수 있고 이란희 감독의 영화 〈휴가〉를 송아름님이 살펴주었다. 젊은 영화감독 김영주님은 인천영상위원회의 디아스포라영화제에서 라운드테이블로 다룬 〈공항 난민〉을 검토해 주었고 인천독립영화협회 회원 일동은 인천독립영화의 제작 지원 방식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제안하고 있다. 오석균 시인은 영화 〈미안해요, 리키〉를 화제로 택배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 살펴보고 영화감독 손다혜님은 ‘백년가게’를 중심으로 ‘백년을 지속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가치인가를 살피고 있다.

목차를 앞에 두고 필자와 글을 다시 음미하니 당연하지만 젊은이의 목소리와 기성세대의 관심이 그물처럼 엮여있다. 여기에서 어떻게 솟아날 구멍을 열어 저마다 그러나 함께 나아갈 것인가? 인천문화현장 45호에 함께해 주신 모든 필자에게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어려운 질문을 함께 풀어가 주시길 다시금 부탁드립니다.(윤진현)

특집

2021 인천문화예술아카데미 이슈포럼
인천, 문화도시를 말하다



2021 인천문화예술아카데미 이슈포럼
인천, 문화도시를 말하다.



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에 문화도시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읽어내는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를 통해서 지역에서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도시가 갖는
문화예술계의 의미

문화도시가 문화예술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현재 전국에 지역 문화재단이 100개가 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문화원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다 있었지만 이제는 문화원의 역할을 넘어서서 재단들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문화 정책과 사업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재단들이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주체가 되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모든 사업이 문화도시 준비에 통합되어 버리기도 하고 예술계에서 오히려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좀 의미 있게 다시 한 번 되짚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를 좀 짚어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활동들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전통적인 문화예술계의 확장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를 준비한 도시들의 변화를 읽어보면 세 가지 영역이 보입니다.

첫 번째 행정과 공공 영역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과 공공 영역에서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도시의 중심적 역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개념이나 부처적 개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중심에 설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행정협의체부터 시작해서 공공협의체까지 만들어지면서 문화를 중심으로 도시를 바라보게 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공공 영역의 변화들이 문화예술계에 굉장히 의미 있게 작동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문화 생태계의 등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새로운 문화 생태계가 등장하면서 기존에 권력적 구조 내지는 계층적 구조인 장르적 구조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확장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문화 자치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생태계는 기존의 질서와 또 다른 질서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 생태계가 문화자치, 문화분권의 경로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를 뒤집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도시전략으로서의 문화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전략으로 문화가 등장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를 중심으로 도시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도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 위상에 맞는 문화 전략들을 짜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 전략과 도시전략으로서의 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내는 방안으로 문화도시가 꽤 많은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래서 문화도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문화도시의 평가 틀에 대한 얘기를 전제로 합니다. 여태까지 어떤 사업도 이런 정도의 평가 지표를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평가 지표 중 거버넌스의 비중이 40%입니다. 그리고 자율 관리 구조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조로 25%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과 점수가 30%입니다. 스스로 자기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30%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공통성과는 5%밖에 안 됩니다.

이런 평가지표는 자율 관리하는 구조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기반들

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제도와 행정법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구조에 대한 방식들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버넌스는 아까 새로운 문화 생태계의 등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공공과 행정, 시민, 문화예술계가 다 등장해서 어떻게 도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시의 가치를 증폭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게 됩니다. 거버넌스 체제에 평가 지표를 40%까지 높인 문화도시 사업의 구조를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지역에서 어떤 가능성들을 볼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이 거버넌스 중심의 문화 도시전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아마 오늘 이 포럼도 그런 거버넌스 과정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생태계 안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업 구조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 내 모든 영역이 등장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와 담론장이 선행되는 것들이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모든 도시들의 첫 번째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부터 100인 라운드 테이블이 유행했는데, 이제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라운드 테이블이 운영되기 시작하고 각 영역별, 주체별 라운드 테이블들이 만들어지면서 담론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과 사업이 중심에 있다 보니 시민사회 담론 구조가 완전히 실종되면서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도 마찬가지로 담론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다시 악순환으로 정책과 행정이 주도하는 구조가 강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담론장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정말로 중요하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과 사업으로 실천되면서 다시 담론장을 확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꽤 많은 정책과 사업에서 진행한다고 했지만 사실 정말 존중하고 있는가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예술계의 경우 본질

적 가치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업의 구조에 대한 이해나 접근법들로만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기서 다시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질문해야 합니다. 기본은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화예술계에서는 ‘예술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굳이 우리가 증명해야 돼?’라고 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진흥원에서 문화도시를 처음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인건비 포함 관리 예산은 1억 밖에 안 댔습니다. 문화부가 문화도시에 대한 정확한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니다. 기재부 설득 논리가 없다는 얘기를 굉장히 쉽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기재부 들어갈 때 저희 직원들하고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문화도시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필요나 요구가 정책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로 화제를 뽑아봤더니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5년 이후까지 쪽 따져보니까 5,300개의 일자리가 나오더라고요. 직접 일자리와 파생 일자리와 유발 일자리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기재부로 보냈습니다. 기재부 담당 과장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었고, 근데 어떻게 1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하냐고, 그러면서 예산 필요한 만큼 올리라고 하니까 문화부가 관리 예산을 10억으로 올리더라고요. 결국은 계속 스스로가 이것에 대한 증명 작업을 해내기 시작할 때, 문화예술의 가치나 의미를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업의 본질을 해치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도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 효과에 대한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틀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작년까지 25개 문화도시를 선정하겠다고 공언했었는데 문화도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효과들을 증명하기 시작하니까 정부에서도 문화도시의 숫자를 늘리겠다는 기본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문화도시와 문화지구 사업이 있는데 문화지구 사업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마을까지도 고민하는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문화도시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문화부와 같이 버

전2에 대한 연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여태까지 진행했던 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가치들을 통해서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작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정 문화도시 선정에 삼수까지 했다가 더 이상 도전할 수 없는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문화도시 준비조직을 해체해 버리면서 준비했던 과정들 자체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 지역에 대한 지지와 용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정책의 방향이어야 되는 데 선정에 대한 목적만 갖고 가니까 현장이 불편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치들이나 의미들을 지역화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가치를 정치가 바라봐서 응원하기 시작하면 정책이 되고 정책은 결국 사업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런 다양한 계층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가치를 사회적 가치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죠.

그래서 본질을 해치지 않는 방향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또 이것들 안에서 국가 아젠다와 연결시키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인구 소멸 지역 정책도 그렇고, 저출산 고령화 정책, 기후 위기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이 결국은 문화도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과 연결되면 문화의 사회적 역할이 충분히 공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었던 연대와 협력의 틀에서 장르와 영역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연대와 협력이라는 구조는 그냥 텍스트로만 존재하지 현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모두 다 경쟁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처럼 연대와 협력의 경험들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중앙 정부에서 갖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구조를 그 안에다

가 줄 세우기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의 과정들로 사업이 재편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틀에서 버티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모든 사업의 구조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고 이것은 지역에 있는 행정이나 공공기관들도 이런 방식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정책 사업에 와서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지역이 충분히 성장하고 연대하며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가의 틀을 넘어서 문화도시를 통한 지역사회의 효과를 국가 정책과 아젠다와 연결할 수 있는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생태계의 등장

문화도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 생태계의 등장입니다. 그동안 꽤 많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사업이 15년 넘어가고 있고 6천 명 정도의 활동가에 예산이 1,2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이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예산과 활동가, 예술 강사들이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보면 정보를 갖고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서 독점되는 구조 그리고 영역을 넘어서지 못하고 장르적 개념 안에서 머물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경험으로 전환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문화 예술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활동이 사회적 용원과 지지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면 문화적 경험의 그룹들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고 단순히 참여자가 아니라 주체로 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문화적 경험에 대한 얘기들은 단순한 예술적 경험을 넘어서 삶이 문화적으로 전환돼 가는 과정에 대한 경험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문화도시를 통해서 꽤 많은 경험을 하는 새로운 그룹들이 등장했고 그들이 주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예산이 문화자치 예산으로 전환돼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도 시도 생겼습니다. 이제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자기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문화예술 활동에 욕구가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을 문화 시설이라고 본다면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장소가 동사무소이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들도 거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활동들이 정책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 시작할 때 문화예술을 경험하는 그룹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 이것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룹들 또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문화예술 교육의 기본적 원리가 상호작용, 상호학습이라고 했을 때 지역 스스로에서 굉장히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나 가치들을 다룰 수 있는 상호작용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개별적 관리 구조에 의한 개별적 사업 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단체 또는 협의회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을 응원했을 때 그게 새로운 문화 생태계가 되고 새로운 문화예술계가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별화되고 파편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는데 그런 고민들을 다시 현장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룹핑이 돼서 계속 심도 깊게 질적 변화라든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문화예술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전략적, 정책적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진주시에서는 공공에서 했던 사업, 행정에서 했던 사업들을 다 연결시키는 가치 플랫폼을 만드는 것으로 문화도시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했던 사업들을 연결시키기 시작하니 내 사업 구조 안에 들어왔던 사람만 알다가 도시 전체를 알게 되는 과정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연결되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도시를 위해서 결합해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고 있는 행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공공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화도시를 통해서 일이 시너지가 날 수 있거나 뭔가 또 다른 새로운 담론과 가치 담론의 구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분야 외의 타 영역 정책과 사업 당사자들이 문화적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 사업도 보면 마지막에는 문화 쪽이랑 다 결합됩니다. 농림부든 해수부든, 중구청이든, 하다못해 사회, 경제 영역도 마지막에는 문화 쪽과 결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가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존의 영역 안에서만 있다 보니까 확장성이나 사회적 가치를 갖고 못 만났던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모든 영역과 만나려고 하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사업 안에 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문화 자체의 토대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경로에서 문화 생태계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자치분권을 이야기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문화부에는 문화자치, 문화분권에 대한 의지가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문화부에서 문화분권 문화자치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문화예술교육 예산이 지역거점센터로 다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넘어갑니다. 모든 지역이 거점센터로 받아 놓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것인지, 여기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몇 백 개의 사업들이 계속 지역으로 이양되고 있는데 예산은 넘어갔지만 정책이 같이 넘어가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 문화 생태계가 구축되게 되면 경로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경로 안에서 그 사업의 본질적 가치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현장에서부터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지 않으면 사실 어떤 사업이 넘어가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정말 그거 넘어갔어? 그렇게 많은 것이 넘어갔어?’ 하며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데 딱 예산만 넘어가니까 문제가 됩니다. 사업에 대해 지역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논의 테이블을 만들고 계속 방향성을 정리하고 이 구조에서 아카이빙과 시범 사업부터 이것에 대한 구조를 전문가 그룹이 설계해 주어야 합니다. 분권이 되어 모든 사업이 넘어갔을 때 최소한 이런 경로들까지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역에서 이 사업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문화적 방식이 아니라 그냥 건설적 개념, 산업적 개념으로 이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화가 갖고 있는 가치나 의미들을 제대로 살리려고 하면 문화자치 문화분권을 다룰 수 있는 틀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그런 구조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 작동 원리로서의 문화

문화도시 기본전략에서 문화예술진흥은 기본이고, 다음 단계는 도시 전략 중심체로 문화가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 가능성을 많은 문화도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문제와 갈등을 다루는 문화예술의 활동을 볼 수 있는데 문화도시를 다루기 전부터 사실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도시의 문제와 갈등을 다루고 효과성을 증명하거나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문화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치유부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도구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양산하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얘기들을 놓치지 않고 문화예술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문제와 갈등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의 가치를 증폭하는 역할자로서의 문화예술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을 저는 보는데 대부분 도시에서는 도시의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문화도시에서 보면 우리가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들만 있는데 그러면 문제없는 도시가 되는 것 말고는 없잖아요.

사실은 도시가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증폭하거나 문화적 구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중심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하면 프로그램과 콘텐츠로만 접근해서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도시의 가치를 증폭하는 역할체로서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담론부터 시작해서 그것들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것들을 했던 것은 그전에 문화예술에서 했던 방식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문화도시에서 사회적 활동의 방식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저런 데이터 추출 방식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모든 세계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미래 전략일 텐데, 미래 전략에 대한 얘기가 많지 않습니다. 기후 위기, 인구 구조 변화, 기후 위기는 사실은 산업적 구조부터 시작해서 삶의 구조까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 얘기할 때 이것은 태도를 만들어가는 방식일 겁니다. 사람들의 태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어떻게 미래적 대응 전략을 만들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 구조 변화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소멸 도시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인구 소멸 도시도 있지만 도시 집중화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별 거주 형태들까지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 구조 변화는 지역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어제 갔던 서울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2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도시인데 평상시 낮에는 30만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도시보다 젊은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것처럼 도시의 인구 구조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 맞는 사업의 방식들이 정해질 텐데, 똑같은 기준으로 접근합니다. 중앙 부처 사업을 보면 모든 도시가 똑같은 기준을 두고 똑같이 경쟁하게 만드는 방식이 많습니다. 모든 도시가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방향에서 접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기준을 두고 똑같은 평가
틀을 적용하니까 정말 자원이 없거나 사람이 없는 도시에서는 아예 생
각조차 안 합니다. 중앙이 됐든 지역이 됐든 그런 정책적 경로의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럴 때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충분히 담
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도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게 분석되지 않으면 계속 평균적으로 획일화되
어 있는 사업들만 가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주민 체감도가 굉장히 떨
어지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은 도시의 삶과 일상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
예술의 역할일 겁니다. 정책은 사업의 구조를 통해서 하지만 문화예술
영역에서 이런 지향성을 갖고 있을 때 사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역
할로 받아들이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꽤 많은 도시에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
데 마지막에는 다 문화와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지금
전라도에 있지만 꽤 많은 곳에서 그런 접근법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 마을 공동체에서는 지금 몇 년 전에 마을 문화라고 하는 꼭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학교에
서도 공동체 관련된 사회적 경제 쪽에서도 문화와 결합하려고 하는 의
지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을 가장 편하고 쉽게 만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기저로서의 문화예술이 평
장히 중요했었다는 것을 다른 영역에서 이미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의 영역
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같은 얘기지만 주체의 발굴과 통합적 담론장을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은 ‘우리
는 충분히 홍보했어.’라는 핑계 뒤로 많이 숨어왔던 건 사실입니다. 우
리의 목적에 의해서 그들이 발굴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욕구와 희망에
따라서 그들이 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

업을 하는데 ‘와줘서 고마워요,’ ‘우리 사업 참여해 줘서 고마워요.’ 굉장
히 좋은 걸 만들어 주면서도 참여해 준 것만으로 고맙게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정말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 만들어 놓고 ‘충분히
홍보했는데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바뀌면 우리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지역 문화 생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정말 힘든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의 일상과 삶으로 다가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
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담론장이 정말 잘 만들어져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한 달 전쯤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도시에서 들은 이야기
입니다. “지역에 가면 이장협의회에서 뭘 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동네 이장은 왜 한 명밖에 없습니까? 그 이장님이 동네 청소년들 애
기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청소년 이장제, 청년 이장제, 여성 이
장제, 이런 것을 같이 만들면 안 됩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들 얘기
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됩니다. 행정적 구조가 아니라 우리의 일
상적 구조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이 행정의 구조에 의해서만 우리
의 틀을 만들어 왔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틀을 만들어 왔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주체를 발굴하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
하고 분석을 통한 문화도시 진단법을 가져야 되는데 문화도시를 쪽 현
장 실사를 다녀보거나 점검을 해보면 일반적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 도
시 현황에 대한 문화적 도시 진단들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행정적 구조에서의 진단법 말고 문화도시를 하기 위해
서 누가 여기서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자원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들이
미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지역의 가치와 문제를 같이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꼭 만들어가는 것들이 도시별로 필요합니다. 도시의 문

기회로서의 문화도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제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아니까 도시의 가치와 문제를 진단하는 문화도시 진단법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기본법에서는 삶의 총체적 양식을 문화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의 모든 영역이 문화로 해석되는 과정들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게 도시를 변화시켜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도시들은 예술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의 총체적 양식들을 모두 다루는 것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확장성과 지역사회 공감력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럼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역 문화 생태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역의 문화 생태계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화 과정입니다. 지역의 문화 가치와 도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대와 협력의 문화자치 방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존 문화 예술 영역과 타 영역의 협력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창길 감사합니다. 급하게 발제를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여러 다양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발제 중에서 진짜 딱 느껴진 것이 우리는 한 번도 도시 전략으로서의 문화를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문화도시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우리가 도시 전략으로서 문화를 고민하게 됐다는 부분이 크게 와 닿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를 평

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지표가 거버넌스라는 점, 그래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예술계에서 연대와 협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갈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들은 사실 우리가 사회운동의 영역에서만 얘기했지요. 문화예술을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냐의 관점으로 접근했으면 합니다. 이번 포럼에 연수구, 서구 문화도시 담당자를 모시면서도 사실 문화도시 선정하는 데 어찌 보면 경쟁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연대와 협력의 얘기를 더 나눠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장르 영역의 틀을 어떻게 깰 것이고 이를 넘어서 기존 행정의 틀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틀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 안 해봤던 것 같고, 이제 단순히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아닌 가치의 플랫폼을 형성하자는 얘기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포럼에 많은 고민점을 들려주셨습니다. 들려주신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연수구와 서구의 문화도시 관련 담당자 분들을 모시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2부

김창길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2부 순서는 첫 번째 발제해 주신 김영현 전 지역문화진흥원 원장님과 서구문화재단에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거버넌스 팀장을 맡고 계신 안주용 선생님 그리고 연수구문화재단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임고은 선생님과 함께 1부에서 김영현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여러 가지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사업 팀장 이미숙 팀장님도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무척 아쉽습니다.

얘기 나누기 전에 연수구와 서구에서 예비문화도시를 진행하고 계신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임고은 안녕하세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입니다. 연수구는 ‘문화로 잇고 채우는 동행 도시 연수’라는 슬로건으로 문화도시 법정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예비문화도시로 지정이 되었고요. 올해 1년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서 본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연수구는 아시다시피 송도 신도시와 연수구 원도심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도시 자체가 3분의 2 이상이 매립으로 개발된 새로운 땅에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개발과 생태, 자연 이런 것들과의 동행 그리고 원도심과 신도시의 동행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개인과 공동체의 동행을 주제로 문화도시 사업을 다양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주용 네. 안녕하세요? 서구문화도시지원센터 안주용입니다. 서구도 연수구와 마찬가지로 작년 말에 예비문화도시가 됐습니다. 서구 도시의 비전은 ‘함께 만드는 긍정의 힘 회복 탄력 도시 인천 서구’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시민 원형이라는 시민성에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비전을 내세웠는데요. 일단 기본 방향은 사람이 치유되고 공동체 연대를 통해서 도시가 치유되고 정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앞서 김영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버넌스, 도시의 모든 영역의 협치와 연결해서 어떤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내실 있게 가져가고 도시에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어서 도시와 함께 성장하고 국가의 어떤 도움으로 전체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비전의 변화는 저희가 또 상반기에 예비 문화도시가 되고 나서 이제 꾸준히 지역 주민들과 같이 라운드 테이블과 비대면 모임 등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직

관적인 시민이 만들어 나가는 문화도시 계획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개념의 변화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올해 저희가 회복 탄력이라는 중요한 비전으로 사람 그리고 공동체와 이 도시로 대변되는 어떤 개인의 치유와 연결 그리고 정주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은 간척지 매립이 많은 도시잖아요. 그러한 도시가 이제 성장하고 만들어진 배경에는 국가 도시 산업개발이나 어떤 개발의 논리에 이어서 도시의 서사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서구만이 가진 또 다른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얘기 나누면서 어떤 게 있을지 또 서로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이미 부평구는 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향후에 연수구와 서구 그리고 인천의 다른 도시들과 함께 또 연대해서 인천광역시가 시민들이 살기 좋고 또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꿈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길 갑작스러운 부탁이었는데도 각 구의 예비문화도시 상황을 간명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발제 마지막에 김영현 선생님이 이 논의해야 할 주제들을 세 가지 제안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를 부연 설명해 주시면서 토론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현 사실은 문화 생태계를 먼저 좀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화도시 사업이 국가 균형위원회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예산을 문화부에서 안 잡아줍니다. 문화도시 사업이 국가에서는 국가 균형위 사업이긴 하지만 지역으로 내려오면 지역 균형에 대한 관점들은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도 신도시와 원도심에 대해 얘기했고 서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 내의 균형감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역별 또 다른 생태계와 역할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냥 이 사업의 구조를 보면 생태계를 구성할 때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등장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생태계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 생태계는 기존의 문화예술 활동가 중심의 생태계를 넘어서는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아마 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시민사회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법들, 거버넌스 팀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구조에서 그들이 일상적으로 해왔던 사회적 역할들을 넘어서는 문화적 접근법을 통해서 그들도 직접 변화하고 도시도 질적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생태계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지역에 내려가면 무슨 일을 하든지 협력하자고 하면 이장단부터 등장합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좀 더 폭넓은 영역에서 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어떤 정치적 상황이나 행정적 상황과 상관없이 만드는 방식들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접근법들이 많지 않아서 생태계를 구성할 때 어떤 관점으로 누가 등장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도시 비전부터 시작해서 이 사업의 방향을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나면 누가 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비전이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 그룹에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등장했고 시민의 언어로 이것들이 만들어져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그건 결국은 지역 문화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길 실제로 예비 문화도시를 진행하시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하셨을 부분일 것 같습니다. 새로운 주체를 얘기하는 것은 거버넌

스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주용 서구의 거버넌스 전체를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구는 일단 각 영역에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지원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존에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들과 이음의 자리를 만들어 목소리를 들으면서 도시 전체 균형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태적 어떤 환경 속에서 시민의 삶이 결핍을 겪는 경우 문화는 우리가 즐기고 향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인지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시재생을 이끌어 도시문제를 문화로 예술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도시 개발의 논리에서 진행되어 왔던 그래서 환경이 노후화되고 낙후된 환경에서 어떤 문화를 통해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도시 문화로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논의를 통해 2019년에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서 발굴된 시민분들과 예술가들이 레지던시를 구성해서 코스모40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관련된 시민들과 문화도시 사업에서 연결된 행정인력과 기획인력들 그리고 예술인들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시니어 예술가들 발굴하고 원도심 지역에 그들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청년 기획자들이 같이 문화를 창업과 연결하여 원도심의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문화예술 교육 사회 문화예술 교육을 더 확장해서 올해 찾아가는 예술학교를 통해 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협의회, 서부교육지원청과 문화도시지원센터 그리고 서구문화

재단이 같이 연계 협력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문화 예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교육을 넘어서 시민 교육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교육을 이끌어줄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통해 5년 10년 이후에 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서구의 기업들로 인해 생기는 환경 문제와 삶의 질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자산들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새롭게 전환적인 긍정의 미래로 바꿔보자는 데 있어서 기업을 갈등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기업을 이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버넌스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관산상생협의체와 실패 극복의 자산화 추진단을 새로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업과 시민이 같이 연계하는 회복 탄력 오아시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아카데미라는 인문적 분야와 문화 예술가를 결합하여 학교 같이 얘기하고 담론의 장을 구성할 수 있는 사업도 만들었습니다.

임고은 앞선 발제에서 김영현 선생님께서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 공모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연수구문화재단에서도 문화도시 연계 사업으로 작년부터 지역 문화 생태계 구축 통합공모 사업을 송도 2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단위 생활권에 초점을 두고 실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그리고 인적 자원 자체를 동 단위에서 문화의 생태계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가 아파트 거주율이 84% 정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파트 도시형 문화 자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는 2개년 사업으로 올해까지 마무리가 되는데 함께했던 주민자치회와 주민분들께서 참여예산제로 내년 사

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수구문화재단에서는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나머지 소프트웨어와 인적 자원은 문화이모작 사업을 통해서 양성한 주민 기획자들과 예술가들이 같이 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동단위에서 문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지만 각 동별, 마을별, 아파트 단지별로 특성이 달라서 각 권역별 또는 동별로 확대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누가 발굴되었느냐를 본다면 주부들 또는 실버 세대들이 문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가족 그리고 재주와 재능이 있지만 집에 계셨던 분들 내지는 시간이 없으셨던 분들까지 꼭 연계가 돼서 아주 거미줄 같은 연계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1, 2년 안에 혹은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5년 내에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과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작하는 출발점. 희망은 2년간 공모 사업을 하면서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확장하고 도시 전체로 가져가는 것을 문화도시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확실히 서구와 연수구만의 특징을 가지고서 생태계를 새로 꾸리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서구에는 환경에 예민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무척 와 닿습니다. 연수구는 진짜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도시형 문화자치 이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그것이 드러날까, 또 연수구는 약간 구도심에 아파트 중심으로 마을 자치 활동들이 많이 활발한 곳인데 그것들이 어떻게 확장될지도 기대됩니다.

김영현 사업을 하면 개별적 사업으로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많이 늘어났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과 연결하는 고민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기

업들이 많은 곳에서는 전략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여가친화기업 인증제가 있습니다. 최소한 도시에 있는 기업들은 전부 다 여가친화기업으로 만들겠다고하면 일터와 삶터가 문화적 관계망으로 바뀌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 목적을 정확히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수에 있는 모든 기업은 일터도 삶터도 문화적 관계망들 안에 들어와 있다고 얘기할 때 그것은 도시비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넘어서 이것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것들이 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도시들을 보면 사업이 많이 나열돼 있는데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야만 설득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정책적 목적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과 계속 연결시켜서 지속 가능성이란든지 영역의 확장성들이 도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가 친화 기업도 있고 전략적으로 따져보면 지역문화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직장 문화배달 사업이 있는데 단계별로 적용해서 가겠다, 이렇게 해야 어쨌든 현상에서부터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문화들을 통해서 이런 도시가 될 거야라는 그림이 보이는데 그냥 단일 사업만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계 구조 안에서도 일터와 삶터가 문화 생태계 구조 안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담는 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그냥 단일 사업 쪼개놓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이후에 어떤 의미로 보일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수구 같은 경우에 생태계 확장 전략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현장은 어떤 과 사업인지 상관없는데 행정의 구조 안에서는 자꾸 재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

는 것인데 이런 시도를 통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 가지고 확장하겠다는 전략이 문화도시전략에서 생태계 구축과 거버넌스 체계에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만 더 담으면 섬처럼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도시전략들로부터 가는 것들은 중요한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의 균형감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작년에 문화 안전망 구축 기본 1차 연구가 끝났는데 문화 안전망이라는 게 공식 정책 용어가 되기 시작한 건데 문화 안전망은 문화권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 정도의 문화적 경험을 누릴 수 있게끔 하겠다는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문화권으로 세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얘기한 권리 권자 문화권입니다.

두 번째는 권역 권자를 쓰는 지역문화권, 지역문화 생태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역 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서 문화 자치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지역 문화 정체성이 다 실종되고 있는 시대인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 지역의 문화 정체성과 관계망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역을 고려하며 문화권을 다뤄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문화자치 문화분권의 경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자를 또 하나 쓰는 거는 권자 중에 돌아볼 권자 돌볼 권자라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사회적 돌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치 포용 혁신에서 혁신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거고 아까 사회적 가치와 연결시키는 작업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생태계의 영역과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길 생태계 부분에 전략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더 확장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생태계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순환돼야 되는데 문화도시를 고민하면서도 제일 많이 걱정되는 것은 아까 임고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짧은 시간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도시 5년이라는 기간에 예산을 막 쏟아 부은 다음에 지원이 사라지면 그 생태계가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김영현 이 사업 공식 명칭이 ‘문화도시 조성 계획 공모’입니다. 도시사업 공모가 아니라 계획 공모예요. 그래서 이전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문화도시 사업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아니라 문화도시 조성 계획 공모가 공식 이 사업의 명칭인데 조성 계획을 누가 등장해서 누구의 언어로 어떻게 쓰였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조성을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 안에서의 이야기들이 도시의 비전을 만들고 계획에 담겼고 이 계획이 예비도시단계에서는 작년에 나왔던 계획들을 실험해 봤더니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사업을 변화시켜내는 작업들이 예비도시 사업입니다.

실제 그래서 1차는 계획을 했고 2차까지도 예비도시 조성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겠다는 것들을 해봤더니 좀 뭔가 다른 경로가 생겼고 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새로운 주체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 변화를 보여주는 것들이 예비도시 사업 기간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으니까 끝까지 이걸로 해야 돼.’가 아니라 ‘예비 도시 사업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갖고 왔다.’라는 얘기들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처음 계획과 바뀌었을 때의 계획들이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진짜 등장하는 것은 이 생태계가 정말 등장하고 있는가는 얘기

고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정책 사업이 끝났지만 이걸 지속 가능성의 구조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보면 생태계가 작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단위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 생태계로 계속 가게 되면 5년 동안 하고 끝나겠다고 아니라 어떤 도시는 향후 20년까지 계획을 담은 곳도 있습니다. 예비 도시에서는 적어도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 방안들까지 꼭 정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200억 가지고 뭘 하겠다고 아니라 훨씬 더 중장기적 계획들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가, 정말 이게 지역의 사회 작동 원리로서 들어오고 있고 생태계가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김창길 그렇군요. 문화도시 조성 계획 공모였군요. 저도 문화도시로 지정돼서 예산 지원해 주면 그 사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 생태계가 더 중요하겠습시다. 보통 공모사업하면 하는 사업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얘기해 주셔서 잘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서구에서 얘기한 기업과 상생하는 프로그램이 생태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어떻게 이후에 계속 지속해서 자연스럽게 순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한 얘기를 좀 더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주용 지난 과거에 했던 과정과 지금 현재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려나갈 것인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업에서는 주민들과의 갈등에서 주민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후원의 형태로 주민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불러 공연을 보여준다거나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식사대접을 하는 정도에 그쳤었습니다. 올해 서구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은 시민과 기업이 함께 논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업의 직원들과 시민들이 같이 어울려서 지역에

서 원하거나 또는 지역의 현안을 담고 있는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석남동에서 추진한 축제의 주요 참여 대상이 다문화 가정이었는데 기존에는 그냥 단순한 후원에 그쳤다면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주민과 기업이 서로 협의해서 함께 만드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기존의 단순 후원 형태에서 시민과 같이 논의해서 시민과 기업이 또 다른 시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 3섹터 영역으로 민간 상생센터 같은 민간 재단을 만들어보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향후에는 시민과 기업은 갈등 구조이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기업은 무조건 들어줘야 된다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벌어진 갈등을 인정하되 그것을 최소화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논의하는 테이블을 통해 담론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논의하는 과정을 만드는 것이 서구의 정책적 목표입니다.

김영현 그렇게 되면 그냥 조금씩 접근하고 변화를 시키는 방법일 텐데 정말 잘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하고 지역기업협회가 만나서 서구에서는 지역에 있는 일터를 즐거운 일터, 문화적 일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고 여가 채널 기업에 인증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서구 안에서 일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삶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민원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관계망이 형성되면서 사람들의 태도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고 태도의 변화들을 통해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 경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이런 큰 그림 속에서 단계별로 접근한다면 저것이 가능하겠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씩 사업이나 성과가 어떻게

하게 되면 그냥 사업의 구조로만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전략적 구조라는 것이 크게 자리 잡기 시작하면 선언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적어도 문화도시에 있는 기업들은 사람들도 지지하고 응원하고 일하는 사람도 즐겁고 지역 주민들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선언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 전략적 접근을 통해서 이것들을 풀어가겠다는 것이 되면 그런 움직임도 새로운 생태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짤 때도 그렇게 큰 틀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서구에 있는 기업들도 전부 문화기업으로 다 바뀔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끔 하는 것이 문화도시의 도시전략입니다.

김창길 연수구에서는 도시형 문화 자치에서 문화이모작을 통해 기획자를 만들고 예술인이 같이 결합하면서 뭔가 만들어가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권역별로 좀 더 확대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태계 쪽으로 어떻게 더 지속가능할지 좀 더 얘기해 주십시오.

임고은 연수구는 법정동으로 치면 6개 동이 있습니다. 연수구는 굉장히 다양한 이주민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연수구 동쪽에 있는 함박마을은 1만 2천 명의 주민 중에 7천 명이 고려인을 비롯한 이주민들이고, 또 옛날 송도유원지(자동차 매매단지)를 중심으로는 중남미, 아프리카의 자동차 바이어들과 가족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는 국제도시니까 글로벌 기업의 종사자와 국제기구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송도 자체가 이주민들의 도시입니다. 매립이 되어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지역 문화 생태계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주체들을 찾아가고 하나하나 발굴하는 사업을 올해 가장 공들여 했습니다. 연수가 근현대 문화자원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수인선 역사 중에 유일하

게 남아 있는 송도 역사가 있고 송도유원지를 비롯해서 옥련동 일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갯벌에서 조개 캐던 어촌계 등 미래에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옥련동 또는 함박마을이 있는 연수동을 중심으로 지역문화 생태계 사업을 꾸려가고 그 후에 생활과 교육환경, 생활환경이 안정적이고 왕성한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주민이 있는 동춘동 등 각각의 생활권에 특성을 살린 생태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문화도시 전체와 연계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주민들과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김창길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그걸 의미화해서 계속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김영현 선생님이 먼저 풀어주시죠.

김영현 서구도 그렇고 연수구도 그렇고 문화다양성의 도시네요. 문화다양성위원회가 국가위원회였다가 재작년에 문화부 산하 위원회로 격하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문화 다양성을 주장하고 필요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격하시켜 버렸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문화부가 다문화사업 하다가 여가부로 다 통합하면서 없어졌다가 문화부에 다시 등장한 문화 다양성이 역할을 하기 시작할 때 부처 간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업 예산도 계속 축소되거나 제대로 가치를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다양성이 어떤 사회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고 그냥 사업의 전형적인 평가 틀에서 다루면서 소멸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업에서 많은 예술가들이나 문화활동가들이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가치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평가 틀은 안 나오고 그나마 감동적인 사례가 있었더라도 단편적 사례집으

로만 만들어진 것이 전부입니다. 사회적 가치 데이터를 못 만들어서 계속 확장할 수 있음에도 확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술의 본질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예산 중에 문화예산이 1.3%가 안 됩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국가 전략을 짤 수 있을까, 도시전략을 짤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 예산 늘어나는 걸 보면 엄청납니다. 복지 예산을 늘리는 건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쪽에 사람 한 명 늘리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니까. 사회적 가치가 증명되고 사회적 공감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좀 뭐한 얘기지만 쟁쟁 거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미 감동적 사례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건데 가치 있는 데이터의 산출 방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앞서 기업이 갖고 있는 지역사회와의 갈등 문제를 짚어봤는데, 예를 들면 그런 가치와 문제들을 여가 친화 기업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태도나 일의 방식들을 바꿔가겠다고 얘기하면 문제를 가치로 전환하는 방식인 겁니다.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걸 넘어서서 가치로 만들어가는 경로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한계에 부딪혀 더 이상 영역의 확장성을 못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다음 세대들에게도 문화적 삶이라는 것을 그들의 일상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런 가치와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회안전망은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겠다고만 합니다. 그것을 가치로 전환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문화도시는 문제해결을 넘어서 문제도 가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김창길 서구에서는 문화도시의 기록과 평가를 하는 시민 그룹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가치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수치화해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안주용 시민 기록평가단도 예비도시 사업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는 보통의 모니터링단 같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회복 탄력의 가치를 이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을 어떻게 보완할지를 찾아내고 평가하고 환류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평가, 환류에 있어서 시민기록평가단의 노력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의 장을 만들어서 거버넌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리더 그룹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 주체그룹들이 같이 모여서 논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시민기록평가단이 기록하고 평가했던 것을 같이 되짚어보고 향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해 나갈 것인지 같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 지표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공론의 장을 중심으로 정책적 논의와 사업 논의 그리고 성과 평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에서 공공행정협의체들과 같이 모여서 심의 의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평가 지표보다는 평가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를 먼저 같이 고민해서 만들고 그걸 토대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내세울 것인지를 정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안주용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분명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설정을 할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의 언어로 정리하고 정형화된 성과 체계를 1~2년 사이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길 말씀 들으면서 궁금해졌는데, 그런 내용이나 평가 틀이 만들어지면 이후에 서구의 문화 정책에 중요한 지표로 활용하게 될까요?

안주용 그럴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분명 성과지표에 회복 탄력의 가치에 맞는 성과 지표를 만들어낼 텐데 개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서구에서 각 영역에 속해 있는 사회적인 부분, 경제, 환경, 인구 등을 포괄하려고 합니다. 서구의 문화도시 상에는 도시 회복탄력이 어떻게 서구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같이 성과지표가 만들어지면 향후에는 변화되는 정치환경에 의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 틀이 민간 사회에서 이루어져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길 공론화 과정에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드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연구구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임고은 김영현 선생님 말씀 듣고 살짝 울컥했습니다. 문화 일을 하면서 가장 피곤하고 지칠 때가 문화가 왜 필요한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현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데이터나 효과 등을 입증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또 획기적으로 해나가야만 증명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입니다.

연구구청에는 공간정보과가 있어서 빅데이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데 문화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사업을 하는 데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빅데이터 연구 조사 사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행정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 자체에 대한 성과 평가보다는 문화도시 사업이 5년간의 추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는 그것을 5년 후에 어떻게 반영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를 조사 연구하는 사업들이 따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평가 지표 자체를 주민들이 참여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적인 삶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로 재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사업 자체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내밀하게 설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커넬워크라는 스트리트몰 상권에서 상인들과 같이 축제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 상인들 매출이 평소보다 3배가 올랐습니다. 3배 매출 증가라는 데이터가 굉장히 큰 타당성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상기하면 문화도시 사업 5년 간의 효과 측정도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데이터로부터 산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길 임고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을 구만이 아니라 인천시 전체로 확장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구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확대돼서 데이터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인천의 문화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영현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도시에서 빠져 있는 게 광역단위입니다. 첫 해 대구광역시와 예비문화도시가 끝내 안 되는 바람에 다른 광역이 거의 다 포기했고 울산만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쟁이 좀 있는데, 광역단위가 문화도시로 가는 것보다는 할 역할이 있는데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구조에서 문화도시를 통해서 경로를 보게 되면 광역은 어쨌든 분권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광역 문화재단 대표들 만났을 때 분권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서 작년부터 문화분권에 대한 경로 설계를 광역에서 하자고 제안했고 그래야 기초단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통해서 분산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

다. 대구 달성구, 경북 칠곡, 경북 상주가 같이 연계하고 협력하는 문화도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런 연계와 협력 구조는 중요한데 모든 지자체를 경쟁자로 만들어 놓고 나니까 연계와 협력이 이뤄질 수가 없습니다. 이때 광역이 등장해서 이 변화들을 어떻게 지속하고 정책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냥 문화도시만을 위해서 평가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도시의 문화 전략과 정책을 바꿔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을 때 문화도시 사업이 아니라 도시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김창길 문화도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시전략이라는 말이 와 닿네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화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할 것인지 큰 전략을 세워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영역에서는 개별 사업이나 특정한 현안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지 실제로 도시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가야 한다는 도시전략의 수준까지 논의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을 고민하면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 좋고 서구와 연구구의 이런 실험들이 나중에 지역의 큰 성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밝히기 어려우신 내용도 나중에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김영현 문화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사회적 가치로, 지역적 가치로 등장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차기 구청장이나 차기 시장 선거할 때 문화 예산을 이렇게 늘리겠다는 단순한 공약만이 아니라 시 사업을 할 때 최소한 문화 예산을 반영해서 문화적 관계망이나 문화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도시전략입니다. 단순히 문화도시 200억짜리 사업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을 갖고 있는 다른 과에서도 당연히 문화

적 접근법들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 활동가들이 정말 필요해집니다. 예술가를 똑같은 예산 가지고 계속 경쟁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자꾸 확장하고 역할을 만들어주고 하면 이런 전략적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문화 생태계에서 발언하기 시작하고 구조에서 그것을 담으려고 하면 선언하면 됩니다. 정치인은 그냥 그 경로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전략과 이 가치에 대한 증명 작업을 할 때 저게 효과가 있다고 해야 먹힙니다. 굉장히 힘들겠지만 모든 예술가들한테 질문하라는 게 아니라 공공의 문화 예술 영역이 행정에 참여할 때는 그런 것들까지 자신의 몫인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길 가야할 길이 멀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된 것 같습니다. 서구와 연수구에서 계속 고민을 할 것이고 고민을 넘어서서 실험을 통해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기대해 봅니다.

연대와 협력의 문화자치 방안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연대 협력의 문화 자치 방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존 문화 예술 영역과 타 영역의 협력 방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는 문화 예산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문화예산을 설정하기 시작했어.’라고 하면 엄청난 얘기가 됩니다. 이것이 국가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문화부만 문화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하는 사업도 다 문화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이걸 공식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거의 모든 부처가 문화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그것을 제도화시키면 되는데 그냥 양념처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문화를 중심에 두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안 하면 지역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어 진행

하면 중앙정부도 따라가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늘리기 어려우니까 여기에서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있는 것들을 갖고 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역의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들이 사회를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가 예술가를 걱정하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영역이 확장될 때 예술가들의 활동의 장이 만들어집니다. 예술대학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실업자 양성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문화도시를 준비하면서 타 영역과의 연계와 협력 방안들, 그리고 예술 영역 안에서도 연계와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과 구조적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고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시간도 걸리는 일입니다. 타 영역-경제, 산업, 노동, 복지, 교육, 특히 교육 같은 경우는 문화를 도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국가 차원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차원으로 내려오면 그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이게 도구적인 도구로 쓰이는 프로그램인지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을 정도여서 각각의 영역에서 문화에 대한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아마 전략적으로 문화예산을 투입한 내역을 드러낼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직원 입장에서는 타 부서에서 그걸 싹 모아다가 문화재단으로 일을 맡길까 봐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야 아마 각 도시가 다 마찬가지로 행정협의체, 유관기관 협의회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 가능한 사업 구조를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도 도시재생 파트랑 가장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매개와 또 문화도시사업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교육과 교육부서와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연수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도시에서 가

이드라인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오랫동안 예술 단체 활동을 해오시던 분들하고 재단 지원금으로 만났을 때는 그분들이 그냥 타자인데 문화도시 사업으로 만났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이 아니었으면 시도가 어려웠을 사업들을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만나서 그분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가 되고 저희도 그런 가능성들을 발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 인천 두 번째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예술 창작 레지던시를 오픈했는데 경쟁률이 31대1이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인천에서 나고 자랐지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살던 연수구에 레지던시가 생겼다고 하니까 돌아온 연어 같은 작가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고리들도 사실은 문화도시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초에서는 가장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 정주 여건 그리고 사업이나 연계 지점을 통한 활동 여건 그리고 주민들과 만나게 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게 하는 사회적 여건 이런 세 가지 여건을 문화도시 차원에서 구조화하고 또 그게 원래 당연한 것처럼 굳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영현 예술가들의 정주 여건이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사업들을 담는 것 같은데 생태계 구조를 보면 재단이 이걸 다 통합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생태계들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진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방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 구조에 익숙해서 그러면 사업으로 받아서 해야 한다고 했을 텐데, 정말 생태계가 작동한다면 사업들을 어떤 단체들과 연결시키고 어떻게 가면 좋겠는가에 대한 문화적 관계망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공공성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생태계를 공공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변화인데 이것

이 안 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으로만 생태계를 바라보거나 여기서 활동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정말 확 바뀌어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런 생태계가 작동해서 같이 연계시키고 가장 적절한 때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거나 관계망을 만들거나 후일 재단의 역할까지는 아니라도 이 생태계가 직접 접속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계획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진짜 도시의 비전처럼 보이게 됩니다. 안 그러면 단위 사업 하나씩으로 계속 나뉘게 됩니다.

안주용 김영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구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거버넌스 팀을 만든 이유도 매개의 역할을 충실히 전담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일을 하다 보면 문화 영역은 전문분야니까 전문기관에서 문화 쪽 관련된 건 다 해야 된다고 그러면 단순히 거버넌스에서 같이 연결해서 논의를 할 때에도 소프트웨어하고 문화 분야는 문화재단이나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가 전체 도시전략을 짜서 문화 가치로 삶을 전환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한 아무리 거버넌스에서 같이 연계해서 예산 잡고 같이 진행한다고 해도 결국은 문화 분야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해야 되는 쪽의 인력이 수십 명 또는 그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같이 논의해서 예산을 잡고 추진하되 거기에 필요한 도시 전체적인 전략을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짜고 그것을 서로 잇고 또 어떤 정보나 사람들을 매개시키고 전문가와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는 그런 매개와 지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사건인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통 누군가가 움직이기에 선한 의지도 분명 베이스가 되긴 하겠지만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도적, 전략적으로 부

서 연계 협력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임을 보이는 부서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협치를 원활하게 하는 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김영현 문화도시 평가를 보면 추진 체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시전략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문화도시 사업만을 위한 문화도시위원회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든 다른 데서 사업 하는 것이든 위상이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지 도시전략으로 보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가 문화도시 관련 사업 예산들을 어떻게 심의하고 결정하고 했는가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문화도시위원회가 이후에 문화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것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역할을 확장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위원회에 대한 지향성과 방향성이, 이를 도시전략으로 쓴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다른 과 사업들도 문화 쪽에 있다고 하면 문화도시위원회에서 그런 걸 판단하는 것으로 가겠다는 경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화도시의 결국은 경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있으면 문화관 자체는 굉장히 즐거워질 겁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문화도시 위원회에 들어와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면 많은 자치 예산을 확보해서 갈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지는 거고 이 경로들을 보여주면 문화도시를 하고 나니까 도시의 전략이 확 바뀌기 시작했다고 느끼게 해야 됩니다. 사업 하나로만 1년에 몇 십억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위 사업을 꼭 내려놓고 그냥 간다고 했을 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변화라는 것을 견지하면서 기대효과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추진 체계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길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번 포럼을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구에서 문화도시 사업 하는 걸 보면 총력전입니다. ‘구의 모든 사업을 문화도시에 우선해서 배치하고 있는데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타 영역과 협력사업들이 과연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계속 듭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도 사실 5년 지나고 나면 없어질 가능성이 높고 문화재단 안에 있는 경우도 어떤 통로로서 매개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임고은 지난 주에 문화도시 현장 평가를 받을 때도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앞으로 문화도시 추진 체계인 추진위원회를 비롯해서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역할을 어디까지 잡고 있느냐?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 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고 가장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지금도 계속 고민 중입니다. 그동안 나온 의견들을 다 종합해 봐야 되는 시점이라 그렇습니다. 다만 문화도시지원센터가 사업 조직이 아니라 매개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문화도시지원센터 자체가 거버넌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용 임고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비슷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덧붙이면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는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업무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굉장히 피로도가 높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사업성과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는 것이 별도로 성과로 인정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는 대의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 도시지원센터를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허브 기관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역할을 맡는 수장도 독심 있는 리더쉽과 포용의 리더쉽을 유지해야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하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고은 문화도시 조성 계획 평가에 지속 가능성이 비중이 큼니다.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아니라 문화 정책의 방향성들을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 점에서 김영현 선생님께서 계속 생태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계들이 곳곳에 살아 있는 것은 지속 가능성의 아주 큰 기반이 될 텐데 또 놓칠 수 없는 것이 재정과 행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놓칠 수 없는 가장 밑거름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속적인 재정 확보를 연간 얼마씩은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구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길 벌써 포럼이 2시간 반을 넘어서고 있어서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마무리로 한 마디씩 해주세요.

김영현 문화도시가 올 연말 되면 얼마나 많은 현장을 좌절시킬까 우려가 많습니다. 문화도시라는 사업이 던져지고 나서 얼마나 많은 도시들이 여기에 몰입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자기 역할을 했었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고 즐거울 수 있었는데 이걸 결과로 평가하면서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무너져 내리는 방식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잘했고 못했고 비난이나 힐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응원받을 수 있는 구조는 이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 때 그 생태계가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사실은 다

시 힘을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 선정이 안 됐지만 그래도 뭔가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에 충분히 공감돼야 하고 행정에서도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도시 사업의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에 대한 의지가 생겼고 관계망들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역할이라는 것들이 넓어지기 시작했고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그 지역에 있는 문화관은 이것들을 그냥 사업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대부분 지역에 가면 이걸 사업으로 이야기하니까 색안경 끼고 보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 센터들이나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나 이 생태계 구조에서는 계속 응원하는 것들이 도시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절은 그냥 좌절인 거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얘기만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오늘 나왔던 얘기들이 잘 반영돼서 갈 수 있으면 지역 현장, 지역 주민, 그리고 기관들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십시오.

안주용 어쨌든 본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달려가고는 있지만 작년년부터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 정책이 굉장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모든 도시에 필요한 사업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계를 확장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면서 어쨌든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은 특성화에만 주목하면서 그런 특징적인 도시 문화만을 더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모든 도시에 필요한 사항들인 것입니다. 5년간 100억 200억의 예산으로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를 특화시켜서 만드는 문화도시가 아니라 각 도시를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사업인 만큼 보다 많은 도시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유익한 자리였고 김영현 선생님과 임고은 연수구 사무국장님 그리고 김창길 정책위원장님하고 자리하면서 많이 배우고 돌아갑니다. 오늘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고은 안주용 팀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보면 거의 맨 앞부분에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고 되어 있는데 되도록이면 문화도시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확대가 되어서 많은 도시들이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과정을 다들 같이 경험해보고 추진하면서 그 결과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이 아름다운 만큼 결과도 아름답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그냥 연수구민으로서 말씀드리면 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굉장히 반가운 기회였습니다. 주민과 이웃을 만나고 또 그동안 못해왔던 얘기들을 하면서 아이디어들을 같이 나누고 이런 아주 작고 사소한 경험들이 제가 연수구민으로서 개인적으로 느끼는 아주 특별한 감정이고 보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마찬가지로 많은 도시에서도 아주 보편적이고 당연한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영현 원장님께 거의 쪽집게 과외를 받은 것 같아서 무척 감사합니다. 연수구가 더 고민해야 될 지점들에 여러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도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길 지역문화진흥법에 보면 지자체장은 5개년 문화계획을 세우게

돼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문화도시가 아니어도 모든 지자체들이 지역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화도시 관련해서 서구와 연수구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이후에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같이 와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인천민예총 이슈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이슈

지금, 이 순간 '동물'을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김정현·김산·김학중·조은영·이기현·주향수·문종필



지금, 이 순간 ‘동물’을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

때 :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1시 곳 : 복합문화공간 해시

- 김정현** 2018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평론 부분에서 황인찬 시인에 대한 「너는 이제 ‘미지’의 즐거움일 것이다」란 글로 등단했다. 현재 인천에서 발행되는 《학산문학》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중이다. 공저로 『한국 근대시의 사상』이 있다.
- 김 산** 거북이, 자전거, 걷는 것, 자는 것을 좋아한다. 세 번째 시집을 정리하면서 봤는데 온통 ‘슬픔’에 관한 기록들이다. 그런 내가 참 미쁘고 대견하다.
- 김학중**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2009년 『문학사상』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시집으로 『창세』, 청소년 시집으로 『포기를 모르는 잠수함』이 있으며 제18회 박인환문학상을 수상하였다.
- 조은영** 2020년 가을 《시인수첩》으로 등단했다. 글 쓰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강의를 만드는데도 시 쓰는 일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시고르자브종 채널을 매일 구독하고 아직까지 우표 수집을 하고 있다. 시를 쓰고 나면 혼자 낭송한 녹음 파일을 밤새 듣는다.
- 이기현** 시를 쓰고 있고 인천에서 고양이 하루와 함께 살고 있다.
- 주향수** 강진에서 태어났다. 2021년 봄 《시로 여는 세상》으로 등단했다. 사람과 생활, 사물에 대한 시를 계속 쓸 것이다.
- 문종필** 본지 편집위원. 2017년 계간 《시작》에 「지독한 괴물과의 싸움」을 2021년 《지금, 만화》 13호에 「그래픽 노블의 역습—문학과 영화를 넘어 당당히 지금, 이곳에」를 발표하면서 문학과 만화 평론을 시작했다.



2021년 10월 9일 토요일 1시 인천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해시’에서 7명의 문인들이 ‘지금, 이 순간 동물을 생각한다는 것에 대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좌담은 1부 동물과의 만남, 2부 반려문화와 자본, 중성화 수술, 안락사, 3부 동물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1부는 12월 3일 웹진 〈뉴스페이퍼〉에 수록하였다. “뉴스페이퍼”에서 동물권을 검색하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¹⁾ 본지에 생략된 1부 내용은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기현 시인은 집 주변 카페를 돌아다니며 시를 쓴다. 길을 가다 우연히 고양이 ‘하루’를 만나게 되어 함께 산다. 김산 시인은 최근 자전거에 빠져 어디든 자전거로 돌아다닌다. 현재 육지 거북이를 키우고 있다. 거북이는 잘만 키우면 인간보다 오래 살기 때문에 김산 시인은 ‘나’의 죽음 이후를 걱정한다. 자신의 사후 거북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안타깝게도 무위가 되었다. 이후, 김산 시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 거북이 유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수로 걱정은 도를 유지해 주지 못해 죽었다고 한다. 이 좌담에는 김산 시인의 거북이가 살아있었을 당시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김학중 시인은 열심히 창작활동을 하고 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논문도 성실히 쓰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해 멀어진 인간의 단절이 개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동물’이라는 존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본다. 김정현 평론가는 《학산문학》에서 편집위원으로 일하며 논문과 평론을 병행하며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이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조은영 시인은 최근 요가를 시작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직업이다. 무엇보다도 시인으로 열심히 활동 중이다. 현재는 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어린 시절 많은 동물들과 지냈다. 주향수 시인은 인천에서 좌담을 한다는 조은영 시인의 소식을 듣고 우연히 참여하게 되었다. 올해 《시로 여는 세상》에 등단했다. 자주 발언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

1) <http://www.news-pap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579>

이 좌담은 동물을 키우는 패널과 키우지 않는 패널이 함께 모여 ‘동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독자들은 ‘동물’에 대한 다양한 표정과 흔적을 느낄 수 있다. 1부 ‘동물과의 만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링크에 접속하기 바란다. 그럼 본 지면에서는 2부 반려문화와 자본, 중성화 수술, 안락사, 3부 동물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에 대해 나누었던 온기를 옮긴다.(문종필)

2부 반려동물 문화와 자본

문종필 예전에 두 명의 소설가와 함께 지나가는데,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며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무심코 지나가다가 동의를 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시인 고양이의 병원비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 최규석 만화가의 작품 『습지생태보고서』에 수록된 「의태擬態」²⁾에서는 “먹이 사슬”의 모순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흥미로웠습니다. 이 짧은 만화는 형편이 좋지 않은 대학생들이 버려진 옷을 뒤지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보기에 고풍스러운 반려견과 마주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런 장면이 조금 특이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빈부격차’라고 웃으며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와 자본의 만남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김정현 우리가 흔히 농담 삼아 말하는 ‘개팔자가 상팔자다’란 말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 작품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웃음) 저도 재밌게 보았는데요. 자본과의 만남이라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로서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자기 만족의 문제일 텐데, 무언가를 소비한다는 게 단순히 어떤 물건의 효용성으로서만 소비를 하는 게 아니기도 하잖아요? 뭐랄까 공존으로서의 반려동물 문화라기보다는 좀 자기 과시용 문화로서의 반려동물 문화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작품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이 다수는 아니겠지만, 말해보자면 이는 반려동물을 멋지고 예쁘고 그럴 듯하게 꾸며내고 그것을 통해 내가 더 어떤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문화라고 생각이 되긴 했습니다. 뭐랄까 르네 지라르가 말했던 ‘욕망의 삼각형’ 개념처럼 개를 잘 꾸밈으로서 내가 남들보다 더 경제력이 있다는 걸 과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성과 효용성의 측면을 갖게 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비싼 차라든가 부동산처럼 효용성을 위해 존재하는 사물이 되는 거죠, 동물이. 그렇기 때문에 그 효용성이 다했을 때는 반려동물을 버릴 수도 있게 되는 게 아닌가란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좀 다른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동물을 키운다는 문화가 도대체 무엇인가란 질문이 여기서 가능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문종필 네.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단순히 동물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성과 효용성의 측면을 갖게 되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비싼 차라든가 부동산처럼 효용성을 위해 존재하는 사물”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패널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저도 만화를 보면서 동물과 인간의 빈부 격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특히 반려동물 용품들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좋은 사료나 간식, 놀이기구들은 당연히 비싸고, 저도 고양이와 함께 지내면서 좋은 것들을 먹게 해주고 싶고 더 나은 환경에서 지내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만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강아지에게 느끼는 대학생들의 박탈감 같은 것이 이해는 가는데 사실 그 감정이 동물들에게 향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였어요. 강아지는 자신에게 어떤 것이 좋고 좋지 않은지 구분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어떤 자본의 경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온 것인지는 인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2) 최규석, 「의태擬態」, 『습지생태보고서』 (2 판), 거북이북스, 2020, 24~25 쪽.

려 비싼 놀이기구보다 천 원짜리 인형을 더 좋아할 수도 있고 반려인구가 1500만이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면서 다양한 가격대의 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는 만화에서 강아지가 입은 옷처럼 비싸 보이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인간이겠지 만 그것들을 실제로 사용하는 건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물들에게 안전하고 기호성이 높은 제품들이 시장을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종필 고양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거북이를 키우는 입장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산 거북이는 뭐 상관없고요. 개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싸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어요. 제가 5년 전에 술을 먹다가 시인 친구랑 나왔는데 역 앞 화단에 꾸물꾸물한 생명체가 있어서 딱 봤더니 진짜 주먹만 한 새끼 고양이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고양이에 대해서 크게 좋아하거나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거의 해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술에 취한 것도 있고 그 친구 왈, 이것도 인연인데 데리고 가서 같이 살아보라고 하더군요. 인연인지, 충동인지, 그렇게 데려오고 말았지요.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아무리 새끼라도 너무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털도 막 군데군데 다 빠져 있고 그제야 인터넷을 뒤져서 고양이 전용 샴프도 사고 기생충 약도 사고 그랬지요. 그래도 아파하고 힘들어서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동물병원에 데려갔어요. 수의사가 고양이보다 저를 더 처량하게 보더군요. 이렇게 불쌍한 친구들 데려오는 것은 좋은 일인데 하필이면 왜 이렇게 병든 친구들 만나 데리고 왔냐고 하더군요. 건강한 애도 키우기 어려운데, 말이죠. 우선, 치료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수의사가 머뭇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쌍하다고 유기된 동물들을 충동적으로 가져왔다가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그냥 데려오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형편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이 친구를 꼭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새끼고양이와 저를 동일시해서 거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관장을 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한 달 정도는 같이 침대에서 자고 같이 잘 놀았지요. 그런데 그 후에, 항문이 열려서 밥도 못 먹고 똥오줌을 흘리고 다녔어요. 다시 병원에 가니, 수술비도 수백이 들고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하더군요. 동물은 의료보험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동물권의 어떤 사회적 보장 시스템의 출발은 동물 의료보험이 좀 체계화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뼈저리게 들었죠. 그렇게 그 친구를 하늘로 보내고 다시는 이런 움직이는 동물들을 거두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육지거북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문종필 유기 고양이인 “그 새끼고양이와 저를 동일시해서 거둬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친구를 살리려고 했다는 김산 시인의 말이 몽클하게 다가옵니다. 더불어 의료보험 제도를 문제 삼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학중 시인은 어떠세요? 시집 『창세』에서도 자본주의를 비판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할 얘기가 조금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김학중 만화 재미있게 잘 봤는데요. 제가 살아오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20대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가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은 20대의 목소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향의 이면에는 20대가 사회적 취약층이 된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대의 어떤 마인드맵을 키워드로 나타내보면 확연하게 나타나는 키워드들이 있죠. 췌장, 박탈감, 불공정, 공정 등의 몇 가지 키워드들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어요. 이 키워드들이 사실 다 자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본이라는 건 우리 삶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자본은 모든 것을 수치화된 금융데이터상의 교환가치로 환원하고 있어요. 20대가 우리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기회비용도 이러한 교환가치의 개별 총액에 제한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감정마저도 이러한 자본의 압력에 지배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만화 텍스트에 나타난 20대 등장인물들의 감정이나 태도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감정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감정의 투사라고 생각해요. 박탈감이 그 지점에서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자신이 사람 취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동물에까지 연장되어 나타나게 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들을 예쁘게 키우는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이고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화에서 묘사하는

감정이 낮설지 않습니다. 그 시절엔 누군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할 때 좀 부러웠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거는 그만큼 경제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애기 들어보면 반려동물이 저보다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더라고요. 치료를 받을 때 이백에서 삼백만 원 정도 쓴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돈이면 소고기가 몇 근이야 생각했거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떤 발표에서 1년에 한두 번 갈비를 먹는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제 생각에 기반한 에세이를 발표해야 하니까 진솔하게 썼어요. 그 발표를 하는데 학생들 중에서 몇몇이 킥킥덕 웃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갈비 먹는데!’ 하고 웃으며 말이죠. 지금도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지만, 그 시절에는 왜 그런 걸로 비웃음까지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되었겠죠? 이런 감정이 대상을 볼 때, 반려동물 등을 볼 때도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이 계속 개입 되는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는 대상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예요. 그리고 자본은 그런 요소들을 계속해서 우리 앞에 상연해줘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반려동물 사료나 이런 거 보면 이게 브랜드가 어디냐 무얼 가지고 만드느냐 어느 나라에 수입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다 레벨이 다른 거 같더군요. 저는 콘텐츠들 중에서 특히 포스트 아포칼립스(Post Apocalypse) 테마를 주제로 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서 묘사되는 장면들 중에는 생존자들이 먹을 게 없으면 반려동물 사료를 뜯어서 먹는 게 나와요. 그런 장면이 연출되는 이유가 반려동물 사료의 퀄리티가 사람이 먹어도 될 정도로 좋은 게 있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할까 생각하면 좀 무섭게 느껴집니다. 가난한 사람들, 구매력 없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식량소비시장에서 썸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차라리 그 식량을 반려동물을 위한 가공식품 사료로 활용하게 될 거란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왜 세상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논한 바 있어요. 사실 세계 곡류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인류가 먹고 남을 수 있는 수준의 수확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의 육류수요 등을 맞추기 위해 동물을 기르는 데 곡류를 활용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식량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시스템의 한 축에 저는 반려동물을 위한 식품사

업도 자리하고 있다는 판단이에요. 이게 글로벌 분업화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자본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구나 싶어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거기에 다 연결되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여기에 가부장제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니, 20대 세대들은 참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거라 말할 수 있는거죠. 이 지점에 20대 남성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예요. 현재 상황에서 20대 남성들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가부장제 시스템을 인정을 할 때에는 남자들이 경제적으로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가부장제는 남자들도 이중적으로 옥죄고 있는 구조랄 수 있어요. 남자들이 가부장적인 시스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법적 시스템에는 여전히 가부장제적인 경제구조가 반영되어 있어서 남성의 경제적 부양과 관련된 사회적 통념이 작동하고 있어요. 사실 남자들도 가부장제 안 하고 싶거든요. 앞서 살펴본 인용문 중에는 20대 남성이 이제 남성의 성적인 욕망까지 내려놓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욕망이 나와요. 3포 세대라는 표현이나 결혼, 연애, 취업 포기라는 합의에는 이런 청년의 고통들이 다 포함된다는 생각이예요. 20대 여성들의 고통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여기에 반려동물 포기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20대 청년들의 어떤 삶 속에서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인간적 삶이 동물화되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해요. 자본이 우리를 인간의 차원 밖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동물에 대한 사유를 여기까지 확장해보면 그것이 지금 여기의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거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동물의 차원으로 쫓겨났을 수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반려동물을 얘기하다가 너무 멀리 온 느낌이에요. (웃음)

문종필 20대 청년들의 삶과 자본과 반려동물 문화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봐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조은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조은영 저도 만화 재미있게 봤어요. 한때 다음 생은 ‘저런 집의 개로 태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웃음) 저런 편안한 삶이 어땠을까 하고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입장에서 개를 바라본 거죠. 김학중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화에는 경제적 박탈감도 들어가 있고 '종의 우월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종(인간)이 너희(개)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거요. 그러니까 생명에도 우위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좌담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동물을 '재물'로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학대로 죽어도 '재물손괴'인 거죠.

반려동물 시장을 찾아보니 반려동물 장례사 자격증도 있고 대학에서도 반려동물 산업 최고위 과정을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걸 단순히 '과시'라고 하기엔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제 주변에 햄스터를 기르는 친구, 반려견을 기르는 선배들이 많은데 그들에게는 모두 가족이에요. 반려동물이 주는 사랑과 기쁨에 비하면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가족'이라 생각했을 때 더 좋은 거를 먹고 싶고, 더 좋은 의료 혜택을 주고 싶은 건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 진심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단순히 '부를 과시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인간 입장에서 쓰이는 '자본' 있잖아요. 이를 테면 '애견 미용'이요. 책을 읽다가 애견 미용 실습하시는 분 체험기를 읽은 적 있어요. 미용 실습은 번식견들로 한다고 해요. 번식장 개는 굉장히 아픈 개도 많고 그 상태에서 미용을 받는 건 개들에게도 굉장한 육체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그렇다거나 이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녜요. 일부 '폭력적인 애견 미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본이 사용되는 방식이 인간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반려동물을 위한 것일까는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문종필 인간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이 배치되는 것에 질문을 해 주셨던 조은영 시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이 폭력적이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2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심너울 소설가의 「저 길고양이들과 함께」라는 텍스트를 예를 들어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 텍스트를 짧게 이야기해 보자면 고양이 중성화 수술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반려고양이를 키우는 인간의 입장에서 중성화 수술이 쓸모 있고 유용하겠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러

한 맥락에서 동물을 키우는 것과 자연스럽게 생태계 그대로 놔두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윤리적일까요?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이기현 시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현 저도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낸다는 게 동물들을 자연 생태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는 것과 같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번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동물들에게서 빼앗는 행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의학적인 부분에선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반려동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점들도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암컷 고양이의 경우에는 발정기가 오면 상당한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저기 몸을 비비거나 서럽게 울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고양이에게 번식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하는 행동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수 있고 또 여러 생식기 질병도 예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수명이 연장될 수 있잖아요.

그럼 반려인과 건강하게 더 오래 함께 살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동물들이 인간의 영역에서 길러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대부분의 종들은 자신의 생태 환경에 있을 때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동물들이 지낼 수 있는 생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오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과 그들의 터전을 보존할 수 있게 인간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무분별한 생태파괴를 지양하거나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요. 동물들을 인간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관계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문종필 이게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사는 이 친구들을 그냥 놔두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같이 사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힘들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들어 볼게요. 김정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정현 저도 이제 주변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 키우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마 다들 비슷한 말을 들어 보셨을 것 같긴 한데, 말안 통하는 세 살짜리 아이와 십년이 넘는 기간을 함께 사는 거 같다고 이야기

를 하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뭘 떠올렸냐면 아이를 키울 때에도 보살핌이 필요한 사실이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함께 사는 게 단순히 본성 그대로 두는 건 아니고 교육이나 훈육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긴 합니다. 공동체로서 생활하기 위해서요. 그런 점에서 약간 비슷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되네요.

예전에는 어떤 목적성으로 동물을 키웠고 그렇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가족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당연하죠. 큰 금액이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건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가족으로서 동물을 받아들이게 되고 키우게 되는 문화가 된 것은 확실해진 거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것을 양육자가 다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거고, 그랬을 때 당연히 어떤 동물을 본성 그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많죠. 좀 예전이긴 한데 강아지용 콘돔이 나왔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동물들이 그걸 먹이인 줄 알고 먹어버려서 사용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동물들에게 피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랄까. 인간이 동물을 키운다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에도, 결국은 본성 그대로 행동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문화화하거나 사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물론 생리적이고 본능적인 충위와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동물의 모든 욕구를 기르는 주인이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지는 않으니까 현실적으로도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동물을 기른다는 게 결국은 동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본성 일부를 내주고 평생 동안의 어떤 의식주를 제공받는 교환 관계가 되기도 할 텐데요. 동물의 종족 보존이란 본성을 인간이 멋대로 재단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중성화 수술을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회화라고 할 수도 있고 교육이나 훈육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또 본성을 억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사회화나 같이 살아야 하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보호자의 입장에서 중성화 수준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충위와는 다르게 심너울 소설가의 텍스트는 현실적 측면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요. 이건 일종의 비유지만, 인간의 동물이란 테마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진 가부장제적인 관점을 비판하는 것이니까요. 현실적인 고충과 텍스트에 나타나는 문제의식은 다른 층위란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문종필 김정현 선생님께서는 문화 안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 주셨는데 ‘문화’와 ‘자연 Let it be’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더불어 “텍스트는 현실적 측면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문제제기도 해 주셨습니다. 몇 분 남았는데 우리 김학중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김학중 저는 사실 반려동물 중성화수술을 해보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텍스트나 이런 걸 보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 문제가 반려동물들이 집 안의 주거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어린 시절 동물을 키운 경험을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당이 있던 시절에는 반려동물이 마당 같은 공간에 개집 같은 독립된 공간에서 살았어요. 인간의 공간과 동물의 공간의 구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 그런 시절에는 중성화 할까 말까 이런 거 고민했던 이웃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개를 키우시거나 이런 분들도 그냥 밖에 나가서 새끼를 배어 가지고 와도 자연스러운 일로 생각했어요. 새끼를 낳으면 동네 사람들 나눠서 기르고 하는 분위기였죠. 이런 자연 순환적인 사고는 좀 동양적이고 공동체적인데요. 이런 사유가 단절된 세계에서, 모든 것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서는 더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중성화 수술도 그런 경향의 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거주 공간이 점점 아파트 형태로 넘어가기 시작한 게 80년대 후반이잖아요. 신도시 생기고 이러면서 거주 환경이 급격히 바뀌었죠. 공동주택에서 살게 되고 인간적 공간과 구분되지 않는 집 안에서 개를 기르면 아무래도 더 신경 쓰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텍스트에선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중성화수술 하는 걸 묘사를 하

고 있는데, 이런 상상력이 작동하는데 이런 문화적 맥락이 놓여 있다는 판단입니다. 더불어 여기서 묘사하는 뇌와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최근에는 인간의 뇌뿐만 아니라 동물의 뇌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어서 뇌의 비밀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뇌에 대한 연구가 발전되면 나중에는 인간의 욕망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뇌 활성화 기술도 나올 거예요.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성욕 담당 부분의 뇌를 절제하는 것보다 더 발전해서 뇌를 필요에 따라 활성화시켰다가 비활성화시켜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의 경우도 아마 생식기가 아니라 뇌쪽 수술로 변화를 맞을 겁니다. 반려동물의 주인의 사정에 맞춰 반려동물의 기능 중 일부를 스마트폰 어플 같은 걸로 통제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중성화 수술의 선택의 가장 최신기술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가 중성화 수술에 대해 더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돕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여기까지 펼쳐 봤습니다. 아무튼, 인간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모든 뇌의 기능까지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아마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문제들까지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윤리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문종필 우리가 예전에 살던 공간은 마당이 있는 공간이었는데 이 공간이 닫힌 공간으로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이야기 해 주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불어 ‘기술’의 진보에 따른 ‘선택’의 측면을 중성화 수술과 함께 이야기 해 주신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면 조은영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은영 저도 어릴 때 돌아보면 마당 있는 집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동물을 키울 수 있었던 거 같아요. 그땐 ‘중성화 수술’은 큰 이슈가 되지 않았어요. 유기견 센터 같은 데서도 보면 1순위로 가장 선호하는 개는 암컷, 작은 개, 새끼 개래요. 진짜 사랑하는 건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함께 ‘공존’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네요.

김학중 수컷은 기본적으로 발정기 때에 문제적 행동을 해요. 기본적으로 뇌에서 오인의 구조가 작동하는데, 그래서 책을 보고 있는 건주의 머리에 성기를 가져다 대거나 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죠. 수컷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웃음)

조은영 친한 언니네 집에 갔다가 강아지가 저한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기겁한 적이 있어요. 처음 겪었거든요. 그 용어를 모르겠는데….

김정현 마운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종필 으음. 쉬운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동물과 함께 공존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만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김산 시인께서는 어떠세요?

김 산 저는 특수하게 거북이를 키우는 입장이어서 아직까지 제가 거북이를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사례는 제가 듣지 못했고요. 거북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거북이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혼자 있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대요. 이 또한 인간의 편의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요. 육지 거북이 같은 경우, 처음 새끼 때는 암놈인지 수놈인지 생식기가 잘 발달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저와 함께 하는 친구는 여자 아인데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고 수줍은 친구예요. 10살 정도는 돼야 브리딩이 가능한 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차차 생각해 보려고요. 평생,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너무 외로워하면 거북이 카페에서 씩씩한 남자 거북이를 알아보려고 해요. 중성화 수술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본능적인 것을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수술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려동물이 힘들어하니깐 중성화 수술을 시킨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자연에 있었으면 자신의 방식으로 해소를 했을 테니까요. 네, 저는 반대 입장인긴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문종필 쉽지 않은 질문에 모두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2부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기는 한데 죽음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저는 동물의 죽음이 인간의 죽음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자신과 관계를 맺은 동물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의 산소흡기를 떼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생명 유지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편하게 부담없이 죽음의 문제를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현 시인은 어떠세요?

이기현 준비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 본 것 같아요. 반려인이 반려동물 사후에 느끼는 상

실감이나 우울감 또 죄책감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게 펫로스 증후군 이라고 하는데 요새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된다고 해요. 반려동물을 죽으면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슬픔만큼이나 슬픔을 느낀다고 하는데 인간 수명보다 반려동물이 수명이 대체로 짧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반려동물과의 이별까지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반려동물이 반려인과 교감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는 그 관계가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있고 또 신뢰나 배신처럼 관계를 맺기도 하고 끊기도 하는데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반려인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반려인을 의지하고 반려인 또한 반려동물에게 위로받고 의지하며 관계를 지속한다는 점에서 좀 더 감정이 쉽게 대상에게 쏠릴 것 같은데 그런 존재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되게 큰 상실감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하루를 데려오면서 이제 제가 서른 살인데 쉰 살까지는 무조건 살아야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락사 같은 경우는 특히 아프지 않고 생이 다할 때까지 함께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상실감이 엄청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안락사를 결심하게 되는 순간에 무너지는 마음이 어떨지 알 수가 없고 누군가의 생명을 자기가 마치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결정일 텐데 그것도 자신과 평생을 살아온 존재를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유튜브에서 안락사를 지켜보는 반려인의 모습과 또 병원에서 안락사를 권유했지만 집으로 데려와 임종을 지키는 반려인의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반려동물의 죽음은 반려인에게 큰 아픔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전자는 앞에 말한 것과 같이 죄책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 같고 후자는 엄청난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는 반려동물을 옆에서 보면서 어쩌면 자신이 반려동물의 고통을 방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파할 걸 알았다면 안락사를 선택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어떤 선택을 하든 반려동물의 죽음 앞에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문종필 저도 어느 아는 분이 계신데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되게 냉혹하고 비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신의 반려견을 안락사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

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눈물을 펄펄 흘렸어요. 전화를 하면서 ‘이 사람 왜 그러지? 이 사람한테 반려동물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느낄 수는 없겠지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정현 동물이 아니라 나라는 경우로 약간 다르게 생각을 해 보면 뭐랄까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게 아예 분리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내가 나로서 어떤 의미가 있나 했을 때, 사고나 판단 인식이란 것이 나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유기적 육체적으로 살아 있는 것과는 좀 별개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구요. 저도 주변에 치매를 겪으시다가 돌아가신 친척 분들이 있는데, 가끔 병원으로 찾아서 뵙고 보게 되면 그분들이 거의 아이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정신은 사라지고 육체와 몸을 그냥 생존시키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비인간적이고 끔찍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살아있는 목숨을 자의적으로 빼앗을 수 없다는 점은 당연하겠지만, 어떤 의미나 목적도 없이 그냥 육체만 살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아감벤의 법적 생명과 육체적 생명이란 말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웃음)

저는 아마 안락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한테 한정지어서 스스로는 안락사를 선택할 것 같아요. 물론 살아있는 목숨에 대한 결정은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물이나 인간이나 하는 문제와 무관하게요. 아까 김산 선생님이 얘기하셨지만 인간적인 인성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 중심주의적 태도일 수밖에 없지만, 보호자로서 책임을 진다는 걸 생각해보면 동물과 인간은 다르긴 합니다. 인간은 성인이 되면 독립하고 스스로를 책임지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어쨌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최대한 유지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마 가족으로서 동물을 인식한다면 당연히 책임을 진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반려동물의 죽음은 결국 가족의 죽음이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 대상의 상실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인간적인 감정의 측면에서 보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주변에 앵무새를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최근에 기르던 앵무새가 수명이 다해 죽는 일이

있었어요. 보통 앵무새가 수명이 길지 않는데, 10년이 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가 맨날 농담처럼 어르신이라고 부르면서 애지중지했었는데, 결국 수명이 다해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도 치러주고 수목장도 하고 했었는데, 애정의 대상이 사라지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정말 슬프고 힘든 일이 되죠.

제가 장례를 치뤘다고 말했는데, 생각해보면 장례식을 치른다는 건 사실 대단히 인간적인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면 리비도의 회수나 ‘애도’이기도 한데, 슬픔의 문제를 떠나서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결국 동물과 인간 각각의 입장에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으로 스스로는 안락사의 상황이 되면 안락사를 선택할 것 같지만, 동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긴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다는 건 자의식이 있는 존재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하구요. 보호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디까지 가능하나의 문제가 당연히 걸려 있겠지만 최대한 살 수 있게 도와 주는 것은 책임의 영역이니까요.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문제라는 게 우리도 그렇지만 모든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의 층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튜브를 꽂고 한 1분 1초라도 더 사는 게 과연 좋은 것일까. 이 건 생각이 전부 다른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고, 고민되는 부분이 많겠지만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살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필 조은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조은영 얼마 전에 친구가 독립출판으로 반려견과의 추억이 담긴 그림책을 냈어요. 그 친구가 썼던 글 중에 ‘나와 반려견의 시간은 다르다’는 구절이 와 닿았어요. 다른 시간 속도로 사는 종의 공존. 그러니까 ‘가족’을 너무 일찍 떠나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슬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조금 더 무지했던 시절에. 반려동물을 잃었던 친구의 슬픔을 가볍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기르던 개가 죽어서 그 친구가 요즘 우울하다’고 표현했거든요. 자신은 10년을 함께 산 가족(반려견)을 잃었는데 그냥 ‘개가 죽었대’라고 말한 저의 발언이 상처가 됐다는 말을 듣고 반려인과 반려동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저는 ‘동물의 안락사’에 대해 생각했어요. ‘안락사’라고 하면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선택하는 편안한 죽음이라 생각하는데, 폐기 처분식으로 진행되는 동물의 안락사도 있는 거잖아요. 가족끼리 ‘안락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식물인간

상태로 계속 호흡기를 꽂고 생을 이어가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행위가 아닌가?’ 이런 말이 오갔거든요. 반려동물의 생은 다했는데 의료 기술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날들을 연장시키는 것이라면 ‘안락사’를 선택해야하지 않을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상황이 닥치면 과연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과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도요... 어렵네요.

문종필 알겠습니다. 김산 선생님은 어떠세요? 거북이는 최소 80년 정도 살 확률이 100 퍼센트라고 하니 죽음의 문제가 다르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모두 웃음)

김 산 한 200% 정도죠. 으음, 결국은 인간이든 반려동물이든 어떤 자유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건 작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래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예요 인간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의 죽음을 타의적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 말기 암환자가 있다고 치죠. 매우 고통스러워한다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까 조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락사라는 기본 자체가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정신적인 피로감이 크기 때문일 거예요.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이미 마음의 정리가 다 거의 다 돼 있는데 계속해서 생명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귀하지만 죽음 또한 귀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결정권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문종필 무의식적인 의지겠죠?

김 산 그렇죠. 호흡기를 끼고 있다고 해도 식물인간이라고 해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런 어떤 의식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극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자살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살은 갑자기 목을 매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몸이 아프고 이러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안락사의 개념보다는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는 것과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개념이라고 봅니다. 외부의 측면에서 인간이 느끼는 그런 어떤 연민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자본의 개념에 따라서 어차피 살릴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냥 속된 말로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발 자신의 입

장에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힘들고 아프다는 것은 살아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발현입니다. 이겨내지 못하면 소멸하는 겁니다. 그때, 기쁘게 잘 보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문종필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부 질문 끝나기 전에 김학중 선생님께서 마지막 질문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십시오.

김학중 안락사 문제는 결국 죽음의 문제일 텐데, 사실 저는 이거랑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 얘기밖에 못하겠네요.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죽음, 그러니까 편안한 죽음을 위해 기도를 오랫동안 하십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가족 관계 속에서도 애도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음은 인간이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을 환기해주죠. 이러한 죽음의 특성을 인정하는 부분을 좀 가지면 이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다. 안락사가 아마 인간의 경우에는 이게 아마 생명 유지 장치를 붙이지 않는 걸 거예요. 동물의 영역은 좀 다른 거 같아요. 반려동물의 안락사에 대해서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얘기를 들은 것을 고려해보면, 안락사 고민할 때 이미 그 동물들은 죽을 병을 가지고 있기에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암이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심화되어서 반려동물의 고통이 너무 극심한 것이 보일 때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안락사를 결정하고도 마음 편하게 애도하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편안하게 노화가 돼서 보내주게 되면, 그래도 애도를 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 덜 힘들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의 안락사는 그 동물의 주인에게는 심리적 트라우마를 남길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자신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정서적 충격이 그대로 남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려동물의 안락사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죽음까지 반려를 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외부에서 얘기하기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성의 차원을 인정하는 것에서 논의의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싶네요.

문종필 고맙습니다. 2부는 정말 쉽지 않는 질문이었는데 모두들 정성껏 이야기 해주서

서 고맙습니다. 3부에서는 이 좌담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와 독자들에게 인사말을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부 동물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

문종필 이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 2부를 힘겹게 넘어왔는데요. 3부에서는 좌담을 통해 독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마음껏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은 작가들이 작품 대상으로 동물을 소재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즉, ‘동물 담론’이 당대의 관심 대상인 셈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의 독자들에게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산 시인부터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 산 계속 거북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에는 이 친구가 이제 교감이 되는지 이상한 소리로 기분을 전달하더군요. 이 친구의 특화된 발음들이 있어요. 끼 끼, 끼릭, 끼리끼리, 등 한 대여섯 종류가 있는데 저는 대략 알아듣거든요. 배고플 때, 아니면 만지면 귀찮다고 ‘그만 만지지’라든가, 혼자 있고 싶다든가, 그러다 심심하면 ‘넌 뭐하냐?’ 물어보기도 하죠. 지금 몇 년 됐는데 이 자리도 그렇고 그동안 거북이 관련해서 산문과 시를 대여섯 편은 발표한 거 같아요. 이 정도면 이미 밥값은 했다고 생각을 해요, 후후. 저는 별 거 없어요. 이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는 데까지 즐겁게 살다가 평온하게 돌아가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결국 돌아갈 거잖아요.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동안 덕분에 잘 놀다간다고 손 흔들어주면 되잖아요. 모두 ‘현존’하세요. 나마스테!

문종필 이기현 시인께서도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이기현 저는 여태까지 시를 쓸 때 인간관계에 집중해서 많이 써왔는데 앞으로의 시에서는 동물을 비롯해 좀 더 다양한 관계에 대한 작품을 써보고 싶고요. 좌담 내내 아직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좌담 이후에도 계속계속 생각해 보고 고민해 볼 문제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뜻 깊고 감사드립니다.

문종필 김학중 시인께서도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학중 오늘 사실 동물에 관한 이 논의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어

려운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권 같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문제까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어려운 문제들을 그래도 여러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재미있게 얘기를 했고요. 독자 분들도 이런 대답을 통해서 동물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그렇게 생각의 영역이 넓어져야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나와 내 주변의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미디어 등이 더 다양화되고 개인화되었기 때문에 동물과의 교감 같은 것들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나누고 연대해 나가면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적으로 동물권이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는 시대를 생각해 봤으면 해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죠. 2년 동안 아주 고생을 하고 살고 있는데, 코로나19 기원설 같은 얘기를 추적해보면 박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논의들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를 제공해요. 인간이 접촉하지 말아야 될 동물들이 있는데 이런 동물을 인간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하면 그 동물들이 가진 세균들, 즉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 말이지요. 이런 문제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동물에 대한 사유를 깊이 있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종적인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배움을, 이번 팬데믹을 통해 하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독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그 생각의 결실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게 이어가 주시길 바라고요. 이 대답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문종필 김정현 선생님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현 동물권이란 문제가 아까 다들 말씀하셨지만,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의 개인적인 체험에 속한 것도 있고 동시에 거시적인 담론이란 측면도 있어요. 이게 섞이다 보니 뭐라 명확하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말씀해주신걸 들어보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서 생각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구요. 제가 초반에 타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외계인이라든가 다른 세계의 생명체라든가 아니면 AI나 안드

로이드라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무엇이라든가 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동물이란 타자의 문제가 결국은 다양한 측면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문제란 판단이 듭니다.

결국 나의 입장에서 타자는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구요. 동물도 사실은 저희가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들은 그들의 본성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인 건지도 모르죠. 어쨌든 결국 중요한건 타자에 대한 대화랄까요 인간성의 측면이랄까. 저는 이것이 어떤 존엄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말하자면 타자를 존중하는 것을 통해 나를 존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했던 존재들을 이해해가는 과정의 측면일 것이고. 이렇게 보면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타자에 대한 경험과 대화란 것이 제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성이나 문화나 인식이랄까 개념 자체는 계속 변화했고 앞으로 또 이제 변화해 나가겠지만요.

결국 동물권이란 이 문제는 인간성의 본질적 측면을 되비추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한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알 수 없는 타자의 존재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해요. 전혀 알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존재들에 의해 얻어지는 경험들에 있을 거고. 그건 결국은 스스로에 대해 질문하고 사유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할 테니까요. 말하자면 스스로의 존엄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성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냐는 되게 복잡한 문제이지만, 결국 대화라고 해야 할 이해와 인식의 층위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보다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 배움과 변화랄까 여튼 타자를 통해 인식을 고정하지 않고 유연하게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스스로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져가면서 보다 나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그런 맥락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종필 주향수 시인은 까메오로 참여 하셨는데요. 처음에 등장하시고 지금 또 이렇게 등장을 하시네요. (웃음)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부탁드립니다.

주향수 앞부분에서 선생님들의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동물을 싫어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동물이 식물하고 다른 건 인간하고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고 또 좋아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동물을 키우다 보면 도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어

요. 아까 자본주의 시대와 동물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서 예뻐하고 키우는 건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이 한 명 키우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대잖아요. 그 아이 양육 문제를 떠나서라도 조금만 돌아보면 우리 주위에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 끼 식사도 제대로 못해서 편의점 음식이나 라면으로 해결하는 어려운 아이들도 있구요. 동물을 키우는 게 다 개인 취향이니까 제가 뭐라 더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 강아지한테 돈 쓰는 것이 좀 과하다 싶을 정도인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외로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강아지를 키우면서 교감하고 즐거움을 갖는 것도 당연 좋지요.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사람보다도 동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사람에게로 조금 더 향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를 공부하는 분이 강아지에 대한 시를 썼어요. 앞부분은 강아지를 위해서 생일날 뭘 해주고 너의 죽음까지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뒷부분에는 옆에 고시원에서 어떤 청년이 혼자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을 쓴 거죠. 강아지는 집에서 이렇게 귀한 대접 받으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한 사람은 고시원 외로운 공간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이 시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들으며 마음이 쓸쓸했어요. 요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종필 주향수 선생님 고맙습니다. 조은영 시인도 독자들에게 안부 부탁드립니다.

조은영 앞서서도 말씀드렸듯, 처음에는 비반려인이라서 이 좌담에 패널로서 자격이 있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해서 더 의미 있는 좌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어릴 때 키웠지만 생각해 보면 ‘진짜’ 키운 게 아니고 ‘예뻐만’ 했어요. 어쩌면 저와 같은 반려인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동물을 현재 키우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동물을 키운다고 해서 모두가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해요.

저희 좌담을 통해서 독자들도 함께 ‘동물’, ‘생명’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정말 뜻 깊을 거 같아요. 강력 범죄 특히 ‘아동 폭력’ 사건들을 보면 그 전조증상이 동물 학대라고 해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동물을 좀 사랑하고 대접받는 사회는 아동, 사람, 더 넓게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아까 김정현 선생님께서 ‘타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생각을 했

어요. 그 타자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반려인과 비반려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간을 통해 모르는 것들을 새롭게 알았고 제 반려동물과의 추억도 소환해 보았어요. ‘동물권’, ‘동물을 사랑한다는 것’, ‘생명을 귀하여 여긴다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돌아가서 ‘동물’에 대한 시를 한 편 쓰고 싶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종필 반려동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 좌담에서 논의되는 질문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비반려인의 경우는 조금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살갓의 느낌을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요. 하지만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그 나라의 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유명한 명언처럼 이 좌담을 통해 저희는 인권에 대해, 더 나아가 함께 살 수 있는 문화 자체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어떤 방식이든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의 목소리는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좌담에 응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한 시인의 팬데믹 표류기

나는 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문계봉 시인, 본지편집위원



“나는 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문계봉 시인, 본지 편집위원
freebird386@daum.net

1. 팬데믹의 두 얼굴

코로나 팬데믹은 사람 사이의 (관계의) 거리를 넓혀놓았습니다. 현실에서의 ‘접촉’은 제한되고 온라인 ‘접속’만이 허용되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방콕 생활’을 강요받았지요. 물론 방콕 생활이 꼭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숨 가쁘게 생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골치 아픈 업무와 복잡한 관계망을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 그야말로 방에 콕 틀어박혀 아무런 간섭도 없이 자기 몫의 시간을 ‘함부로’ 소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법이니까요. 저 같은 자발적 히키코모리 성향의 인간은 사실 밥과 주거비만 확보된다면 6개월이고 1년이고 방콕 생활을 할 용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고립을 강요당하는 일은 성향의 문제를 넘어 인간 자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줄곧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생활의 규칙을 들이밀며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면 용서가 안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편, 코로나 상황이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 준 격이 되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지요. 솔직히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문해야 했던 함량 미달의 공연이나 전시, 먼 지방에서 치러져 참석하기 어려웠던 경조사(慶弔事)들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연과 전시는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경조비는 계좌이체로 전달하면 마음의 부담을 털어낼 수 있었으

니, 그야말로 울고 싶을 때 제대로 뺨을 갈겨준 건 아닌지요? 세상만사가 그런 거 같아요. 같은 사안에서조차 잃는 게 있으면 반드시 얻는 게 있더라고요.

2. 자발적 표류자가 되기 위한 전략 수립

전략이라, 다소 거창하게 들리지요? 어쩔 수 없는 방콕의 나날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 많은 날을 재밌고 기발하면서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뭔가 나만의 방콕 루틴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팬데믹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아진 시간에) 그저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넷플릭스와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영화들을 시청하는 것으로 시간을 죽였습니다. 특히 주말은 대개 영화를 보거나 잠깐 누워 책 읽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는, 그야말로 지극히 나무늘보 같은 방콕 생활을 펼쳤습니다. 늘 해오던 운동도 거리두기로 인해 센터가 문 닫는 날이 많아지면서 띄엄띄엄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쉬게 되었습니다. 원초적인 생활과 홀로 먹는 술 때문에 살은 포동포동 찌는, 그야말로 무위와 도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 물론 간간이 전시회나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지만, 이전의 활동적일 때와는 빈도수 면에서 천양지차였기에 그것들의 감상평이나 관람기는 알랑하기 짝이 없더군요. 결국 그것들을 정리, 종합해서 한 편의 글을 만들어내는 일은 포기했습니다. 하여, 그냥 보고, 마구 읽고, (개인적인 글을) 닥치는 대로 쓰며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들뢰즈의 개념을 빌리자면, 의지할 것을 만나기가 난망한 시대에 자발적 표류자 ‘되기’를 실천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미 없이 시작한 일도 자꾸만 하다 보니 나름의 원칙과 욕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서당에서 짬밥을 얻어먹던 강아지도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나는 적어도 강아지보다는 지능이 뛰어난 호모사피엔스잖아요. 그래서였을까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다 보니 뭔가 감상의 원칙과 선호하는 주제가 떠오르더군요. 그렇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본래 영화나 음악에 있어 잡식성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의 그것들을 닥치는 대로 감상해오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인천이라는 주제와 내 감상의 이력들을 연결해보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작가와 연구자들이 이미 예술 작품에 드러난 인천의 모습을 천착, 고구하여 다양한 업적들을 내놓은 바 있거든요.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나만의 방콕 과정을 ‘연구’와 ‘예술작품’의 수준으로 만들어 낼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소소하게 영화와 소설, 시들을 읽으며 인천을 생각했고, 그것을 다룬 글이 있다면 그것을 ‘인천’이라는 주제로 일관되게 정리해 볼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글들은 원치 않는 고립을 강제당한 수많은 장삼이사(張三李四)의 사소하지만 나름 진지했던 방콕의 이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런데…, 미리 결론을 말한다면, 늦여름까지 진행하던 이 ‘전략’은 실패했습니다. 포기했거든요. 일단 써놓고 보니 진부했고, 진부하다는 느낌을 받으니 재미가 없더군요. 재미가 없으니 하기가 싫어진 거지요. 무엇보다 연구자도 아닌데, 예술작품을 감상하면서 모종의 주제와 전략을 염두에 둔다는 게 마뜩잖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예술가의 ‘팬데믹 표류기’를 써 보기로 맘을 바꿨습니다. 인천 문화예술 ‘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인천 문화예술 관에서 활동하는 한 ‘예술가의 일상’을 꼼꼼히 돌아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이렇게 해서 나온 글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는 일관된 원칙이나 독자의 가슴을 격동시킬 만한 대단한 뭔가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진정성은 느껴질 겁니다. 전이나 공연 소식도 더러 나오겠지요. 인천 예술가들의 이름도 가끔 거론될 겁니다. 10개월의 대장정입니다. 긴 호흡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다 보면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3. 팬데믹 표류, 그 10개월 간의 기록

1월, 아, 어머니!

1월은 제게 감당하기 힘든 큰 슬픔이 찾아온 시기였습니다만, 그래도 1월 1일 일기에는 새해를 맞는 마음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더군요.

새해에는 친구들의 덕담 덕에 복을 엄청, 듬뿍 받을 게 분명합니다. 나눠줄 테니 기다리세요. 그리고 소처럼 일하지는 마세요. 저도 그럴 겁니다. 인간처럼 일하고 인

간답게 대우받아야지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탬 거예요.

하지만 1월 2일 일기에는 ‘눈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글도 있었습니다.

소용없는 말들이 세상의 모든 틈을 막아 숨이 가쁘다. 큰 눈이 온다면 하늘도 세상도 조금은 험거워질 수 있을까. 그러나 기다리는 눈은 좀처럼 오질 않았다. 생각보다 완고한 겨울. 가끔 내가 잠든 사이에 가루눈 몇 차례 폴폴 측은하게 날렸지만, 지상에 닿자마자 사라져버려 잠에서 깨었을 때는 세상은 전날과 다름이 없었다. 눈을 기다리기 시작한 이후 아침마다 창문을 열어도 세상은 여전히 촌촌할 뿐 전혀 험거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예보에 의하면 이틀이나 사흘쯤 뒤에 충청 호남에는 큰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늉만이 아닌 눈발의 낭자한 군무를 볼 수 있을까.

이렇듯 나름 뭔가를 잔뜩 기대하고 기다리는 희망으로 1월을 시작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날 일기에 “엄마는 오늘도 호박죽 두 팩으로 하루를 보냈다. 컨디션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는 글이 있는 걸 보면, 엄마의 건강이 심상치 않은 상태를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정말 이곳에는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한 그 비현실적 현실의 풍경을 뒤로 하고, 폭설이 내린 지 정확히 이틀 후, 엄마는 새벽에 홀로 하늘에 드셨습니다.

지난밤 엄마는 속이 허하시다며 흰죽을 달라셨다. 사흘 동안 음식을 받지 못한 몸에 허기가 느껴진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낮에 쑤어놓은 흰죽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갈매기 형수가 전해준 동치미 국물을 식탁에 놓아드렸다. 엄마는 죽 서너 숟가락을 드시고 동치미 국물을 마신 후 자리에 누우셨다. 손발이 얼음처럼 차다. 등과 배를 쓸어드리고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다. 요 며칠 누우면 숨이 가쁘시다며 앉아서 지내셨다. 잠도 앓은 채 소파에 기대에 쪽잠을 주무셨다. 그러던 엄마가 스스로 자리에 누우신 것이다. 불안과 안도가 교차했다. “이제 괜찮으니 너도 들어가 자라. 피곤한데……”라는 말을 듣고 나도 내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거

실 불은 켜놓고 내 방문은 열어놓은 채였다. 그리고 그것이 지상에서 들은 엄마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 (1월 9일)

1월은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며 빈집의 쓸쓸함을 견뎌야 했지요. 그리고 1월의 마지막 날, 개화(開花)에 무척이나 인색하던, 엄마가 키우던 접란이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늘에 잘 들었으니(入) 걱정하지 말라는 엄마의 전언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잠깐이지만 맘 가득한 슬픔을 밀어내는 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물 같은 느낌이었습니니다.

2월,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희망

2월의 첫날은 꽃샘추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의 기록에서는 잠복해 있는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당연한 일이겠지요.

흐린 날씨에 미세먼지마저 창궐한 도시는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 너머 풍경처럼 뿌옇게 보였다. 교육청 옥상에서 바라보이는 초고층 오피스텔 상층부에는 안개인지 먼지인지 모를 뿌연 구름 따라 창문가를 서성이다 스멀스멀 벽면을 타고 흘러내렸다. 오후가 되면서 바람은 점차 차가워졌다. 어제는 봄날처럼 따뜻했는데, 내일은 다시 영하 9도까지 내려간다고 한다. 예보에 의하면 눈이나 비가 내릴 것이다. 아마도 마지막 꽃샘추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2월 1일)

며칠 후, 입춘 일에는 날씨가 다소 풀렸고, 풍물 단체를 운영하는 후배 하나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와 나눈 대화 속에서 당시, 아니 여전히 혹독한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읽을 수 있었지요. 안타까웠습니다. 해가 바뀌고도 계속된 코로나의 공격은 모두를 피해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니다.

그는 현재 공연을 진행해야만 회사의 식구들을 건사할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예정된 공연이 모두 취소되거나 연기되어 요즘 무척 곤란한 지경에 있다. 그가 책임져야 할 식구(직원)들은 다섯 명이나 된다. 이 혹독한 문화예술의 보릿고개 시절에도 그는 자신 역시 어려운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다섯 명의 단원들을 챙기며 풍물패

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 게 미쁘다. (2월 4일)

2월에 읽고 보았던 소설과 영화 중에 인상 깊었던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 이시백 작가의 장편소설 『용은 없다』(삶창)를 이틀 만에 다 읽었다. 이시백의 소설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읽는 내내 이야기를 끌어가는데 독심과 문장력에 탄성을 질렀다. 그는 탁월한 이야기꾼이었다.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문장은 막힘없이 읽혔다. 일그러진 한국 현대사를 다루면서도 사실을 일정하게 비틀어 유머와 페이지스를 동시에 만들어냈다. 그래서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부분에서는 매우 시적인 문장을 구사하다가 또 어느 부분에서는 시침 똑 떼며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리얼리스트의 면모를 보였다. 그는 작가 후기에 오래전 자신을 무릎 위에 누인 채 곁곁한 목소리로 설화나 민담 등 옛날이야기를 들려주던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말하기 형식을 흉내 내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다고 한다. 그 글을 읽고 보니 왜 그의 소설이 변사의 입담처럼 구수했든가를 알 것 같았다.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장편소설 한 권 읽었다 …… (2월 9일)

일본 영화 <메종 드 히미코>와 대만 영화 <자객 섭은낭>을 보았다. 두 영화의 결은 다소 달랐지만 모두 시간이 아깝지 않은 영화였다. <메종 드 히미코>는 게이를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 사회 통념상 쉽지 않은 소재를 다루면서도 그토록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일본의 문화 풍토가 부러웠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 감정이 도를 넘은 우리 풍토에서는 제작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소 우울해지기도 했다. 내용은 다소 신파적이었고 게이인 아버지와 어린 시절 버림받은 딸과의 갈등이 결국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해소된다는 전개 또한 기시감이 있는 영화였지만 이런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한 감독이나 감독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작품에 공감해준 관객이나 둘 다 부러운 것은 사실이었다 …… <자객 섭은낭>은 무협영화의 외피를 띠고 있지만 사실 이 영화는 정통 무협영화와는 결이 다르다. 당연히 통쾌한 액션이나 핏물이 낭자한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대사도 많지 않다. 그래서 친절한 영화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영화는 인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연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들이 시종일관 스크린을 채운다. 인

물 사이 대화의 여백을 온통 사물과 풍광으로 채우다 보니 영화를 보는 내내 다양한 풍경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 (2월 21일)

3월,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만 생각하기

3월의 첫날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도시를 집어삼킬 만큼 집요하고도 거센 비였지요. 새벽부터 내린 비는 어둠이 깃들 때까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한 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오늘같이 비 내리는 날에 딱 어울리는 일본 영화 〈Last Letter〉를 보았다. 빗나간 사랑, 접수되지 않은 마음, 오랜 그리움의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확인하는 사랑, 빛바랜 시간의 적층 위에서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 마음 …… 이런 종류의 영화는 오늘 같은 날에 봐야 제격이란 생각을 한 나 자신이 대견했다. 이와이 지 감독의 영화들은 상당히 오글거리긴 하지만 기본은 한다. 오래전 개봉했던 〈러브레터〉도 그렇고, 〈4월 이야기〉도 그렇고, 모두 평단과 관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들이다. 마음이 강박해질 때 이와이 지 감독의 영화를 찾아보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진다. 물론 그의 영화에는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순간에 머뭇거리거나 겁을 먹어 결국 자신의 진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마는 답순이와 답돌이들이 부지기수다. 이쪽 감수성이 아닌 관객은 속 터져 죽거나 유지하다고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올지도 모를 일이지만 …… (3월 1일)

3월에도 여전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하염없었습니다. 시나브로 찾아오는 봄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나처럼 고아가 된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더군요. 기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로하고자 하는 방편이었을 겁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질문이 참 촌스럽고 진부하긴 합니다만, 3월 되고 꽃피니 올 초 고아가 된 당신이 걱정되고 안쓰럽고 막 그렇습니다. 난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어요. 궁금하실까 봐 안부 전합니다. 이럴 때 “아, 그리고 당신을 위해 늘 기도한다고 전해달래요.”라는 말을 할 수 없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아시다시피 기도의 주체도 얼마 전 꽃이 되어 버렸잖아요. 찬 겨울, 당신과 나의 눈물은 하염없었지만, 당

분간 꽃샘추위에게도 웃고 손 흔들어 주며 말 걸어 줄 생각입니다. 머잖아 봄의 의장이 온갖 꽃들로 더욱 그럴듯해질 날에는 하늘이나 지상이나 한결같이 환하게 빛나지 않겠어요? 하늘에 들어 꽃이 된 그분들 때문에 지상의 당신과 나도 봄꽃처럼 환해질 수 있다니, 생각하면 참 고맙고도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월 2일)

그리고 돌아가는 정치 정세에 환멸을 느꼈던지 평정심을 잃은 글도 가끔 눈에 띄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도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나를 더욱 슬프게 만들더군요.

…… 역병은 창궐하여 민생은 파탄이 났는데 공사의 직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 온 세상이 시끄럽다. 도덕적 해이가 나라에 만연하고 있으나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질 않는 나라, 언론은 권력과 자본의 나팔수가 되었고, 정치인과 식자들은 흑세무민, 곡학아세하며 제 배 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나라, 국민과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와 검찰은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기득권 유지에만 진력하고 있는 나라, 정의와 양심보다 투기와 편법이 자연스럽게 용인되는 나라, 신을 팔아 보신하는 일그러진 종교인들이 득세하는 나라, 불법 탈법이 준법을 비웃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 (3월 9일)

송도에서 열린 지인의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바람이 몹시도 세차게 불던 날이었습시다.

김연옥 개인전 〈편집된 풍경〉, 케이스24 內, 갤러리 ‘스페이스 &’
요철이 들어간 입체적 달항아리를 그리는 작가로서 이미 자신만의 독보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 놓은 중견작가가 자신의 예술세계 안에서는 상당히 모험적으로 보일 만큼 낯설고 큰 변화, 이를테면 구상에서 추상, 혹은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화풍상의 변화를 모색했다는 건, 작가로서 아직 ‘늙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전히 만만찮은 예술적 동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전시는, 작품의 미적 완성도와는 별개로 변화를 위한 모색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원색과 무채색의 역동적인 어우러짐. 작가는 그동안 저 다양한 색들의 아우성을 어떻게 참아왔을까. 무의식 속에서 꿈틀대던 원색들을 이제야 비로소 풀어놓다니…… 해방된 색들의 향연에 흠뻑 취하다 돌아왔다. 송도의 바닷바람은 봄바람답지 않게 제법 거칠었지만, 좋았다. 새로 만난 그림도, 정제되지 않은 익숙한 바람도…… (3월 16일)

그리고 나는 “어제부터 내린 비는 오늘도 보슬비로 바뀌었을 뿐 집요하게 이어지고 있다. 차라리 저 봄비의 집요함에서 근성을 배워야 할까 보다.”라는 말로 3월을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4월, 팬데믹 속에서도 꽃은 피고

워낙 하루하루가 숨 가쁘게 돌아가다 보니, 일상에서의 소소한 행복에 대한 갈망이 많았던 4월입니다. 4월의 첫날 기록은 다음과 같이 끝이 납니다.

…… 오전에는 우체국에 들러 동료 시인에게 내 시집을 보내주었다. 약국에 들러서는 눈약과 용각산을 샀다. 근처 미용실에 들러 이발도 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신포순대에 들러 순댓국 2인분을 포장해 왔다. 슈퍼에 들러 담배 5갑을 샀다. 집에 돌아오니 얼마 전에 신청한 알뜰교통카드가 도착해 있었다. 순댓국으로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잠깐 낮잠을 잤다. 평범한 하루였다. 지극히 평범한, 오늘 같은 시간이 너무 좋다. 뉴스를 보거나 SNS를 하지 않는 이상 깨지지 않을 소소한 행복이다. 오후에는 단 한 통의 전화도 걸려오지 않았다. 이 또한 다행스러운 일이다. (4월 1일)

4월은 억울하게 죽어간 애꽃은 생명이 많은 계절이라서 숨쉬기조차 버거울 정도로 매번 힘겹게 4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치열하게 자기 몫의 생을 감당해야 했지요.

한국 현대사에서도 4월은 잔인한 달입니다. 4·3, 4·19, 4·16 등 애꽃은 희생들이 많았던 달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 ‘저주’의 계절을 ‘희망’과 ‘재생’의 계절로 뒤바꿔놓았습니다. 잔인한 시간을 의지로 낙관하며 희망

의 계절로 만들어내는 것, 코로나 시대인 현재,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4월 19일)

그리고 4월이 저물 무렵에는 방치했던 산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독한 그리움조차 나에게서는 힘이 된다는 믿음으로 묵은 글들에 더께로 얹은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엄마를 향한 그리움, 시국에 대한 절망감,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도 나는 술을 줄이고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대견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월을 보냈습니다. 시국이 수상해도 다가온 꽃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오랜만에 미세먼지 양호한 쾌청한 봄날이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영산홍, 라일락, 겹벚꽃, 산벚꽃, 늘어진 능수버들, 명자꽃, 백목련, 자목련 등등 활짝 핀 꽃들. 점심 식사 마치고 동료 보좌관과 교육청 주변을 산책했다. 소년처럼 라일락 꽃향기도 맡아보고, 겹벚꽃과 목련 앞에서는 ‘와~!’하고 감탄하며 잠깐 감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영산홍과 명자꽃 붉은빛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바라보다 다시 걸었다.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진 직원들의 표정은 마스크로 반쯤 가려졌지만 모두 봄꽃처럼 환해 보였다. 코로나 때문에 잿빛으로 변한 삭막한 일상 위로 순하고 착한 봄은 꽃을 보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엄마를 잃은 나는 환한 꽃을 볼 때마다 더욱 엄마가 그리웠지만, 그래도 저 꽃들이 사람들의 팍팍한 삶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쓸쓸함과 그리움을 견딜 수 있다.

5월, 판타지 속 영웅은 들끓고

5월이 시작되자 진보적 문화예술진영 내에서의 몇 가지 고민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제출되기 시작했다는 건 지역 문화 현장 내 역관계가 재편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한편으로는 ‘우군’의 불안함을 내포한 논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의 기록에서 그러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K형은 새로운 문화조직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하지만 느슨한 조직이 아니라 사투도 불사할 수 있는, 정치적 성격이 명확한 조직일 거라고도 하면서 기존의 조직이 범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열거했다. 나는 문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의 칼날은

‘우리’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성격이 강조된 문화예술조직은 자칫 진영 내 또 다른 조직 하나 보태는 것이나 같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다. 형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진영의 색채를 의도적으로 떨 생각이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상대가 문화와 예술의 외피 뒤에서 지나치게 몰염치, 비논리적 정치공세를 펴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수세적인 모습을 보여왔거나 일사불란하지 못했으므로 전선을 좀 더 명확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5월 1일)

5월에는 주제와 성격이 비슷한 TV드라마가 방영되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기도 했지요. 아마도 그러한 드라마들이 인기를 끌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나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놓았더군요.

저녁에는 다크 히어로가 등장하는 드라마 〈빈센조〉를 시청했다.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한 판타지였다. 악덕 재벌, 재벌과 결탁한 판사, 검사 등의 사법 적폐들,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고위 정치인 등 악의 카르텔이 한국계 이탈리아 마피아 중간 보스 ‘빈센조’에 의해 처절하게 응징되는 줄거리는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대리만족을 선사한다. 조각 같은 외모, 출중한 격투 실력, 한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돈과 화려한 장비, 완벽한 매너를 장착한 빈센조는 비루한 현실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시민의 바람이 투영된 가상의 영웅이다. 그는 현실에서 시민이 증오하거나 적대하는 권력의 심장부에 가공할 응징의 화살을 날린다. 빛나가는 법도 거의 없다. 시청자들은 그때마다 환호한다. 이 드라마는 시원하지만 그래서 위험하다. 드라마 속 빈센조의 처절한 응징, 복수는 시청자의 분노를 부추김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한다. 하지만 그 ‘복수’는 가상의 복수일 뿐이지 현실에서의 문제해결이 아니다. 시청자들은 허구적인 복수를 통해서 현실에서의 문제해결 의지를 희석하게 된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실천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더욱 자극적인 판타지에 기대 그것에 위로받고 문제의 본질을 잊고 산다. 물론 답답한 현실에서 이러한 정서적 배설과 대리만족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제도 가끔 필요할 때가 있다. 다만 그것은 고통스런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물핀이 필요한 것처럼 제한된 경우나 현실에 대한 냉정한 시각을 잃지 않을 때만 유효하다. 위급한 경우가 아닌데, 물핀을 찾는다면 그것은 마약에 중독된 중독자에 다름아니다.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 속 영웅은 자

신의 문제를 힘들이지 않고 해결할 수 있지만, 현실 속 범인(凡人)은 그럴 수 없다. 냉철한 현실 감각과 비판적 사고가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현실과 허구를 착각하거나 현실 감각을 잃고 상실과 허무의 사막을 떠도는 유령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타 방송국에서 방영되고 있는 〈모범택시〉 역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악인들을 법이 아닌 폭력적인 방법으로 응징하는 복수극 범주의 드라마다. 요즘 이러한 드라마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서민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이고 현실을 그렇게 만드는 대상에 대한 상실감과 분노가 시나브로 증폭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확실히 법보다 주먹이 악인에겐 효과적이다. 악인들은 법조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와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 방식 역시 잠시 통쾌함을 줄 수는 있지만 올바른 해결 방식은 결코 아니다. 게다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위험에 빠뜨린다. 폭력은 가장 원초적인 통쾌함을 가져다준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 역시 〈빈센조〉와 마찬가지로 판타지일 뿐이다. 악인을 악인의 방식으로 응징하는 건 항상 위험하다. 최악과 차악을 구분하는 주체는 누구란 말인가. 자신의 기호와 이해관계가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분풀이일 뿐이지 정의의 실현은 결코 아니다. 절대 악도 절대 선도 현실에서는 없다. 선과 악의 판단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5월 2일)

6월, 고독은 나의 힘

6월 들어 직장에서의 업무는 많아지고 팬데믹 상황은 한결같아 정신적으로 많은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휴식을 위한 고민 연대’를 조직해 볼 생각도 했습니다. 아래의 기록에는 당시의 내 마음 상태가 잘 드러나 있더군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거나 남은 시간에 알찬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다. 준비하지 않았거나 경험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분의 시간은 자칫 의미 없이 소모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계획을 세우는 행위는 또 다른 스트레스 발생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무 계획 없이 시간 앞에 무방비로 서는 것이 진정한 휴식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의도적인 계획을 지양하고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게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얼핏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 말은 모두

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고기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더 맛있게 먹듯이 많이, 다양하게 놀아본 사람이 더 알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법이다.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 먹어보고 놀아본 구체적 경험 속에는 시행착오를 통해 학습된 최적의 휴식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을 것이다. 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제 몫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업무에 매몰돼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많은 양의 자유로운 시간을 만났을 때 과연 그가 알찬 휴식을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겠는가. 물론 그간의 긴장을 이완하는 것만으로도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자신에게 휴식이 왜 필요한지, 다음번에 같은 기회(여유분의 시간)를 만났을 때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 혹은 자신 주변의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할 개연성이 많다. 제대로 쉬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수로 알찬 휴식의 시간을 조직할 수 있겠는가 …… (6월 3일)

6월에는 또 재작년 작고한 표신중 선배의 유고집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들을 살펴보면 생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다가 잠시 쉴 때면 그와 술 마시던 시절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와 의 영별이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에 조금 쓸쓸해지기도 했습니다.

…… 사실 나는 그를 잘 모른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거 같다. 모르다니, 그럴 리가. 알았던 그와 새롭게 알게 된 그가 크게 다르지는 않았으나,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 …… 정확하게 말하면 '제대로, 온전하게, 총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야 옳다. 그렇다. 나는 그를 안다. 심지어 친한 선후배라고 그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곤 했다. 실제로 우리가 친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인천에서 오래 같이 활동하기도 했고,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적은 것도 아닌 술 자리를 가졌으며 재단의 사업 심사 때는 함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갈매기에서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든 생각은 그가 매우 약해 보였고, 진중하고 깊다는 것이었다. 음악과 문화예술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다. 대화 속에서 그 역시 노동자 민중운동의 하나로 문화예술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가 알고 있

는 사람과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겹치기도 했다. …… 만남이 서너 차례 이어졌을 때, 그는 생각보다 다변이어서 놀랐다. 특히 기존 운동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는 무척 냉소적으로 변하곤 했다. 그러다 그가 경기문화재단으로 활동 단위를 옮기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남이 소원해졌다. 가끔 심사 자리에서 만나곤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더욱 병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다. …… 마지막으로 그를 본 지 꼭 2년 만에 나는 그의 부고를 받았다. …… (6월 24일)

그리고 6월의 말미 후배가 연출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예술회관을 찾았다. 후배 이재상이 쓰고 연출한 연극 〈삼거리 식당〉을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 이 작품은 작년 여름에 이미 본 작품이다. …… 극장은 만석이었다. 인천 연극의 터줏대감인 이재상의 연극은 티켓파워(ticket power)가 있는 편이다. 코로나로 인해 관객 수에 제한을 두긴 했지만, 수백 명의 관객이 들어찼다. …… 공연 자체는 다소 밋밋했다. 눈 내리는 세밀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 연극을 한여름에 보게 되니 다소 현실감도 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미 관람했던 연극이라서 관극(觀劇) 과정의 긴장감도 별로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주연배우 하나는 대사를 절기(버벅거리기)까지 했다. 50석 남짓한 소극장에서만 했던 공연을 수백 석이 넘는 큰 무대에서 재연(再演)하려니 긴장했던 걸까. 발성 자체도 달리할 수밖에 없으니 그런 '긴장'은 어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개인적인 이유 하나를 더 들자면, 이음카드를 잃어버려서 극이 시작되기도 한동안은 카드 분실을 어떻게 수습할까를 고민하느라 연극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도 있다. 다행히 극이 끝나고 극장을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접으니 카드는 바로 의자 밑에 떨어져 있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순간이었다. (6월 26일)

어떤 날의 꽃들은 왜 사람의 목소리로 수련거리는지, 죽음을 직감한 새들의 눈에 들어온 마지막 풍경은 슬플지 아름다울지, 별들을 품은 저 우주의 주재자는 누구인지, 왜 '엄마'라는 단어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것인지, 죽음은 정말 존재의 영혼을 말끔하게 지울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지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의문에 대답이 필요할 때, 살면서 만나는 등이 휘 것 같은 삶의 무게로 인해 힘겨울 때,

스스로 고독 앞에 당당히 서보기, 그 절대 고독 속에서 본질적인 자신과 대면해 보기……. 고독은 생각보다 힘이 썩니다. 하여, 고독은 내 삶에 있어 훌륭한 스승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6월을 마감했습니다.

7월, 우기(雨期)를 아름답게 통과하기

엄마 없이 맞게 된 엄마의 생신. 엄마는 지난 1월 이곳의 삶을 정리하고 하늘나라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엄마의 새로운 생신은 이제 1월입니다. 그래도 부모 자식의 정리는 단순한 게 아니라서 ‘낡은 생신’을 맞는 마음도 만만찮게 먹먹합니다. 오전부터 날씨는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지요. 엄마가 잠든 공원 입구에서 빨간색 조화(造花)를 15,000원 주고 샀습니다. 더 싼 것도 있었지만 맘에 들지 않았습니 다. 밝은 꽃은 때가 잘 타 짙은 색 꽃을 골랐습니다. 빨간색 사이사이 흰 꽃이 섞여 있어 보기 좋았습니다. 꽃을 본 엄마 얼굴도 꽃처럼 빨갱게 물들었을 겁니다. 봉분 주변의 잡초를 뽑고, 짧은 기도를 드린 후 함께 계신 아버지의 안부도 물었습니다. 7월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7월은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장마, 찜통더위 때문에 의뢰받은 몇 건의 교열 교정과 교육청 업무에만 매달렸을 뿐 공연이나 전시를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순께 열린 〈조선화의 거장전〉(인천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 이러한 때에 통일 시대의 새로운 거점 도시 인천에서, 분단으로 인해 끊어진 남과 북의 미술의 맥을 잇고, 문화적 교류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아름답고 가슴 뛰는 전시회가 열린 것에 대해 매우 기쁘고 또한 고맙게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는 정부 정책과 노력이라는 시침(時針)과, 국민의 관심과 참여라는 분침(分針), 그리고 오늘 전시와 같은 다양한 형식의 문화적 교류라는 초침(秒針)이 맞물려 돌아가야 마침내 통일이라는 알람이 우렁차게 울리며 우리 민족의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 믿는다.

좁은 보폭이지만 가장 부지런한 교류의 초침이 움직임을 멈추면 시침도 분침도 힘

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시작되는 전시, ‘조선화의 거장전’은 그 부제에서도 언급되었듯, 평화의 길을 여는 주체로서 인천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문화적 선언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러한 의미 있는 전시를 마련해준 경인일보사와 관계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특히 전시를 총괄하는 수홍 형과 미술 총감독을 맡은 후배 소영이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다. (7월 23일)

그리고…… 심보선 시인의 ‘슬픔이 없는 십오 초’을 읽으며 7월을 떠나보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글로 7월을 마감할 것을 보니, 우기를 통과하기가 제법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늘어가는 존재인 내 생의 한편에도
조금씩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차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나는 사랑을 꿈꾸진 않는다.
사랑 따위를 생각하던 마음의 지붕에
나로서는 어찌지 못할, 속절없는 구멍이 뚫린 모양이다.

8월, 표류자가 여름을 통과하는 법

여전히 더웠지만, 날마다 조금씩, 그러나 분명 느낄 수 있을 만큼, 더위는 누그러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제법 흘렀어도 엄마의 기억은 수시로, 처처에서 떠올라 나를 먹먹하게 하고, 나는 아직도 ‘저들만의 뉴스’가 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치열함과 약진만이 나를 긴장하게 만드는 힘이었지요. 여름의 마지막 기세는 맹렬하겠지만, 울여름은 예상했던, 꼭 그만큼의 상실과 힘겨움을 경험한 것만으로도 나는 고마웠습니다. 8월, 늘 그렇듯 나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맨손 맨몸으로 그 시간 속을 통과해야 할 게 분명하지만, 8월생 나의 별자리는 사자자리,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8월은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 다. 지난달에 시작한 〈경인일보〉 주

관 〈조선회의 거장전〉(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야당 소속 국회의원 하나가 탄지를 걸고 나섰습니다. 예술작품에 색깔론을 덧씌우려는 시대착오적인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분단의 아픔은 지독하게 현재진행형이었습니다.

…… 특히 이 시대착오적인 국회의원이 꼭 짚어 문제 삼은 작가는 현재 만수대창작사 사장이자 인민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민 화백입니다. 그런데 만수대창작사는 2016년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에 의해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재 대상 단체에 소속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 이번 전시는 ‘제재 대상을 상대로 하는 자산동결, 이롭게 하는 행위 금지, 제재 대상의 재원 이전을 금지’하는 유엔제재 조항들을 어겼다는 게 그 얼치기 의원님의 주장입니다. …… 이번에 문제가 된 김성민 화백의 작품 ‘어머니, 막내가 왔습니다’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그린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앞에 두고, 국민의힘과 해당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작품에서 과연 생경한 정치색이 느껴지십니까? 이 작품을 임대하고 전시하는 것이 얼마나 제재 대상(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인가요? 게다가 주최 측은 작품들을 개별 구매한 것도 아니고 한 국내 수집가로부터 전시를 위해 통으로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작품을) 임대한 것이어서 만수대창작사나 김성민 본인에게 그 어떤 금전적 이익도 귀속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도 시비를 걸고 나선 건, 유엔제재 위반이 본질이 아니라 대선을 앞둔 정치 국면에서 색깔론을 통한 반사이익을 염두에 둔 극우 보수 세력들의 진부한 탄지 걸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8월 4일)

8월 24일에는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에서 주최한 〈인천, 인천 인문의 풍경〉을 관람했습니다. 전시의 주제는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 중견작가들이 바라본 인천의 풍경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술가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칙하게 상상하며 자신만의 예술로 실천합니다. 잘 알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장에서 만나는 일은 늘 색다른 느낌을 줍니다. 안 보는 동안에도 저마다 치열하게 전개해 왔을, 각 예술가의 고민과 작업의 결과물을 만나는 일은 언제나 나를 설레게 합니다. 늘 보던 작품의 경향을 또다시 선보인 작가도 있었고 전혀 새로운 작업을 시도 중인 작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의 힘을 확인하며 8월을 마감했습니다.

…… 흐린 날씨였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빨래할까 했는데 간헐적으로 비가 올 수 있다고 해 그만두었다. 결국 비는 오지 않았다. 오후에 양말이나 속옷 등속의 가벼운 빨래는 손으로 했다. 늘 문을 열어두고 있는 작은방을 청소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도 먼지가 많았을 것이다. 오전에는 EIDF(EBS 국제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영화들을 관람했다. 감동적인 작품들이 정말 많았다. 그 영상들이 사실에 기반했다는 것이 더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 어떤 창발적인 상상력도 구체적 사실과 그것이 품은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사실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허다한 다큐멘터리들을 그리 좋아하진 않는다. 우리 심장으로서 그 진실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기 때문이다. 예술 다큐멘터리나 인간극장과 같은 작품들을 좋아한다. 우주나 지구, 인체, 동물의 세계를 다룬 내용도 좋아한다. 사회 정치적인 내용을 싫어하는 이유는 작품에서 말하는 그 ‘진실’ 혹은 사건의 불편한 본질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알고 있는 진실이지만 그것을 굳이 이야기하려는 작품감독의 의도는 이해한다. 고발을 통한 문제 제기, 그리고 대안의 도출을 위해 해당 사안을 집요하게 다루려는 그들의 시도는 세상을 바꾸는 의미 있는 실천이다.

왜 모르겠는가. 하지만 알면서도 화면을 통해 바라봐야 하는 부조리, 파렴치들을 견뎌내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나와 같은 사람의 방구석 양심은 종종 치열한 활동가들이 투쟁해서 얻어낸 결과물에 무임 승차하는 경향이 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는 겁쟁이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더디게 바뀐다. 그래서 늘 미안하다. 이번에 EIDF에 출품된 작품들을 보면서, 새삼 나의 겁쟁이 근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감독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전사들이다. (8월 28일)

9월, 돌아온 가을 앞에서의 다짐들

새로운 일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1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을 얻었고, 또 무엇을 잃었던 것일까요. 그 소회를 다음과 같은 장문의 글로 남겼더군요.

어느덧 1년이다. 살아오면서 내가 공무원이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삶이란 참 오묘한 것, 인간관계의 알고리즘은 어느 날 나에게 공무원의 길을 가도록 등을 밀었다. 그렇게 시작된 교육청 생활은 재밌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했다. 평소 고민하던 문화와 예술을 교육정책과 접목하는 일은 귀찮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낯선 환경조차 나에게서는 새로운 도전이자 성취의 계기로 느껴졌다.

그러나 공직사회에 들어와 일하다 보니, 말로만 듣던 복지부동, 보신주의의 양태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러한 모습에 많은 회의를 느끼기도 했다. 하나의 정책이 입안되고 구체적 현장에서 그것이 구현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과정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 그렇게 업무를 익히고, 청사 내부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꼬박 1년이 걸렸다. 어쩌면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 보이지 않는 난맥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도 그러한 문제들은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러니 나는 다만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될 일이다.

내가 겪은 1년의 경험 속에는 문제도 많고 아쉬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크게 조직과 교육감, 더 나아가 인천 교육에 누가 되지 않게 지내왔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나 같은 ‘어쩌다 공무원’은 눈치 볼 것도 없고, 위촉될 것도 없고, 노여워할 것도 없고, 시샘할 필요도 없다. 머무는 동안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은 묵묵하게 수행하면 그뿐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다양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라도 밖으로 많이 돌아다녀야겠다. 내가 교육청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던 엄마의 모습이 문득 떠오른다. 그림다. 엄마! (9월 1일)

9월에는 가을장마가 찾아왔었고, 내 생일이 있었으며, 추석 연휴도 있었습니다. 백신 2차 접종도 완료했으며, 서너 개의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지요. 숨가쁜 한 달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가장 고민했던 화두는 ‘꼰대 되지 않기’였습니다. 고민의 일단을 신문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작년 여름 전북 진안으로 낙향한 후배 하나가 불일 있어 서울 왔다며 밤늦어 전화했다. 며칠 전 페이스북에 올린 내 글을 봤다는 그는, 자신을 그토록 감성적인 인간으로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 글은 단골집에서 술 한잔할 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

던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를 듣고 마음이 격동해 쓴 글이었다. 후배는 술자리에서 가끔 내가 구겨진 휴지처럼 방치되어 있을 때면 그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그날 휴대전화로 올린 예의 그 글은, 솔직한 내 마음의 일단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적당한 취기와 가을밤의 정취, 아련한 기억과 그리움이 버무려진 감상의 표백(表白)이었을 게 틀림없다. 그런데도 그 글을 본 후배가 고맙다고 해서 내가 오히려 고마웠다.

사소한 것에도 감동할 줄 아는 후배의 맑은 성정 때문이었지만, 이처럼 가끔 한 사람의 말과 글은 그것을 듣거나 읽는 상대방에게 의도하지 않은 감동을 주기도 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쪽의 발화에 상대가 감응하기 위해서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되, 그 용어의 표면적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함의까지 동의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사여구조차 상대의 심장을 베는 날카로운 칼이 된다.

한때 정치적 견해를 명백하게 드러내야 하는 활동을 했던 나로서는 나와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을 게 분명하다. 어떤 경우는 걱정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발언을 했던 적도 있다. 논쟁의 시절에는 상대방에게 강한 상처를 줄수록 나의 존재가 진영 내에서 강렬하게 각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은근히 즐기기도 했다. 지금 생각하면 건강한 논쟁이었다기보다는 유치한 인정투쟁 같다는 느낌이 든다. 물론 그 팍팍했던 시절에는 그러한 소아병적 치열함이 해당 시대를 견딜 수 있게 한 힘이 되기도 했다. 진영을 결속하고 강화하는 데는 상대에 대한 집요한 공격만큼 효과적인 게 없었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어도 당시의 관성은 여전히 남아 다양한 현장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때마다 쓴웃음이 나온다.

솔직한 속마음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드리워진 정치적 색깔과 표명해 온 견해를 한 순간에 뒤집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왔던 한 시기를 부정하는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비롯한 나이 든 왕년의 활동가 중에는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은 것이다. 세월이 흘러 자신이 지양(止揚)하고자 했던 체제와 타협하며 살아가는 일은 그들에게 얼마나 모멸스러운 일일 것인가. 타협을 강요하는 현실의 거센 공격 속에서, 전선을 누비던 의연했던 활동가가 어느 순

간 현실 부적응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을, 상처받은 그들의 자의식이 어찌 덤덤하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

현실 상황이 ‘투사(鬪士)’를 양산하던 시절에는 활동가 대부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야 할 원칙과 지향만 있을 뿐 다른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음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시절을 지나오며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나이 먹은 활동가들은 상당수가 결국 ‘꼰대’가 되어 젊은 세대의 비아냥을 받곤 한다.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회고(懷古) 조 무용담을 입에 달고 사는 그들을 비꼬아 젊은이들은 “라떼족”이라 부른다고 한다. 사회 민주화와 노동자 민중을 위해 젊음의 한때를 기꺼이 바친 그들에게는 치욕스럽고도 서운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자신들만의 용어, 자신들만의 기호를 고수하며 닫힌 세계 속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한, 기성세대에게 채무가 별로 없는 지금의 MZ 세대가 라떼족의 서운함에 대해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꼰대’와 ‘라떼’로부터 자유로운가? 대답이 쉽지 않다. 나 역시 어설피고 의욕만 앞세운다며, 젊은이들을 향해 자주 적대와 비아냥을 표현해왔기 때문이다. 서로 용어와 사고의 범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내 쪽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향해 늘 혀를 차기만 했던 것 같다. 사실 이해와 설득과정이 어디 세대 간의 관계에만 필요하겠는가. 남녀 간에도, 종교 간에도, 인종 간에도, 지역 간에도 상호 이해와 설득은 필요하다. 비단 젊은이들에게 비웃음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이유 말고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층위가 다른 다양한 단위들 사이의 대화와 설득, 이해를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라떼족이여, 기억하자. “나는 꼰대가 아니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꼰대라는 오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한때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전위였으나 이제는 자신을 먼저 바꾸어야만 세상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9월 24일, 기호일보 금요논단)

10월, 아름다운 계절이 품고 있던 숨은 칼

10월에는 장애인의 인권과 사랑에 관한 벽차고도 아름다운 선언, 제2회 인천장애

인인권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얼마나 힘겹고 치열한 시간이었을까요. 제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걸음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는 제2회 인천 장애인 인권영화제 ‘Love me right’(러브 미 라이트)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사회가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사회의 양심과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을 시혜적 대상으로 보려는 사회적 인식, 실재적 제도의 미비, 통념의 벽들로 인해 장애인들이 자활하는 데 있어 여러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인식의 한계와 제도의 장벽을 넘어, 장애인들 스스로 삶의 주체임을 선언함으로써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주체적 실천의 하나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가 더욱 각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특히 영화라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감각적이고 강력한 문화예술 장르를 선택하여 장애인의 문화권과 장애인 예술의 가능성 또한 많은 대중에게 알려내고자 한 전략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화제가 그동안 성문화되었지만 실천되지 않아 그 의미와 효과가 미미했던 장애인 권리에 관한 다양한 법률들을 애초의 제정 의도대로 실천하도록 추동함은 물론, 영화제의 주제인 ‘러브 미 라이트’ 즉 “나를 올바르게 사랑해 주세요”에 걸맞은 온전하고 진정성 있는 사랑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의 수동적 향유자가 아니라 능동적 창작 주체임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의미 있는 영화제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10월 7일)

10월 중순께는 내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조정인 선배님의 동시집(조정인, 『웨하스를 먹는 시간』 문학동네, 2021)을 읽었습니다. 사실 한참 전에 받았지만, 열흘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펼쳐본 것입니다. 적어도 선배님의 작품은 물색없이 바쁘고 정신없을 때 읽어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선배님의 시들은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야만 숨은 의미들이 보석처럼 드러나며 감동을 줍니다. 사람들로 북적

이는 등산로 말고 나만의 호젓하고 아름다운 산책로를 발견하고는 그곳 주변의 나무와 풀과 새들과 대화하며 느긋하게 걷는 느낌, 그 느낌을 무척 사랑하는데, 선배님의 시들은 매번 그런 느낌을 제게 줍니다.

이번 시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삭한 과자 속에 맛있는 크림이 숨겨진 웨하스처럼 고소함과 달착지근함은 물론, 사물과 생명을 대하는 시인의 사랑, 품격, 예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인이 '웨하스를 먹는 시간'에 느꼈을 다양한 감정을 알 것 같았습니다. 문득 지금은 볼 수 없는 소중한 사람들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웨하스를 먹는 시간'이 제게는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의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인천의 젊은 작가 이재은 소설가의 소설집(이재은 소설집, 『1인 가구 특별동거법』, 걷는사람, 2021)도 읽었습니다. 이재은 작가는 후배지만 참 존경스러운 작가입니다. 부지런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어찌나 기발하고 신선한 상상으로 푼툼 뭉쳐 있는지 그녀가 하는 프로젝트를 볼 때마다 매번 놀라곤 합니다. 이 땅에서 전업 소설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때때로, 혹은 자주 삶의 신산(辛酸)을 경험했을 텐데도 늘 밝은 표정을 짓는 그녀를 만나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집니다.

물론 그녀의 내적 고민까지 제가 모두 헤아릴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다만 이번에 나온 소설집 『1인 가구 특별동거법』 속 작품들을 통해 그녀의 작가적 치열함과 고뇌의 일단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칙칙한 일상이나 힘겨운 삶을 이야기할 때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특유의 반전과 유머, 위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즐겁고 재미있는 소설 읽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설 속에는 인천과 인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와서 읽는 재미가 더욱 쏠쏠했습니다. 특히 배다리 헌책방 거리에 실재하는 '나비 날다' 서점과 그곳을 지키는 고양이 '제이(J)'의 시점으로 서술된 소설 「나비 날다」를 보면서 이재은 작가의 톡톡 튀는 감성과 이웃에 대한 그녀만의 사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서사는 그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친한 지인과 고양이 제이(J)와의 소소한 일상만 그려낸 게 아니라 종이책을 외면하는, 모든 것이 자동

화된 세상에 대한 풍자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녀의 감각과 감수성에 매료되게 만드는 작품이었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떠나는 10월의 눈물처럼 저녁나절 잠깐 소나기가 왔습니다. 깜짝 놀라 창문을 열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짜~!' 하는 빗소리는 생각보다 장했습니다. 자주 돌아보거나 가끔 다독이는 것을 잊고 있던 나에게조차 떠나면서 눈물을 보이는 10월의 모습이 얼마나 애뜻했는지요. 계절과 나의 새삼스러운 정리(情理)를 생각하며 10월을 보내주었습니다.

4. 또 다른 여행을 준비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는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코로나19와 공존하겠다는 방역의 변화를 선언했지요. 좀처럼 사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에 마침내 투항한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쉽게 이길 수 없어 결국 적과의 동반을 결정했으니 말입니다.

사실 민생의 피해는 임계점을 넘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방역 초기 국민은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거리두기의 불편함을 감당했지요. '우리 민족은 위기에 강하다'라는 해묵은 문장을 강조하면서까지 모든 이의 인내심을 불모로 방역을 진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방역의 효과가 나타나긴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당시의 인내심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조만간'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조만간'이 무려 2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부 자영업자들과 정치적 처지가 다른 이들로부터 갖은 모멸과 힐난을 받으면서도 강력한 거리두기를 강제하고 백신 접종을 독려해 왔습니다. 국민 70%가 2차 접종까지 마치면, 확산세는 누그러지고, 설사 감염이 되더라도 위중한 환자는 격감할 것이기에 충분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위급한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예상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는 국민에게 인내심을 요구하며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포기하라고 강변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작전’을 변경할 때가 온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교육지책이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코로나의 완전 구축(驅逐)을 희망했던 정부와 국민에게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싸움의 승패는 종종 자존심보다 실리 앞에서의 태도에 따라 갈리곤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청객 코로나19에게 우리 삶의 한 편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때 안방까지 차지하고 우리 삶을 위협하던 그악스러운은 다소 무너지긴 했지만, 당분간은 불편한 동거를 감수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그동안 눈앞의 재앙과 맞서느라 잊고 있던 것들, 너무 피곤하던 핑계로 외면했던 것들을 하나씩 호명하며 새삼 그것들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선 교육 현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실을 잃어버리고 친구와의 소통도 차단당해야 했던 학생들과 현장에서 방역은 물론 교육까지 책임져야 했던 선생님들의 노고는 절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놀이와 소통이 배제된 채 온라인 학습을 해야 했던 학생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기억해야 하고, 학생이 없는 학교를 지키며 학교 방역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신 선생님들의 숨은 땀방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학생과 교사, 교육을 대하는 우리의 예의입니다.

또한 이 땅의 예술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대와 관객을 바이러스에 빼앗긴 채 생계의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끝끝내 창작의 열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술 현장을 지켜온 예술가들, 그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않은 도저한 예술혼과 그 총화로서의 예술작품들이 있었기에 팍팍한 현실은 재앙 속에서도 최소한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품위는 예술과 예술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서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블랙리스트라는 희대의 추문 속에서도 오롯이 예술을 지켜낸 예술가들, 이제는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요양원에 누워계시거나 홀로 사는, 병들고 쓸쓸한 노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안 그래도 곤비한 삶이 코로나로 인해 더욱 비참해졌을 것임은 불문가지입니다. 국가의 복지가 아무리 촘촘해도 모든 노인에게 고루 미치지 못하는 법입니다. 주변과 이웃이 기억하지 않으면 그들의 쓸쓸한 삶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노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공경과 예의의 문제를 넘어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현안이자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품격입니다.

방역의 일선에서 애쓰는 의료 인력들의 노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만큼이나 마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의 덕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과도한 업무에 자꾸만 까라지는 몸을 추스르며 자신이 맡은 일을 온전히 감당해준 그분들 덕분에 코로나를 달래며 살 수 있는 지금의 여유도 맞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복 안에서 숨쉬기조차 힘든 한여름은 물론이고 살을 에는 듯한 추위 속에서도 그들의 헌신은 한결같았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이 밖에도 학대받는 아이들, 일터를 잃은 노동자, 이주민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119 구급대원, 환경미화원 등 각자의 현장에서 각각의 임무와 역할을 묵묵하게 수행하는 많은 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배려와 연민과 고마움을 기억하는 마음이 사슬처럼 엮이고 연대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가 강제하는 불편한 ‘접속의 시대’를 종식하고 자연스러운 소통과 내밀한 교감이 가능해지는 ‘접촉의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품격은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가혹한 바이러스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아직 싸움은 이곳에 있습니다.

한 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독백 속에도 시대의 민낯과 현실의 절곡, 그리고 나뵤의 해법들이 오롯이 담길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여, 싸움이 이곳에 존재하는 한 나의 ‘표류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나는 씁니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합니다.

지상강연

노동문화 활동가에게 듣는
‘인천지역 노동문화의 역사와 흐름과 과제’
김창곤 전 민주노총인천본부장



“

노동문화 활동가에게 듣는 ‘인천지역 노동문화의 역사와 흐름과 과제’

김창곤 전 민주노총인천본부장
chang3545@hanmail.net

”

이 원고는 2021년 5월 14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서 있었던 ‘제 1차 문화담당자 및 문화패활동가의 역량강화교육’에서 있었던 강의록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게재허락을 감사드린다.

(편집자 주)

인천은 노동자의 도시이다.

날도 더운데 현장에서 맡은 바 열심히 일하시느라 바쁘신 중에 변변찮은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자 이 자리에 와주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존경합니다. 박선유 국장한테 이 강의 제안을 받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였습니다.

현직 문화패도 아니고 오늘 와서 보니까 산전수전 다 거친 백전노장 최규진 전 금속노조 인천지부장도 계시고 또 노동자 문화패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시인 조혜영 동지도 계시고 또 백승수 동지는 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풍물인생을 살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해도



되나 멈췄습니다.

제가 인천지역 본부장 임기를 마치고 현장 복귀한 지 벌써 3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동안 현장 복귀해서 나름 또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만 하다가 이런 계기로 동지들 만나는 것도 나한테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지난 시기 내가 경험했던, 걸어왔던 미흡한 내용일지라도 그런 것들이 동지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우리 운동이 조금이라도, 반 발자국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만족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를 짧게 소개하자면 오래 전에 노동자 밴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노동자 밴드 ‘혼수상태’라고 1987년도 가을에 결성돼 한 2~3년간 지역행사는 저희가 다 커버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밴드 혹은 그룹사운드를 직접 하고 그걸 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전자 기타 오르젠 드럼 베이스 이런 걸 다 갖추고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정말 인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노동자 정체성이 투철해서 민중가요를 중심으로 공연했던 것도 아니고 대학가요제 노래와 민중가요, 노동가요를 포함해서 공연을 하면서 인천지역 사업장 속으로 들어가 활동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천지역 노래패 연합을 만들어서 잠깐 활동했던 적이 있었고 동지들도 11월이면 전국노동자대회 문선 활동하는 것처럼, 전노협 시절부터 민주노총까지 문선대 활동도 했었고 또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사회를 두 번이나 본 이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경험들을 강의로 풀어내야 하는데, 제가 전문 교육강사도 아닐뿐더러 교육을 받는 데나 익숙한 사람이라 교육을 하는 것은 별로 경험도 없고 해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동지들이 이해도 해주시고 또 혹여 궁금한 것들은 이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함께 나누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에 주어진 제목이 ‘인천지역 노동문화 운동의 역사와 흐름과 과제’ 등인데 생각해보면 우리 인천은 좀 특별한 도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천을 감히 노동자의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천이 서울 인접 도시이면서 서울과 같은 생활권이기도 하고 또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 육성정책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공장들을 막 짓고 공단을 지을 때 서울 1, 2, 3 구로공단 그 다음에 부평 4공단 넘어서 5공단, 6공단 또 목재단지 또 경서동에 주물단지 또 주안기계단지, 남동공단뿐만 아

나라 청천농장, 화랑농장 이런 소규모 영세 사업장까지 정말 인천에서 이뤄지는 모든 경제활동의 상당수가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정도로 규모가 큰데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지금은 120만이라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인구 300만 도시에서 120만 가까이 공장 노동자라든가 여타 노동자로 생활하는 도시라는 것은 인천이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인천을 되돌아보면 먼저 인천항이 개항되면서 부두 하역 노동자들이 속속 결집해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그때가 인천이 노동자도시로 활로를 확보하기 시작한 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또 인천은 분단 전 일제강점기 때부터겠조? 일제강점기 때부터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쟁수행을 위한 일본 군수기업들이 대다수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는 옛날 대우중공업, 여기가 잠수함을 만들던 공장이었으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컸겠어요. 또 익히 알고 있는 현대제철도 이미 그 시절부터 존재했던 거고 또 지금은 없어지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습니다만 대우전자 있던 자리가 히타치기업이 있던 자리이고 일제강점기 때부터 크고 작은 공장이 이미 자리 잡았던 도시입니다. 이렇게 노동자도시로 변모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으로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공장이 조성된다고 하는 건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돼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여기 계신 동지들도 상당수가 지방이 고향이실 텐데 대략 1970년대부터 1980년대 1990년대까지 지방에서 올라온 이주노동자들이 인천에 자리 잡으면서 명실상부한 노동자도시 인천으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해요. 저도 집은 충청도인데 1984년인가 인천에 처음 올라왔거든요. 전체 인구 대비, 지금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지에서 올라온 분들이 얼마 전까진 한 40% 이상인 것으로, 외지에서 유입된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다수 분포했어요. 지금도 시장선거나 교육감선거 때 보면 각 지방향 우회가 막강한 파워를 발휘하잖아요. 상당수가 충청도 출신이고 그 다음 전라도 출신, 나머지 기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하면서 우리 인천을 노동자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이런 것이 인천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인천을 이야기할 때 특히 우리 노동운동 진영에서는 노동운동의 성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성지하면 예수가 태어난 곳,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 같이 신성한 곳을 성지라고 하는데 왜 인천을 노동운동의 성지라고 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분명 이유가 있

어요. 저는 그 옛날 조선반도에서 최초로 노동자 파업을 했던 도시가 인천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노동운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최초의 노동자 파업은 1898년 함경도 성진 부두 노동자들의 파업을, 공식적으로 최초의 노동자 파업이라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난 본부장 재직 시절에 강제징용 노동자 상을 세울 때 인천을 공부해봤더니 성진 노동자들보다도 5~6년 먼저 노동자파업을 진행했던 곳이 이곳 인천이더라고요. 인천항에 '두량공'이라고 쌀과 거를 분리하는 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있었는데, 당시 일본인 관리자들의 횡포와 탄압에 항거해서 파업과 태업을 했던 게 최초의 파업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조선반도 최초의 파업을 단행한 도시가 인천이니만큼 노동운동의 성지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최초의 파업 말고도 찾아보면 무척 많을 거예요. 1979년도였나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동일방직 뚱물 사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들은 능동적인 참정권 행사도 여의치 않던 시절이고 가부장제가 확고해서 여성들을 부속품 정도로만 취급했던 어두운 시절이기도 했는데 그런 시절에 노동조합에 최초로 여성지부장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천에서요. 동일방직 뚱물사건으로 엄청나게 큰 사회적 반향이 일고 국제노동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많은 항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후로도 1985년도 대공장 남성사업장에서 최초로 파업을 했던 곳이 또 인천입니다. 1985년이면 전두환이 한참 꾀발 날릴 때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다던 5공 시절에 그 당시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합니다. 이것도 대공장 노동자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기록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투쟁이 인천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도 고려해야겠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최초로 파업을 전개한 선배 노동자들의 정신이 우리 지역에 그대로 어딘가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노동자 문화패의 태동

노동자도시고 또 최초로 역사적 노동운동을 만들어낸 곳이 인천이고 이곳에서 문화패 활동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 역시 그런 선배들의 뜨거운 열정과 투혼같은 것들을 가슴에 품고 활동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지들께 처음에 존경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빈 말로 드리는 말씀이 아녜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루 8시

간 일을 해야 하고, 시간 쪼개서 끼리끼리 모여서 연습을 해야 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또 크고 작은 집회가 있으면 또 자체적으로 문선판을 짜고 연습도 별도로 해야 되고... 정말 스스로를 헌신하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 문화패들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요즘에는 단사를 넘어서 지역으로, 지역을 넘어서 전국으로도 연대하는 활동이 많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강원도 동해까지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일반 활동가들의 활동량에 비해 한 1.5배 내지 2배 더 많은 자기헌신과 역량을 투여해서 활동하고 있는 게 우리 문화패 동지들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공연 하나 짜겠다고 한다면 익히 나와 있는 노래 몇 곡 선곡해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회에 맞는 성격의 노래를 찾아내야 되고 다른 사업장의 노래패와 함께 공연을 한다면 입도 맞추기 위해서 별도의 연습도 해야 하고, 가면 또 그냥 갑니까? 투쟁하는 사업장에 달려가는데 있는 돈, 없는 돈 꺼내서 투쟁기금 만들어 공연비는 고사하고 오히려 투쟁 기금을 전달하고... 그런 거 보면 정말 우리 문화패들은 선진 활동가이자 자기 헌신을 밥 먹듯이 하는 활동가들이다 싶어서 존경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 저도 그랬던 거 같습니다. 저는 1984년도에 인천으로 오긴 했지만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새롭게 태어난 노동자 중의 한 명입니다. 만약에 내가 1987년을 겪어보지 않고 내 맘대로 대충 살았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얼마 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모름지기 기생 오래비나 하고 있거나 어디 술집 이런 데 다니면서 탄파라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다행히 1987년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180도 바뀌었죠.

1987년 당시 저는 문화패 활동을 했다고보다는 노동조합에서 선전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홍보부장을 하면서 인노협이 만들어지기 전에 인천지역 홍보부장 모임 대표를 했었죠. 교육부장 모임, 문화부장 모임 등 그 당시 인노협 각 집행국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그런 모임들이 있었어요. 저는 홍보부장 모임의 지역대표로 활동하면서 당시에는 워낙 파업 사업장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열심히 투쟁 사업장들 돌면서 취재하고 밤에는 일꾼교회, 공실위(인천지역민주노동조합건설공동실천위원회), 백마교회 등 이런 곳을 공간 삼아서 지역의 홍보부장들이 모여서 기사 쓰고 밤새 출력을 해서 새벽에 공단에 나가서 배포하고, 그리고 출근해서 일하고 또 저녁에 나가서 취재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수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도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1987년도 내가 다니던 회사에도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동조합의 지원으로 노동자 밴드를 친구들이 만들어서 시작을 했는데 저한테 같이 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드럼을 치는 친구가 따라오지를 못한다. 공연 날짜는 12월 송년회에 맞춰났는데 송년회 때 할라니 갑갑하고, 듣자하니 김창곤이가 드럼 좀 쳐봤다니 함께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세트 드럼은 안 쳐봤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작은북 앞에 두고 쳐본 거죠. 그 정도 수준인데 가능하겠냐 했는데 학원에 가서 연습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원을 갔더니 학원은 내가 알고 있는 거보다 진도가 더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혼자 독학을 했죠. 그래서 한두 달 연습하고 그해 연말 노동자 송년회 때 첫 공연을 하게 됐죠.

그런 경험을 하던 중 1987년에 신규 노조 창립기념 대잔치가 있었어요, 백승수 동지가 다녔던 신평기업에서 11월 쯤에. 그리고 그 이후에 1988년도에 인천지역 노동자 가을문화제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져요. 그게 오늘날 인천 노동문화제의 전신이거든요. 그때 해방가요제가 처음 만들어져요. 그 해방가요제 대본을 쓰는 데 저의 경험이 무척 많이 녹아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 인천지역에서 파업 투쟁을 벌이는 사업장들은 사실 제가 다 다녀왔기 때문에 다 꿰뚫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어디 가면 노동자들이 막 분신을 할라고 한다더라. 경찰들이 와가지고 칠라고 한다더라. 하여튼 인천지역 4공단에서 시작해서 검단, 주안공단까지 한걸음에 뛰어다녔던 그런 경험들이, 또 밴드 활동하면서 여러 사업장 공연 다녔던 것들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었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해방가요제 대본이었어요. 지금 그 대본이 남아 있지가 않아서 어떤 공연을 했는지도 가물가물했는데, 얼마 전에 부평구청이 진행하는 인천 부평사를 새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성공회대 교수가 집필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자료 좀 부탁한다고 요청해서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마침내 그 1회 해방가요제 원본테이프를 찾아냈어요. 그걸 지금 풀고 있어요. 풀고 난 이후에 동지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패나 노래패도 아니었지만 그냥 밴드 활동과 홍보부장 하면서 투쟁사업장을 돌아다녔던 것들이 요즘말로 이야기하면 문선 판을 만드는데 지대한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도 동지들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연대 활동하고 또 공연도 다니면서 여러 사업장 얘기 듣다 보면 그런 내용을 공연을 통해서 다른 노동자들에게 전파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벽찔던 노동자 투쟁의 1987년은 많은 부분 한국사에서 여러 가지 변곡점, 전환점이었던 거 같아요. 노동문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동문화 역시 1987년을 전후로 나뉘어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나?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심화과정 거칠 때 전문가한테 물어보도록 하시고요. 저는 1987년이 중요한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987년도 전에 노동문화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각성된 대중이 없었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암암리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문화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동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기보다는 그냥 조직화의 일환으로 활용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모든 게 1987년에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1980년 광주항쟁, 또 거슬러 올라가면 1970년 전태일 열사 분신, 이런 역사적 사건을 거치면서 지식인 특히 또 청년 학생들이 많이 각성하고 노동현장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당시는 위장취업자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들어와서 현장을 조직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민중교회, 도시산업선교회, 성당 야학 이런 공간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될 때 그때 많이 활용됐던 부분이 노동문화가 아니었겠나 싶어요.

민중가요를 보면 아주 오래된 선배들이 부르는 노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알음알음 알고 있는 몇 가지 노래 중에 <공장의 불빛>, <시대의 꿈>, <단순조립공> 이런 노래는 1987년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서 불리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개사곡인 <늙은 노동자의 노래>, 1980년 광주를 거치면서 이미 대학가는 <광주 5월의 노래>가 또 많이 퍼져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 것이 학생운동 진영이 현장에 들어오면서 노동자에게 전파가 되고 어쨌든 1987년 이전에도 이미 노동문화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던 건데 결국 우리가 노동문화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거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조직적으로 대중이 각성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하면서 노동문화라고 우리가 칭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천지역에서도 보면 그런 걸 준비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인천 민주화운동사』를 만드는데 잠깐 관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인천 노동문화 관련된 글을 ‘송성섭’ 선배가 집필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한 번 읽어봤는데 동일방직 사건 터지고 그거를 연극공연으로 올리겠다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남구청장 했던 ‘박우섭’ 같은 사람도 그 당시 연극대본을 쓰다가 경찰 수배를 받아서 도망 다니고 ‘송성섭’ 이런 분들은 인천 지역 최초로 ‘풍물패 흥광대’를 결성해 현장 지원활동을 시작해요. 1986년도부터 만들어서 그때 아마 78, 79학번 학출 선배들이죠? 학교에서 현장으로 들어오면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분들이 학교에서 현장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 중에는 ‘성효숙’ 선배 같은 분은 미술운동으로 노동문화를 만들어 갔던 분이시고 하튼 그런 1987년 이전에 이런 문화활동이 있었기에 지금이 있고 ‘흥광대’를 비롯해서 그 이후에 ‘인천문화운동연합’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 전문적으로 현장 지원을 펼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패도 있었어요. 인문연에 노래패 ‘산하’라고 있었는데 그 ‘산하’에는 잘 알고 있는 최도는 동지를 비롯해서 여러 동지들이 그 당시 전문 노래패로서 지역에서 활동을 함께 했었고 또 어디에 노래패가 있었나면 ‘도시산업선교회’의 ‘일꾼교회’라고 화수동에 있었는데 여기에 ‘햇살’이라는 노래패가 있었어요. 전문 노래패죠. 그쪽 노래패를 추적해 보니까 ‘서울대학교’ ‘메아리’이라고 노래패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메아리’ 출신의 활동가들이 지역에 들어와서 그런 노래패를 결성해서 노래패 활동을 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이후에 ‘노찾사’에 들어가서 전문 가수가 돼서 활동했던 분도 있고 옛날에는 친해서 같이 술도 한 잔 하곤 했는데 지금은 다 연락이 끊겨서 활동을 하는지 접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987년 이전엔 그런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87세대의 성장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1987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87년을 경과하면서 당시 현장에는 학생운동 진영에서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위장취업자’란 이름으로. 저는 그 분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연극공연 이런 걸 즐겨했던 사람들이 일종의 노동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 태동기 또는 준비기였다고 한다면 1987년은 성장기라고 하고 싶어요.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생운동했던 분들의 도움이 상당 부분 있었죠. 그분들의 영향 덕분에 더 많은 부분 발전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1987년은 노동조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였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가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수십 개씩 노조가 생겼으니까. 요즘에는 노조 하나 결성하려면 몇 날 며칠을 공을 들여야 만들까 말까한데 1987년 6월을 넘기면서 7월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수십 개씩 노조가 늘어나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그 ‘헌광대’라든가 이런 전문 풍물을 지도했던 분들의 영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운동했던 분들 시대였지만 그분들이 풍물패만 활동했던 게 아니라 노동현실을 공부하면서 우리에게도 노조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준비하던 것이 1987년을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당시는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풍물패가 반드시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업장에 100%는 아니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 풍물패가 있거나 최소한 풍물 악기라도 비치해 놔둔 게 현실이었어요.

노동조합에 풍물패가 없으면 거기는 ‘어용노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실제로 그랬어요. 심지어 ‘한국노총’ 사업장에서도 ‘어용’소리 듣기 싫다고 “야, 풍물 좀 배워라. 대신 노동자를 지원하는 전문 풍물패를 찾아가지 말고 다른 데 좋은 데 보내 줄 테니까 배워서 우리도 풍물패 있다는 걸 알리자.” 이런 우스갯소리도 실제 존재했었어요. 그 당시 풍물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풍물 치는 사람들 다 모여라.’ 이러면 기본이 한 200~300명은 족히 됐던 것 같아요. 인천대 교정에서 풍물 한 번 치려면 악기가 없어서 풍물패들이 다 함께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왜 이렇게 풍물패가 급부상했을까? 아무리 지원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게 1970년대 1980년대 시골에서 막 상경했던 노동자들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동네에서, 저희 시골에서는 ‘풍장 친다.’고 했었어요. 풍물이라고 하는 표현은 근래에 만들어진 것 같고 농악이라고도 했었고 그걸 우린 어렸을 때부터 익히 경험하거나 봐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누군가 잘 꿰뚫어보고 이미 익숙해져 있고 낯익은 풍물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공동체를 중시하는 풍물패로 조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당시는 너무나 쉽게 풍물을 접했고 그런 경험 있는 사람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노조의 행사 때마다 길놀이라고 풍물패가 제일 먼저 뭔가를 해야만 행사가 시작되는 거였죠. 어쨌든 노동문화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우리 풍물패 동지들이 선도적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노래패 활동 같은 경우 1987년도에는 노래패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문 노래패는 있었지만 1987년 이후에 노동조합이 자기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직한 것이 뭐였냐면 기타반이었어요. 노래는 기타반을 통해 알음알음 퍼져나가는 데요. 저희 ‘한독금속’ 사업장을 예로 들면 점심을 먹고 젊은 친구들이 노동조합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오래 노조활동 했던 선배들이 노래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차트 또는 전지에다가 노래 가사를 짹 적어놔요. 이거를 한 사람이 먼저 부릅니다. 그걸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단결투쟁가>, <광주 5월의 노래>, <노동의 새벽> 그때 다 배웠던 노래예요. 그렇게 노래는 퍼져 나가는데 노래패는 없었던 거였고 노동조합의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기타반이 있었어요. ‘대공장’에는 노래패가 있었어요.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는 ‘참소리 노래패’가 활동을 쭉 해왔고 다른 사업장으로는 노래패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풍물패가 분화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우중공업 노뚝다리 노래패’가 있었습니다.

그 외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타반이 많이 만들어져요 ‘마이크로전자’ ‘코스모스전자’ 심지어 ‘한국사프’ ‘협우실업’ 등 지금은 이름도 가물가물합니다. 주로 여성사업장에서 기타반이 만들어지고 그 기타반이 1년 동안 연습했던 것을 인천지역 가을문화제 ‘1회 해방가요제’ 때 한 50명 정도가 무대 위에 기타를 들고 올라 와 기타반주 공연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노래 하나가 <단결하세>라고 “단결하세~ 단결하세 따라다라라라~” 기타 반주가 쉬운 주법이긴 하지만 초보자들한테는 비교적 어려운 주법이거든요, 그걸 50명이 친다고 해보세요, 저는 이때 당시 반주패였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 곡하고 <광야에서> 두 곡 연주하고 내려왔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기타반이 만들어지고 점차 노래패로 전환이 돼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같은 노래패는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이것도 얼마 전에 확인했는데 ‘협우실업’이란 곳의 기타반 자료를 봤더니 <사노라멘> 다음에 ‘해바라기’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같이 부르며 노동의 내일을 꿈꾸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래패로 채 발전하지 못하고 상당수 노조들이 깨져나가죠.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에서는 산업구조 조정기였어요. 그 전에는 국내에서 뭐든 막 만들어냈던 시절이었는데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나 동남아 등 이런 데서 물건들이 싸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경쟁력이 없는 사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었고 그중에 하나가 제가 다녔던 ‘한독금속’이에요. 이곳도 수입산 공구에 밀려 문 닫고 ‘코스모스 전자’도 문 닫고 내가 알던 사업장들이 대부분 다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사업장은 ‘최규전’ 동지가 다니고 있는 옛날에 ‘동양기전’이었나요? 거

기는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남아있고 뭐 콜트악기 정도? 나머지는 사라졌죠.

그때 사업장은 망했어도 노래패로 모였던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노래패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1990년도에 저하고 ‘한인숙’ 씨라고 ‘협우실업’ 문화부장이 있었는데요, 그 분하고 둘이 상당부분 논의하면서 지역 노래패를 만들려고 고민하면서 다른 지역의 사례도 찾아보고 일부 병원노동자와 ‘코스모스 전자’ ‘대양’ ‘한독금속’ 등 폐업당한 사업장 노동자들 모아서 91년도에 ‘내일을 여는 함성’이라고 처음 지역 노래패를 만들어요. 그때 강사는 ‘최도은’ 동지가 했었고 우리는 ‘인노협 노래패다!’ 스스로 자부하며 활동했어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인노협’에서는 인노협 노래패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인노협 모 임원이 우리가 문선활동 했던 지역집회 관련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우리 ‘문선대’ 활동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였지만 부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지역 노동자들의 노래패가 처음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 요즘 공연하는 것처럼 집회 때마다 부평역에서 동인천역에서 투쟁의 현장에서 열심히 문선 활동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업장에 노래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따로 사람을 모으기가 힘들니까 풍물패에서 차출해 가지고 노래패로 전환한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바로 ‘대우중공업 노뚝다리’라고 그 사람들이 옛날에 한창 활동할 때는 ‘경로당’ 노래패까지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활동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때 ‘어울림’인가 ‘대우중공업’ 풍물패가 있었는데 거기서 노래패를 만들자고 몇 사람이 차출되어서 만들어진 게 ‘노뚝다리’ 노래패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패가 상당기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했죠. 어쨌든 노래패는 큰 축으로 보면 대공장들이 당시 주도했던 같아요. ‘대우자동차 참소리’하고 ‘대우중공업 노뚝다리’가 기본 규모가 되니까 그 외에 ‘아남전기’ 이런 데서도 노래패가 있었고 그 당시 ‘한라중공업’에도 ‘바리케이트’라는 노래패가 있어서 주로 대공장 노래패가 주도했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인천 지역 최초의 노동자노래패 연합이 활동했지만 1~2년 정도 활동하다가 해단식도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에 아마 1996년도 정도에 ‘한라중공업’, ‘대우중공업’, ‘아남전기’ 몇 군데 사업장 노동자들이 모여서 다시 두 번째 노동자 노래패 연합을 건설하죠. 그게 이제 여러분

들이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철의노동자’라고 이들도 상당부분 헌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1995년도 1997년도 어땠는지 아시죠. ‘김영삼 정권’의 ‘노동법 날치기 개악’ 그런 것 때문에 한참 총파업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 동지들이 지역에서 훌륭한 문선으로 자기 역할을 혁혁히 해냈었습니다.

어쨌든 1987년도에는 저에게 개인적으로도 역사적인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급만으로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저도 인천에서 가장 크다는 대공장 정규직입니다만 기본급만 얘기하면 최저임금보다 정말 아주 조금 더 받아요. 그나마 휴업하고 그러면 최저 임금보다도 떨어질 수 있죠.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잔업 특근을 죽어라 해야 뭔가 더 받는 거죠. 상대적으로 조금 낫다는 것이 그런 상황입니다.

1987년도 이전까지는 정말 암울합니다. 잔업, 특근을 밥 먹듯이 해야 했던 시절인데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가장 많이 할 때, 잔업을 몇 시간 했냐면 1986년도인가? 184시간을 잔업 특근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제가 그 당시 군대 안 가고 방위산업체에서 병역특례를 받던 시절이라 신분 자체가 예측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 강제와 감시가 판치던 시절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나도 돈을 벌고 싶었죠. 사회 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멋있게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또 강제로 일을 해야 됐던 시절인데 평균 잔업시간 150시간이었어요. 그 150시간 정도 잔업 특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 저녁 9시 반까지 잔업을 합니다. 3시간 정도 잔업을 달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6시에 조출을 해요. 그리고 잔업 2시간을 하고 또 퇴근을 합니다. 그러면 4시간이 달리는 거죠. 그리고 수요일 날은 철야를 합니다. 일 끝나고 저녁 먹고 바로 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꼬박 일을 해요. 일을 하고 그리고 5시부터 8시까지 기계 사이에 박스 깔고 잠깐 졸다가 일어나서 다시 또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5시 반에 퇴근하는 거죠. 퇴근해서 다음 날 또 6시에 또 조출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뭐 한 번 쉬든가 아니면 또 연장하든가 합니다. 그렇게 연장, 잔업, 조출을 밥 먹듯이 하다가 수요일 날, 운 좋으면 금요일 날 또 철야 들어가죠. 철야하면 요즘엔 심야수당을 달아주고 하루 보건휴가를 주지만 그 당시엔 그냥 시간으로 달아줬어요. 14시간 달아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평균 잔업시간 150시간이었고 가장 많이 한 달이 184시간이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하래도 못해요. 이제 노

동법에 저촉돼 가지고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찌들게 일하던 내가 1987년을 만나 가지고 노래를 배우다 보니 가슴에 와 닿는 노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뒤풀이에서 노래 부르라고 하면 저는 두 가지밖에 안 불러요. 〈노동의 새벽〉,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이 전쟁 같은 밤일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아 가지고 그 노동문화라고 하는 것에 쑥쑥 빨려 들어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노동자밴드도 하고 노래패 활동도 하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회사 망해서 여기저기 떠돌다가 ‘대우자동차’까지 들어갔는데 그런 노래가 또 있더라고요. 〈떠다니나〉, ‘철새도 아닌데 뜬구름도 아닌데 이 공장, 저 공장을 떠밀려 다녔지…’ 그 당시 실업자로 지내는 내 처지를 이렇게 또 알아주는 노래가 있구나, 그래서 또 그런 노래에 빠지고 매료되고….

치열한 삶과 삶의 표현

제가 1993년도에 ‘대우자동차’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상대적으로 중소 사업장이나 조그만 사업장 분들이 봤을 때는 부럽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대기업이다 보니까 혜택도 있을 거 같기도 하고, 작은 차이가 있긴 해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맞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데 거의 잔업은 뭐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거의 12시간 맞교대를 해야 하고… 그리고 낮에는 좀 나아요. 밤에는 잠도 못 자고 계속 똑같은 걸 10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정말로 생으로 병이 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줄리면서도 조립해요. 라인에서 구르다 보면 내가 기계인지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아침 8시에 퇴근을 하려고 나오면 잠을 못 자서 쾅해가지고 정말 죽겠는데 아침 햇살에 눈도 못 뜨잖아요. 그리고 ‘쾅한 눈 올려다본 흐린 천장에…’ 이런 노랫말이 왜 쑥쑥 안 들어오겠어요. ‘단순조립공’이라고 ‘신나게 돌고 열나게 돌고…’ 아무튼 이런 노래들이 저한테는 거의 제 삶의 일부가 되었고 요즘 그런 노래를 하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하고 지금도 많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하고 이런 노래가 요즘에도 많이 불릴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부르시나요? 저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뒤풀이 때 보면….

그 당시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을 했기 때문에 당시 문화패를 활동했던 동지들이 자신의 삶만큼 치열하게 ‘문선대’ 활동을 했고 문화패로서 자기 기능들을 하지

않았겠나? “치열한 문화패 활동!” 이것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냥 취미활동으로 널널하게 할 거 같으면 연습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겠지만 내 삶의 일부이고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데 또 나를 이야기하는데 노동가요나 노동문화를 멀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아예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걸 무대에서, 투쟁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만들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당시에 율동패는 없었죠. 율동패는 없지만 조합원 대중이 다 율동패였어요. 1987년 처음에는 팔뚝으로 위아래 흔들기만 하던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파됐는지 지게차 율동이니 해방춤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생겼어요. 1987년도 대동놀이에서 자연스럽게 현장마다 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율동은 앉아서 손만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990년도 중반에는 서서 하는 율동이 등장하고 말 그대로 율동패가 등장하죠. 근데 하체는 안 움직이고 무대에 서서 그냥 팔 동작만 하는 율동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좀 재미없었죠. 맛이 없었죠. 본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대중의 입장에서 무대를 바라볼 때 저렇게 단순한 율동을 왜 무대 위까지 세워야 되는지 사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1995년도, 1996년도를 거치면서 율동이 좀 바뀌었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 단체주최 노동문화제 같은 행사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폐간됐지만 『노동자신문』인가요? 이런 데서 행사도 만들어주고 그런 공간에서 학생운동했던 학생 율동패들이 율동하는 거 보니까 무대를 쓸고 다니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들이 노동자들과 결합하면서 우리 율동이 진일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996년도였나요? 홍익대인가? 어디에서 공연이 있었는데 서기상의 〈강〉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했어요. 아! 정말 멋있더라고요. 드디어 우리에게도 이렇게 멋있는 춤사위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탄했던 적이 있었는데 저랑 같이 사회를 봤던 ‘최광기’라는 친구가 백댄서 ‘불나방’이라고 율동패 소개를 잘못해가지고 율동패 동지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었어요. 아주 별로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신들의 공연을 펼치는 동지들에게 ‘백댄서 불나방’이라니, 율동패 동지들이 마음이 상하는 것도 당연해요.

1987년같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노조 수만큼 기타반이나 풍물패도 늘어나고 하면서 ‘지역문선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대풍연’이라고 대공장풍물패연합도 1990년도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우중공업’,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한독시계’ 등 대공장 풍물패들이 모였죠. 저는 별로 동의가 되지 않는 풍물패였지만

요. 개인적으로 그걸 굳이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뉘야 하나 싶었어요. 아무튼 함께 품물쳤던 동지들이 ‘대풍연’을 만들어서 지역 품물문신을 함께 했던 시절도 있었 습니다.

1987년을 거치고 1990년대에 우리 노동문화가 고양기라고 해야 되나요? 엄청난 발전을 했죠. 사업장마다 노래패도 다 들어서고 사업장 내에서 문선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단위 사업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역과 결합은 하지 못했지만 공장 안에 서만 활동하는 패도 꽤 있었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처럼 지역에 나와서 함께 활동을 했던 분도 있고 이때는 시기적으로 좋았던 거 같아요. ‘전노협을 넘어 민주노총으로 가자!’ 이런 주장들이 제기됐던 시기잖아요, 1990년대 중반에는.

문화운동의 고양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걸맞은 문화패들의 역할이 또 주어지죠. ‘지역 문선활동’도 수행하면서 그 이전부터 ‘민주노총’을 만들기 위해 문화패한테 주어졌던 여러 가지 기능도 열심히 수행하면서 당시로는 정말 노동자들의 문화운동, 문선활동의 고양기 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인천에도 노동문화 지원단체들도 꽤 있었죠.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만 ‘마루치’라고 하는 단체도 있었고 그 외에 ‘더늴’ 또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비롯해 정치조직에서 만들었던 몇 개의 문화 공간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제가 미처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단체들이 현장 지원을 열심히 했었 습니다. 그만큼 문화패 활동도 왕성했고….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1995년 즈음 인천지역 ‘문화담당자연석회의’라 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전국적으로는 그게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문화국 회의’ 이런 건 있었지만요. ‘문화담당자연석회의’를 만들어서 지역에 문화 활동 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 문화패 하고 노동조합 문화부는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문화부는 노동조합의 집행기구인 반면에 문화패는 그 조합원 들의 어떤 자율적인 자치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문화부장이 상급 자이고 문화패는 하급자 같이 이상한 층이 형성되는 것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데 그건 아니다, 우리는 함께 노동문화를 일구어가는 일꾼들이다. 함께 모여서 회의 하고 결정하고 함께 집행하자고 만들어진 게 ‘인천지역 문화담당자연석회의’였고 제 가 초대 대표를 했었습니다.

이 회의와 지역본부가 함께 ‘임투 문화학교’, ‘문선대 학교’ 이런 프로그램을 몇 차례 진행해요. ‘임투 문화학교’를 열어서 ‘임투 시기’에 우리 문화패가 어떤 활동을 펼쳐야 ‘임투’를 승리로 이끌어갈 것인지 교육도 하고 ‘문선대 학교’에서는 품물패는 품물패대로, 울동패는 울동패대로, 노래패는 노래패대로 자기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죠. 전체 일정이 끝나면 강당에 모여서 졸업식도 하고 수료증도 주고 그랬습니다. 돌아보면 그 때가 가장 인천지역 노동문화 활동이 고양됐던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제가 1996년도에 한국지엠, 옛날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문화부장을 수행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대공장 역할론에 대해서 무척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입니 다. 제 출신 자체가 서너 명이 일하는 ‘마찌코바’부터 150명, 600명 사업장, 나중에 15,000명 사업장까지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에서 ‘대공장 활동가들 똑바로 해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대공장이 지역에서 역할을 해줘야 지역이 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동지들과 함께 고민했던 적도 있었고 당시가 산별노조로 전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단위사업장 노조 예산으로는 파격적이었죠. 특별회계로 2천만 원 정도를 문화사업비로 책정하고 공장 안에 문화공연을 배치합니다. 공연제목이 ‘열어 라 산별의 역사를’이었어요.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일종의 문화선전 프로그램이었는데 부산에 있는 ‘일터’ 동지들을 모셔다가 1시간 반 동안 공연을 쫓 했는데 공장 안에서 주간과 야간 2회 공연을 끝나고 ‘일터’ 동지들에게 ‘그냥 부산에 내려가면 안 된다, 인천에는 우리 말고도 여러 동지들이 많이 있다. 산별노조로 전환하는 사업장들이 많은 만큼 지역에서 공연 한 번 더 하자!’ 해가지고 인천대학교로 기억을 하는데 지역공연을 한 번 더 함께 열게 되죠. 이게 아주 오래간만에 열렸을 거예요. 1990년 도 초반에 혹시 오래 활동하던 분들을 기억하시겠지만 ‘노래관긔 꽃다지’라고 전국 순회공연이 있었어요. 그후로 가장 크게 했던 지역사업이자 공연이 바로 1996년 이 공연이었던 거 같아요.

저는 그거 하고 나서 다른 노조간부들한테 혼났고 ‘어용’들한테도 지적을 많이 당 했죠. 무슨 지적이냐고요? “그 엄청난 돈을 쓰면서…” 벌써 20년 훨씬 전 이야기에 요. “2000만원 쓰면서 왜 한 폰도 빼돌리지 않았냐.”로부터 시작해서 “굳이 지역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핀잔 등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문화부장하면서 가장 잘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이 공연이 아니었나 싶어요. 능력되고 조건이 되면 지역으

로 환원해야 하는 게 대공장들 역할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대공장 역할을 잘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있죠. 앞으로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1990년도 중반을 거치면서 인천지역의 노동문화운동 고양기라고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문화학교’, ‘문선대학교’ 이런 거 말고도 공동으로 인천지역 문화일꾼 수련회를 개최하죠. 풍물패, 노래패, 율동패가 함께 강화도나 영종도로 같이 가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주 하다보니까 무척 가까워지고 그런 것들이 문화패 간의 연대도 훨씬 공고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무슨 말이나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장이 파업하는데 구사대가 노조를 깨려고 한다고 그러면 노동조합 지침과 상관없이 문화패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죠. 왜? 내가 사랑하는 동지들 함께하는 동지들 사업장이니까. 그런 면에서 문화패 활동가들이 일반 활동가들에 비해서 연대의식이 훨씬 더 높다고 자부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아닌가요? 지금은 별로 안 챙기나요? 그런 좋은 시절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들은 그 동지들이 어떤 연대나 활동에서 특히 ‘문화담당자연석회의’처럼 문화부가 지원하고 문화패가 수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문화 사업은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집행한다는 원칙이 있었으니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노총 만들기 전, 인노협 또는 연맹 시절이었는데 문화담당자, 문화패, 문화단체까지 세 주체가 함께 결정해서 집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안 되고 있죠?

자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그런 호시절을 보내고 1990년대 후반으로 가는데 1995년 이후로 민주노총 건설 활동들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데 그 당시 특이한 게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1987년을 거치면서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막 엄청나게 폭발하듯 터져 나갈 때 ‘자본가’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1990년대 초반부터 이른바 신자유주의 물결에 힘입어 기업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 그 당시 ‘나크(NAC)’라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키려고 근무시간에 조합원들 사원들 데리고 용인이나 다른 외부로 보내서 의식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업문화가 필요하다. 기존의 것을 다 버려라.’ 하면서 노동자 의식을 버리라는

인식 전환 교육을 시킵니다. 삼성 이견회도 “집과 처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이런 화두를 던지기도 하고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다물단’이라고 고구려의 옛 영광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식전환을 요구하기도 하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중소기업장 특히 대공장 하청업체들도 비슷하게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사실 1990년대에는 노동문화가 활성화되는 시기이기도 했지만 기업문화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문화패 활동이 어려워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그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987년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저희 사업장을 예로 들면 상무이사가 현장에 오면 급하게 장갑을 벗고 인사했던 것이 ‘너도 계약직 노동자이지 않느냐.’ 하면서 장갑 낀 채 당당히 악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중반 기업문화가 활성화되면서 현장에 임원들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수시로 다른 부서장급 부하간부를 우르르 데려와서 위압감으로 현장 분위기 조장하고 은연중에 노동자 활동도 억압하고 덕분에 노동자 활동이 타격을 받고 문화패 활동도 사실은 상당부분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것도 기업문화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씨클을 막 만들거나 운영에 깊이 관여하죠. ‘산악회’, ‘스쿠버다이빙’, ‘패러글라이딩’, ‘서예’...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그게 안 되는 중소기업장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주도하는 회식을 자주 열거나 여러 가지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문화란 이름으로 끌고 다녀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노동문화 활동이 위축되면서 기업문화에 대한 심각한 인식과 문제도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를 그런 위축 시기라고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 시기에 노동시간이 조정됩니다.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줄었다가 주 40시간 이야기가 나오던 시절이거든요. 199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노동자의 삶에서 질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였고 ‘민주노총’도 고민을 많이 했죠. 신자유주의에 노동자들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다가오는 노동자의 삶의 변화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정책 사업들을 펼쳐봤지만 압도적 기업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노동자 문화패들이 급속히 위축되기도 하고 활동이 뜸해지거나 위축되면서 되돌아보면 그 후유증으로 결국 문

화단체들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그 당시를 거치면서 인천지역에도 슬하게 많은 단체들이 해산됐고 정치적 이유로 만들었던 단체들은 정치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이유로 활동 공간을 유지할 수 없어서 문을 닫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지금 인천지역에 현존하는 단체가 무엇이 있나요?

노동문화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장 문화패활동이 중요한데 현장 문화패 활동이 위축될수록 또 뜸해질수록 문화단체들도 직격탄을 맞고 그러다 보니까 단체를 떠나서 그나마 그냥 개인 활동가로 전환한 분들이 있었죠. 노동문화 확장을 위해 노래, 풍물, 율동 이런 기능적인 걸 넘어 더 폭넓게 노동자의 삶으로 확산시키려다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되돌아보면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역량 있고 규모 있고 자금력 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면 단체들도 어느 정도 호흡하며 함께 할 수 있고 그런 힘을 받아서 또 현장에서 문화패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기 민주노총에는 문화국이 없었다!

1996년도인가요? ‘민주노총’이 만들어진 것이. ‘전노협’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연맹’에서 산별로 전환되고 명실상부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노동현장도 많이 바뀌죠. 그 전에는 개별 사업장에 단위 사업장의 노조대표를 ‘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지부’가 되어서 ‘지부장’으로 명칭도 바뀌고 지역중심에서 중앙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노협’은 사실 금속 사업장 중심으로 결성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는데 저는 본부장까지 지냈지만 민주노총 건설이 축복이기도 하지만 재앙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한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노협’ 시절에는 숙된말로 “됐냐?”, “됐다!” 이런 게 통하던 시절이었어요. 모이면 바로 최루탄 쏘고 체포하고 연행하고 이랬던 시절이라 제대로 집회를 할 수도 없었거든요. ‘문선’을 뛰더라도 토론하고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자!” 그러면 “됐다!” 하고 바로 무대 올라가 노래 부르고 그랬지요. 투쟁도 언제 어떻게 기습적으로 덮칠지 모르니 산발적으로 투쟁도 많이 했고요. 그러던 ‘전노협’은 역사가 되고 ‘민주노총’으로 전환됐는데 정말 다른 이야기지만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처음 갔다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대의원대회’를 1박 2일 동안 진행하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침탈당할 일이 없잖아요. 합법화 됐으니까 경찰들한테 쫓겨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지면서 모든 산업을 망라하는 ‘민주노총’이 됐는데 웬지 ‘민주노총’이 만들어진 뒤부터는 뭔가 느슨해지고 문화활동도 위상이 좀 달라진 거 같아요. 전에는 문화패 활동하면 자부심도 있었는데, 이젠 제 자의적 해석입니다만 전체운동 속에서 보조 운동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가장 치열하게 자기헌신하면서 가장 선진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패’ 동지들인데도 불구하고 또 ‘노동문화’를 통해서 우리 삶을, 세상을 바꿔보자는 명확한 목적의식이 있는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부문운동으로만 취급하고 ‘민주노총’ 이후에 더 심해지지는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민주노총’ 만들어질 때 총연맹 내에 문화국이 없었어요. 부문운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 그랬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당시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에 투고도 했었습니다.

단순하게 노래, 율동, 풍물만 장려하는 게 ‘문화국’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실제로 노동자의 삶을,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이냐, 노동자의 시각으로 노동자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게 할 것이냐? 그런 자기 목적을 가지고 ‘민주노총’의 문화사업을 전개해야 하는데 그냥 ‘전국 노동자대회’에 ‘문선대’ 조직에서 무대 몇 명 세우고 노래 몇 곡 부르고 풍물 몇 명 동원해서 풍물치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 거 아닐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문화국’을 만들자고 했고 우여곡절을 거쳐 어쨌든 만들어집니다. 초대 문화국장이 신재걸 동지죠. 그러나 ‘문화국’이 생겼다고 해도 그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었냐, 아니냐는 그 조직의 예산 배정을 보면 알죠. ‘문화국’은 밀리고 밀려 조그만 사업비 가지고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사업은커녕 전국노동자대회 문선대 조직하는 게 주요사업이 되고 이후엔 ‘민주노총’ 사업 위상 이런 거 떠나서 누구를 무대에 세울까, 말까? 혹은 이 기조는 되고 저 기조는 안 되고 논쟁과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 전체 운동도 마찬가지로 문화운동도 조직 갈등의 씨앗

을 키워온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전노협’ 시절에는 갈등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어요.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싸워야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됐나?”, “됐다!” 하면 나가서 싸워야 했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민주노총’이 만들어진 후부터 대의원회의를 1박 2일로 하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정말 짜증날 정도로 논의를 했는데 이때 일종의 갈등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마 요즘에도 나타나고 있죠? ‘전국노동자대회’ 문선판을 짜면서 불협화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그때부터 싹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나? 그 전에는 대단했죠. ‘전국노동자대회’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문화운동 단체들, 좌파나 우파나 그런 거 없어요. 부산에 있는 ‘희망새’도 함께 했었고 ‘일터’를 비롯해 ‘꽃다지’, 개인활동가, 현장활동가 다 모여서 1박 2일로 별도로 수련회를 가고 그랬어요. ‘노동자대회’ 끝나고 일종의 뒷풀이 자리로, 전문패들이 모이니까 재미있기도 했죠. 그때는 정파가 다르다고 해서 배타적으로 상대하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서로 간의 왕래도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만나면 인사하고 그 당시는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화라는 큰 틀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니 함께하자. 큰 틀에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전체가 다 모이는 야유회처럼, 전국 노동자대회 문화일꾼 뒷풀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사라졌어요. 그게 언제냐면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나서예요. 몇 번 하다가 사라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인천지역에서 보자면 그나마 ‘문화담당자연석회의’를 통해서 연대와 단결, 그런 것들을 쫓 해왔던 거잖아요. 정치단체들이 정치적 목적의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담당자연석회의’를 함께 하고.

문화패는 모두 고령화 되어가고...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까워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전체 운동이 직격탄을 맞은 일이 있습니다. 1997년 IMF 터지면서 정리하고 입법화되고 전 사회적으로 광풍이 몰아치고 그때 상당수의 ‘문화패’가 깨져 나가기도 하고 많이 사라졌죠. 이런 때일수록 거기에 맞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문화패’잖아요. 남아있던 인천 지역 문화패들이 그래도 훌륭한 역할을 해줬던 걸 기억합니다. 물론 공장 내 ‘노래패’도 충분히 역할을 해줬고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사업장들도 IMF를 맞으

면서 어려웠잖아요. 깨져 나간 데도 있었지만 살아남은 데는 살아남은 만큼 열심히 하면서 ‘문화패’ 동지들이 자기 역할을 해주셨던 거죠.

2000년대 넘어서 이제 2010년대, 2020년대 되어가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노동문화운동 진영의 하락기라고 해야 되나, 쇠퇴기라고 해야 되나, 상당 부분 축소가 돼요. 장기간 그런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만 인천지역에는 1988년도부터 맥을 유지해오던 ‘인천 노동문화제’라고 있었잖아요. 잘 나가던 시절에는 노동문화제를 한 일주일씩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역량이 좋으니까 현장에 ‘문화패’들도 결합하고 전문단체들도 많고 조직을 포함해서 단체들까지 후원도 많이 해주고요. 일주일 내내 ‘노동문화제’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쇠퇴기로 접어드는 게 아마 2000년대 들어와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노동문화제’ 명맥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뭔가 인천지역에서 ‘노동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김성만’ 동지가 몇 년 전에 ‘한국지엠 비정규직’ 투쟁할 때 ‘왜 자기가 여기 와서 공연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20 몇 년째 노동문화제를 이끌고 있는 인천인데 인천에서 공연할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라고 할 때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동지들은 그 전부터 활동한 동지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그 이후로 활동들 시작했죠? 2000년도 경과하면서 지역의 활동들이 많이 쇠퇴하고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건 활동가들이 고령화 됐다는 거예요. 제가 밴드활동 할 때만 하더라도 20대 중반이었고 전노협 민주노총 문선대할 때는 30대였거든요. 〈늙은 노동자의 노래〉중에 ‘어언 30년’이라는 가사가 있지요? 이제는 20대 30대를 훌쩍 넘어 50대 중반이에요. 지금 활동하는 여성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50대 초반이에요. 지금 50 넘은 분도 꽤 있죠.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나마 경험을 살려서 없던 힘까지 쥐어짜서 사람도 만들고 노래패 ‘해방문’도 만들고 풍물패도 힘들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옛날에 비교하면 지금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노동문화를 이끌고 있는 게 지금 현재 2021년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젊은 조합원들은 안 들어오고 있지? 왜 우리만 하지?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는 우리가 잘못 각인시켜 놓은 효과도 있지 않겠냐? ‘노동문화’ 이러면 ‘풍물패’, ‘노래패’, ‘울동패’ 이거밖에 안 떠오르잖아요. 예전에 ‘영상패’ 활동도 있다가 요즘에 수그러들었고 ‘문학회’ 활동도 하는데, 사실 문학회에는 웬만한 노동자들이 하기에는 선입견 같은 문턱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글쓰기 좋아하

고 책읽기 좋아하는 분한테는 좋은 공간이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노동문화가 왜곡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문화’는 ‘노래’, ‘풍물’, ‘울동’인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기능적으로 ‘노래’, ‘풍물’, ‘울동’은 굉장히 유효하고 필요하고 앞으로로도 계속 발전해 가야겠지만 노동자의 삶 속에서 어우러지는 문화가 새롭게 뭔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을 크게 확대시켜가지 못하면 얼마나 더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회현장에서 집회할 때마다 반복해서 같은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각인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조금은 먼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저는 어디서 희망을 보냐면 ‘부평풍물축제’에서 봅니다. 이 축제가 전국에서 가장 큰 풍물축제인데 알고 보니까 동네마다 풍물패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노동문화’라는 생각으로 풍물을 치지는 않을 거예요. 이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고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는 자리인지 잘 생각해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풍물을 더 폭넓게 해석하고 우리 사업으로 더 잘 끌어들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고민해보면 어떻겠냐 생각해요. 혹은 노래패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 안에서 동지들 만나서 문선대도 하고 또 우리끼리 문화활동도 하겠지만 언젠가는 은퇴를 할 거 아니예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직은 꿈만 꾀보는데요. 동네에서 기타 동아리 같은 걸 해 보고 싶어요. 기타 치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대중가요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노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만약에 잘 된다면, 우리 같은 87년 세대들이 나가서 그렇게 한다면, 87년 이후 지역에 노동 현장하고 연결되는 새로운 문화운동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막연하지만 그런 꿈을 꾸니다. 우리 운동에 신진세력 재생산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고령화 되고 있는 이유를 좀 고민하면서 우리 활동이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꿈이 현실이 된다면 아마 산업현장이 아니라도 지역에서 다른 노동문화운동이 꽃피는 ‘노동과 삶과 일상이 이어지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일본처럼 되고 싶지는 않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봐야겠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이 만들어지면서 분열의 씨앗이 싹트다고 했고 전반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풍물패’, ‘문화패’가 고

령화 되고 있는 것만큼은 명확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해야 할 이야기일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명쾌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와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지만 한 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있는 사람부터 잘 챙기자. 갈등의 씨앗이라는 말도 했지만 제가 지난 30여 년 활동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큰일도 아닌데 옆에 있던 동지를 비판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끝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동지는 떠나갔던 그런 가슴 아픈 시절도 있어요. 단순히 운동 때문에 생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료들한테 상처받고 떠난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 같은데 ‘민주노총’이 만들어진 이후에 정치노선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활동하다 보면 이견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가락으로 풍물을 치지만 분명히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크게 지르자,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하자,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A노래로 하자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B노래로 하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차이가 없잖아요. A를 주장했다고 “나쁜 놈! 너 잘못된 거야! 너 비판 받아야 돼!” 이런 유치한 물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저는 너는 왜 그러자고 주장할까? 왜 그는 B를 주장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해 못할 것도 아닌데 A를 주장했다고 그렇게 활동하면 안 된다고 단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심한 모욕과 상처를 입고 떠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노동문화 활동관이라도 여기 계신 동지들만이라도 인천지역만이라도 한 분 한 분 어떻게든 좀 아끼고 또 무엇인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왜 그러지? 먼저 고민한 다음에 서로 접근해 본다면 우리가 활동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갈등이 사전에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고령화로 인해 경로당 문화패가 안 되려면 젊고 새로운 젊은 감각들이 속속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활동 방식은 87년도에서 따온 거라고, ‘따왔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때 만들어진 표현형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꽃다지’는 늘 투쟁적인 노래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니까 엄청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건 ‘꽃다지’ 색깔이 아니라고. 그런데 저는 ‘꽃다지’가 자기 색

깎을 찾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우리는 1987년 이후에 정립된 형태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필요하죠. 투쟁현장에서는 투쟁현장답게 우리가 문선도 해야 되고 또 그런 활동들을 펼쳐야 하지만 또 다른 공간, 일상적 삶 영역에서는 고민도 못하고 있고 개발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을 찾아 새롭게 뭔가를 시도해보다 보면 우릴 지켜봤던 젊은 사람들이, 젊은 활동가들이, 젊은 조합원들이 조금은 쉽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1987년 이후 3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30년 전 방식의 활동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글썽요, 동지들에게 딱히 그게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 맞는 뭔가를 우리가 고민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 세대로 우리 활동은 끝날 것입니다.

그 앞선 사례를 볼 수 있는 곳이 일본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2004년도부터 일본 활동가들 만나면서 교류를 해왔는데 그때 만났던 활동가들이 50대 중후반이었어요. 당시 나만 해도 40대니까 아니 이분들은 왜 다 늙었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본이 그렇게 어느 순간 늙어버린 게 아니라 1980년대, 1990년대 거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한때는 우리처럼 문선대 활동도 있었고 폭탄 투척하고 총 쏘고 거침없이 싸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안 만들어지고 결합하지 않다 보니 그들만 활동하고 그들만 늙어갔던 거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못가고 있지만 최근 2~3년 전 방문을 기억해 보면 이제는 그분들이 70대 많게는 80대예요. 일본 집회에서 보면 젊은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어요. 20대는 눈 씻고 찾아보기 힘들고 30대도 만나기 힘들지만 참석하면 너무나 반갑고 40대 50대가 참석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옛그저께 5·3 집회가 있어서 일 마치고 주안 집회에 참석했는데 뒤에 앉아서 보니 까 그제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인천에서 내로라하는 활동가들,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60대를 훌쩍 넘겼고 나만 하더라도 한참 젊다는데 50대 중반이 넘어가고 있고 일본 생각이 나서 무척 암울했어요. 5·3이야 집회 성격이 그렇다손 쳐도 아직도 우리가 현장에서 일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신진 그룹들 만들어내지 못하고 영입하지 못하면 어쩌면 일본처럼 우리끼리만 늙어가는 문화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0년이 지난 2021년형 문화활동의 장르가 됐던, 방식이 됐던 따로 시간을

가지고 심사숙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나간 시간을 잘 반추해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만 제가 전문강사도 아니고 자료 만드는 소질도 없고 그래서 그냥 메모 한 장 들고 와서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 내용을 떠나서 이런 시간이 우리 동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 정말 반 발자국이라도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일단 그걸로 족합니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 더 보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상인터뷰

봄으로 가는 길

이종구 구술



봄으로 가는 길

이종구 구술

청관, 나의 미술실

내가 원래는 1954년생이에요. 그런데 호적에는 1955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쓸 때는 1954년생이라고 쓰고 공식 문서에는 1955년생이라고 쓰죠. 나는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도 모두 서산 출신이시고요. 오지리가 우리 동네 인데 서북쪽 변방 바닷가예요. 비산비야(非山非野), 큰 산도 없고 들판도 아니고 구릉지 같은 작은 산들이 있고 그게 갯벌로 이어지는 바닷가예요.

나는 오지국민학교를 나왔어요. 내가 입학할 때, 우리 학교는 옆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의 분교였어요. 내가 학교를 조금 일찍 입학했어요. 어렸을 때, 옆집 살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게 학교였어요. 수업 끝나서 개가 나오면 집에 같이 오고요. 그리고 있는데 한 5월 달쯤 나무에 신록이 파랗게 우거질 때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도 교실로 들어와라.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더운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로 따라 들어갔는데, 그게 입학이 됐어요. 그리고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휴학하거나 재수한 적이 없어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동급생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어리다고 알보이고, 애기 취급을 당하고, 별명이 애기였다니깐요.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나이가 콤플렉스였어요. 청소년기에는 학생증 받으면 53년생이라고 고친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도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기는 했어요. 원체 시골학교라 미술대회라든가 실기대회 같은 데 나가서 검증을 받아볼 기회도 없었어요. 선생님께서 미술교육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초등 교과는 다 맡아서 하시니까 그런 선생님의 눈높이에서 미술과목 수업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칭찬도 많이 받고 미술시간이 즐거웠어요. 조금 낮지 않았나 싶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는 인천으로 와서 동산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서산이라는 데가 충청남도의 맨 북서쪽이니깐 같은 충남이라고 해도 충남도청 소재지 대전이나, 천안 같은 대도시로 나가자면 그 당시에는 이틀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인천으로는 오는 것은 다섯 시간이면 되었어요. 여객선 뱃길이 있었거든요. 아침에 배 시간 맞춰서 배를 타면 오후에는 인천에 도착하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은 다 인천으로 왔어요. 인천에 서산 사람이 많아요. 당시에 막내 누나가 인천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같이 자취를 했어요.

중학교에 들어와서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재능이 엿보였는지 “너는 무조건 미술반에 들어가. 방과 후에 와서 그림 그려라.” 하시더라구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술교육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선생님께도 물론 지도를 받지만 선후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같이 미술반에서 어울리며 선후배한테 자연스레 배우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때는 씨클(circle), 동아리에 들어가면 방과 후에 으레 모이는 거예요. 매일, 방과 후에 무조건 미술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데, 규율이 아주 엄격해요. 빠따(bat, 몽둥이) 문화예요. 한 번 들어가면 졸업할 때까지 탈퇴할 수가 없어요. 탈퇴한다고 하면 “빠따 30대 맞고 미술반 그만 둘래? 아니면 계속 할래?” 이라는 거예요.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30대를 어떻게 맞아요? 할 수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하죠.

그때는 중고등학교가 하나라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학교를 다니면서 한 동아리에 있는데, 매일 방과 후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방과 후에 미술실을 가면 화관하고 물감하고 이젤 같은 것을 들고 청관(淸館)으로 가요. 지금 아트플랫폼 있는 데. 인천시내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미술반 학생들이 방과 후에

다 거기로 모여요. 우리 동산중고등학교는 지금 아트플랫폼 관장실이 있는 건물 있는 데로 모이고, 송도중고등학교 애들은 차이나타운 쪽에 현 건물에서 그리고, 제물포고등학교 애들은 교육청 있는 쪽에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자기 아지트 비슷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거기가 말하자면 우리들의 청소년기 미술학교이자, 인천 미술의 출발지 같은 곳이에요. 저희 어렸을 때는 거기서 다 그렸어요. 1970년대 말, 1980년대까지는 그 전통이 이어졌다고 봐야 해요.

그래서 나는 아트플랫폼의 장소성이랄까? 그곳이 참 역사적으로 예사롭지 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곳이 미술문화를 생산하는 중심 공간이 됐잖아요? 그런 장소성이 오늘날 아트플랫폼이 되어서 작가들의 창작공간이자 지원하는 기관이 됐다는 것에서 뭔가 깊은 인연이 느껴져요.

그런데 입시제도가 수채화에서 석고상을 그리는 텃생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입시학원도 생기고 하는 바람에 청관에 인천 모든 미술반 중고등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그림 그리던 세대가 끝나고 말았어요.

청관이 옛날 중국인촌이라 낡은 중국식 건물들이 많았거든요. 지금은 관광지가 됐지만 옛날에는 폐허에 가깝게 쇠락해서 그림의 소재로 아주 좋은 고졸한 풍경, 낡고 이국적인 풍경이었어요. 그림 그리기에 굉장히 좋은 풍경이었죠. 아치도 있고 붉은 벽돌기둥도 있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 궁터가 있기도 했어요. 거기서 학교별로 모여서 그림 그리고 선배들이 골목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후배들은 밖에서 망도 보고 그림 검사해서 잘 못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게으르다고 빠따도 때리고...

게다가 거기가 좋은 것이 다른 학교 학생들 그리는 것까지 죽 보게 되잖아요. ‘아, 송도학교 누가 잘 그리는구나.’ 또 ‘상인천중학교 누가 정말 잘 그리는구나.’ 하루이틀이 아니라 일년 내내 같이 있으면서 다른 학교 학생들, 온 인천의 선후배들 그림까지 좋은 거는 서로 흉내도 좀 내보고 배우고 분발하고... 그런 것이 다 공부도 되고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 고향집에서는 농사를 지었지만 바닷가니까 염전이 있어서 아버지는 염전도 다니셨어요. 염전의 관리책임자를 염부장이라고 하는데, 염부장도 하셨어요. 그러다 아주 작은 염전을 하나 사셔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셨어요. 농사 반, 염전 반 겸하신 거예요. 염전이라는 데가 비가 오면 바로 나가서 소금물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해요. 비설거지라고 하는 건데, 정말 5분 대기조 같은 거죠. 정말 고된 일인데, 농사일까

지 겸하고 계셨으니까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요.

게다가 중2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혼자 농사짓고 염전하느라 굉장히 고생이셨어요. 그 즈음에 우박이 크게 와서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기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어서 경제적인 여건이 무척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을 인천기계공고로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대학가는 것보다 고등학교를 얼른 졸업하고 취직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중학교에서도 공고의 건축과를 가면 내가 그림을 그리니까 설계도 그리고 투시도도 그리고 해야 하니 잘 할 것이라고 입시지도를 받았고요.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지만 그때는 손으로 다 그렸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진학해서 보니까 공고의 건축과 커리큘럼이 대학 건축과하고는 다르게 거의 목공이에요. 가구 만들고 의자 만들고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그게 대부분이에요. 재미있기는 했어요. 2학년까지는 제도 시간이 많고 목공 실습시간이 대부분이고 국어, 영어, 수학은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그런데 2학년까지 그렇게 지내고 나니까 내 인생을, 미래를 두기에는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도 청관에 가서 그림 그리는 것은 계속했으니까 그쪽의 즐거움과 기쁨이 훨씬 컸고요.

그래서 2학년 때 다시 동산고등학교를 찾아갔어요. 대학을 가는 걸로 진로를 바꿔야겠다 싶어서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입시과목 공부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공고에서 공부하는 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요. 가서 김옥순 선생님하고 옛날 담임선생님께 “저 동산고등학교로 전학을 와서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시내에 있는 학교 끼리는 전학이 안 된대요. 실업계에서 인문계로도 안 되고요. 커리큘럼이 다르니까요.

전학이 안 되는 걸 알게 되고는 다른 대책을 세웠어요. 일단 공고는 졸업을 하고 한편으로 달리 대학 준비를 하려고 마음먹었어요. 공고는 3학년이 되면 취업을 나갈 수 있어요. 기업의 실습생 같은 건데, 요새로 말하면 인턴이죠. 그래서 1학기 마치고 대충 취업한 것으로 해서 학교에 서류만 제출하고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입시학원은 단과반인데, 서울 종로2가에 다 있었거든요. 서울역까지 기차로 가서 종로2가로 걸어가 학원에서 국어, 영어, 사회, 국사 4과목 공부를 했어요. 예체능계는 수학시험은 안 봤거든요. 그렇게 단과학원에 다니면서 입시공부를 했어요.

기교적 재현을 넘어 리얼리즘을 꿈꾸며

서라벌예술대학 회화과(서양화전공)에 합격했어요. 입학은 3월에 했는데, 1학기 때 중앙대로 합병이 되어서 여름방학 때 흑석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2학기 때부터는 흑석동 캠퍼스에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합병하고 처음에는 좀 상실감이 컸었어요. 서라벌예술대학에서는 입학하고 서라벌신문사(학보사)에 들어갔어요. 학보사 삽화 기자가 아니라 일반 기자였어요. 수습기자로 1학년 1학기 때는 온전히 신문사에서 취재하고 기사 쓰는데 전념했어요. 엄청 바빠요. 수업 끝나고 학보사 가서 계속 회의하고 기사 쓰고 취재하고 그러느라 아르바이트 같은 다른 걸 일체 못했어요. 그렇게 보낸 1학년 1학기가 무척 좋았는데 중앙대에 통합되고 흑석동으로 이사 가면서 그런 상황도 모두 바뀌고 학교의 독특한 분위기도 다 와해되고 사라졌거든요.

서라벌예술대학은 단과대학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단과대학이 종합대학하고 합병을 하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서라벌예술대학에는 문예창작과, 연극영화과, 음악과, 회화과, 사진과, 예술계열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전문 샵이라고 할까? 그런데 만약 그런 샵이 백화점으로 들어가면 아주 많은 상품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독립적인 전문성이 없어지잖아요?

내가 입학했을 때는 서라벌예술대학이 하나의 캠퍼스니까 학교 안에 다 예술하는 애들뿐이잖아요? 선배든 친구든. 그래서 문학, 연극, 영화 같은 다른 과 친구들과 교류하고 만나는 것이 쉬웠어요. 그러면서 예술적인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새롭게 공부하고 교류하고 있었는데 중앙대학교로 가니까 종합대학 캠퍼스의 구조상 그게 없어진 거예요.

예술적인 교류나 그런 문화가 다 해체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전문성이 약해지고 집중도도 떨어지고 더 넓은 바다지만, 더 넓다는 느낌보다 다 흩어진 느낌, 상실감 같은 감정이 커져서 중앙대로 합병된 다음에도 서라벌예술대학 배지를 달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을 정도였어요. ‘우리는 중앙대에 다 흡수되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존심,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표현하려는 안간힘 같은 거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흑석동으로 다니기 시작한 2학기 때부터는 학교 다니기가 쉬워진 장점이 있었어요. 인천에서 통학거리가 짧아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3학년 2학기부터는 전철 1호선도 개통되었어요. 노량진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되니까 훨씬 편리해졌지요. 흑석

동으로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전공 공부를 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신촌 이대입구에 있는 미술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일도 시작했어요.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오고 학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학교를 다녔죠.

당시 미술계는 추상화 아니면 사실적인 구상화로 구분되었어요. 당시 제일 큰 전시회가 국전(國展), 대한민국미술전람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국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최고의 대우를 받는 작가들이에요. 국전에 입선하지 못한 사람들은 재야(在野) 작가라고 해서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고 해도 별로 실력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술성이나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나 공간이 국전밖에 없는 거예요. 국전이 공모할 때, 구상 부문, 비구상 부문, 추상화, 구상화 2가지로 딱 나뉘어 있었어요. 나는 구상 쪽, 사실적인 그림에 대한 관심과 취향이 추상화보다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런데 마침 중앙대 교수님들이 거의 다 구상화 전공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국전에서 상을 여러 번 받은 추천작가, 초대작가예요. 상을 많이 받으면 추천작가, 초대작가라고 해서 공모에 출품하지 않고 무심사 출품하는 예우를 받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다 우리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내 취향에 아주 딱 맞는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단지 기교적으로 사실적인 그림이나, 추상적인 그림이나일 뿐이지 사실적인 그림이라고 해도 그 속에 리얼리즘(realism)이나 어떤 서사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냥 모델(model) 놓고 똑같이 재현하는 거예요, 개념은 없고 표현력만 있는 거죠. 학교의 커리큘럼이 그것만 있으니깐.

당시 미술대학 커리큘럼은, 특히 중앙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모델 실기 수업이에요. 2학년이 되면 30호 정도의 캔버스에 그리고, 3학년 때는 더 큰 데다 그리죠. 1학년 때는 평범한 모델 모습 그리다가, 2학년이 되면 누드를 그리기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는 기술적, 일종의 재현수업이에요. 개념 예술로서 구상화가 아니에요. 사실적인 그림이 궁극적으로 왜 그리는지, 무얼 그려야 되는지, 어떤 그림을 어떤 목표로 캔버스에 어떤 형상을 그리고자 하는 것인지,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각자 서양미술사 공부하면서 “리얼리즘이라는 것은 쿠르베(Gustave Courbet)라는 사람이 19세기에 한 거구나.” 그것만 알지, 오늘날의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도 몰랐어요. 배울 기회도 없고 그런 커리큘럼도 없고, 추상화냐? 구상화냐? 이것만 있었으니깐요.

학교 별로 조금 다르기는 해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추상화 중심이에요. 서울대도 추상화인데, 우리가 말하기를 서울대 추상화는 그냥 맘대로 그린 추상화고, 홍익대 추상

화는 굉장히 깔끔하게, 테이프 같은 거 붙여서 기술적으로 하는 추상화 있죠? 그런 전통이 강하다고 했어요. 서울대는 막 큰 붓으로 쓱쓱 그려서 술 마시고 그려도 안 마시고 그런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렇게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다 달라요.

지금도 중앙대 졸업생 중에는 구상화 작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렸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정체성들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상화에 관심이 있고 그림 취향이 있던 사람들이 중앙대에서 공부하면서 더 분명한 경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당시 대학 선생님들에게 똑같이 그리라고 지도를 받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캔버스에 그리는 위치까지 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머리는 꼭대기서부터 5센치 떼라. 밑에도 한 5센치 떼고 그려라.” 왜냐하면 그런 공간이 있어야 액자를 걸 수 있기 때문이죠. 표현기술도 그렇게 형식에 집중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게 불만이었죠.

나는 무엇인가를 담고 싶었어요. 나는 서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림을 통해서 말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모델 놓고 그리는 것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초현실주의를 공부했어요. 현실, 리얼리즘은 없었으니까요. 내가 72학번인데, 1972년도가 박정희가 유신으로 삼선개헌하고 영구집권을 한 해잖아요. 그때 그 암울하던 유신시절에 세상이 무겁고, 무겁고, 군사독재가 모든 사람의 삶을 통제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걸 그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은 “그건 그림이 아니고 포스터이다. 그건 나쁜 것이다. 그림은 오직 순수해야 한다. 그림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무개념으로 표현만 있어야지, 개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컨셉이 있어도 안 되고, 거기 정치적인 게 들어가면 그건 아주 불온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당시는 원체 폐쇄적이니까 별 정보는 없었지만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친구 중 하나가 캔버스에다가 자신의 학생증을 그렸어요. 자기 사진, 이름, 몇 년도, 중앙대 총장 임철순 해가지고 그걸 크게 그렸는데 정말 신선하고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검사를 받는데 선생님이 그걸 발로, 구둣발로 푹푹 찌르면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거 뭐 간판도 아니고 뭐야?” 하면서 아주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일단 무서우니까 항의도 하지도 못하고 웬만하면 다 수용을 해요. 그리고 그런 모욕을 한 번 당하고 나면 다시는 못 그려요. 그리고 학점 때문에 수업은 들어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하고 모든 관계, 인연도 다 끊어지

는 거예요.

그런 억압적인 시대니까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모델뿐이지. 당시에는 국전 도록을 보면 그림이 다 모델이에요. 여자들이 쓸데없이 한복 입고 무슨 도자기 안고 있고 그냥 부채, 그것도 태극선 같은 거 들고 있고 괜히 광주리 이고 있고. 실제 광주리 이고 무엇인가 나르는 여인인 것도 아니에요. 노동하는 사람도 아닌데, 광주리를 그냥 소품으로 이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국전 그림이 다 그래요. 노동하지 않는 걸 그리는 거예요. 망치와 곡괭이를 들고 있어도 노동자를 그린 게 아니에요. 일종의 소재주의만 있는 거죠. 그러니 자아의 표현으로서 학생증만 그려도 개념이 없는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민중미술, 리얼리즘적 작품세계는 이런 구상적 기법에서 시작된 것이기는 해요. 학교에서 기본적인 재현, 구상 이런 기술과 기법, 표현은 배웠고 1980년대 세상과 새로 만나서 눈을 뜬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 개념은 학교에서 배운 것은 거의 없어요. 1980년대에 젊은 작가로 데뷔할 때, 그 군사독재의 시대를 살아내면서 정립한 ‘예술을 통해서 제가 세상을 바꿔야 되고 대항해야 되고 싸워야겠다.’는 생각은 혼자서 깨달은 것이 바탕이 된 거예요.

교사가 되어

내가 6살에 학교에 입학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휴학하거나 재수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는데, 졸업할 때까지 신체검사 통지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보통 1학년 때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오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4학년 때에야 신체검사를 받고 1년 후에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대학 다닌다고 입대를 연기한 게 아니라. 2월에 대학 졸업하고 육군 사병으로 8월에 입대했어요.

연천 전곡 포병부대에서 복무했는데, 작은 말단 부대라 낮에는 노가다하고, 교육받고, 훈련받고, 저녁 먹고 나면 차트 같은 거 작업하고, 밤에는 또 보초도 서야 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조그만 부대니까 차트 그린다고 보초에서 나를 빼주면 다른 애들이 더해야 되니까 그렇게도 못해요. 보초는 돌아가면서 서니까, 어떤 날은 보초를 한 2시부터 4시까지 서야 해요. 차트 그리고 늦게 잤는데 두어 시간 잘 만하면 보초 서라고 깨우는 거예요. 다녀와서 또 2시간 자고 나면 6시 기상이니깐 일어나야 하고.

게다가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게, 항상 나보다 학번이 느린 애들이 고참이고, 장교인 거예요. 내가 학교를 일찍 가서 졸업한 다음에 입대를 했으니 나보다 선배인 사람이 별

로 없어요. 나보다 2년 후배가 병장이고... 그런 계산을 하면 머리가 복잡하고 기분도 별로고 신도 안 나고.

그렇게 군 생활을 하다가 병장 때 임용고사를 봤어요. 그때는 임용고시가 아니라 임용고사였죠. 2월에 제대 예정인데, 당시에는 임용시험이 11월인가, 12월에 있었어요. 제대하면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일찍부터 마음을 먹고 있어서 부대에서 틈틈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대 후에 시험을 보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포대장한테 말을 했죠. “내가 제대를 하면 미술교사를 하고 싶은데, 2월에 제대하면 12월에 임용고사를 보니까 1년이 지나간다. 올해 시험을 볼 수 있게 휴가를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포대장이 허락하고 1박 2일 휴가를 주었어요.

임용고사에는 전공과목하고 교직하고 실기과목이 있었어요. 전공하고 교직은 군대에서도 틈틈이 그야말로 주정야독 공부를 했으니까 조금 준비를 한 것이지만 실기는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래서 휴가 나온 날, 친구 화실에 가서 밤새 손을 풀고 연습을 했어요. 그때는 인천이 경기도 인천시였어요. 직할시 전이니까. 1978년도예요. 수원이 도청소재지라 경기도 수원에 경기도 교육청이 있어서 수원 가서 수원여고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때는 사범대학 출신들이 1부예요. 미술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들은 2부고요. 수도사대, 지금의 세종대학교나 경희대학교 같은 데는 사범대학 미술교육과잖아요. 여기에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1부에서 20명 뽑고 2부에서 20명 뽑는데, 1부 합격자가 다 발령이 나야 2부 1등이 발령이 나는 거예요. 나는 비사범계의 교직을 이수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2부인데 군대에서 공부하고 하룻밤 손 풀고 실기 연습해서 시험을 봤으니 성적이 좋았을 리는 없겠죠. 그래도 일단 합격을 했어요. 합격한 것만도 다행이죠.

내가 중앙대에서 교육대학원 미술교육전공 주임교수를 할 때 가끔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기절을 해요. “군대에서 합격하다니 지금은 노량진에서 3년을 해도 합격하기 힘든데!” 하면서 나를 무슨 천재로 아는 거예요. 하하하!

첫 해에는 발령이 안 나더라고요. 한 1년 이상 걸리는 거죠. 2부니까. 그런데 인천고등학교는 공립인데 거기 있는 미술교사가 대학 선배였어요. 인천고등학교는 항상 정규교사 1명, 강사 1명이 근무를 했대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발령 날 때까지 강사로 1년 근무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권해요. 그래서 인천고등학교에서 계약직으로 1년 동안 근무했어요. 그때 월급이 8만원이었어요.

인천고등학교에서 1년 정도 하고 나면 발령이 날 것인데, 그때는 경기도니까 인천으

로 발령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그때 초임들은 무조건 백령도, 연평도, 서해5도예요. 아니면 연천군 백학면 같은 완전히 전방지역. 제일 나은 곳이 안성 같은 곳이나 경기도의 변두리 지역이에요.

그때는 교통이 나쁘잖아요. 나는 제대하고 인천고등학교에 있으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섬이나 그렇게 교통이 좋지 않은 곳에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일부터 가서 그림도 그리고 그 지역성도 공부하겠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가기 싫더라고요. 백령도 같은 곳은 한 번 가려면 10시간 동안 배를 타야 했어요. 그러니 들어가면 나오기도 힘들고 방학 때나 한 번 나오는 건데 이미 인천고등학교에 잠깐 있는 상태니까 발령이 나도 가기 싫었어요. 그때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도시에서나 가능했고 그때만 해도 젊었고 1979년도니까 또 박정희가 죽은 해잖아요. 바로 12·12사태가 있었고, 사회적 긴장감도 엄청나고 변화가 격동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백령도 같은 데 고립되어 있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동산고등학교에 있던 미술교사가 그만 두어서 자리가 하나 났어요. 원서를 냈어요. 내가 동산중학교를 나왔으니까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나 봐요. 그때는 지금처럼 공개전형 같은 것도 없고 사립학교도 오라면 가는 거였어요. 이력서 냈더니 면접 오라고 그러고 면접 봤더니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산고등학교로 갔죠.

교육청에서는 임용포기각서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포기각서 쓰고 그때부터 사립인 동산고등학교에 재직하게 되었어요.

‘임술년’과 ‘지평’

내가 리얼리즘이나 초현실주의 같이 어떤 서사를 그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것은 문학을 통해서였어요. 당시에 ‘창비’, 『창작과 비평』을 봤어요. 그때 『창비』에 나오는 소설가들, 이문구, 조세희, 조선작, 송영, 황석영, 이런 사람들 소설을 읽으면서 리얼리즘에 눈을 떴어요. 그때 소설에서도 농민이라는 건 이문구 선생의 『관촌수필』 정도고 나머지는 도시빈민을 다룬 것이 많았어요. 특히 황석영의 『돼지꿈』이니 『삼포 가는 길』이니 이런 것이 다 노동현실, 당시의 개발현장을 다룬 것이고 그것이 시대적 분위기였거든요.

‘문학이라는 것은 오늘날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계층, 계급 문제를 다루는데 왜 미

술은 그런 게 없을까?’, ‘왜 미술에는 아무도 그런 그림을 안 할까?’, ‘미술에는 왜 저렇게 사회적인 주제의 서사가 있는 작품이 없을까?’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그런 미술을 아무도 안하니까 또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있었으니까. 문학을 읽으면서 나아갈 길을 저는 찾고 싶었어요.

그러다 1980년대가 되니까 전두환 쿠데타가 나서 다시 우리들 삶을 유린하는 정치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내가 그림 속에서 저런 걸 고발해야 된다. 저런 현실, 위압적이고 잘못된 문제에 대해 내가 그림을 통해서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본격적으로 들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나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 ‘임술년’이라는 그룹(group)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대개 나하고 비슷하게 아카데미에서 사실적인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예요. 처음부터 파격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들 1970년대라는 운동현장을 경험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관념으로 유신독재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의식을 드러내지는 못하고 전부 다 감춰두고 숨어있었는데, 그게 1980년대가 되면서 사회적인 연대감이 증폭되고 다양한 젊은 사람들의 저항의식과 조직, 리얼리즘이나 여러 민중예술의 발화(發火)와 만나면서 민중미술을 하게 된 거죠.

1970년대 유신 때는 박정희가 삼선개헌으로 영구집권을 하는 데도 그게 ‘잘못 됐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조직적인 운동이나 그런 운동문화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다양한 채널로 정보가 수집되는 것도 아니고 원체 중앙정보부 같은 공안기관들이 위압적이었고 위협적이던 시기예요. 그때는 뭐 하다가 걸리면 간첩으로 조작되는 일도 다반사였어요. 그러니 앞서 내놓고 싸울 용기도 없었고요. 유신 때는 학생 운동권이라는 게 극소수였어요. 서울대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이런 데 연루된 일부이지 운동권이 대중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중앙대 같은 경우는 문예창작과에 송기원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하고 몇 명, 당시 약간 유신 반대를 하기는 했지만 대중적이지도 않고, 분위기가 좀 살벌했어요. “야, 저놈 저거 빨갱이로 잡혀가는데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두렵고 감히 어떤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기였죠.

박정희가 죽고 1980년대 초반이 되면서 사회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전두환이 집권을 해서 군사독재를 이어가며 사회를 억압했지만 광주항쟁 소식이 전해지고 관련 영상(비디오)이 퍼지면서 그 역사적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조금씩 대중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과 다짐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연대도 가능해지고 확대되고요. 당시 정권이 ‘좌경(左傾)’이니 ‘의식화(意識化)’니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일부 좌경 의식화된 교사들, 일부 좌경 의식화된 학생들.”이라고 매도하고 불온하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폭력적으로 운동을 억압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만큼 여러 주체들이 연대감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기 광주 쪽에 무슨 단체가 있고 교사들이 무엇인가 시작했고 노동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민주화운동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술인들도 본격적으로 집결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사독재가 운동권 학생들, 민주화 인사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그래서 막 죽고 치사사건이 발생했잖아요. 미술인들은 걸개그림이나 깃발그림, 판화 같은 걸 주로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 전락전술도 약하고 동력도 약하니까 그때 개인 예술가들이 그림도 압수 당하고 작가들도 집시법으로 끌려가고 전시회도 중간에 폐쇄당하고 그림을 떼어버리고 별별 일이 자꾸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인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연대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단체가 바로 1982년에 결성된 ‘임술년 구만팔천구백구십이’였어요. ‘임술년’ 그룹 활동은 리얼리즘 미술운동이었지요. 군사독재 종식과 민주화를 위한 의식을 그림으로 그려본 거죠. 임술년 창립 직전에 ‘현실과 발언’ 같은 그룹이 있었고 그 무렵에 전국적으로 여러 그룹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1985년부터 인천에서 ‘지평’이라는 그룹을 했어요. ‘지평’은 일종의 민중미술 단체예요. 허용철은 어쨌든 만나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일반적인 무슨 기획전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당시 주류이던 모더니즘 경향의 작가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아니고.

그렇게 허용철을 만나고, 허용철은 주변에 있던 이복행을 또 만나고 나는 또 후배도 지성, 정용일, 동기 홍용택, 선배 장충익 등을 만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연대하다 보면 민중미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금방 드러나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평’이 조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민중미술을 한다고 하면 이때만 해도, 지금도 좀 비슷하지만,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한 10명이 만나서 같이 하기로 했다고 하면 실제 창립전 때는 예닐곱 명밖에 남지 않아요. 두셋은 나가는 거예요. 부담을 느껴서.

“나는 민중미술이라는 것에 별로 동의도 안하고, 두 번째는 좀 약간 무서워.”, “괜히 잘리지 않을까? 학교에서. 선생하다 잘리지 않을까? 감방 가지 않을까?” 이런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두셋은 그만두는 거죠. 그렇다고 탓하거나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임술년’ 할 때, 이런 경험 있어서 인천에서는 조금 더 대중성 있게 작가들을 포괄해 가자고 목표를 정했어요. 이념적으로 범위를 확고하게 정해놓고 ‘투쟁하자!’고 하면 오히려 참여할 사람이 줄어들고 운동의 확산이나 사람의 확대가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려고 의도적으로 민중미술이라는 말을 조금 부드럽게 썼죠.

‘리얼리즘(realism)’ 또는 뭐 ‘우리시대의 여러 가지 형상미술’ 또 ‘시대적인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 전통과 우리의 잃어버린 미적 감성들’ 등으로 주변부 작가들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 풍부해졌어요.

당시 인천은 미협(한국미술협회) 중심의 향토 화단이었어요. 옛날 분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주변에 세상을 좀 건강하게 보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줬어요. 우리는 몇 명 되지도 않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은 미협이나 보수적인 화단의 활동과는 차별화된 운동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때 1985년도에는 전시장이 없었어요. 시민회관도 문화회관도 없었고 전시장이라면 인천시 공보관뿐이었어요. 지금 중구에 있는 월디어린이집인가? 그 자리가 전시장인데 거기 1층에서 주로 전시를 했죠. 거기 3층이 안기부였어요. 거기 사람들이 1층에 들렀다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게 의식이 되어서 자기 검열도 없지 않았고 또 선후배들이 와서 굉장히 겁을 주고 가요. 일부러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거 하다가 감방 가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한 마디, 한 마디가 아주 두려우니까 경계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걱정되고 두렵기도 한 가운데 ‘지평’이라는 그룹이 시작됐어요.

인천민족미술인협회와 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

그리고 이 ‘지평’이 중심이 되어서 1994년에 민미협(인천민족미술인협회)을 결성하게 돼요. 더 많은 사람을 아우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게 되었어

요. 물론 이렇게 하면 좋은 면도 있고 조금 허술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함께 하면서 중심을 잘 잡고 함께 나아가야 동력도 커지고 활동범위도 넓어진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었어요.

인천은 계속 확대되어 온 도시라 원래 인천 사람이 반도 안 되잖아요. 일자리 찾아서 온 사람들, 노동운동하러 온 사람도 있고 서울하고 비교해서 집값이 싸서 온 경우도 있고요. 인천 출신으로 인천에서 성장하고 공부한 사람들보다 이주한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이것이 광주나 대구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기존 인천 미협이나 인천 예총 같은 경우는 인천의 향토주의에 아직 머물러 있었고 지역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예요. 그래서 인미협을 만들면서 지역을 확대하는 ‘황해’라는 좀 더 넓은 의미의 공간성을 호출하고 최원식 선생님 같은 분을 초대해서 인천학 강의로 듣고 인하사대부고의 최근식 선생님 같은 분하고 답사도 같이 하면서 역사도 배웠어요. 향토가 아니라 인천을 삶의 중심으로 인식 전환도 도모하고 ‘서울’도 하나의 지역이고 ‘인천’도 하나의 지역이라는 ‘지역’의 관점도 도입하고 인천의 지역성을 찾아서 예술적으로 실천하자는 태도를 제안하고 정립하려고 노력했어요.

인천 민미협의 ‘황해미술제’ 뿐만 아니라 개별 작가들의 작업이나 전시에서도 인천성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다보니 노동운동한다고 일시적으로 인천에 왔던 사람들이 이런 조직에 참여하고 공부하면서 점점 인천사람이 되어가기도 했던 거예요. 전시나 행사, 집회 같은 것을 계속 접하고 함께 하면서 크게 인천에 대한 책임감, 소속감, 의무감 같은 동기가 부여되는 거죠. 게다가 그때는 인천 민미협에서 기관지 『황해미술』도 발간했었기 때문에 그런 관심과 노력을 담론으로 축적해가는 것도 가능했어요. 여기에 작가들이 글도 쓰고 인천의 조형물 같은 미술환경에 대한 문제도 분석하고 미술 교육도 들어가고, 작가들이 기관지를 통해서 연대감 같은 걸 크게 느낄 수 있었죠.

매주, 매월, 연례 정기모임을 하면서 지역 인문학자라거나 지역기반의 미술 분야 이외의 인사들과도 미팅, 강좌 같은 걸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보니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조그만 단체가 인천에 오래된 미협보다도 외형적으로는 더 두드러지는 활동을 보인 거죠. 또 전국적으로,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대구경북미술인협의회 같은 것이 지역마다 다 있었어요. 그들하고 교류도 하고요. 그런데 인천 민미협이 제일 조직력 있고 활동 활발하고 전국적으로 모범적이고 역량 있는 우수한 단체로 성장했어요. 그 중심에는 인하대 출신들이 있었어요. 인하대가 미술교육과라 교사들이 많아서 일단

생활기반이 있으니까요. 또 인하대와 인천의 지역예술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가 있었어요. 다른 지역은 그런 것이 좀 약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인천 민예총(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을 만들었어요. 그때 각 장르별로 단체가 있었잖아요? 미술이나 문학은 기본적으로 단체가 빨리 생겼고 인원도 꽤 되고 든든했죠. 그런데 음악이나 영상, 연극 같은 다른 장르는 쉽지 않았어요. 그때 중앙에서는 민예총,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포용하는 송동수(송성섭), 시인 박영근, 화가 허용철 등등이 모이는데, 이 친구들이 다 오랜 친구들이에요. 자연스럽게 연대해야 한다는 데 중지가 모여서 인천민족예술인총연합을 결성하게 된 거예요.

이때 정말 즐거웠어요. 뭐랄까, 서라벌예술대학 1학년 1학기 때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다른 분야 예술인들과 가깝게 교류할 수 있고 관객이 확장되는데, 다 자기영역이 있는 예술계통 관객이잖아요. 연극하는 사람도 오고, 시인도 오고, 영상하는 사람도 오고 다른 장르에서 와서 보고 같이 활동하고 일하니까 훨씬 재미있고 즐거웠어요. 초기에는 사무실이 여의찮아서 여기저기 이사도 다니고 했지만 같이 어울려서 놀기도 많이 놀고 술도 많이 먹었잖아요.

이 시기의 작업과 성과 같은 것은 간단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인미협이 본 궤도에 오르고 인천 민예총이 활성화되는 것은 나의 활동에서도 아주 중요했어요. 이 시기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단 민주화가 되었잖아요. 정치·사회적으로요. 일단 이것은 성과였어요.

그런데 나 개인적으로는 민주화가 되니까 경험적으로 그럴 게 없는 듯한 공허한 순간이 오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고 시끄럽고 억압하면 싸워야 하는 목표가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역설적으로 에너지가 생기는데, 일단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좀 편해지기도 하고 또 웬만하면 지원금도 받게 되니까 선명한 목표가 흔들리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조금 느슨해지는 것도 같고... 일종의 공황상태에 가까웠다고 생



각해요. 그때 “예술가들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더 좋은 창작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작가들도 많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한때 화가들이 풍경화를 많이 그렸었어요. 요즘 민중미술 작가들 그림에 풍경화가 많아요. 단체들이 급속도로 약화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용산참사. 대추리 미군부대 이전, 강정마을 같은 사회적으로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외부 세력이 횡행하고 대결해야 하는 세력이 생기면 또 작가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다시 민중미술이 활기를 띠는 거예요. 현장이 있고 목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놓았어요. 단체나 그룹은 좀 약화된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사회변화에 적응하면서 재편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시대정신을 잃은 게 아닐까 걱정했지만 지금도 문제의식이 생기면 바로 모여서 작업하고 일하고 목소리를 내는 거 보면 그게 아니에요. 게다가 더 좋은 작가들이 국제무대, 세계적인 공간에서 실천하고 영역을 넓히면서 자기 역할을 하잖아요. 예전 형식으로 다시 모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향토예비군도 아니고 역전의 용사라고 만나봐야 친목회밖에 안 돼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거기에서 자기 실천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 무렵부터 나는 다시 땅을 그렸죠. 1980년대에는 현장 가까이에서 싸우면서 절박한 시간 속에서 작업을 해야 했다면 이 무렵에는 조금 천천히, 시간의 거리를 두고 작업을 하고 또 시간이 녹아있는 풍경과 화해를 하고 싶더라고요. 미시적으로 노동하는 땅과 농사짓는 땅으로부터 점점 확대해가서 백두대간, 그러니까 역사로서의 땅, 거시적인 땅으로 확장해간 거예요. 지리산 속에 절간 하나 있는 것이 그냥 풍경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장소를 보여주죠.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전깃불도 없는 시골길을 가다가 불빛 하나를 만나면 그게 얼마나 따뜻하고 반갑고 위안이 돼요? 그런 사람의 빛, 어떤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거예요.

작년 2020년에 남북 정상이 백두산에서 만났을 때를 그렸어요. 두 정상만났을 때, 나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때 ‘봄이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세월호 때문에 사람들은 광화문에 있었고 우리는 촛불을 들었고 정권을 바꿨는데, 정권을 바꾸



니까 그렇게 두 정상이 만나고 평화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봄이라고 생각했는데, 봄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업이 더 필요하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작업을 계속해야겠지요.

지속가능한 작업을 위하여

내가 평생 선생이었죠. 전반기에는 고등학교 미술교사였고 후반기에는 대학 미술전공의 교수였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미술과목, 전공인데 좀 달라요.

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는 미술과목이 번두리 과목이잖아요? 인문계 고등학교 입시중심교육에서 미술이 그렇게 중요한 과목은 아니라 생각하잖아요? 교육 자체로 보면 중요하지만요. 애들도 별로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더더구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활동공간이 넓었죠. 입시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었어요.

입시교육은 굉장히 반복적인 교육이잖아요? 어떤 성과를 위해서 매일 애들한테 수업감지를 쓰게 해서 단어를 외우게 하고 모의고사 점수를 올려야 되고, 또 다른 반하고 경쟁해서 다른 반보다 점수가 높아야 되고, 다른 학교보다 높아야 되고... 계속 비교의 대상이 되니까요. 그러니 입시교과목 교사들은 일종의 악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

들을 물리적으로 막 괴롭히기까지 해야 하고요.

하지만 미술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미술교사로서 나는 애들한테 입시과목 교사들처럼 인심을 잃을 이유가 없었어요. 과제를 내거나 억지로 시험 보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동산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애들하고 교양미술을 중심에 두고 수업을 했어요. 미술을 기능적인 실기미술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미술 분야가 정말 많은데 교과서는 서양화, 공예, 조각 같이 몇 개 분야로 딱 나누어서 하게 하는데, 나는 교과서를 거의 안했어요. 교과서를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시대의 맞는 여러 가지 시각문화와 세상과의 관계 같은 것을 주로 다루었어요. 수업시간이 애들하고 걸으로는 그냥 노는 거죠. 그러나 애들하고 놀고 소통하고 그렇게 지내면서 고등학교 교사로서는 전인교육까지는 아니라 해도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 미술이라는 것을 가급적 편하게 만나게 해서 미술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고 싶었어요.

전교조를 할 때는 애들한테 광주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집에 가서 부모하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부모가 고발해서 안기부에서 학교 교장실을 왔다갔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또 동인천경찰서에서 형사가 왔다갔다고 하고요. 잘 감시하라고 그리고 갔다고 교감 선생님께서 가끔 나를 불러서 주의를 주셨어요. 이분은 내가 동산중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셔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꾸중을 하시기도 하시고... 공안기관에서 그렇게 와서 나를 잘 “지도해라.” “관찰해라.” 그랬대요. 하하하!

정말 좋은 것은 고등학교 제자들은 직업이 다양해요.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있는가 하면 중국음식점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도배를 하거나 건축일, 노가다 하는 애들도 있고요. 한 20년 했으니 지금도 졸업한 아이들을 여기저기서 우연히 많이 만나요. 우연히 만날 때마다 정말 반갑고 신나죠. 그래서 평소에도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질 못해요. 행동도 그렇고 옷차림 같은 것도 대충하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널널하게 고등학교 선생 노릇을 하다가 대학으로 갔더니 이 학생들은 모두 전공수업이잖아요. 졸업생을 우연히 만나도 전시장 같이 다 관련된 장소죠. 하지만 대학에서 예전 선생님들처럼 추상화 그리면 안 되고 정치 그리면 안 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내가 리얼리즘 작가니까 민중미술만 가르쳤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림을 그리고 미술을 전공한다면 다 같은 것 같아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 소질이 있어요. 연필 가지고 잘 그리는 애는 연필로 여러 가지 해보게 하고, 큰 캔버스에 잘 그리는 애는 캔버스에 그리게 하고, 사실적인 세상에 관심 있고 적극적으로 리얼리즘의 정신이나 표현방식에 관심을 갖는 애들은 또 그런 그림을 그리도록 조언해주고 그런 작가 소개해주고, 요즘에는 영상에 관심 갖는 애들도 많은데, 너무 기계적으로 영상에 접근하지 않도록 ‘기계로 네 작업을 하려하지 말고 생각과 상상력과 개념을 기계에 다 담아야 한다.’ 그렇게 조언해 주죠. 영상이 기술적으로 신기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설치미술, 미디어 아트, 영상회화... 이런 수 없는 퍼포먼스까지 미술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오히려 회화가 별로 인기 없는 과거의 형식으로 간주되는 형편이에요.

나는 각자 가지고 있는 관심, 재능 같은 것을 존중하고 살려주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교육하면서 학생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 있어요.

‘예술은 첫째, 영혼이 있어야 된다. 영혼이 없이 그냥 재료만 갖고 기법 가지고 기계 재미에 빠져서 하면 그것은 예술이 아니다. 그런 것은 금방 싫증나고 아무도 인정도 안 하고 감동도 않는다. 그러니까 영혼을 가져라. 둘째 이걸 가지고 네가 평생 먹고 사는 일까지 연결해서 지속가능한 예술을 해야 한다. 개인전 크게 한 번 벌려놓고 그 다음부터 안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개인전 안해도 되고 실용적인 일러스트를 해도 되고 출판미술, 삽화만 그려도 된다. 그것도 훌륭한 예술이다. 옛날처럼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하는 것만 예술이 아니다. 지속가능한 자기 기법이나 재료나 가지고, 있는 장기를 더 확대하고 전문화 시켜서 하라. 생업이 기반이 되는 작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더욱 훌륭한 예술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나도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봤어요. 조정래 선생이 한겨레신문에 『한강』을 연재할 때, 문학담당 최재봉 기자가 연락을 했어요. 삽화를 맡아서 해보면 어떻겠냐고, 806회인가, 한 3년 동안 그렸어요. 주 5회, 하루에 하나씩 월 20장 정도 그렸어요. A4 크기로 작게 그리는데, 일주일 원고를 한꺼번에 보내줄 때도 있고 하루 전에 간신히 도착할 때도 있는데 나는 늦어도 오후 2시까지는 그림을 보내줘야 하니까 힘들 때도 많았죠. 처음에는 송내역에서 만나서 직접 건네주고 나중에는 드디어 스캐너가 나오고 이메일이라는 것이 생겨서 그림을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그 작업이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되었어요. 스토리를 이해하면서 새로운 실험을 해본 것이니까요. 소설에 삽입되는 거지

만 소설을 직접 재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새롭게 상징화해서 다시 구성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소설에 삽화를 그리니까 전국에서 매일 수십만 명이 보는 거예요. 인사동에서 일주일 동안 전시를 하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200~300명이 올까? 그런데 한겨레신문에 그림이 실리니까 전국에서 매일 수십만 명의 관객(독자)이 보는 거죠. 아침에 전화가 와요. “아, 오늘 네 그림 멋있다.” “아, 오늘 이종구 선생님 그림 잘 봤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전시회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하는 거잖아요. 그런 소통이 민주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이에 비하면 제한적이고 폐쇄적일 수 있고요. 미디어나 영상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그래서 했던 거예요. 나는 우리 학생들이 그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실험을 해보기를 원했어요.

체육을 전공해도 근력이 뛰어난 친구, 지구력이 뛰어난 친구, 순발력이 뛰어난 친구 다 전공이 다르잖아요. 육상이나 구기나 종목이 무척 많잖아요. 자기 장기에 맞는 종목을 해야 성공하는 거지, 순발력 있고 달리기 잘하는데 역도를 하면 성공 못하잖아요. 미술도 똑같아요. 그림에 재능이 있고 공부를 해왔어도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것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연구해서, 먹고 사는 일까지 거기서 해야 작가로 남는 것이지, 오직 지금 좋아서 한다는 건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오래 못 가요. 그게 바로 아마추어적인 거죠. 나는 대학에서 애들한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자기 전문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개발해 주고 싶었어요.

몇 년 전에 큰 수술을 하고 체력이 떨어져서 무척 조용히 지내면서 후배들 만나는 것도 조금은 소홀히 했어요. 여기 후배들이 무척 서운했을 거예요. 이제 예전처럼 먹고 술 마시고 밤새 노는 일은 못하지만 올해 퇴임을 했으니까 이제 지역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뭐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다 싶어요. 은둔해서 혼자 그림만 그릴 생각은 없어요.

요즘 같아서는 그림 하나 완성하면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전시하기 전에 ‘내가 요즘 이런 그림 그렸다.’ 그림도 보여주고 의견도 나누고 서로 소식도 듣고 소박하게 막걸리 한 잔씩 나누고요. 작업하면서 후배도 만나고 제자도 만나고 하면 퇴임은 했지만 작업도 선생 역할도 조금은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리 윤진현 사진 서은미

현장통신

기한 없는 숙제의 길 : 4·16 인천순례

김은별 인천민예총 기획국장

한강하구의 평화는 배가 다니는 것이다

박홍열 2021년 한강하구 평화의 배 집행위원장, 한강하구평화센터 대표

2021 인천평화축제 ‘평화로운 평화들’

이찬영 2021인천평화축제 예술감독

인천 연안환경미술행동, 전시 의의와 전망

성효숙 화가

미래적 전통, 도시 풍물

시지은 문학박사, 놀이와풀이연구소 소장

인천의 마을신앙 동막도당굿의 내력

변진섭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도도당굿 전승교육사, 본지 편집위원

한국민예총 풍물굿한마당을 되돌아보며

이성호 (사)한국민예총 풍물굿위원장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마음이 닿는 길

최금예 인천민예총 회원

30년 경력 신진 연출가의 자득 연출론

이은진 문화기획자, 연출가

인천 문화현장

01

기한 없는 숙제의 길 : 4·16 인천순례

김은별

인천민예총 기획국장
eunbyul222@daum.net

이상하게 체할 것만 같다. 아무렇지 않은 날에 아무 일도 없는 날이라서 여느 때처럼 점심을 먹으며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직도 바다를 보면 ‘좋다’는 생각 한편으로 그 장면이 떠올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마음이 동동거려 그때 먹던 밥알이 다시 목구멍을 타고 올라올 것만 같다.

옆에 있던 존재를 잊는 데에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아는 사람만 알 것이다. 어릴 적 사고로 친구들을 잃은 일이 있다. 나 또한 ‘아, 내가 오늘은 그 친구 생각을 안 했구나!’라는 모순된 생각을 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텅 빈 눈동자를 하고 뉘이 나간 채로 있다가 딸 친구들을 만나면 모른 척하는 것조차 힘겨워 부모들은 결국 동네를 떠나버렸고, 나는 부모보다 먼저 간 자식들이라는 이유로 기억할 곳 하나 마련하지 않고 바다에 흩어져 버린 친구들을 만날 길이 없어 그리움만 가슴 한 편에 묻어두었다.



또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의 묵직함을 남겨놓은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 따뜻한 봄날 그 아이들의 설레던 발걸음과 재잘거림이 있었을 그곳으로 향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 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사람들 간의 거리가 벌어졌던 때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인천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참사가 일어난 지 7주기가 되는 4월 16일에

세월호가 출항한 인천항에서 만나기로 했다.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로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다.

여정은 인천민예총 후원회원인 (사)황해섬네트워크 이동열 이사장님을 선두로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여 부푼 마음을 안고 배 안에서 창문 너머의 바다와 인사했을 아이들의 눈을 따라 월곶포구까지 걷는 것이었다. 각자 추모의 의미를 담아 노란색이 섞인 것을 지니고 함께 걷기로 했는데, 민예총 회원 외에도 인천바로알기종주단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에서 소식을 듣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20여 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출발했다. 평일 만나질이 넘는 시간을 애꿎은 무릎과 다리를 고생시키며 할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꼭 참여하겠다고 중간 지점에서 합류한 사람도 더러 있었다.

고되지 않은 순례길이 어디 있겠나마는 그날 이후 매년 4월 16일엔 비가 오는 것 같다. 비가 많이 올수록 나는 더욱더 부끄러워진다. 깊고 어두운 바닷속 차가움을 느끼기도 전에 공포로 먼저 젖어버렸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겨우 이 가랑비에 무거워진 옷과 축축한 운동화에 불편함을 느끼는 내가 한없이 한심하다. 함께 한 사람들 중 가장 연세가 많으셨을 거라 생각된 두 분이 있었는데, 9시에 시작하여 오후 2시까지 중간에 두 번 10분 정도 앉아 쉬었던 시간을 제외하고는 묵묵히 20km를 맨 앞에서 걷는 두 분의 등이 자꾸만 뒤쳐지는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순례’라 해서 종교적인 의미의 일은 아니었지만 신을 믿는 사람과 신을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평안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한 것은 분명하리

라 생각한다. 노란 우산과 노란 손수건을 두르고 걷는 우리에게 같은 마음이라며 경적을 울리는 차도 있었고, 손을 흔들어주는 분들도 많았다.

아직도 세월호 이야기를 하나며 지겨워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지만, 그런 사람들조차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를 단 한 번도 한 적 없을 거란 의심 따위는 하지 않는다. 알고 있는 사람 모두가 그 시간으로 돌아가 고꾸라지던 배를 무엇으로라도 끌어당겨 바다 위로 올리고 싶어 꿈에서도 현실에서도 갖가지 방법으로 말하고 있으니 말이다.

비어있는 공간도 사람들이 모이면 힘이 생긴다. 누군가에게는 매일 출근을 하는 일상의 길이고, 낯시터이고, 여유와 낭만이 있는 풍경일 뿐이지만 우리가 한마음으로 모였다면 그곳은 기억 공간이 되고 순례길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한 생각이 행위를 만들어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행위가 모여 더 큰 힘을 만들어낸다.

세월호는 분명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반드시 풀어야만 할 숙제다. 하지만 기한은 없는 숙제다. 그저 각자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할 뿐이다. 우리 또한 인간과 생명에 대한 예의를 가진 사람들로써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 그 첫 출발이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 함께한 4.16 인천순례가 되길 바란다. 무거운 마음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결국 웃음으로 헤어진 순례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한강하구의 평화는 배가 다니는 것이다

박홍열

2021년 한강하구 평화의 배 집행위원장, 한강하구평화센터 대표
bauloo@hanmail.net

10월 12일 화요일

걱정과 달리 날이 무척 맑고 화창했다. 어류정항 바깥 바다에 떠있는 글로리아호, 일명 평화의 배가 색색 깃발을 바람에 휘날리며 떠있다. 오늘 탑승하고자 하는 이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입항시간을 맞추기 위해 허둥지둥 승선했다.

평화의 배는 물살을 가르고 볼음도와 말도의 중간지점으로 향해 달렸다. 탑승자들은 서로 소감을 나누고, 하모니카와 오카리나 연주가 이어졌다. 강연도 있었고, 평화기원문을 낭독하는 동안 배는 볼음도와 말도 사이까지 갔다가 출항지인 어류정항으로 돌아왔다. 출발부터 회항까지 두 시간 남짓 걸렸다.

그동안 평화의 배 행사를 한번 치르기 위해 우여곡절을 얼마나 겪었던가. 코로나19와 기상상태, 정부기관의 관료적 태도에 따라 행사 일정과 동선이 사정없이 흔들리면서 어쨌든 평화의 배 행사를 치르는 것이다.

2021년 한강하구 평화의 배 조직위원회가 결성된 것은 4월 하순이었다. 3월 말에 인천광역시시의 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되어 3천만여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평화의 배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 2021년 평화의 배 사업은 크게 주민간담회, 평화컨퍼런스, 평화의 배 행사로 구성되었다. 이와 별개로 한강하구평화활동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노력했으나 이루지 못했다.

일시하곤 했다. 한강하구를 해상 DMZ라고 표현한다든지, 어감상 한강하구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심지어 정전협정상 경계의 하나로 지칭된 한강하구라는 명칭을 지리적 개념으로 완화하여 인천 앞바다 전역을 통칭함으로써 ‘한강하구’라는 명칭의 정치적, 역사적 성격을 탈각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한강하구 평화운동의 방향을 애매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에 보다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실사구시적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국방부와 통일부 등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이다. 온갖 이벤트와 일회성 사업은 하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다. 정부기관이 모두 나서서 함께 강원도 고성에서 강화까지 DMZ 평화의 길이라는 도보길을 만들고 있다. 정말 어이없고 암체 같은 일이다. 할 일이 그리 없는 것일까. 걷는 길 조성은 시민단체나 자발적인 움직임이 있고, 행정부서는 도와주고 지원할 일을 찾으려 한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법하니까 막강한 예산으로 자신들이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철책을 걸으며 분단을 체험하고, 평화통일의 의지를 강화시킨다? 교육이 안 돼서 평화가 안 된다는 해괴한 논리를 언제까지 접해야 하는지, 그럴 시간과 돈이면 철조망 일부를 걷어내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고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올해 평화의 배 행사에서도 있었다. 인천시가 평화의 배 행사와 별도로 망향의 배를 이틀 간 띄웠다. 김포에서는 김포시와 통일부가 나서서 대명포구에서 출발하여 강화대교를 넘어, 한강하구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행사를 개최했다. 통일부 장관은 김포에, 통일부 차관은 강화도에 와서 배를 타고 돌아다녔다. 명칭하고 무능한 관료들이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배임행위이다. 통일정책의 수장이 탄 배가 한강하구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 북한은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할까? 이런 장관과 마주앉아 대화를 하고 싶을 것인가.

앞으로 행정기관은 씬 없이 시민단체의 아이템을 훔쳐갈 것이다. 현실적인 논리를 들이대면서, 때로는 기업이 시민단체의 아이템을 훔쳐갈 수도 있다. 꿈은 재주가 부리는데, 열매는 영뚱한 이들이 얻어가는 것처럼 시민단체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일을 해야 한다. 김포시 시민단체들도 은연중 김포시의 배 띄우기 행사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한다.

행정우선주의, 민간 참여 배제는 한강하구의 공동관리, 불가역적 평화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과 민간의 역할 조정과 기능, 때로는 행정이 민간활동을 복돋우고, 행정의 한계를 민간이 보완하는 상호협력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6월 25일 금요일

24일(목) 저녁부터 이틀 간 평화컨퍼런스가 열렸다. 철조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접경지역의 활동내용을 공유하였다. 철조망은 전망대와 함께 대표적인 냉전쇼핑물이다. 철책과 전망대는 북한과 남한을 대립공간으로 나누고, 동물원 우리 속에 갇힌 동물을 바라보는 것처럼 북한을 대상화하는 데 막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그런데도 그동안 철조망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말한 이들이 많지 않았다. 학자들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수많은 남북관계 논문과 연구자료 중에 철조망 관련 자료는 극히 적었다. 이번에 발표한 이시우, 한모니가 교수의 자료가 거의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조망 문제를 직접 제기하는 시민단체 역시 없다.

한강하구의 철책은 불법이다. 정전협정은 정전 후 45일 이내에 군사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했고, 군사시설보호법에도 군사분계선이 존재해야 설치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군사분계선이 없는 한강하구의 철책은 당연히 불법인데, 국방부는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이라고 해석하여 자의적으로 철책을 설치한 것이다.

2020년 평화컨퍼런스, 2021년 평화컨퍼런스를 마쳤을 때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가 있었다. 행동이 없다는 것이다. 철조망을 끊고, 한강하구로 진입하려는 직접 행동의 부재는 한강하구의 평화를 공염불로 그치게 하고, 역량을 소진케 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다.

직접 행동의 부재. 이것은 우리가 뼈저리게 성찰해야 할 몫이다. 무슨 일을 이루자면 그에 합당한 시간과 정성이 투입되어야 하는 법이다. A와 B가 부딪혀야 불꽃이 일어나고, 불꽃이 불이 된다. 직접 행동은 변화를 이끄는 촉매이다.

이미 용치에 대해서는 일부 환경단체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며, 김포시는 관내의 철조망을 제거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무분별한 개발 가능성 때문에 철거를 반대하지만 강화, 교동에 포함된 한강하구변의 철책을 철거하는 일이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어진다는 지적은 무리가 있다. 남북 대립, 분단의 상징인 불법 군사시설물 철거의 당위성을 알리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한강하구 평화는 간단하다. 배가 다니면 된다.

한반도가 가장 풍요로웠던 1000년 전 고려 때, 한강하구는 국제무역지대였다. 멀리 페르시아와 인도에서, 송나라와 만주, 일본과 필리핀에서도 개성으로 몰려들었다. 당시 세계 최고의 회계시스템, 뛰어난 제품 생산력, 막강한 경제력으로 말미암아 한강하구는 훗날의 베네치아에 비견될 만했고, 지금의 뉴욕 맨허튼처럼 국제무역의 중심지였다.

역사의 시간은 돌고 돌아 다시 한강하구가 변영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 2032년은 고려가 개성에서 강화로 천도한 지 8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때면 한강하구에 배가 다닐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지금처럼 무인지대로 남아있다면 미래세대는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1970년대 말까지 한강하구 변에서 자맥질하고 조개를 캐고 고기를 잡았다는 추억을 되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내년에는 더 많이 배를 띄우고, 한강하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특히 청년 학생들이 평화의 배를 타도록 하자. 올해 평화의 배를 탑승한 인원들의 평균연령이 50대 중반을 훌쩍 넘는다. 젊은이들이 뒤를 이어 평화의 배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자.

한강하구 평화는 배가 다니는 것에서 시작된다.



2021 인천평화축제 ‘평화로운 평화들’

이찬영
2021인천평화축제 예술감독
dunum92@nate.com



2021년 인천광역시시는 도시의 정체성을 환경수도로 정하고 도시를 재구성하고 있다. 지난 20년여 년 간 인천의 도시정체성을 평화도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러 시민 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동북아경제, 물류중심도시라는 경제적 관점에서 환경도시로 도시의 정체성을 전환한 것은 그나마 인천광역시의 입장이 조금은 진일보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현재의 환경도시에 더해 인천이 평화도시, 문화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매우 크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오랜 세월 전쟁과 침탈로 얼룩진 역사가 있다. 특히 인천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수도 개경과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오랫동안 세곡선을 비롯한 전국의 다양한

진상품이 모이는 항구로서 경제와 물류의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했다. 이런 상황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더욱 중요시되었고, 수도 한양으로 가는 바닷길의 종착지로서 육지로 나아가는 교두보이기에 물류의 중요한 위치이면서 또한 바다에서 곧바로 수도

한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군사적인 중요성으로 인해 침략과 전쟁을 피해갈 수 없었다. 제물포항 개항으로 시작된 근대 개항기의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근대 문물의 최초 수용지로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인 용광로로서 인천은 다양한 사람과 문화가 모이는 국제도시로 성장하지만 1883년 개항과 더불어 근대화 이후 한국전쟁까지 군사쟁탈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아픈 경험이 있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침략과 전쟁으로 얼룩진 마지막은 한국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초토화된 월미도로 상징되는 인천일 것이다. 전쟁 이후 군사 기지화된 도시는 민간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부평의 미군기지, 육군부대, 해군부대와 철책이 쳐진 해안선을 끼고 있고, 자유로운 접근이 어려웠던 서해5도의 섬까지 냉전시대의 유물을 가지고 있다. 여전히 남북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인천은 바다를 통해 남과 북이 만나는 접경지대로서 역사적인 대립의 상징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인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운동을 통해 평화도시를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2001년 월미도 해군기지를 민간에 개방하면서 ‘맨발로 월미산 걷기’ 행사를 하면서 시작된 (사)인천민예총의 평화축제는 처음에 ‘월미평화축제’라는 명칭으로 월미도에서 시작했으며 매년 월미도에서 진행되다가 최근 10년 사이에 부평미군기지 반환 문제, 한일평화연대 콘서트, 평화의 소녀상 세우기, 징용노동자상 세우기, 한강하구 중립수역의 평화지대선포 등을 주제로 공간을 확장하여 진행하면서 ‘인천평화축제’로 명칭을 바꿔서 진행하였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인천평화축제는 인천민예총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진행하는 축제이다. 지난 시기 인천평화축제를 준비하는 주체는 인천민예총이지만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행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연대활동과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평화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인천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축제로 키워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천평화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축제의 주최로 참여하는 것은 축제준비과정에서 서로의 역할을 나누고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다. 2021년 인천평화축제는 (사)인천민예총,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가 참여하여 평화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코

로나19로 인해 자주 회의를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공동조직위원장회의와 평화축제 기획단 구성을 하여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노력을 했고 준비, 진행, 평가를 함께 진행했다.

2021년 인천평화축제는 ‘평화로운 평화들’이라는 제목으로 정하였고, 축제의 주제는 ‘평화를 원하거나 평화를 준비하자’로 정했다. 이는 단순히 전쟁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국내 평화운동이 성장하면 어떠한 평화인지를 밝히는 방향에서 내용을 만들어가고자 했으며 이는 평화학에 의해 ‘평화’를 정의 내리고, 평화를 고정되어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싶었다. 전쟁반대라는 거대담론에 더하여 만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는 평화, 생태, 민주, 통일 운동의 다양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평화로움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실천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표현되길 원했다. 이러한 방향으로 2021년 인천평화축제는 다섯 개의 섹션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다. 이는 ①평화시민창작영상 콘텐츠 공모전으로 시민 UCC 공모, ②평화포럼, ③평화생각 미술전, ④평화체험과 평화 한마당, ⑤공연행사로 PEACE FESTA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2021년 지속된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4단계 방역지침과 대응으로 인해 원래 계획했던 축제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축소해서 진행했다. 공연행사는 9월2일(목)부터 9월4일(토)까지 3일간 인천아트플랫폼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평화체험과 평화 한마당 부스 행사는 전면 취소하였다.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여 진행하는 체험과 평화 한마당 부스가 취소되어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이 준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평화UCC 공모는 작년에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에 비해 올해는 시민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전체 참여자 중에 30~40%는 개인 참여였고, 대상도 개인 참여자가 수상하였다.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치는 평화UCC 공모는 앞으로도 지속하여 인천평화축제의 시민참여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2021 인천평화축제 「평화포럼」



2021인천평화축제 「연안환경행동미술전」

평화포럼은 두 개의 섹션으로 준비했으나 하나만 진행하였다. 시민단체가 준비한 인천의 평화관련 현안은 발제의 사정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취소되었다. 인천민예총 정책위원회가 준비한 인천, 경기, 강원 남북접경지역 평화문화예술 활동 사례발표와 연대의 가능성은 인천에서 한강하구평화배 띄우기조직위원회 박홍열 집행위원장이 참여하여 한강하구의 공동수역에 대한 민간인 활동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이성호 전 경기민예총이사장과 서준호 강원민예총 사무처장이 참여하여 경기와 강원에서의 DMZ 관련 평화문화활동의 사례를 발표하고 인천민예총, 경기민예총, 강원민예총의 연대활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긴 시간 활동해온 현장활동가들의 이야기는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종일관 진지하게 사실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현장 참여자가 없어서 아쉽지만, 이후 한국 민예총 내부에서 사업과 포럼 등을 함께 준비하는 공동 실천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평화 미술전은 인천민예총 미술위원회 작가들이 참여하여 평화 깃발(만장)을 새롭게 작업하여 전시하는 것을 중심이었다. 2020년부터 시작된 평화 깃발전은 전년도에 제작된 10개와 올해 제작된 15개를 합쳐 20여점을 아트플랫폼 야외마당에 전시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 민미협이 제작한 걸개그림을 전시했다. 한 번에 여러 작품을 제작



2021인천평화축제 「평화 깃발전」

하는 것보다는 매년 조금씩 작업을 하여 평화에 대한 작가들의 참여를 만들고 야외전시가 가능한 깃발전을 지속하여 평화축제의 상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올해는 특히 환경오염으로 인한 연안의 멸종위기 서식동물을 주제로 하는 연안환경행동미술전이 인천평화축제와 함께 진행되었다. 9월2일 월미도에서 전국에서 참여한 25명의 작가들이 작업,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이때 제작된 작품과 이미 출품한 작품을 제물포갤러리에서 일주일간 전시를 했다. 인천평화축제가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향후 평화 관련한 다양한 사업과 행동, 행사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1인천평화축제 「PEACE FESTA」

매년 평화콘서트라는 명칭으로 진행되던 공연행사를 올해는 PEACE FESTA라는 명칭으로 정리하여 평화축제의 한 섹션으로 자리 잡도록 하였다. 음악콘서트 중심의 행사를 치르는 것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다. 공연은 세 개의 장소로 나누어서 진행하고자 했다. 2020년 강화의 접경지역 5군데에서 공연자들이 거리공연을 한 것을 촬영, 편집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올해는 인천아트플랫폼을 거점으로 월미도, 자유공원, 인천내항에서 거리공연을 실제로 진행하고 싶었다. 실내공연장은 아트플랫폼의 C동공연장, 칠통마당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시간대 별로 진행하려 하였다. 다만 한두 시간 동안 진행하는 콘서트는 지양하고 싶었다. 민예총 회원이 제안한 영화 ‘휴가’ 상영은 장소를 미림극장으로 확장하여 인천평화축제의 공간을 확장하고자 했다.

그러나 처음에 계획했던 공연행사는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수도권 방역지침이 4단계가 지속되면서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우선 거리공연은 야외행사 전면금지에 따라 실내공연장으로 옮겨왔으며 공연은 공연장 방역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해고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란희 감독의 극영화 <휴가>는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극장의 30%를 개방하여 시민들이 관람을 하고 감독과의 대화까

지 미림극장에서 진행하였다.

다른 공연행사는 모두 칠동마당과 아트 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2일간 분산하여 진행하였다. 거리공연팀은 기존 민예총 회원이나 단체가 아닌 청년을 중심으로 한 공연팀을 섭외하여 진행했다. 스트릿댄스 팀 'JUKE BOX', 음악팀 'Viator Ensemble', 재즈 공연팀 '남예지&김현동 듀오', 연주팀 '인천컨트리보이즈'가 참여하였다. 전통 공연팀으로는 '인천 농악단', '연희단 비류'가



2021인천평화축제 「PEACE FESTA」

공연을 했고, 민중음악은 희망의 노래 꽃다지에서 활동했던 '송미연'이 참여하였다. 서울민예총과의 협업으로 가수 '손현숙'을 초대하였고 부평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유천 밴드'가 함께 했다. 인천민예총 연극위원회에서는 극단 덩이줄기가 인형극 <소녀, 이 별하다> 공연으로 함께 했다. 2일간 진행된 공연은 장르를 음악, 풍물, 연극, 춤 등 다양화 하여 공연의 완성도를 높여 작품공연, 음악팀 자체공연 형태로 진행하면서 모든 공연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였다. 소수의 관객과 행사 관계자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예술가들이 약간의 관객과 함께 공연한 것에 만족해야 했다.

2021년 인천평화축제의 공연행사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2~3시간 정도 진행하는 문화제 형식이 아니라 시간과 넓혀 다양한 공연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인천평화축제는 인천민예총 내부 공연팀의 참여와 함께 인천의 다양한 공연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더욱 열린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다. 새롭게 만난 인천의 젊은 예술가들은 인천평화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시민 문화예술동아리의 참여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2021년 인천평화축제는 5가지의 섹션으로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예술가들이 주로 참여하는 마당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마당, 시민들이 직접 결합하는 마당으로 확장되는 것은 인천평화축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평화축제의 진행과 관련된 방향이다.

평화를 추구하는 운동이 평화운동이다. 평화운동은 평화조성과 평화유지, 평화구축을 위해 민중들이 비폭력적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회운동이다. 인천민예총의 일상 사업에서 평화의 확장은 2021년에 평화축제와 더불어 평화아카데미와 환경을 생각하는 네이처콘서트를 통해 더욱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평화를 화두로 인천평화축제와 더불어 인천민예총의 다양한 사업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지역, 평화를 중심으로 활동한다면 많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유기적 연계는 인천민예총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인천민예총이 평화문화사업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면서도 인천지역의 다양한 시민 단체, 문화예술 단체와 네트워크하고 협업하며, 한국민예총의 타 지역 민예총과 협력하고, 지역 내 청년활동가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은 문화예술단체로서 인천민예총이 실천해야 하는 운동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1년 인천평화축제에 함께 해준 평화축제조직위원회에 참여한 단체와 기획팀, 제작진, 공연팀, 미술작가, 스태프, 민예총 사무처 활동가들과 온라인으로 들어와 함께 해준 시민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04

인천 연안환경미술행동, 전시 의의와 전망

성호숙
화가

moonnov@hanmail.net

1. 연안환경미술행동

거리는 온통 '소비하라!' 무제한 찍어내고 산은 베어내고 갯벌은 파헤치고 메우면서 쾌활한 웃음들이 넘쳐난다.

생산력의 발달로 넘쳐나는 물건들은 쌓이고 무차별 버려지며 인간의 편리함만을 추구하느라 썩지 않는 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이 깊은 심해와 알프스 정상에서까지 발견되고 있다.

초고속의 생활에는 그만큼 땀가가 따르는 법, 지구에서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0.8%,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여서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데 어느 바다와 섬에 가도 쓰레기들이 넘쳐난다. 몸살을 앓는 연안의 환경 문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2021년 연안환경미술행동이 시작되었다. 연안환경미술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생명평화미술행동이 있었다.

생명평화미술행동은 2019년에 탈핵미술행동으로, 2020년에는 새만금의 문제로 전국의 작가들이 모였다. 이 멤버들을 중심으로 2021년 3월에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미술행동이 있었고 1회 연안환경미술행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그 작가들은 80년대 민주화운동과 광주민중항쟁, 노동운동 등 미술행동으로 잔뼈가 굵어진 작가들과 새로운 세대들이 결합되었다.

2021년 4월에 1회 신안, 5월 군산, 7월 울산까지 바다의 오염, 플라스틱 문제가 주된 것이었는데 지역의 특색과 주안점에 맞추어 7월, 삼척에서는 화력발전반대 이슈로 결합하였다.

9월은 인천에서 '사라져가는 생물들'을 주제로 멸종위기 문제를 다루었다. 10월에는 2회 생명평화문화예술제로 새만금 문제만이 아니라 차별의 문제나 현 시기의 이슈들로 전주에서 62개의 단체들이 결합하여 행사와 전시가 있었다.

이후 올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미술행동은 12월, 부산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방사능 오염물질, 핵 문제에 대한 미술행동과 전시를 열었다.

2. 인천 연안환경미술행동 “사라져가는 생물들”

인천에서는 2021년 9월2일 오후 5시~7시 인천 월미도에서 미술행동과 9월3일_10일 제물포갤러리 제3공간에서 전시가 있었다. 인천을 비롯하여 광주, 목포, 울산, 군산, 경기지역 등 전국에서 29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기획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리는 우주의 한 생명체로서 아름다운 초록별에서 만났다.

바다를 가르며 자유롭게 유영하고 밤이면 반짝이는 별들과 화답하며 수많은 생명들은 어머니의 젖줄처럼 먹이와 휴식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자본의 지배 속에 끝없는 가속도로 인간만의 편리함을 추구하여 자원을 착취하고 있다.

도시의 휘황한 광고 불빛들에 휩싸여 이제 탐욕을 멈출 줄 모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지구를 거의 점령하여 못 생명들은 절멸의 위기에 있다. 견디다 못한 지구는 불타오르고 있으며 그 안의 생명들은 살이 타고 목마르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연 속의 약한 멸종위기종들이며 인간 중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이며 결국 모두가 멸종의 파국으로 가고 있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금과 같이 자원을 사용한다면 몇 개의 지구가 필요하다고 하였



인천연안환경미술행동 웹자보

으며 30년 내에 절멸의 위기라고 외쳐 왔다.

아름다운 지구별을 파괴하는 주범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러한 절박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은 비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붓으로 행동으로 불을 끄고 대안적 삶을 이야기해야 한다. 미술행동은 신안, 군산, 울산, 삼척의 연안 지방을 거쳐 9월2일 인천 월미도에서 미술행동을 한다. 인천에서 미술행동은 멸종의 파국에 대한 경종이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 파국을 막는 일에 동참하자는 호소가 될 것이다.

- 인천을 상징하는 깃대종으로 ‘저어새(조류), 금개구리(양서류), 점박이물범(포유류), 흰발농게(갑각류), 대청부채(식물)’ 5종.

깃대종은 1993년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생물다양성 국가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지역 생태계를 대표하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생물종으로 생태적·지리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생물종”을 말한다.

- 기획: 성효숙, 행정지원: 최효정, 숙식지원: 김영옥
- 미술행동은 제 6차 연안환경미술행동으로 인천 월미도.
- 전시는 인천민예총 평화축제의 일환으로 주최 인천민예총, 주관 인천민예총, 연안환경미술행동.
- 참여 작가: 고근호 권계영 김근숙 김덕신 김영옥 김화순 김희련 도지성 문경화 박 건 박성우 박태규 박희정 서진선 성효숙 유진숙



2021년 9월2일 인천 월미도 미술행동



2021년 9월3일_10일 제물포갤러리 제3공간 전시



인천 월미도 미술행동에서 목포 예술공장 작가들의 깃발 2021.9.2 월미도에서 퍼포먼스

이소담 이월레 이정임 이진우 전정호 전혜옥 정평환 주 홍
천현노 하애정 홍성담 홍성민 홍순관

3. 평가와 전망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사업의 시작에서 조직은 많은 부분 성패를 가름하는 요소이다. 평화의 주제를 논할 수 있는 인천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조직의 첫 걸음을 함께 했다는 것이 성과의 시작이다.
 -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던 연안환경미술행동과 시기적절하게 연대하여 전체 평화축제를 풍요롭게 할 수 있었다.
 - 연안환경미술행동은 인천에서 행동과 전시를 하며 미술위원회 6명의 작가가 전국작가들과 환경생태와 관련해서 작업할 수 있는 장이 되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 가능한 작가군이 형성되었다.
 - 여느 미술행동과 달리 적은 예산으로나마 전국 작가들을 초대할 수 있었다. 전국작가들은 다른 전시들과 달리 현장을 찾아다니는 작가들이기에 가능하다.
 - 조직의 가벼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연안환경미술행동의 독립적 활동이 있어서 가벼운 조직으로 발빠른 행보를 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전체 축제로 본다면 동떨어진 행사로 표면만 함께 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다.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코로나로 장소 섭외가 어려운 점으로 기획단이 애로가 많았을 것이고 미술행동도 마찬가지였다.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결국 한달 만에 미술행동과 전시를 치르게 되었다. 훈련된 미술행동의 전국 작가들이기에 가능했는데 그만큼 작품의 질은 담보하기 힘들었다.
 - 축제 기간 동안 축제의 다른 행사와 미술행동의 날짜가 겹쳐 함께 하기 힘들었다.
 - 일주일 간의 전시 기간 동안 시민단체 회원들의 관람을 거의 볼 수 없었다.
 - 전시 준비 기간의 짧음으로 인해 시민단체 회원들과 그리고 젊은 세대들과 함께 하는 작업들을 할 수 없었다.
 - 미술행동 영상 만들기는 자료로서 매우 중요하다. 마무리 도록과 같은 것인데 전국 작가에게 맡기게 되었다. 예산 문제로 중요한 사진도 전문 사진가를 배치할 수 없었다. 전시행정을 지원한 활동가에게 행정, 웹디자인, 사진까지 너무 많은 역할이 주어졌다.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전망
 - 평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축제를 경험했다면 내년부터는 우리 시대와 인천의 공통분모가 만나는 좌표를 구하여 시민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2021.11_새만금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에서 기후정의의 버스로 온 분들과 <생명평화 만다라> 마무리 그림



2021.11_새만금 마지막 남은 수라갯벌에서 기후정의의 버스로 온 분들과 <생명평화 만다라> 그림을 들고 걸었음.

보다 긴밀한 주제와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

- 인천의 환경단체들이 인천의 환경문제로 치열한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여기에 인천의 작가들과 결합하여 문화예술로 환경문제를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10월과 11월에 전주에서 새만금 문제와 현 이슈로 전라북도 62개 단체가 결합한 생명평화문화예술제의 사진을 사례로 올리며 마무리 한다.



2021.10.30_생명평화문화예술제 거리 현수막



2021.10.30_전라감영에서 생명평화만다라를 시민들과 함께 하였다.

미래적 전통, 도시 풍물

시지은

문학박사, 놀이와풀이연구소 소장
si-jieun@hanmail.net

중고등학생 때 TV에서 민요를 하고 굿하는 장면이 나오면 어색하고 고루하다고 느껴져 눈여겨보지 않고 채널을 돌리곤 했다. 대학에 들어가 낮모를 선배들이 마당에서, 잔디밭에서 북을 치고 탈춤을 추는 장면을 보면서는 왠지 과격하고 무섭게 느껴져 거리를 두어 돌아가기도 했다. 청소년 시절 필자에게 전통은 그렇게 재미없거나 지루했고, 대학에 가서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대상이었다.

대학 새내기 3~4월은 한참 고등학교 동문회 모임을 통해 선배들을 한두 명 알아가던 시기였다. 매점에서 만난 선배들이 반갑다며 사 주는 간식을 먹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선배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면서, 어색한 대학 생활에 적응을 해 나가고 있었다.

4월 19일,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학교 정문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어 나갈 수가 없었다. 여대생 50여 명이 구호를 외치며 정문 앞을 나서려는 순간, 학교 앞에 진을 치고 있던 전경들이 학생들 앞으로 무언가를 던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 깨지면서 매운 냄새가 코와 입을 괴롭혔다. 최루가스가 담긴 공 모양의 사과탄이었다.

정문을 나갈 수 없어 잔디밭 한 켠에 서서 시위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차에, 던져지는 사과탄을 피해 뒤로 물러서는 시위대에서 아는 동문 선배를 발견했다. 그 선배 정강이에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사과탄이 깨지면서 튀 파편이 다리에 맞은 것이었

다. 피를 본 순간, 그 찰나의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다. 억울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었다.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잘못일까? 시위 학생들보다 많은 전경들, 여대생들을 겁주겠다는 듯 집단적으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내는 공포스러운 군함발 소리, 가까운 거리에 사람이 있는데도 사과탄을 마구 던지는 상황 그 모두가.

탈패 활동을 하던 그 선배와 인연이 되어 나는 바로 탈패에 들어가게 되었고, 탈춤을 추고 풍물을 치게 되었다. 한삼을 끼고 흔들면 춤사위가 되고, 악기채를 들고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다. 물론 그 당시 대학에서의 탈패 활동은 자연스럽게 학생운동을 하게 되는 분위기였지만, 문화로 학우들을 만나고자 기량을 키우기 위한 연습도 적지 않게 했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문화에 뭔가 아쉬움이 있었는지 부친의 문화운동단체를 찾아 들어가게 되었다. 풍물 강습을 하고, 기량을 더 익혀 공연도 하고, 지역 문화 행사에 동참하면서 분주한 날들을 보냈다. 전통문화로 대중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적지 않았고,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높았다. 도시에서의 탈춤이었고, 도시에서의 풍물이었다.

악기를 치면 칠수록, 풍물을 알면 알수록 그 본래의 것이 궁금해진 건 1990년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기저기 민속문화, 전통문화에 대한 강좌를 들으러 다녔고, 다른 문화단체들 활동 내용도 유심히 보게 되었다. 그렇게 듣게 된 소식이 있었고,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들이 있었다. 도시가 아니라 본 고장에서의 민속 현장이었다. 고창 영무장농악, 태안 황도리 봉기풍어제, 여수 여천 북촌마을보름굿 등을 직접 가서 보게 되었다. 멀고 고된 길이었지만, 본 고장에서 벌어지는 풍물굿의 소박하지만 굳센 정취가 부러웠고, 그 정취를 발휘하



고창 영무장농악(1996.3.1.)



황도리 봉기풍어제(1997.2.9.)



여천 북촌마을보름굿(1997.2.22.)

고 즐길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이 소중하고 다행스럽게 생각되었다.

1990년대 중반에 여러 지역을 다니며 민속현장을 직접 보고 배우는 동시에 사라진 민속현장을 도시에서 재연하고 부활시키려는 시도도 몇 년에 걸쳐 해보았고, 실천적인 현장도 많이 보게 되었다. 강습, 공연 그리고 지역 문화행사에 체험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문화를 알리려는 것은 도시에서 풍물이 살아남는 길이었고, 해야 하는 책임감에서 비롯된 활동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려 풍물을 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모습을 웃으며 봐 주는 그 시간과 공간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애정과 책임감 그리고 생존의 차원에서 벌어진 활동 중 대표적인 것이 도시에서의 지신밟기였다. 서울과 수원, 부천에서 도심 속 지신밟기를 보았지만, 이러한 시도는 훨씬 더 많은 도시에서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한다.

특히나 지신밟기는 풍물패가 시민들을 소소하게 만날 수 있는 자리일 뿐 아니라 분위기가 괜찮다면 온 마을을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시에서 다양하게 재연하는 행사로 선택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풍물패가 가는 곳마다 지신을 밟아 액을 몰아내 주고, 축원덕담으로 한 해의 평안과 건강을 빌어주니 도시에서 특히나 시장에서는 반겨할만한 행사였다. 이러한 지신밟기 외 마을 산신제나 당산제, 줄다리기 등 도시 풍물패는 자기가 속한 지역의 민속문화나 전통문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왔다.

1980년대~1990년대 풍물을 접하고 익힌 사람들은 필자와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이다. 우연한 자극으로 풍물 약기를 만나게 되고, 그 강렬한 매력에 끌려 수많은 사람들과 풍물로 만나고 나누기를 원했다. 도시에서 일종의 가공되고 단순화된 형태를



풍물패 터울림의 서울 대조 시장 지신밟기
(1996.2.24.)



수원 고색동 줄다리기에 앞서 행한 지신밟기(2005.2.20.)



복사골마당의 부천 원종시장 지신밟기
(2005.2.21.)

넘어, 보다 전래적인 풍물의 모습을 보고자 전국을 돌아다니며 현장을 확인하고 새삼스럽게 전통이나 민속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고, 그것을 자기가 살고 활동하는 곳에서 도시의 형태로 재연하고 전하고자 하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다양한 시도들이 전국에서 벌어져 왔다.

그러나 도시는 점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소리나 만남에 대한 민감도가 커지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기복(祈福)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있다. 공동주택에 살면서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만남이 아닌 인터넷이나 가상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실하여 기복의 개념조차 희박해지고 있다. 풍물 공간은 방음에 더 신경써야 하고, 허가 받은 행사가 아니면 풍물 소리를 선불리 내기도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에 풍물은 도시에서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물음표를 찍지 못하고 말줄임표를 붙이는 것은, 단순히 질문으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초고령화 되어가는 시골에서보다 인구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은 도시에서 풍물을 치는 사람이나 상황이 더 많은 시대이다. 이제 풍물과 풍물에서 비롯된 문화들은 도시의 축제나 행사에서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접(接)하는 것이 만남과 체험이라기보다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즉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시대적 차이도 커졌다.

풍물은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한두 번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직접 쳐 보고 치는 사람들 사이에 직접 서 보아야 한다. 어설프지만 내가 치면 약기 소리가 나고, 바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장단에 내 몸을 맞춰 보는 것이 진정한 체험이고 소통이 될 것이다. 요즈음의 축제와 행사는 볼거리를 가득 채워 놓기 일쑤이다. 초고속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기라도 하듯이 축제와 행사에 온 사람들이 쉬거나 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쉴 틈 없는 초고속 시대에 여유와 만남이라는 반전을 꾀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 예전에 풍물패는 마을 단위의 행사가 있으면 당산에 오른 후 내려와서 마을을 차근차근 돌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복도 빌었다. 당산나무를, 우물, 장승, 누구네 집을 돌면서 나름의 기원과 소원을 만들어 빌고 축원의 의미로 풍물을 함께 쳤다. 그렇게 하면 신명이 오르고 웃음이 피어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도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축제 공간과 행사 공간을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

로 상징하고, 모인 사람들과 함께 차근차근 돌면서 공동의 기원을 직접 만들어 보고, 빌어 보면서 현대적인 의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학생은 학생의 바람을 만들어 외쳐보고, 청년은 청년의 소망을 만들어 소리쳐 보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소원을 아버지는 아버지의 기대를 만들어 빌어보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외치며 함께 축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도시에 밀집해서 사는 우리는 도시공동체이다. 일시적이더라도 가상의 공동공간에서 공동의 체험을 한다면, 공동체를 실감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키우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을 것이다. 도시 풍물은 도시공동체를 실감하고 현실화할 수 있는 미래적 전통이 되리라 생각한다.

인천의 마을신앙 동막도당굿의 내력

변진섭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도도당굿 전승교육사, 본지 편집위원
sevenlaw@hanmail.net

전통문화 중에 굿은 중요한 의미와 역할을 갖는다. 현재 인천에서는 황해도굿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옛 마을 중 하나인 동막의 도당굿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동막 동네에서는 1990년까지 마을 주민들이 전물을 마련하여 도당굿을 열었었다. 갯벌이 내려다보이는 야트막한 산에 소나무 숲이 있고, 그곳에서 밤을 밝히며 소망을 빌었던 것이다.

도시화가 진행되고 마을은 변화하였다. 이제 도당굿은 물론 벗짚으로 만든 당가리가 있던 푸근한 언덕과 신비로운 소나무 숲도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 동막마을 주민들은 모두 흩어져 겨우 몇몇만을 찾아볼 수 있는 형편이다.

지난 2013년 인천박물관 야외마당에서 동막도당굿 복원 행사가 열렸다. 마을의 소나무 숲은 아니었지만, 기원의식을 재현하였다. 갯벌을 마주한 그곳에는 굿판을 마련하고 함께 밤을 지새웠던 마을 주민들이 자리하였다. 그들은 왜 굿판을 다시 찾아왔을까? 터전이 사라지고 공동체가 해체된 마당에 펼쳐놓은 굿판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과연 동막도당굿, 도당축제였을까?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어머니의 손으로 소망을 빌던 굿이 마치 이방인처럼 생뚱맞아진 것은 아닐까? 이 의문에 대해 답을 찾는 첫걸음으로 동막도당굿의 내력을 살피고자 한다. 먼저 1980년대 자료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소망을 표현하였는지 굿의

실체를 간략히 살피고, 2013년 이후 복원행사를 통하여 도시가 된 이후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짚어볼 것이다.

1. 1984년 동막도당굿

1984년 4월 2일~3일 동안 인천시 동춘동 동막 마을 도당 일원에서는 도당축제가 벌어졌다. 마을 주민들이 굿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준비하고 무당을 비롯한 굿패가 굿을 연행하였다. 당시 굿패에는 미지들과 산이들이 참여하였다.¹⁾ 미지는 무녀를 가리키며, 산이는 음악을 비롯하여 무가와 춤을 담당하는 이를 이른다. 굿거리의 당주굿-거리부정-부정굿-도당모시기-돌돌이-시루말-제석굿-대안주-터벌림-군웅-도당모시기-중굿-뒷전의 순서로 구성되었다.

이 마을은 갯벌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다고 한다. 배를 타는 방식이 아니라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였다. 농사도 지었으니 반농반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이 중심 산업인 마을은 10월, 어업을 하는 마을은 1,2월에 마을굿을 많이 한다. 동막은 해를 걸러 음력 3월 초에 굿을 했는데, 갯벌과 관련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마을에는 상산고사봉행절목표(上山告祀奉行節目表)라는 문서가 전해 내려온다. 상산고사, 즉 도당굿과 관련된 문서이다. 굿의 대표적인 전물인 조라(술)를 모시는 방법, 시루(떡)의 크기, 굿거리별로 준비할 물품 등이 기록되어 있다. 주민들은 이 문서에 따라 신에게 올릴 음식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동막도당굿이 행해진 소나무 숲 전경(사진 : 김현선 제공)

각시루

시루찜매에담배를금하고조심해야한다

당시루

一되삼습

1984년 김인회 소장 영상자료를 통하여 동막도당굿을 굿거리별로 하나씩 살펴보자.

당주굿

당주는 마을굿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보통 상당주 중당주 하당주의 삼당주를 뽑는다.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고생하는 당주의 집안을 위한 굿이 바로 당주굿이다. 길게는 하룻밤을 꼬박 채우기도 했다. 당주집(문패 李俊明) 마루에서 진행하는데, 방문 앞에 상을 차리고 상을 바라보며 굿을 하였다. 상에는 떡시루와 부정물을 올렸다. 시루 속에 쌀그릇을 담았는데 쌀그릇에는 쌀을 담고 그 위에 초와 숟가락을 꽂고 실타래를 두른 밥그릇을 엮어두었다.

부정한 것들을 물리치는 주당물림과 부정청배를 장구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행하였다. 피리, 대금, 해금, 장구의 삼현육각 편성으로 엽불-타령을 한바탕 연주하고는 당주를 불러놓고 소지하며 축원하였다. 이어서 당주집의 기주에게 쌀산을 주었다. 손바닥에 쌀을 주고는 헤아려주자 기주는 그 쌀을 먹었다. 부정물을 뿌리는 것으로 당주굿을 마쳤다.

거리부정

거리부정은 당주집에서 굿청으로 가는 도중에 길 위에서 간단하게 진행했다. 마을의 청년이 길목에다 짚더미를 태우고 무녀가 짚더미 앞에 놓인 부정물로 둘러 내고 나자 행렬이 지나갔다. 당주집에서 굿청으로 이동할 때는 해금-대금-피리-장구-징-마을사람 등의 순서로 행렬을 이루어 행진하는 방식이며, 이때 낙궁이라는 음악을 연주한다.

부정굿

굿패와 전물을 든 마을주민들이 소나무 숲에 지어놓은 굿청에 당도하면, 부정굿을 행한

上山告祀奉行節目表

조라

조라올일때 삼당주가의관하고길의잡인을금하고갈때에길노만가되향아리는백지로봉하고송판을덥은 후 당압에 모시느이라상당주는당압에서코기치침남잡히하지못하나이라

1) 미지에 서간난·정윤자·황치선·강복희, 산이에 이용우·조한춘·정일동·이영수·김한국이 참여하였다.

다. 부정굿은 특정한 신을 모시지는 않고 굿이 벌어지는 공간과 그 속의 사람들을 깨닫게 밝히는 의식이다. 동막굿의 부정은 산이와 미지가 겹으로 절차를 구성한다. 먼저 산이가 앉아서 장구를 치며 부정청배무가를 부르고, 이어서 미지가 부채와 방울을 들고 서서 노래, 춤, 물과 불로 부정을 물려내는 행위들을 펼쳐낸다. 북어 꼬리에 맑은 물을 묻혀 뿌려 씻어내고, 소지를 통하여 액을 태우는 의미를 표현한다.

도당모시기

마을을 수호하는 신이 도당신이다. 동막 동네의 도당신은 소나무 숲의 당가리로 좌정한다. 도당할머니와 도당할아버지 두 개의 당가리에서 굿청으로 모셔오는 의식이다. 이 때 도당신은 신대에 모신다. 신대는 마을의 노인이 굿청 앞의 참나무 가지를 꺾어와 다듬어서 만들고 거기에 흰종이를 매달았다. 먼저 굿청 안에서 신대를 내린다. 마을의 고경식 노인이 쌀그릇에 꽃은 신대를 잡으면 그 앞에서 무녀가 징을 치며 축원하고 잽이들이 삼현육각으로 반주한다. 신대가 떨어지면 모두가 당가리로 향한다. 신대가 앞장서고 송어, 소머리, 시루, 떡과 망둥이 등을 올린 상들이 따른다. 뒤로 잽이들이 낙궁을 연주하며 이동한다.

도당(都堂)인 당가리에는 각각 흰 종이를 걸어두었으며 앞에는 전물상이 차려져있다. 도당에 이르면 신대로 도당을 두드리고 무녀는 비손으로 축원을 하다가 도당을 한 바퀴 돌며 축원한다. 당 앞에서 대접이를 상대로 축원과 공수를 하고, 술과 음식을 도당에 뿌리며 축원하는 고수레로 마친다.

당에 올라갈 때와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굿청으로 돌아와서 쌀그릇에 신대를 꽃고 잡는다. 무녀가 춤과 절을 하고 축원을 하자 대를 굿상에 모시고 마쳤다.

돌돌이

도당신을 모시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액을 풀고 복을 기원한다. 이를 돌돌이라고 한다. 우물과 동방서방 장승에서 각각 상을 차려두고 축원-고수레-고사소리-고수레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



도당신이 좌정하는 당가리에서 도당모시기
(사진 : 김현선 제공)

동을 할 때에는 전물을 든 마을 청년들이 앞서고 목검을 든 산이, 장구 등의 잽이들이 뒤를 따랐다.

시루굿

커켜히 팔을 얹은 시루떡을 찌내는 시루를 앞에 두고 굿을 한다. 부정굿과 마찬가지로 산이가 앉은청배를 부르는데,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오니섭채라는 장단과 삼현육각의 유장한 선율에 얹어 노래한다. 천하궁의 당칠성이 지하궁의 매화부인을 만나 선문이와 후문이를 낳고 이들은 대한민국과 소한국을 각각 다스리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미지는 시루가 놓인 상 앞에 앉아 비손하며 축원하고는 복잔을 내리고 다시 소지로 축원한다. 이어서 고경식 노인이 시루를 붙들고, 마주앉은 미지가 방울을 흔들며 축원한다. 시루가 흔들리고 돌아 오르면 신이 정성을 잘 받았다는 의미로 인식한다.

제석굿

하늘의 신인 제석은 인간에게 명과 복을 점지해준다. 제석은 맑은 신으로 고기, 심지어 팔뚝까지 올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굿거리를 집전하는 무녀도 흰 고깔 장삼을 입는다. 제석상에는 쌀, 밥과 대추를 올린다. 아울러 특이한 무구를 사용하는데, 바로 바라이다. 양손에 바리를 갈라 쥐고 춤을 추는데, 한쪽 바라는 명(命), 한쪽 바라는 복(福)을 의미한다. 밥과 대추도 명과 복을 상징한다고 보면 된다.

제석굿의 처음 절차는 제석님의 내력을 담고 있는 제석본풀이이다. 제석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삼촌 집에 고공살이를 하게 된다. 하루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한 중을 만나서 절로 간다. 그곳에서 도를 닦던 중에 당금애기의 소문을 듣고 만나게 되는데, 이 때 쌀 시주를 빌미로 제석이 꾀를 내어 당금애기에게 쌀을 먹여서 아이를 잉태시킨다. 이후에 대함제석과 소함제석이 탄생한다는 내용이다. 쌀은 제석님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공새면

공새면은 공삼현(空三絃)의 와음이다. 동막도당굿의 악기는 피리 대금 해금 장구 징의 삼현육각 편성이다. 춤, 노래와 행위 등 굿 연행 전체의 반주를 담당한다. 삼현은 줄임말로 볼 수 있는데, 악기 편성 자체 외에 곡명을 가리키기도 한다. 염불과 타령이라는 곡을

연주하였다. 앞의 공은 반주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다. 굿의 경제적인 면모는 매우 냉정하다. 굿판에서는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굿을 보고나서 내는 후불제이다. 그러므로 굿거리를 담당하는 미지 또는 산이의 연행 능력에 따라 수입이 달라진다. 공삼현은 무당의 굿이 없으므로 수입도 없게 되어 공으로 하는 연주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 할 수 있다.

무감

굿판에 나와 춤을 추는 행위를 ‘무감을 선다’라고 표현한다. 마을 주민들이 나와 신복인 청객자를 입고 반주 음악으로 춤을 추었다. 굿패가 아닌 관객들이 주인공이 되는 때이다.

터벌림

터벌림은 말 그대로 ‘터를 벌린다’는 의미를 지닌다. 무감이 관객의 춤이라면, 터벌림은 굿패, 특히 산이들의 춤이다. 두루마기를 걸쳐 입고 팽과리를 치면서 춤을 추는데 발로 차는 사위를 펼친다. 정식의 굿거리는 아니고 산이들의 재주를 보여주고, 아울러 좁아진 굿판을 다시 넓게 펼치는 기능도 지닌다.

군웅굿

군웅은 강남으로부터 동막 동네를 위하여 먼 길을 건너온 신이다. 보통 장수와 같이 큰 기운을 지닌 존재로 인식한다. 무거운 소머리를 들고 사방을 돌며 춤을 추고, 활을 놀리며 화살을 쏘는 등 신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며 마을의 나쁜 기운을 물리쳐 준다. 미지의 굿에 이어 산이가 부채를 들고 나와 군웅님이 이 곳으로 오는 과정을 판소리와 흡사한 방식으로 연행한다. 노래와 간단한 춤으로 군웅굿을 다시 한다고 보면 된다.

도당모시기

마을 수호신을 다시 원래의 좌정처인 소나무 숲의 당가리로 모시는 의식이다. 굿청으로 모실 때와 동일한 방식이다.

뒷전

뒷전은 굿판에 따라온 잡귀잡신들을 풀어먹여 보내는 굿의 마지막 의식이다. 동막도

당굿의 뒷전은 한편의 극이다. 노래가 많으니 노래극이다. 의딩이와 깨깁꾼, 북을 비롯한 반주자, 그리고 짚 인형인 정업이가 등장한다. 의딩이는 마을을 지키는 신의 일종으로 보인다. 자신의 정체를 알리려 시도하지만, 쉽게 밝혀지지 않는다. 마침내 마을의 안전을 지키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정업이를 징치한다. 정업이는 마을의 온갖 나쁜 기운을 품고 있는 존재이므로 의딩이가 씨름으로 기선을 잡아 매를 때리며 그 죄를 고하고는 마침내 불로 태워 소멸시킨다.

동막도당굿에 등장하는 도당신은 특이하다. 마을을 지켜주기 위하여 여러 신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정작 마을의 수호신인 도당신은 별다른 기능이 없다. 단지 모셔지는 절차를 거쳐 좌정하는 면모만 보인다. 다른 신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데 비해 주인공이 되는 마을의 주신은 바라만 볼 뿐이다.

물론 굿은 종합적이다. 신들이 가능한 한 모두 등장한다. 집을 위한 성주굿을 하더라도 성주신만 청하지 않고, 도당굿과 마찬가지로 여러 신들을 모두 모신다. 더욱 흥미로운 판은 마지막 뒷전이다. 뒷전에 등장하는 영산 수비 등의 잡귀잡신은 인간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가? 그 존재들은 그저 굿판에 온 것이다. 굿에서는 그들도 모두 풀어 먹여서 보내는 전통을 지닌다. 말하자면 특별한 역할이 없고 기원과 무관한 신들도 환대하여 보내는 잔치자리이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한 굿판을 마련하는데, 주민들은 모든 준비를 함께한다. 여기에 굿패가 의식 연행을 맡는다. 금전적인 관계를 넘어 서로의 믿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소망을 해결해 줄 것이다.’ ‘소망을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2. 동막도당굿을 찾아서

인하대의 너른 잔디밭에서 장구를 두드리고 어설피게나마 고사를 지내고 있을 때, 불과 7~8km 떨어진 동막 동네에서 도당굿을 하고 있었다. 1990년 3월 27일~28일(음력 3월 1일~2일)이 소나무 숲 당가리 앞에서의 마지막 굿이 있었던 날이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영상과 사진을 남겼고, 굿을 준비하고 참여했던 마을 주민들도 있었다. 이를 토대로 동막도당굿을 다시 찾아보려 시도하였다.

그 시도는 2013년을 시작으로 5년 동안 계속되었다. 굿 전체를 시연하는 방식도 있었지만, 주요 굿거리에 집중을 하거나, 음악 또는 춤이라는 특정한 연행 요소에 초



점을 맞추는 형태로도 추진하였다.

첫 번째 시도는 2013년 전통예술복원 및 재현 사업 <이용우 산이 전승 경기도 동막도당굿 재현공연>이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9월 29일 오후 1시부터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우현마당에서 개최하였다. 전해지는 자료를 토대로 부정굿, 시루굿, 제석굿, 군웅굿, 뒷전을 대한 복원을 시도하였다.

1990년까지 행해졌던 굿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몇 가지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굿이 벌어졌던 원래의 장소가 없다는 점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마을 주민이 없다는 것이었다. 춤추고 노래하는 표면적인 연행을 재현한다고 굿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의뢰자와 그들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반갑게도 주민 여러 분들이 박물관을 통하여 소식을 듣고 참석하였지만, 준비 과정과 굿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아서 굿의 본질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2014년 인천동막대동제>이다. 11월 19일 오후 12시부터 4시간 동안 동막동의 인천환경공단 야외에서 개최하였다. 이때부터는 인천문화재단의 지원이 있었다. 기획에서 출연진까지 인천 활동가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친근감을 더했다.

2013년에 알게 된 동막향우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도도 함께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만남에도 불구하고 협업에는 이를 수 없었다. 장소는 옛 마을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때 그 사람들은 없었다. 주요한 굿거리인 돌돌이, 부정,

제석, 군웅, 뒷전을 비교적 간략한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에 풍물 판굿으로 생기를 불어넣고, 도당굿의 음악과 무가를 소재로 소리굿, 굿의 춤을 소재로 새로운 버전의 쌍군웅춤을 제작하여 동막도당굿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는 <2015 인천동막대동제>이다. 11월 19일 연수문화의집 아트플러그 소극장에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개최하였다. 연수문화원과 일정 부분 협업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는 실내 극장에 자리를 잡았다. 지역 풍물패가 굿 초반의 돌돌이를 담당하였고, 연수구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예술인들이 축하무대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지만, 도당굿 판이라는 공감대를 대동놀이를 통하여 다소나마 형성하였다.

본래의 굿에 충실하려는 의도에서, 굿거리의 구성을 주요한 재차에 한정된 것은 전과 같지만, 예전의 풍성한 세부 절차들을 살리려 하였다.

네 번째는 <동막굿! 음악이 되다>이다. 2016년 11월 24일 오후 7시에 연수문화의집 아트플러그 소극장에서 개최하였다. 굿거리의 구성면에서는 굿의 틀에서 상당부분 벗어났으며, 굿거리 중에 음악적인 대목을 선택하여 작품을 구성하였다. 돌돌이는 순서에 따라 처음에 했지만, 마지막인 뒷전의 앞거리인 군웅을 돌돌이 다음에 배치하고, 중간에 위치한 제석을 가장 마지막에 보여주었다.

군웅의 경우 미지의 굿이 아닌 산이들이 연주하는 반주 장단들만을 재구성하여 만든 형태이다. 깨김은 굿에서의 대결 양상을 다양한 춤사위와 동선으로 확대하였



고, 그에 따라 음악도 적절하게 보조하였다. 제석거리는 여타의 굿거리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무가를 지니고 있다. 동막도당굿의 무가가 모두 제석거리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을 묶어서 하나의 유장한 노래로 편곡하였다.

여기에 밴드의 음악이 함께하였다. 굿거리마다의 특성을 살린 신비한 선율들, 주요 지점 마다 효과를 높이는 소리들이 굿의 음악을 풍부하게 채웠다.

다섯 번째는 <동막굿! 춤추다>이다. 2017년 11월 15일 오후 7시부터 학산소극장에서 개최하였다. 그야말로 동막도당굿의 춤만을 뽑아내 보여주었다. 돌돌이의 목검춤, 제석거리의 당놀림·장삼춤·바라춤, 티별림춤, 군웅거리의 활놀음, 뒷전의 깨김, 여기에 망자의 저승길을 위한 신칼대신무를 첨가하였다. 굿의 춤을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았다. 춤사위를 다듬고 재구성하고 창작하는가 하면, 바라춤은 여러 명의 참여하여 명과 복을 기원하는 바라의 의미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5년 간 계속했지만 동막도당굿에 점점 더 가깝게 다가섰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 수차례의 노력에 의뢰자의 소망을 담아냈는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정리를 기회로 삼아 일방적인 보여주기는 아니었을까 되돌아본다.

마을굿은 공동체의 삶에서 이루어낸 신앙의 표현이다. 단순히 같은 마을이라는 공간의 의미 외에 생업, 한해의 세시풍속, 일상을 공유하는 삶을 토대로 마음 깊이 간직한 소망을 남들 앞에서 꺼내 보이고 공유하는 데까지 이른 결과로 만들어진 의식이다. 이 의식을 위해 정성을 모으고 손수 준비하는 과정은 서로에 대한 강력한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 믿음을 중심에 두고 화두로 삼아 지금의 동막 동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민예총 풍물굿한마당을 되돌아보며

이성호

(사)한국민예총 풍물굿위원장
lsh4189@hanmail.net

민예총 30년 역사 속에서 풍물굿패들이 각 지역에서 벌려온 걸판지고 신명난 판이 이제 지역을 넘어 광역의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2020년 4월 26일 오송에서 창립한 (사)한국민예총 풍물굿위원회는 그 창립선언문에 다음과 같은 뜻을 담았다.

갈수록 서민들의 삶이 질곡으로 빠져들고 있는 혼란한 현 시대에서 전통문화의 계승자로서 예술인의 사회적 책임과 양심을 통해 풍물굿관의 일상생활화를 위하여 새로운 조직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진보 예술운동을 계승하는 가운데 전통문화예술의 발전과 확대를 확고히 하여 보수적 예술 자본에 종속된 문화정책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단순한 전통문화 전달자가 아닌 함께 생산하고 함께 누리는 민족굿을 통해 살아 숨쉬는 풍물굿을 전국의 모든 민중들과 함께 꽃피우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총회에서는 5.18 광주 40주년에 맞추어 광주 망월동에서 전국의 예술인들이 모인 가운데 창립대회를 진행하자고 결의하였는데 코로나로 광주 40주년이 축소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코로나19로 창립공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를 넘기면 곤란하다는 판단에 합의하여 11월 29일 수원 경기상상캠퍼스 사색의 동산에서 4가지 기조를 마련했다.

1. 가능한 14개 지역이 공연 하나씩 준비하여 공연을 한다.
2. 전국 풍물패가 함께 풍물을 치는 합굿을 한다.
3. 대동난장을 통해 모두가 하나가 되는 판을 만들어 본다.
4. 각 지역에서 공연 가능한 의견을 모은 후 의미 있는(광주 40주년 등 민예총 위상에 걸맞은) 행사로 연출한다.

그러나 이 또한 코로나19에게 밀리면서 해를 넘기고 말았다.

2021년 통일 기원 대동한마당 “개성공단 재가동과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으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라는 제목으로 6월 13일 임진각 평화의 종 앞마당 또는 도라산역에서 아래와 같은 기획 배경으로 준비를 하게 된다.

- 북측은 대미 협상과 관련하여, 2020년에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협상, 협상만을 위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정면돌파를 선언하고 그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 또한 남북관계 관련하여서는, ‘판문점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하고, ‘평화와 군사적 안정 보장’ 관련 남북합의 이행에 역행하는 남측 당국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앞으로의 남북관계 회복은 남측 당국의 태도, 특히 적대행위 중단, 남북선언의 성실한 이행에 달려있다면서, 남측이 움직이는 만큼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테두리 안에서 남북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미국의 패권정책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기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경기도 수원, 안산, 성남, 의정부, 김포, 여주지역의 풍물 굿쟁이들의 모임인 (사)경기민족굿연합은 임진각에서 2014~ 2016년 민족굿 한마당을 개최하고 2017년에는 평화통일장승굿을 기획 및 진행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풍물패들의 염원을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누었는바, 이제 그 마음을 전국의 풍물꾼들이 모인 (사)한국민예총 풍물

굿위원회 창립공연으로 이어나가 통일 기원 대동한마당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촉구하고자 한다.

- (사)한국민예총 풍물굿위원회는 전국에서 30여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풍물을 통해 이 땅의 민주화에 힘써 왔던 강원, 경기, 광주, 대구경북,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풍물 일꾼들이 모여 2020년 창립한 단체로 코로나19로 인해 창립공연을 미루다가,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창립공연을 하고자 한다.
- 이번 공연은 분단의 최전선에 있는 경기도민들에게 풍물굿이 가지고 있는 신명과 희망을 나누는 계기를 만들어내어 통일로의 염원을 모아내고자 하며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비대면 공연을 가능하면 도라산역에서 영상촬영으로 하여 SNS를 통해 경기도민을 만나고자 한다.

특히 (사)한국민예총 통일위원회,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58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26개 단체로 구성된 615경기본부와 함께 판을 만들어 진행하고자 준비를 하였다. 짝 묶여버린 발목을 떼지 못하는 상황에서 6월 12일 오후 4시 춘천 공지천 의암공원 특설무대에서 2021 강원민족예술한마당 “꼭해야 한판” 둘째 날 한국민예총 풍물굿 한마당으로 초청받아 풍물굿위원회 창립공연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기나긴 시간을 지나 돌아돌아 넘어와서 준비에 들어간 창립공연! 이제부터 각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모으면 되는 판이 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코로나 방역상황으로 공지천 의암공원 특설무대에서 시민들은 참가하지 못하게 천막으로 땡 둘러싸고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너무나도 뜨거운 여름날, 이미 참가한 풍물패만 수백

명이라 그나마마도 감지덕지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하였다.

(사)경기민족굿연합에서 연출 및 사회를 맡고 여는굿으로 춘천민예총 풍물굿협회, 원주민예총 풍물굿협회, 춘천 시민 풍물패 수백명이 집단 길놀이로 코로나를 접근 못하게 길놀이를 한 후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1. 정화수 의례굿 - (사)강원민예총 풍물굿협회

자연과 못 생명이 교감하는 통로였던 정화수의례를 재조명하여 관객과 교감하는 자리를 만들고 종교의 의미가 아니라 정화수 한 그릇을 모시듯 굿판에 굿을 제대로 담아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낸다.



2. 통일난장굿 : 광주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전라도의 특유의 가락을 중심으로 난장을 펴 흐드러지는 통일 난장굿을 만든다.



3. 금회복춤 : 대구경북 사단법인 풍물 마실

외복춤이 가장 발달한 경상도 지역의 복춤으로, 대구 달성 다사지역에서 내려오는 복춤으로 아주 커다란 깔을 쓰고 허튼춤에서 절제된 춤사위까지 조화를 이루며 복의 기운을 전달하였다.



4. 상모판굿 : (사)인천민예총 전통예술위원회

네 가지 풍물 악기잡이들의 부포/ 채상 상모짓과 역동적이며 간결한 동작, 그리고 다채로운 가락이 함께하며 시각과 청각 모두 흥을 돋우면서 통일에 대한 희망을 노래하였다.



5. 태평소와 국악관현악 : (사)세종민예총 풍물굿위원회

자연과 인간, 생명과 평화, 나눔과 소통, 영성과 깨달음을 음악의 모토로,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치유의 힘과 긍정의 힘을 제공하고, 지역화합과 공동체 문화에 기여하는 등 국내에서 독보적인 음악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퓨전국악그룹 풍류이 국악 관현



악과 태평소와 그리고 쯔베의 화려한 악과 어우러져 한판굿을 벌였다.

6. 통일비나리. 버나놀이 : (사)충북민예총 풍물위원회

씨알누리에서 '기원', '바람', '소원', '갈구' 등의 뜻을 담고 있는 순 우리말인 비나리 즉 한 해의 모든 재앙이나 횡액을 물리치고 하는 고사덕담을 진행하였고 남사당놀이의 전통기에인 버나놀이를 놀이마당 올림이 다양하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유쾌하게 해석한 작품으로 버나놀이의 다양한 재주를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웃음을 주고 체험을 유도하는 등 기발한 작품을 선보였다.



7. 광양버꾸놀이 : (사)전남민예총 풍물위원회

광양버꾸놀이를 선보였는데 광양지역에서 보존되어 있는 군고인 광양버꾸놀이는 복을 자유롭게 상하로 가지고 놀며 저장거리는 디딤새와 함께 멋스러움을 한껏 자아냈다. 된버꾸 가락에서는 회오리치듯 감아 도는 웅장한 남성성 기운이 잘게 쪼개가는 가락과 조화를 이루어 호흡의 깊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깊은 맛을 냈는데 이 맛으로 통일염원의 맛을 버무렸다.



8. 타악퍼포먼스. 사자춤, 큰기놀이 : (사)경기민족굿연합

악을 물리치고 통일을 물고 오는 타악퍼포먼스, 사자춤, 기놀이를 통해 전국의 풍물꾼들 모두가 하나 되는 풍물굿한마당의 절정을 이루어 냈다.

관객이 출연진이었고 뒷풀이도 없었지만 오래간만에 너무나도 오래간만에 전국의 풍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 지역과 단체의 특색 있는 공연을 하였다는 데 큰 의



미가 있다. 또한 (사)한국민예총 풍물굿위원회가 1년 만에 창립공연을 열었다는 큰 의미를 지닌 한판 굿이었다. 모여서 놀고 싶은 마음을 묶어내기에 충분한 판이었고 서로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풍물굿위원회로 하나된 마음을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판이었다.

코로나를 어서 뛰어넘어 (사)한국민예총 풍물굿위원회의 위상에 맞는 여러 풍물판을 기획하여 풍물을 통해 이 땅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모두가 하나 되는 판을 많이 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08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게 마음이 닿는 길

2021 인천민예총 음악위원회 음악이 흐르는 '네이처 콘서트'

최금예
인천민예총 회원
jinri14@naver.com



지난 9월 인천민예총 음악위원회에서 '네이처 콘서트'를 진행했다. 기후위기의 시대,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기후위기 선언과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인간 중심의 개발로 자연을 향한 폭력들이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 앞에서 예술은 무엇을 해야 할까? 자본의 욕망은 이미 내면화되었고 여기에서 초래한 현재의 심각한 환경의 책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일원으로서 나는 무엇

을 해야 할까? 네이처 콘서트는 이 물음에서 시작했다. 땅 위의 썩은 낙엽과 동물의 똥을 흙과 함께 먹고 토해낸 분변토와 땅속을 기어 다니며 만든 작은 길로 기름진 토양을 만드는 지렁이는 자연에 어떤 것도 역행하지 않는 생을 살아간다. 네이처 콘서트는 지렁이가 지렁이답게 살아가듯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연 가운데 속한 많은 생명체 중 일부임을 인식하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인간이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는 시간이었다.

자연과의 만남 그리고 연결

환경활동가, 시민활동가들이 참여한 시민 퍼포머들은 미술위원회 성효숙 작가와 함께 아프리카 악기의 고요한 선율과 침묵 속에서 씨앗이 되고, 나무가 되고, 새가 되고, 바다가 되고, 고통받는 바다거북이 되고, 플라스틱 가득한 물고기가 되는 몸짓 퍼포먼스에 참여했다. 함께 채집한 자연물과 인간이 아닌 다른 자연의 생명들 사진을 공간바닥에 배치하며 만다라를 만들었다. 만다라는 인간이 단절된 자연과 만나고 연결되려는 시도이자 의식이었다.

근원적인 삶의 뿌리, 발을 딛고 서 있는 대지가 숨을 쉬고 생명이 넘칠 때 자신의 중심이 어디이고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지 몸에서 알아챌 수 있다. 내 발이, 내 몸이 인간 중심의 세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서로 얹히고 얹혀 살아가는 지구별로 확장하고 공명할 때이다.

(연출노트 중에서)

살아있는 생명에게 마음이 닿는 길

나무 한 그루가 상처를 입으면 자기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고통을 같이하는 감수성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 속에 하나로 뭉어져 있다는 생각 그것이 시적 감수성의 본질이고, 시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 다른 생명으로 보이는 것들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내 생명의 일부라고 보고, 시인은 생명에 가해지는 상해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시의 마음과 생명공동체’ 중에서 / 김종철)

10여 년 전 아름다운 봄날, 부부 가수 엄보컬과 김선수는 이명박 정부가 강행한 4대강 사업 중 하나인 공주보 건설현장에 간다. 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금강에 시뻘썩게 녹슨 철기둥을 박는 모습을 보며 금강에 있을 그리고 있었을 생명체들에게 한없이 미안했고 그 마음으로 노래 ‘홀러라 강물아’를 만들었다. 지금도 새만금에서 제주도에서 강원도 삼척에서 홍천에서, 인간의 욕심으로 자본의 욕심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살아 있는 많은 생명체들을 생각하며 노래 ‘홀러라 강물아’를 부른다.

홀러라 강물아

굽이굽이 굽이굽이 홀러야 강이 되지
여울과 풀과 모래가 어우러져야 살 수 있지
종다리 높이 오른 낙동강 동녘 하늘
사래 긴 발 매는 농부는 어테로 어테로 어테로 가야 하나
영산강 황금물결 역새 바다
천 년에 한 번 오시는 님은 이대로 이대로 못 오시나
비단결 넘실대는 금강변 모래톱에
님 잃고 애달픈 고아는 어테서 어테서 어테서 눈물짓나
홀러라 홀러라 강물아
퍼져라 생명의 물결로
힘내라 힘내라 강물아
홀러라 생명의 바다로

가수 황승미는 어른으로서 그레타 툰베리를 보며 느낀 부끄러움과 쓰레기를 먹고 죽어간 알바트로스와 빨대 낀 바다거북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자신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상을 함께 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아끼며 다음 세대에 조금 더 좋은 것을 넘겨주자는 마음을 담아 ‘나비가 난다. 바람이 인다’를 노래했다.

나비가 난다. 바람이 인다

나비가 난다. 바람이 인다.
나비가 난다. 바람이 인다.
오백 미리 물 한 병에 바다거북이 아프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제 결과를 갖게 마련
비행기가 날고 북극곰이 굶는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제 결과를 갖게 마련
플라스틱 빨대 하나 알바트로스의 날개를 꺾는다

다시 돌아가야 해 흠냄새 맡으며
꽃벌 잉잉대던 여름날 마루 위
청명한 하늘 알싸한 아침공기
소복소복 쌓인 눈 투명한 고드름
느리게 좀 더 천천히 움직이던 그때 그날로
다시 돌아가야 해 다시 돌아가야 해
이유를 묻는 어린 두 눈에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이유를 묻는 어린 두 눈에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나비가 난다. 바람이 인다.
나비가 난다. 바람이 인다.

저어새와 노래하는 아이들은 가수 황승미와 함께 남동 유수지 인공섬에 3월이면
찾아와 알을 낳아 새끼를 키우고 11월이면 다시 날아가는 저어새를 노래했다. 까만
다리 하얀 몸의 옷을 입고 성장 깃을 단 저어새가 되었다.

저어새야

저기에 있는 저어새야
어디에서 왔니 저어새야
아기 새를 만나러 새로운 땅을 찾아 날아왔구나

저어저어 저어새야.

까만 얼굴 주걱 부리 갯벌 속을 저어저어 먹이 찾는 새야
3월이면 우리 동네 찾아와서 둥지 만들고 하얀 솜털 아기새 기다리며 알을 품지
(15일 동안 엄마 아빠 되기 힘들지)
저어저어 저어새야.
까만 얼굴 주걱 부리 갯벌 속을 저어저어 먹이 찾는 새야
무럭무럭 자란 아기새는 둥지 떠나고

뜨거운 여름 지나 떠날 채비하지.
(따듯한 남쪽 나라에서 겨울을 잘보내)
갯벌 습지 사라지면 볼 수 없는 새야
깨끗한 습지에서 내가 살 수 있도록 갯벌 매립 그만 쓰레기도 이제 그만
저어저어저어새야 내 친구 주걱 부리 새야
내년 3월 꽃이 필 때 다시 찾아와줘
하얀 날개 저어저어 꼭 찾아와줘. 꼭 찾아와줘

텃밭의 작물이 쑥쑥 자라 풍성해질수록 그만큼 우리가 잡초라 불리는 이름 모를 풀
들이 더욱 풍성해지는 5월이다. 내가 심은 작물과 무수히 씨를 퍼뜨려 조금만 게으르
면 잡초로 뒤덮는 텃밭에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땅과 가까이 몸을 숙이면 진하디 진
한 흙의 냄새가 먼저 온몸에 은은히 스며든다. 풀을 뽑아낸 자리에는 붉은빛의 지렁
이들이 꿈틀거리고 흙 위로 땅거미, 개미, 사마귀, 노린재, 무당벌레… 눈에 보이는 그
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작은 텃밭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다. 직박
구리, 박새, 딱따구리, 산까치, 뺨꾸기, 개구리 소리가 울리는 텃밭에서 풀들을 뽑고
작물들을 살피는 고요한 노동에 집중하다 보면 온몸이 열리고 자연의 일부, 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경험을 한다.

(연출노트 중에서)

신성한 나무에 꽃이 필 때

‘화나고 슬픈가요? 자, 나와 발라폰의 대화에 귀 기울여 봐요. 투명하고 경쾌한 발라
폰 소리가 그대 안의 폭풍을 잠재우고 신비한 치유의 바람을 불어 넣어줄 거예요. 그
래요, 이제 미소 짓는군요. 그대 마음에 행복과 평화를 드리는 나는 ‘젤리’입니다’

콘서트에 참여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음악가 아미두는 젤리이다. 젤리는 시
인이자 영혼을 달래는 음악가이고, 갈등을 잠재우는 중재자이자 우화와 속담으로 인
생의 가르침을 전하고, 노래와 이야기로 수 천 년의 역사를 전하는 사람이다. 음악은
사람들의 삶에 특별한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다. 젤리는 주술사 또는 무당이며 치유하는 자이다.

서아프리카 젤리와 경기도 도당굿 연주자는 잃어버린 자연의 언어를 되찾기 위한 자기반성과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성한 대자연을 향해 인디언의 기도문을 읊조렸다. 반복되는 읊조림은 인간의 깊숙이 잠재되어있는 신성한 나무의 뿌리를 살아나게 하고 신성한 자연과 연결되어 꽃이 피기를 기원하는 행위이다.

오 위대한 신령이시여, 나의 할아버지시여
흐르는 눈물 속에서 말씀드립니다
나무는 결코 꽃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의 나무는 시들고
나는 당신이 나에게 주셨던 그 위대한 신명을 기억할 뿐입니다
신성한 나무의 뿌리가 아직 살아 있다면
그 뿌리가 아무리 작더라도 자라게 하소서
그러면 신성한 나무는 언젠가 다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우지 짓는 새들의 노래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소서
사람들은 이제 축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 줄 신성한 나무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인디언의 기도문 '신성한 나무에 꽃이 필 때' 중에서)

자연의 모든 구성원에게 드리는 감사의 말

시민 퍼포머들은 물, 불, 공기, 흙, 해, 달, 별, 바람, 이파리, 작은 열매, 동물 그리고 우주 공간에 전하는 인디언의 감사의 기도문을 낭독하였다. 낭독퍼포먼스는 우리에게 자연의 일부임을 기억하게 하고 자연에 대한 겸허한 태도로 살겠다는 우리의 다짐이며 약속이었다.

감사의 말들은 우리의 발이 처음 대지에 닿은 곳에서부터 자연의 모든 구성원에게 인사와 감사를 드릴 것을 매일 같이 상기시킨다.

감사의 말들은 우리의 상실을 일깨울 것이며 복원 노력을 하도록 채찍질할 것이다.

감사의 말들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가졌음을 매일 자각하게 한다. 아니다. 충분 이상이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여기에 있다. 매일 이렇게 하면 모든 창조 세계를 만족과 존중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다.

- 로빈 월 키머러 〈향모를 땀으며〉중에서

30년 경력 신진 연출가의 자득 연출론

전태일열사50주기 인천추모콘서트를 중심으로

이은진

문화기획자, 연출가
jini0501@gmail.com

현장에서 자란 연출가

기획이나 연출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은 없다. 1990년대 여기저기서 얻은 복사물과 거친 번역 자료들을 뒤적이고, 돌아가신 문호근, 박인배 선생님이 총연출을 하신 작품에 음악연출을 맡아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전부이다. 어릴 때부터 음악을 접했고, 연극에 심취해 꾸준히 연극을 보러 다녔던 청년기의 경험이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다. 꽃다지에서 창작과 연출을 담당했던 조민하 선생이 탈퇴한 후, 달리 맡을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공연해 온 경력으로 내가 공연 연출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연출이라는 역할이 계속되었다. 연출자라고 불리기엔 너무 부족하여 민망하다.



그럼에도 나의 이력에는 1990년대의 다양한 진보운동세력의 연합공연에서 음악연출을 맡거나 인천노동문화제(2000~2003), 전국여성노조 서울문화제(2004), 월미평화콘서트(2009), '협동조합 난장한마당' 전야제, 시민한마당, 폐막제(2012), 영암 지역문화제(2012), 서울마을이야기 합창제(2013), 그리고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를 비롯

한 노동자문화제, 문화집회 등 연출 경력이 꽤 된다.

공연이나 기획, 연출 역할도 모두 노동문화운동이기에 가능하면 능력을 떠나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나에게 요청을 했던 당사자들도 대중예술이나 고급예술 분야의 전공이나 이력, 경력보다는 현장 실전 경험과 노동자 대중의 요구나 정서를 함께 고민하는 작업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아마 나같이 현장에서 같이 활동해온 사람이 오히려 더 필요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문화운동에서 이런저런 노동자 집회나 문화제를 준비하다보면 가끔 내가 기획자인가 연출자인가 헷갈릴 때가 많다. 나에게 요청을 한 주최 측, 즉 노동운동 단체나 노동조합이 나를 연출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기획자로 생각하는 것인지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요구들을 해왔고, 나 역시 일을 하다보면 기획과 연출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양쪽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꽤 많았다. 기획을 맡았어도 어느새 연출팀에서 공동 연출단 역할을 하고 있거나, 연출을 맡았음에도 기획의 입장에서 기획방향이나 조직에 관련한 이야기를 같이 하곤 했다. 명확하게 연출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연출이 기획과 소통하고 배려하며 협업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협력하고 연대하며 성과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 노동문화운동의 특징이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노동조합의 파업문화제, 투쟁문화제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예산이 없고, 군이 많은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아 긴 시간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 대부분이라 연출을 따로 두지 않고, 기획자가 연출을 담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기획자는 조합집행부나 행사 지도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신의 인맥과 판단기준을 가지고 섭외를 한 뒤, 각 공연단과 개별 협의하여 순서를 배치하고 음

향, 사회자 등과 조율하며 전체 흐름을 결정한다. 몇 년 동안 문화제를 해왔던 경험이 있거나 개인적인 재능 혹은 인맥을 활용하여, 노조 문화담당자나 조직담당자 등 집회를 주최하는 노조 간부가 전체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연출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노조문화담당자가 기획과 연출의 역할을 겸한다고 볼 수 있고, 역량이 있다고 보

는 조합간부가 사회까지 보면서 전체 행사를 이끌어가기도 한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고, 즉흥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현장에서는 사회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니, 사회자가 연출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행사도 매우 많았다. 어떤 노동자 집회는 기획자도 연출자도 없이, 그냥 노조 담당자가 섭외를 해서 주루룩 행사를 나열하면 그것이 연출의 역할이라고 쉽게 생각되기도 한다. 물론 대중적인 이슈나 정책적인 이슈, 사안들과 맞물린 노동자 민중들의 집회나 문화제 등에서 볼 수 있는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런 모습은 여전히 발견된다.

연출의 4가지 원칙

공연에서 점점 더 다양하게 역할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예전에는 연출이 담당했던 포괄적인 역할에서 연합공연이나 집체공연처럼 총연출이 있고 장르나 영역별로 음악연출, 풍물연출, 영상연출 등이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뿐 아니라 조명디자이너, 무대디자이너 등의 역할도 조명연출, 무대연출로 호칭하기도 한다. 연출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정리하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연출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는 명확하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연출자가 누구이고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작품에 대한 평가는 개별적일 수 있으나 연출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다. 연출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작품의 내용과 형식면의 흐름이나 무대 동선까지 정돈되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또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나 음악의 중점이 무엇인지, 그 의도가 보이면서 공을 들였다는 느낌까지 관객이나 대중들에게 전달이 된다. 개인 콘서트인 경우라도 무대 위에서 보는 입장과 객석에서 보는 입장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출은 반드시 필요하다. 요컨대 연출가는 기획 의도에 맞게 무대에서 주제와 이야기를 최대한 잘 전달되도록 만드는 창작자이다. 연출가는 기획 의도가 잘 전달되도록 최대한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이나 무대 안팎에서 함께 만드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연결해 일관된 흐름을 만들어낸다.

연출가로서 나에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기획이나 연출작업에서 항상 첫 번째 원칙으로 꼽는 것은 깊은 연구와 고민이다. 공연이나 행사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해 가능하면 깊게 파고, 계속 고민하고 연구할 때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야기 구조가 만들어진다. 주제뿐 아니라 출연진이 결정되면 개인이나 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

거나 찾아서 주요 레퍼토리나 작업 방식, 음악이나 작품의 특성, 장점, 단점들을 파악해서 어떤 작업으로 이번엔 같이 할 수 있는지 상상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통과 공감이다. 1990년대~2000년대 초반까지는 연합공연이나 콘서트를 준비하는 단계에 전체 출연진과 스태프 회의가 있었다. 이번 공연 혹은 행사가 왜 준비되었는지, 이 공연을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 어떤 의미를 부각시킬 것인지 언제나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주제어나 공연의 틀과 방향도 결정했다. 언제부터인지 사전 모임은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고, 굳이 다양한 채널이 있으니 시간 맞춰 다 모이는 것을 시간과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생겨났지만, 그런 자리가 없어진 후에는 결국 모든 것이 연출자 개인의 몫이 되고 만다. 함께하는 것만 못한 것은 당연하다. 하여 가능하면 몇 번이든 직접 만나기도 하고 통화를 하기도 하면서 기획의도와 연출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고, 무엇으로 함께 할 수 있는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과정은 당일 무대에서뿐 아니라 끝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관객, 대중의 몫을 남기는 일이다. 결론을 잘 맺어 부각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연, 행사 내내 함께 한 느낌으로 각자가 채워갈 몫을 여백으로 남겨두는 방식이다. 주로 내가 해왔던 작업에서의 관객은 대부분 노동문화운동의 주체이며 동지였으니 그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는 공연팀과 스태프의 호흡과 신뢰이다. 조명이나 음향, 혹은 나에게 없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한다. 함께 만드는 이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맡긴다는 측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원칙과의 교집합이 있다.

전태일 50주기 추모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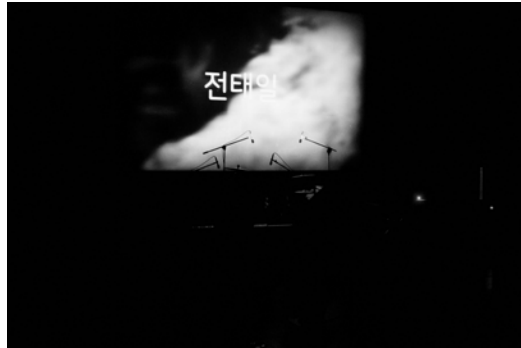
2020년 11월, 인천에서 열린 ‘전태일 50주기 추모콘서트’는 앞의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연출한 작업이다.

먼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전태일열사 50주기. 50년 전 산화해 가신 노동운동의 선배 열사로서 전태일 열사를 기억하는 것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전태일임을 다시 새겨보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는 주장은 이 공연뿐 아니라 해마다 반복 등장하는 문구일 것이다. 그런데 참 어려운 이야기이다. 오랜만에 전

태일의 수기와 평전을 다시 찾아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전태일 열사라면, 그 입장에서 지금 그 공연장에 함께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자리에 전태일 열사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 함께 무엇을 다시 꿈꾸자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했다. 큰 틀의 주제를 정하고 전태일 열사와 현재의 우리가 주고받는 형식의 소주제가 결정되었다.

주제외식의 부각은 여는 마당과 1부 출연진 결정이 늦어지면서, 우선 출연이 확정되어 논의와 새로운 작업이 가능한 고명원밴드를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관객으로 함께할 인천의 오랜 노동운동 동지들에게 고명원밴드의 새로운 연주곡과 그림책 이야기로 만든 노래들이, 그림이나 이미지와 어울려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특별히 과감하게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올리면서 기존의 노동가요를 선곡하지 않은 것은 익숙한 노동가요를 들으며 과거에 형성된 익숙한 정서와 관념에 갇혀 전태일 열사의 수기와 이미지가 쉽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조금은 낯설지만 따뜻하고 아름다운 음악과 더불어 전태일의 유서나 수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다.

콘서트 진행에 사회자를 두지 않은 것도 음악적이고 이미지적인 흐름이 끊길 우려가 있어서였다. 더구나 사회자가 설명하면서 일방적으로 내용이 전달되거나, 사회자의 시간이 갑자기 현실로 돌아올 염려도 있었다. 다만 시간이 소요되는 무대 교체



시에 침묵과 답답함은 일부 있을 수 있었고 이것이 인내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다.

세 번째 중점은 도입부와 마지막 장면이었다. 이진 어떤 장르, 어떤 창작의 영역에서도 누구에게나 중요하게 생각되는 지점일 것이고, 이 둘은 같이 구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입부 출연진 결정이 늦어져 춤, 풍물, 영상으로 바뀌었다. 마지막 장면과 어울리도록 영상으로 도입부를 제작하기엔 절대적인 시간과 예산이 부족했다. 있는 영상 소스를 가지고 가능한 장면을 만들어내야 했다. 매일 노동현장에서 희생되는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 무엇이 바뀌었는지, 목숨을 건 투쟁조차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느낌을 살려야 했다. 산재사망자 명단이 빼곡하게 실린 몇 년 전 경향신문 화면으로 시작해 현재에서 과거의 노동열사들의 이름을 보여주다 전태일 열사 장면에서 멈추고 자막이 받아서 열사를 소환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 나의 자리를 내어달라’는 전태일 열사의 요청을 받아 객석에 한 자리를 내어준다. 객석에 전태일 열사의 자리에는 열사의 상징색인 녹색조명을 내렸다. 이 녹색 조명은 마지막 노래 <네 이름은 무엇이나> 이후 문익환 목사님의 동명의 시가 자막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는 모두 전태일이다’로 끝난 후, 전체 객석을 넓게 비추도록 하여 연관성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 공연에서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관객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른다.

어쩌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연출자 혼자만의 상상일 수는 있다. 하지만 나는 늘 예술이 갖는 힘을 믿었고, 내 주변에서 함께 해온 예술가와 활동가들을 존중하고 아껴왔다. 예술 감성은 예술을 접할 때 발현되고,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고, 더 깊게 파고들게 만드는 힘이 있다. 누군가에게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 되기도 하는 예술체험으로 공연장이나 행사장에서 함께 공진할 에너지를 만들어 보고 싶다. 아주 오래 전 무대에 섰던 어느 순간에, 객석과 하나가 되어 내가 부르고 있는 노래가 나에게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대중들의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소리로 나를 휘감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함께 어울려 공진이 일어난 듯 몸이 저릿저릿하며 목이 메어왔다.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몸에 새겨진 기억이다. 언젠가는 그런 공연을 꼭 다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날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면 미련한 걸까.



뒷이야기

2021년 올해 서울에 올라와 5월 즈음 예술인 등록을 했다. 2014년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라 전혀 정보도, 관심도 없었는데, 인천 민중가요콘서트 이후 딱히 맡은 일이 없어 뭐라도 할까 고민하던 중, 후배들이 권하기에 이거라도 해볼까 하고 시도를 했다. 신진예술인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등록되었다고 회신이 왔다. 오?! 30여년 경력의 신진 예술인, 연출가!! 되네?

그나마 예술인 등록이라도 시도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인천 덕분이다. 2014년 안식년, 그 뒤로 제주에서 6년을 베짚이로 살다왔으니, 최근 3년 내 경력이나 실적이 있을 리 만무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작년 2020년 11월 전태일 50주기 추모 인천 콘서트 연출을 맡아 작업을 하고, 또 올해 4월 말 인천 민중가요페스티벌의 연출을 한 게 근거가 되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년 2020 전태일 50주기 추모 콘서트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작업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공연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몇 달 동안 가슴이 쿵다쿵다 뛰는 경험을 오랜만에 했다. 공연 뒷풀이 자리에서 나는, 잊지 않고 불러내 이런 자리를 함께 만들 수 있게 해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소회를 밝혔다. 진심이었다. 제주에 내려가 평가서를 올려 보내고도 계속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다시 이들과 계속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어 올라오게 되었다. 정말 다행이다.

활동가 노트

취향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옥승희(문화기획자, 모씨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몰입

신나래(문화기획자, 모씨네)

증가하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장시진(문화기획자, 모씨네)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라정민(문화기획자)



취향을 발견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

옥승희(문화기획자, 모씨네)
okkee22@mocine.net

대한민국에서 살며 초·중·고를 다녔다면 취미와 특기에 대해 고민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12년의 학교생활에서 한 번쯤은 쓰게 되어있는 ‘취미와 특기’, 취미를 쓰라는 칸에는 영화보기, 음악듣기, 책읽기와 같은 대답이 흔했다.

그런데 요즘은 취미를 넘어서 취향을 묻는다. 이른바 취향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취미와 취향은 확실히 다르다. 취미의 사전적 의미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고 취향은 ‘하고 싶은 마음이 쏠리는 방향’이다. “취미는 습관과 같은 것이고 취향은 자아의 선택과 연관되어 있다. 취미는 만들어지고 취향은 발견한다고 표현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취미를 취향과 구분하지 않거나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한다. <취향의 탄생>의 저자 톰 밴더빌트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안정적인 취향을 지닌 이성적인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그리고 “미신처럼 자신의 취향을 믿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다양한 영역을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내용을 주입식으로 접하기 때문이다.

취향의 무의식적 배제는 청소년기 성과중심의 평가가 들어간 예체능 분야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미술성적이 낮으면 ‘아, 내 취향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활동이 나에게 끼치는 무수한 영향들을 알아차리는 시간은 없고 빠른 시간 내 점수로 단정한다. 이렇게 취향을 잃어버린 채 성장한 mz세대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다.

음악듣기, 영화보기, 책읽기에서 힙합음악듣기, 스릴러 영화보기, 판타지 소설보기로 점차 종류가 세분화되고 있다. 거창한 작품 만들기에 국한되지 않고 뭔가에 몰두할 수 있지만 못하거나 완성하지 않아도 부담 없는 것들로 선택지를 잘게 쪼개면서 취향 찾기는 시작된다. 더불어 온라인 공간에 나에 대한 정보를 쉽게 노출시키고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일상화 되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

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런 개인의 취향을 발견하는 것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한다.

취향을 공유하는 문화가 당연해진 시대에 이른바 ‘덕후’ 문화, 즉 취향산업은 점점 영역을 넓히고 있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몰두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어 이용한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그 분석이 완전히 근거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mz세대뿐 아니라 현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취업을 하거나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이고 추석마다 만나면 듣는 ‘결혼은 언제 하니’, ‘살은 왜 이렇게 찼니?’ 등 매해 같은 레파토리에서 도망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찌면 숨기고 있었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공유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같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별것도 아닌 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니 부끄러울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 나의 취향이 보편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편식은 나쁜 거야.’라고 듣고 자랐지만 ‘오이를 싫어하는 모임’인 ‘오싫모’ 취향 공동체를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왜 공동체일까? 단순히 취향만 공유한다면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모여서 그 덕력을 뽐내면서 취미로 발전된 경우 취향 공동체라 말한다. 취향의 전문화인 것이다. 색다른 취미를 개발하고 함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더

나은 삶을 모색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친목도모의 성격이 강했던 과거 모임들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다.

대략 2년 전부터 직장인들 대상으로 워라벨(work&life balance) 퇴근 후의 삶에 관심이 많아졌다. 하루의 에너지를 일에만 쏟지 않고 오롯이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찾아 즐기는 ‘경험의 확장’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을 하자는 내용이었다. 직장인 취미 애플리케이션인 <소모임>, 소셜 액티비티 앱 ‘프립’, 식습관 개선을 위한 운동모임 ‘버핏 서울’, 어른들을 위한 캠프 ‘라이프 셰어’ 등이 이때 나온 애플리케이션이다. 확실한 콘셉트가 있고 모이는 이들의 뚜렷한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 더 색다르거나, 더 특화됐거나. 문화심리학자 김진국은 “최근 특색 있고 개성 있는 취미·취향 모임이 늘어나는 것은 집단주의에 매몰됐던 사람들이 개인주의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일과 놀이,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직장과 가족의 서열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지위와 자극을 추구하려는 욕구가 반영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의 취향과 사회적 신념에 솔직하고 거침없는 이들은 요즘 미닝 아웃에 빠져있다. 미닝 아웃이란 신념을 뜻하는 ‘미닝(meaning)’과 ‘벽장에서 나오다’라는 뜻의 ‘커밍아웃(coming out)’이 결합한 단어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해시태그 기능을 사용하여 자신

의 관심사를 공유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거나, 옷이나 가방 등에 메시지가 담긴 문구나 문양을 넣는 ‘슬로건 패션’ 등 여러 형태로 표현된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뜻으로 노란 리본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덕분에 챌린지도 이에 포함된다.

개인 취향을 따지면서 이런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서 누구보다 빠르게 가치를 전하는 사람들이 취향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자.

‘팬슈머’는 팬과 컨슈머(consumer)의 합성어로 단순히 브랜드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기획, 유통, 홍보, 비판까지 총괄하며 브랜드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여하는 소비자를 의미한다. 팬슈머 시장에서 소비자의 열정적 지지와 참여는 ‘나’라는 시작점에 의해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긴다는 바이미(by-me)신드롬에 기반한다. 개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것처럼 브랜드는 영향력이 큰 팬슈머의 피드백과 취향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팬슈머로 선택된 인플루언서는 자신을 팔로우하는 팬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다.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애정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컨슈머를 팬슈머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세 단계를 거치는데 그것은 바로 포텐셜 컨슈머, 로열 오디언스 그리고 팬슈머이다. 포텐셜 컨슈머가 로열 오디언스로 진입하기 위

해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제공해줘야 하고 로열 오디언스가 팬슈머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이미 신드롬과 과몰입이 필요하다.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바이미 신드롬’이 사회전반에 걸쳐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다. 소수에 대한 관심, 사회 문제, 환경 보호 등도 “바이미 신드롬”을 기반으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쌍방향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팬(fan)이 팽(烹)되기는 잠깐 사이에 발생한다. 이 ‘바이미 신드롬’의 영향 중 아이돌 팬들의 기부문화도 빼놓을 수 없다. 흔히 말해 ‘조공’의 다른 형태인 것이다. 1세대 아이돌들과는 다르게 쌍방향 소통이 쉬워진 가수와 팬 사이 덕분이다. 우상으로서만 존재하던 아이들이 현대에서는 좋아하는 조금 먼 친구와 같은 형태로 재정립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트위터를 통한 자발적 홍보방식이 가장 영향력이 컸다. 그렇지만 아이돌 팬들의 기부 문화는 이전부터 존재했다. 팬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다량의 선물공세보다는 여러 명의 영향력으로 해당 가수의 명성을 드높이는 것이 더 가치 있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020 도쿄올림픽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은 2021년 8월 4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배구 여자부 8강전에서 터키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끝에 세트 스코어 3-2로 승리하며 4강에 진출했다. 터키 대표팀 선수들은 산불로 힘들어하는 국민을 위해 도

쿄올림픽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다짐했으나, 한국에 패해 메달 도전에 실패했다. 터키 선수들은 8강전 패배가 결정되자 눈물을 흘렸다. 팬들이 대표팀 주장 김연경의 이름으로 터키에 묘목을 기부하는 선행을 했다. 비영리단체 환경단체연대협회(CEKUD)는 공식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의 메시지를 지난 7일 공개했다. 메시지는 묘목 그림을 배경으로 한글과 영어로 길게 적혀 있었다.

내 취향에 맞는 물건이건 사람이건 어떤 행동이건 간에 그에 대한 정보를 누구보다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취향 공동체들. 오죽하면 최고 좋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최애’가 다년간 공간을 소개해주는 스타트립(startrip)까지 생겨났을까.

결국 취향이라 함은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함을 뜻하고 공동체는 함께하는 것이 곧 그들의 가치를 더하는 일이 된다는 걸 말한다. 미디어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고 여러 문제 또한 동반하겠지만 나만의 시간과 공간은 여전히 중요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단절되지 않으며 자아의 선택 방향과 가치의 표현을 공유하며 관계를 맺는 ‘취향 공동체’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몰입

신나라(문화기획자, 모씨네)
orangefilm04@gmail.com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에 몰입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몰입이란 단어는 성공한 삶의 필수조건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아 대개 자신의 상황과는 별개로 치부하기 쉽다. 그러나 몰입의 사전적 의미는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으로 일, 운동, 취미 생활 등에 집중해본 경험이 있다면 이는 크든 작든 몰입의 경험일 수 있다. 이러한 몰입의 경험은 삶의 만족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의 생활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몰입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준다.

몰입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론은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Mihaly Csikszentmihalyi)의 몰입(flow) 이론이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하는 몰입이란 플로우(flow) 상태로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어떤 행위에 깊이 몰입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 더 나아가 자기 자신조차 잊게 되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하는 몰입을 위한 전제 조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명확한 목표로, 스포츠처럼 목표와 규칙이 명확히 설정되었을 때 몰입의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적절한 난이도로 수행해야 할 과제와 실력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하며, 세 번째는 분명하고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피드백이다. 이 세 가지가 갖추어져야 즐거움을 불러일으키고 주로 긍정적인 정서를 갖게 되는데, 이를 몰입 경험(flow experience)이라 한다. 몰입 경험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행동하는 것과 자각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며, ②자신과 과제에 대해 통제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③과제 수행에 두려움이 사라질 뿐 아니라 자기경계가 한결 넓어지며, ④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고, ⑤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마지막은 ⑥자기 목적적 경험으로 외부의 보상과 관련 없이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될 때 발생한다. 이러한 경험을 한 사람은 경험 자체를 즐겼다고 표현한다.

몰입 경험의 긍정적인 기능은 다양한 연구에서 보고되어 왔다. 학생들의 참여와 성취감을 높여주기도 하고, 몰입경험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경우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다. 몰입 경험은 자아를 확장하고 정신을 한데 모아 질서 있는 심리상태를 만들고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

물론 몰입에 늘 긍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몰입이 허용되는 곳은 자기 계발과 같이 사회적으로 적합한 활동일 경우이다. 만약 포커 게임에 장시간 몰입하면 중독을 일으키고 다른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해야 하거나 몸담고 있는 일을 회피하기 위해 중독에 빠저든 경우에도 역시 부정적 대상이 된다. 몰입과 중독은 진행과정이 비슷하나 중독은 정신과 신체를 파괴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동시에 안겨줄 가능성이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몰입의 긍정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언급했던 몰입의 조건을 자신에게 대입해보고 적절한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몰입의 조건인 과제의 난이도와 실력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 근심 등을 가져오며 이는 오히려 개인의 성장과 행복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실력보다 조금 높은 난이도의 목표를 설정해야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며, 주기적인 피드백을 통

해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에 도달할 때마다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실력을 향상해나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일상적으로 ‘산책’은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걷기운동이지만 긍정적인 몰입 활동이 될 수 있다. 산책을 위해 다양한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고 목적지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개발할 수도 있다. 목적지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는지,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한 피드백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산책을 하는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거나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의 작은 몰입 경험은 조금 더 복잡하고 활발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몰입의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동에 사용한다. 바쁘고 피곤한 와중에 삶의 만족도, 성취감과 같은 단어는 그리 와 닿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즐거움이란 감정이 일상생활에 작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할 것이다. 몰입 경험은 즐거움이란 긍정적 감정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을 준다.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에서 몰입 경험이 이루어진다면 삶의 만족도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회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로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증가하는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장시진(문화기획자, 모씨네)
sijin@mocine.net

결혼·가족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가족은 이제 정형화된 견고한 하나의 집단이라기보다는 상황에 의해 이합집산하는 유연한 관계로 이해되고 있다. 덕분에 다양한 사회적 결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전형적인 가족모델로 생각되어 온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 형태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에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이혼 및 재혼가족, 비혼·동거가족 등 가족 형태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경제 변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청년층의 결혼 지연, 이혼 증가, 배우자와 사별한 부모 세대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특히 1인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인 가구의 수는 6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가구 중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여성 1인 가구의 경우에는

309만 4000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8년보다 2.5% 높아졌으며, 20년 전보다는 무려 128.7%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여성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18년 기준 불법 촬영 피해자는 5,925명으로 2013년 4,823명에 비해 1,102명 증가하였으며 전체 피해자 중 여성이 82.9%를 차지한다. 성폭력 발생 건수 또한 2013년 2만 8,786건에서 2018년 3만 1,39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필수적인 항목 중 중요 요소인 주거 영역에서도 범죄는 증가하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범죄가 감소한 데 비해 주거침입 범죄는 증가 추세에 있다. 주거침입 검거인원은 2019년 1만 7012명으로 전년 대비 3,500명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만 3,520명, 2017년 1만 1,836명, 2016년 1만 1,641명, 2015년 1만 224명으로 해마다

참 고 문 헌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몰입의 즐거움』, 해냄출판사, 2005.

한성열, 장훈, 「몰입(flow)기능의 재구성」,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제 24권 제 4호, 한국심리학회, 2010. pp.43~62.

김창대 「몰입(flow)이론을 적용한 진로상담 모형」, 『청소년상담연구』 제 10권 제 1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02. pp.5~30.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주취폭력은 19%, 운전자 폭행은 20.7% 각각 감소했다. 생활 폭력 가운데 주거침입만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 2017년 형사정책 연구원이 발표한 '1인 가구의 범죄 피해 관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청년 1인 가구'는 남성에 비해 범죄 피해를 볼 가능성이 2.3배에 달했다. 특히 주거침입 피해를 당할 가능성은 무려 11.2배나 높았다. 가장 편안해야 할 집에서조차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관에 남자 신발을 가져다 놓거나, 온라인 쇼핑 시 받는 사람에게 남성 이름을 적고, 방법용 남성 목소리를 저장해두는 등 여성 혼자 살기 '팁'이 퍼질 정도다. 과도한 불안감이 아닐까 싶지만, 실제로 여성 대상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같이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 및 주거공간에서의 범죄가 증가하자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려 여성 1인 가구의 57%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여성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 안심 귀갓길, 무인 택배함, 여성안심주택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해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실제로 관련된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 여성들이 많으며 전반적으로 여성안심 귀갓길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안심 귀갓길의 주요 시설들은 방법 시설 설치

비용을 지자체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크고 관리, 운영상의 문제도 적지 않다.

또한, 여성 안전 문제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만 해답이 있지 않다. 여성 치안 불안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성별 임금 격차와 무관하지 않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많을 경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의 성별 임금 체계는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현재의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는 여성의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가중시켜 주거 불평등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취업 기회가 적고 불안정한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들은 보안이 취약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저층 주택, 원룸 등을 거주지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법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성들의 주거권 역시 보장되지 않으며 만약 안전한 주거환경을 선택한다 해도 이는 여성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주거 불평등의 문제는 악순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여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면 여성 1인 가구 안전을 위한 법 제도 및 정책 개선을 비롯해, 성별 임금 및 고용 격차 해소,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공공 주택 확보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라정민(문화기획자)

petleva7@hanmail.net

과거에 도시의 중심적인 기능을 하였으나 편의시설의 이전, 주거환경의 악화, 인근의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점차 쇠락하는 지역을 원도심이라고 부른다. 이런 원도심에는 낡아가는 건물, 좁은 도로, 상하수도 기초 시설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난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과거부터 가장 많이 사용돼온 방식은 재개발이다. 재개발은 흔히 재건축과 함께 거론되지만 두 가지는 특히 규모면에서 매우 다르다. 재건축이 특정 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재개발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을 포함한 다. 도시의 일부를 통째로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다. 부수고 새로 짓는 과정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그렇기에 재개발은 수익성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일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없을 때 재개발은 낡은 도시의 일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가 된다.

일단 건물이 지어지고 20년 가량 지나면 누

수, 단열, 안전 등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또한 과거의 건축 관련 기준이 현재의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기에 에너지효율, 방음, 단열, 주차면적 등 모든 면에서 현재의 건축물보다 떨어진다. 건물뿐 아니라 도로나 수도관 등의 기초 인프라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지역이 재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장사가 잘 되는 상업가는 건물과 기반시설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개발하지 않는다. 재개발은 낡았으면서도 찾는 사람이 없어 개발이익이 가장 클 때 진행된다.

재개발이 수익을 내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다. 먼저 밀도를 높이는 작업이다. 제한된 면적에서 밀도를 높이는 건 것은 용적률을 높여 건물을 높게 짓는다는 의미이다. 단독주택 지역을 재개발하여 높은 아파트를 짓는다는 의미이다. 높게 지은 만큼 생기는 추가 세대를 분양하여 벌어들인 수입으로 건설비용을 회수하고 시공사 및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

한다. 결국 재개발의 수익은 얼마나 높은 아파트나 상가를 지어 분양할 수 있는 물량을 늘릴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면 재개발 인근 지역은 갑자기 늘어난 인구로 교통, 상하수도, 전기, 일조권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공적 자금으로 도로를 늘리고 상하수도 시설을 정비한다. 결국 재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은 투자자, 시공사, 조합이 가져가지만, 재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는 프리미엄이라고 불리는데 가격이 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투자비용만 회수한다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 결론은 비싸게 팔아야 한다. 비싸게 팔 때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입지다. 입지는 인근의 편의시설이다. 원도심 지역은 원래 도심의 역할을 하던 지역이기에 학교, 대중교통, 관공서 등의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학, 병원, 지하철 등 초기투자 비용이 큰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여 이용이 줄어들다고 하여도 쉽게 이전하기 어렵다. 이런 편의시설도 조성과정에서 정부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 이런 시설은 분양에 있어 매우 큰 이점으로 흔히 볼 수 있다. ‘역세권 00분’, ‘공원이나 병원 등 편의시설 00분’이라는 문구가 그것이다. 이를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지만 정작 공적자금이 투입된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재개

발 조합, 시공사, 투자자는 어떤 비용도 지불하지 않는다.

재개발 조합의 가입 자격은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로 제한되어 있다. 세입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어 당연히 재개발의 이익 배분 과정에서 배제된다. 투자한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으나 도시라는 유기적인 공간의 운영에서는 세입자 역시 소유권만 없을 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재개발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은 원래부터 거주하던 사람도, 상인도 아닌 투자자다. 재개발 결정전에 낡은 건물을 싸게 매입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뒤 분양권을 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이른바 투자(라고 적지만 투기라고 읽는다.)를 한 사람이다. 가능성을 미리 알고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을 투자한 그 해안과 강단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건물을 매입한 후엔 지역이 쇠락해 재개발이 빠르게 시작되기만을 고대하는 사람이 그 도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자기 삶의 터전을 가꾸는 사람들이 일궈온 도시의 과실을 독식하는 것이 옳은지 물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수익성을 기본으로 하는 현행 재개발 방식은 지속이 어렵다는 것이다. 최초의 계획도시라고 불리는 1기 신도시도 1989년 이후 벌써 30년이 넘어섰다. 향후 10~20년 뒤 1기 신도시 지역 역시 재개발 기준을 충족하지만 이미 아파트로 높이 지어진 지역의 밀

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초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기술적인 문제, 수익의 문제 등으로 현행 방식이 가능한 재개발 지역은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도시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가고 살아가야 한다. 결국은 수익성 때문에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이 아닌 도시를 가꾸고 관리하는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 이때 관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시를 가격이나 수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다양한 관점으로 살펴야 하며 부수기보다는 고치고 유지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도시를 바라볼 때 토지, 소유, 수익 등의 관점은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런 관점만으로 도시를 바라볼 때 도시는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그저 투자처, 조금 더 격하게는 투기장이 될 뿐이다. 그러나 투자와 투기가 도시를 성장시키거나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싶고 행복할 때, 도시에 지속가능성이 생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유의 구분만이 아니라 그 도시를 만들고 유지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인문학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이런 인문학적인 관점이 그저 어떤 관찰로 끝나지 않고 도시에 대한 계획에 반영되고 끊임없이 논의될 때 도시는 외적인 성장이 아닌 내적

으로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삶과 생각

낮선, 낯설지 않은 우리의 자산

이소영 조선화의 거장展 총감독, 대구대학교 교수

‘견딤’만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송아름 영화평론가, 영화사연구자

디아스포라 영화제, 라운드 테이블 ‘공항 난민’

김영주 영화감독

인천독립영화 제작 지원은 변화가 필요하다

인천독립영화협회 회원 일동

택배 노동자의 삶과 영화 <미안해요, 리키>

오석균 시인, 홍천 내면고 교사

백년가게의 가치

손다혜 영화감독, 인천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날선, 날설지 않은 우리의 자산

《조선화의 거장展》(2021.7.23~8.10.)

이소영

조선화의 거장展 총감독, 대구대학교 교수
sotalso@naver.com

‘두 개의 한국(The Two Koreas)’이라는 말이 있다. 전직 <워싱턴포스트>지 기자의 눈에 비친 한반도의 모습이다. 일제 식민시대, 해방, 한국전쟁을 거쳐 한반도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열강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장이었다. 근 60년간 이어져 온 일련의 사건과 역사적 비화들을 생생하게 기술한 책이기도 한 ‘두 개의 한국’은 그 제목만으로도 정치적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남북의 상황을 고스란히 전한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법, 땅에 금을 긋고 생각을 달리하니 남쪽은 독재정권으로 북쪽은 주체사상으로 양보 없는 제로섬 게임을 지속해온 우리. 이십여 년 전의 이 날카로운 관점은 지금도 유효하다. 거리상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깝지만 사상적으로는 그 누구보다 멀어져 서로에게 무지함을 고백해야만 하는 관계이지 않은가.

남과 북은 미술에서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 누군가 당신에게 북한미술에 대해 아느냐고 묻는다면 프로파간다 포스터나 우상화된 조각을 말할지 모른다. 혹은 아리랑 축전과 같은 매스게임을 연상하거나. 북한의 미술을 거론할 때면 늘 ‘인민을 선전 선동하여 교양시키기 위한 사회주의 혁명의 도구’라는 꼬리표가 자동적으로 따라붙는다. 물론 그렇다. 북한미술은 목적이 분명하다. 목적이 분명한 만큼 내용도 선명히 드러나야 한다. 형식은 민족성, 내용은 사회주의 정신이 원

칙으로 작동한다. 민족적 형식은 조선화로, 사회주의적 내용은 주체사상을 담아내는 한에서만 자유롭다. 하지만 이처럼 명료하게 정의하고 나니 두 개의 한국은 영원히 평행선을 그어갈 수밖에 없을 것만 같다.

《조선화의 거장展》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질적으로 전개되어 온 남북한 미술이 그 근원에서는 하나로 만나고 있음을 조명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상상의 밑알을 제공하고자 했다. 월북미술가 연구는 그 의도를 펼쳐내기에 적합한 주제였다. 반쪽짜리 분단의 미술을 통일의 미술로 엮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깊이 박혀있는 프레임부터 걷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체제 반역’이나 ‘붉은색’을 연상시켜왔던 ‘월북 프레임’ 말이다. 해방 후 남과 북이 분단되는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북으로 옮긴 미술가들의 경우 북으로 간 이유가 자의적인지 타의적인지 조차 불분명한 가운데 납북, 재북, 귀북으로 구별 지어지면서 프레임은 고착되었다. 이 전시에서는 ‘월북(越北)’이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북으로 간’으로 대체하였는데 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적 금기의 대상이었고, 작품은 물론 이름 조차 언급이 금지되었던 누락된 존재들, 그들을 다시금 호명하여 함께 호흡하고자 했다.

월북미술가 중 인천 출신 홍종원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발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아내 변옥림과 함께 홍익대학교를 다니

다가 학업 도중 6.25를 맞아 월북하였는데, 이들은 현재 월북미술가로 분류되지 않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북으로 간 미술가들을 선별하여 목록화한 바 있는데, 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일제강점기, 또는 해방기에 남한 지역에서 주요 활동을 하다가 월북한 작가, ② 월북 이후 북한 체제에서 미술사적 가치와 의의를 지닌 작품 및 이론·비평 텍스트를 발표한 미술가 또는 제도 및 교육 분야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한 미술가(단, 월북 이후 미술계에 진입한 미술가들은 제외) ③ 각 미술분야의 대표성을 띄는 작가(『북한미술연구보고서V』, 2020, p.5.). ②번의 단서조항에 따라 홍종원과 변옥림은 북으로 간 이후 실력을 인정받아 최초의 가족 전람회를 개최할 만큼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월북미술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은 학생시절에 북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남한에서의 활동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지만, 다행히 1999년 북한에서 출간한 『조선력대미술가편람』 증보판에 기록이 남아있어 전시에 소개할 수 있었다. 편람은 1994년 초판에는 없던 400여명분의 자료를 1999년 증보판에 추가하였는데, 이중 월북미술가를 대거 포함하였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북한에서의 활동뿐 아니라 남한에서의 활동 및 상황도 함께 기록하고 있어 우리 미술의 근간을 세우는데 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화의 거장展》의 출판작가 중 길진섭, 김만형, 김용준, 김주경, 배운성, 이진영, 이석호, 이쾌대, 임군홍, 정은녀, 정



중여, 정현웅, 최재덕은 월북미술가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자료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나마 명단에서조차 배제되어 있는 다수 작가들의 자료는 발굴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누락되고 잊혀간 역사의 조각들을 되살리는 일은 한반도 근대 문화예술 유산을 복원하는 일이다. 두 개의 한국이 하나로 회복해가는 노정 위에 북한미술 연구자와 소장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다.

북한에서 미술은 순수한 미술 장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영화미술, 무대미술 등 모든 예술과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 정치성과 예술성, 실용성이 복합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혁명문학, 혁명음악, 혁명무용, 혁명가극, 혁명연극처럼 북한 예술에는 으레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그런데 미술 장르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혁명미술’이라는 용어가 있기는 하지만 모든 미술은 조선화로 수렴한다. 단 한 번의 붓질로 사물의 형태나 색상,

질감까지 표현해내는 물골법, 그 독창적인 조선화의 기법을 두고 논쟁해 온 30여 년의 행간에는 때론 주장을 관철하기도 하고, 때론 파국으로 귀결되기도 했던 서슬 퍼런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북한의 미술을 조선화에서 출발하여 조선화로 귀의한다고 할 만하다.

필자는 다른 지면에서 조선화에 대해 언급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글의 핵심은 북한 사회가 폐쇄되어 있음에도 예술은 단절된 시공간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유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연결되어 역동적 삶의 형식을 구현하는 것이 예술이다. 북한식 예술이 외형상 정치적 수단에 머물지라도 작가 개인의 내면까지 온전히 동일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작가의 예술의지가 완벽히 배제된 예술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필자는 조선화에서 그 힘을 찾고자 했다. 조국산천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실감 나게 그린 풍경화를 보고 있노라면, 조선화

가 남북을 넘어 한민족 공통의 감수성을 끌어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예술에는 휴전선이 없지 않은가.

북으로 간 미술가들이 제2의 생애를 보냈던 북한에서 펼친 예술의지와 낭만적이면서도 고뇌에 찬 뜨거운 가슴을 공감하는 자리였음을 반증했던 것일까, 전시는 코로나 상황의 악화로 관람이 제한적이던 가운데서도 3천여 명에 육박한 관람객이 방문했다. 사연도 많았다. 임군홍(林群鴻, 1912-1979) 작가의 아들 임덕진 씨가 아버지의 작품과 조우하는 드라마가 펼쳐졌다. 임씨가 겨우 3살이던 1950년에 북으로 건너가신 아버지. 기억엔 없지만 어린 아들을 무척 예뻐하셔서 그림으로 남기신 아버지. 전시 소식을 듣고 단걸음에 달려와 아버지의 그림 앞에 선 아들은 발길을 떼지 못했다. 임씨에게 애똥한 아버지이지만 현재 서류상 큰아버지로 되어 있었다. 북으로 간 아버지 때문에 사관학교 진학과 ROTC 입대 등이 좌절되자

어머니가 호적을 정리했는데, 아직 고치지 못했다는 거였다. 한국 근현대사의 비극을 확인하는 현장이었다. 정중여 화가의 친손자인 정단일씨는 할아버지의 미공개 사진들을 기꺼이 제공해주었고, 출판사 열화당의 후원으로 당시 예술가들 사이의 낭만적 교류와 정치계 인사들과의 관계 및 역사적 흔적을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선보일 수 있었다.

월북미술가들의 이름에 남한식 두음법칙을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사용하던 북한식 그대로 기록할 것이냐의 선택도, 고심 끝에 정한 제목인 ‘북으로 간 미술가들: 낯선, 낯설지 않은’이 프레임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인천시로부터 반려된 사연도, 논쟁이 우려되는 문구들을 모조리 삭제하고 수정을 반복했던 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의 유엔대북제재 대상 작품 전시 논란이 불거졌던 일 등 구비구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관객은 눈치챘을까? 전시장 입구에 세웠던 아트월(art wall) 디자인에 담은 기획의도를... ‘조선화의 거장’이라는 문구를 가로지르는 구불 구불한 선은 휴전선을 형상화한 것이다. 남북을 가른 휴전선을 따라 양끝으로 향하면 소통과 공감, 평화의 자리인 전시장이 펼쳐진다. 자칫빛으로부터 꽃분홍까지 월북에 덧씌워진 붉은색이 얼마나 황홀하게 매력적일 수 있는지 감각하기를 바랐다. 삶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떠올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것, 그것을 번역해주는 작품. 예술은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눈앞에 가져다 놓는다고 했던가. 전시장 벽면에 새겨놓았던 리석호(李碩鎬, 1904~1971)의 한 마디가 울림을 준다.

“나는 우리 조국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에 스며있는 조선의 정신과 기백을 화폭으로 형상한다...”

수많은 불일치와 차이가 공존하는 것이 삶이다. 남북 분단의 불일치는 대립과 폭력과 상처였다. 두 동강 난 한반도는 두 개의 한국으로 귀결되었지만,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그 절반의 가능성에 대해 다시금 상상해야만 한다. 분단이 만든 미술을 차이가 공존하는 통일의 길 어귀에서 다시 그려가야 하지 않을까.

‘견딜’만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영화 <휴가> 속
재복의 달린 입에 대해

송아름
영화평론가, 영화사연구자
chwkdsu@hanmail.net

해고노동자 재복(이봉하)은 여기저기서 치인다. 농성장에서는 동료들에게, 간만에 돌아간 집에서는 딸들에게, 새롭게 일을 시작한 공장에서는 모든 것이 그를 다그치는 듯하다. 이 사이에서 재복은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하다 못해 상황을 농치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조차 하지 못한다. 답답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의 우직함은 길 위에서 1,882일의 농성 끝에 해고 무효소송의 최종 패소 판정을 받은 이가 가질 수밖에 없는 무게일지도 모르겠다. 패소는 그가 견뎌냈던 시간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었고 더 이상 천막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지를 잃게 했다. 그곳을 벗어나는 일에 굳이 휴가라는 이름이 필요치 않았지만 재복은 휴가를 받아 잠시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간의 휴식일지,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이후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명확치 않았지만, 남들처럼 쉬어보기라도 하자는 그들끼리의 다짐으로 재복의 날들은 <휴가>에 담긴다.

재복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쌓여 있던 집안일과 데면데면한 딸들의 얼굴, 그리고 대학 입학을 위한 큰 딸의 예치금이었다. 길 위에서의 5년이라는 ‘투쟁’ 기간은 집을 누군가 그를 맞이해줄 수 있는 곳이 아닌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바뀌 놓았다. 집을 벗어난다고 해서 난감함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5년의 시간은 일 자리를 구할 때에는 걸림돌로, 친구들과의 술 자리에서는 아직도 그곳에 있느냐는 비아냥으



로 재복을 절러냈다. 이름만 휴가일 뿐, 그에게 열흘은 몸에도 마음에도 고되고 현실적인 일들이 가로막고 있는 날들이었다. 농성 기간 동안 돌보지 못했던 것들은 단순히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기보다 그의 부재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아프게 보여주었다. 〈휴가〉는 재복이 5년이라는 간극을 열흘 동안 어떻게 극복하려 하는지를 천천히 훑으며 바라본다.

휴가 기간 동안 재복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밥을 하고 밥을 챙기는 일이었다. 그가 두 딸에게 말을 걸 수 있는 명분도, 그것으로나마 아이들을 챙길 수 있다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 있는 방법도 밥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이들이 차려주는 밥에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컵라면을 먹어도, 밥을 먹었느냐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아도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며 음식을 만드는 것은 그가 현재 아이들의 곁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최선의 행위이다. 이러한 재복의 행위는 함께 일하는 준영(김아식)에게도 이어졌다. 친구의 공장에서 잠시 일하게 된 재복은 홀로 밥을 때우는 준영에게 도시락을 건네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천천히 준영의 상황을 알아간다.



그가 누군가에게 밥을 먹이는 것은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동을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가장 마지막, 다시 투쟁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역시 아이들에게 반찬을 해주고, 또 남은 반찬을 챙기는 설정은 이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영화는 이러한 재복의 생각을,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그의 날들을 생활 속에서 잊었던 노동을 통해 최대한 긍정해 나간다. 이는 노동의 현장에 남아 있는 이들뿐 아니라 끝까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어딘가를 지키고 있는 이들을 긍정하는 태도와 맞물리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열정에 보내는 응원과 결의,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한 좌절에 대한 분노와 연민은 〈휴가〉에서 상당 부분 절제되어 있지만 결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투쟁의 현장을 담고 있던 많은 다큐멘터리들은 그들의 고통이 매우 일상적인 삶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점을 슬픔과 분노의 교차를 통해 설명해왔고, 그 귀결은 그들이 해 온 노동과 투쟁을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오랫동안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았고, 그들의 삶에 응원과 찬사를 보내는 것에 어떠한 의심도 가질 필요 없게 만들었다. ……: 그렇다. 이 응원의 시간은 꽤 오래 되었고, 〈휴가〉 역시 이와 같은 선상에 서 있다. 과연 이 오랜 반복은 여러 ‘천막’의 ‘현재’ 상황을 무리 없이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문득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것은 영화의 모든 시선이 재복의 삶을 긍정하는 것에 할애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재복은 2000일에 가까운 시간을 길 위에서 견뎠다. 그는 그를 외면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시선을 견뎌내야 하기도 했다. 그를 옹호하는 영화의 시선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과연 견디는 일만으로 재복의 날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재복은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도, 말을 명확하게 끝맺지도

않는다. 분명히 화를 낼 상황에서도 크게 대응하지 않으며, 많은 상황을 그저 삼키고 감내한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재복의 우직함은 그가 견뎌온 세월의 흔적일지 모르지만, 이러한 성격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재복을 이상하지 않게 만든다는 점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휴가〉는 재복이 지나온 고통을 겪을지도 모를, 아니 확실히 같은 부조리 속에 놓일 젊은 노동자들을 재복과 함께 배치한다. 우리 집에 여유롭게 내놓을 등록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큰딸 현희(김정연)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가구공장에서 만난 준영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살며 위험에 노출된 노동을 한다. 특성화고 전산과 학생은 어떤 연관도 찾을 수 없는 가구 공장으로 실습을 나 오고 과거 오랫동안 비슷한 일을 해 온 재복과



동일한 주의사항을 들은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된다. 아니길 바라지만, 이들의 앞날은 재복이 지나온 시간과 그리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당연히 재복이 해 온 일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 줄지, 자신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못한다. 아니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 더욱 맞을지도 모른다. 노동자의 투쟁을 다루는 많은 작품들이 오랫동안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동안 그 투쟁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은 바뀌었고, 이제 ‘견디는 것’에 대한 의미를 조목조목 설명해줘야 할 만큼 그 행위에 적대적인 이들이 늘어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희도, 준영도, 그리고 특성화고의 고등학생도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재복을 바라본다. 그렇다면 재복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바뀌길 꿈꾸는 일이라는 점을 설명해줘야 했다. 우리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현재 자신이 하는 일이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설득해야 했다.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고만 다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너를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시켜야 했다. 게다가 현희는 아빠의 부재로 인해 재복이 견딘 시간만큼을 함께 견뎌온 아이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희에게 만큼은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넘어 보호자의 부재 측면에서라도 이를 5년이나 견뎌낸 것이 어떤 의미인지

를 설명해야 했다. 그러나 재복은 끝내 어떠한 것도 이해 가능한 언어로 풀어내지 않는다.

더 이상 그곳에 가지 말라는 현희에게도, 산재 신청으로 문제를 만들기 싫다는 준영에게도, 전산과임에도 가구공장에 온 고등학생에게도 재복이 설득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재복의 ‘견딤’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의 투쟁을 그리는 많은 영화들에 던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재복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이해받길 바랐던 데에 녹아 있던 그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재복의 행위는 옳은 것이기에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 다른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당위가 그것이다. 재복은 오랫동안 함께 투쟁하던 이들에게서 걸려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애초에 휴가라는 말은 더 이상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재복과 남은 이들을 달래려는 명목이기도 했다. 그만큼 재복이 견딘다는 것은 그에게도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세 식구가 모여 밥을 먹는 자리에서 현희가 재복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이 이제 그곳에 가지 말라는 말인 것처럼 그가 견디는 시간들은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재복은 묵묵히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누구의 지지도 이해도 받지 않은 채.



‘왜’에 대한 설명이 빠진 재복의 휴가는 투쟁을 그리는 많은 작품들 어디에서도 투쟁 현장을 떠난 이를 중요하게 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환기시킨다. 투쟁 현장을 떠난 이들은 갈등의 원인이 되어 괴로워하거나, 현장에 남아 있는 이들의 이해 속에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었던 사람’으로 사라졌다. 즉, 노동운동의 당위가 앞섰을 때 누군가는 그곳을 떠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바로 그 선택지 자체가 삭제되어 있던 것이다. 재복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이 없는 동안 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 결핍되었는지를 알았으면서도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은 어쩌면 노동과 투쟁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많은 영화들의 문법으로 인한 결과는 아니었을까. 재복의 견딤에만 주목하는 영화의 시선이 위험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재복이 행한 의미만을 긍정했을 때 그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떠한 설명도 없

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집을 떠난 재복의 모습은 결국 그곳으로 돌아갔을 때에야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오랜 믿음을 굳건히 따르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휴가〉에서 느낀 답답함은 어쩌면 영화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현실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지 모른다. 과거 모든 사회운동의 구심점이 되었던 노동운동은 이제 외각으로 밀려났고, 집회든 파업이든 누구보다 힘든 상황에서 나섰다는 점이 행위의 정당성이 되어버렸다. 노동 안에서 계급과 계층을 나누는 것이 익숙해진 상황은 명분과 정당성의 문제를 실리의 정도로 판단했고, 나보다 덜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만이 공감의 영역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 이 안에서 노동과 투쟁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견딤’의 과정 그 자체도 노동이 될 수 있으며 긍정해야 한다는 믿음은 이제 설득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분명 슬픈 일이지만 이것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시한다면 이를 위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의 냉정함에 기대 재복에 대한 공감을 거둘 생각은 없지만, 길 위에서 1,882일을 지낸 재복의 생각을 그의 목소리를 통해 듣고 싶다.

디아스포라 영화제, 라운드 테이블 ‘공항 난민’

김영주
영화감독
koj248@daum.net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처음 접한 건 2년 전이었다. 영화에 관심이 있던 나는,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가에 영화제를 찾아갔다.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강제로 흩어지게 된 사람들에 관한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 디아스포라는 본래 고향을 떠나게 된 유대인을 칭하는 단어였으나, 현재는 더 나아가 주류에서 벗어난 정치적 신념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공동체 등의 뜻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왜 인천에서 개최하는 것일까? 인천에 항구가 형성된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하늘을 통해 인천으로 쉽게 드나든다. 그러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인천은 전국 각지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본토를 떠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됐다.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천은 이미 디아스포라의 색을 짙게 띠고 있는 공간인 셈이다.

2021년 제 9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공항 난민 : 공항에 갇힌 사람들을 만나다’가 진행됐다. 사회를 본 독립 연구 기획자 이종찬과 난민인권센터 사무국장 고은지, 닷페이스의 모진수PD, 박소현PD가 자리를 함께 했다.

라운드 테이블은 사회자의 질문에 전문가 패널들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고, 관객과의 질의응답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질문을 받아 패널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현 시국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소통방식인 것 같아 보였다.



하지만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전문가 패널의 답변이 빠른 흐름으로 진행되다 보니, 나처럼 난민이슈에 관해 기초적인 정보도 부족한 사람에겐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

다행스럽게도 닷페이스 채널은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기사 형태로 자신의 채널에 추가적으로 업로드 하였고, 그로 인해 영화제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정보들을 알 수 있었다.

닷페이스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현 시점에서 변화시키기 위해 설립된 미디어 스타트업이다. 기성세대에서 잘 다루지 않는 사회적 약자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풀어낸다. 해당 섹션에서 상영된 ‘인천공항에 1년 넘게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는 영화는 닷페이스에서 제작한 숏다큐 형식의 유튜브 영상이다.

영화는 11개월째 공항에서 머물고 있는 난민 신청자 A씨를 중심으로 A씨의 담당 공익 변호사, 난민인권센터 담당자등의 인터뷰가 담겨있다. 이 영화는 난민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당함과 그러한 이유로 고통 받고 있는 A씨를 다룸으로써 관객들이 가진 난민에 대한 편견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난민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을 본 후, 나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는 11개월째 공항에서 머물고 있는 난민 신청자 A씨를 중심으로 A씨의 담당 공익 변호사, 난민인권센터 담당자등의 인터뷰가 담겨있다. 이 영화는 난민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당함과 그러한 이유로 고통 받고 있는 A씨를 다룸으로써 관객들이 가진 난민에 대한 편견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난민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을 본 후, 나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

영화는 11개월째 공항에서 머물고 있는 난민 신청자 A씨를 중심으로 A씨의 담당 공익 변호사, 난민인권센터 담당자등의 인터뷰가 담겨있다. 이 영화는 난민제도가 가지고 있는 부당함과 그러한 이유로 고통 받고 있는 A씨를 다룸으로써 관객들이 가진 난민에 대한 편견을 지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불어 난민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을 본 후, 나는 그 요청에 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평소 닷페이스의 영상을 많이 찾아보았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추천영상에 자리 잡은 공항 난민 영상을 클릭하진 않았다. ‘지금 은 웃긴 영상이 보고 싶어’, ‘지금은 여성에 관한 영상을 보고 싶어’ 등의 이유로 피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내면 깊은 곳에선, 나는 난민과 관련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다.

내가 난민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수행평가 때문이었다. 당시 제주도 예멘 난민에 관한 이슈가 뜨거웠지만, 나는 그 사건에 무관심했다. 그러던 중 예멘 난민에 관한 찬반토론이 수행평가 항목으로 정해졌고, 나는 난민 이슈에 관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토론의 찬성 입장은 난민을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의 해소나 장기적 관점으로 본 경제적 이득 등, 난민을 동등한 인간이 아닌 사회 발전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을 취했다.

토론의 반대 입장은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과도한 공포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슬람 문화로 인해 성범죄 비율이 급증한다거나 일자리의 잠재적 경쟁자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런 경우에 해당했다.

당시 그런 의견들이 인터넷상의 주요 여론이었다. 나는 조사과정에서 뉴스기사, 개별 블로그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난민에 대한 편견이 내면에 형성된 것 같다. 그 당시 인터넷상에서 흔하게 보이던 글 중 “제주도에서 긴장한 체

격의 남성 난민 세 명이 늦은 밤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해 강간했다.”라는 근거 없는 블로그 글을 믿게 된 것이 편견의 증거였다.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 아마 그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이후 나는 난민 이슈에서 멀어졌고, 2021년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통해 난민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

상식적으로 공항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치는 공간인 공항. 그 속에서 나오지도, 다시 돌아가지도 못한 채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생존을 위해 본국을 떠난 난민들이다. 그들은 ‘공항’이라는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강제적으로 일상을 보내야 하는 ‘공항 난민’이었다.

2013년,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었다. 본래는 한국으로 들어와 정식 난민 심사를 받기 전에는 불법체류자 신세였지만, 정식 난민 심사 전 공항에서 하는 간이 난민 심사과정을 추가하여 그 공백을 메꿔준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왜 2021년인 지금까지 공항에 머무르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여 체류 자격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공항에서 난민 자격 심사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떤 증거물을 내

세우든 공항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렇다면 난민들을 다른 나라로 연결해주거나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창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난민들은 공항에 갇힌 서글픈 신세가 된 것이다.

공항 난민은 코로나로 인해 더 가혹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공항의 코로나 방역체계에서 난민들은 배제되어있다. 안전을 위한 마스크도 지급되지 않아 UN난민기구에서 배정된 변호사를 통해 마스크를 지급 받고 있는 형편이다. 방역을 위해 금지된 식수대나 샤워 시설은 일반 고객들에겐 불편사항일 뿐이지만 공항 난민에게는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일이다.

“난민 이슈는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아니라 왜곡된 시선이 많은 이슈다. 제주도 예멘 난민 당시, 여론은 난민과 국민의 권리를 대립시키며 난민의 권리보장이 국민의 권리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방향으로 형성됐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말을 듣자 나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내가 토론 수행평가 때 조사한 결과물이 난민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국 3년 전 나와 친구들이 조사했던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여론에서 형성된 공포심이었던 것이다.

디아스포라 영화제 라운드 테이블 ‘공항 난

민’은 대한민국으로 도피해 온 난민들을 모두 수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묵인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나에게 알려줬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었다. 최소한 그들이 난민 자격을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난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한 사람을 대하는 정당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인천독립영화 제작 지원은 변화가 필요하다

인천독립영화협회 회원 일동

독립영화의 위상과 역할

표현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 중 하나이다. 누구나 타인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자신을 표현하는 핵심이 글이었기에 문맹 퇴치는 매우 중요한 이슈였다. 현대 사회의 자기표현의 수단은 글과 이미지를 넘어 영화로 확장된다. 영화는 그 장르의 특성상 매우 파급력이 크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참상을 알린 위르겐 힌츠페터의 기록영상부터 노동쟁의 현장을 기록한 영화 〈파업전야〉까지 한국사회의 굵직한 변화를 영화는 기록하기도 하고 재해석하며 사회의 변화에 목소리를 냈다. 과거 예술 장르의 하나였던 영화는 점차 상업화되면서 수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되었다. 이후 영화가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왜곡되기 시작했다. 감독/각본가가 확고한 자기 철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심지어 가지고 있더라도, 창작자가 전달하고픈 메시지보다 자본이 이익이 우선된다. 독립영화는 이런 상업화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하나의 장르로 남았다. 여전히 사회에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그런 독립영화를 진흥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독립영화는 상업 영화만큼의 인지도 및 수익성을 갖고 있지 않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 독립영화 관객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영화시장의 주된 소비층으로 꼽히는 2~30대의 50% 이상은 ‘독립영화’가 무엇인

지도 모르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지도는 더욱 낮아진다. 독립영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지원에 대한 인식도 전혀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항상 예산대비 효율성이라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예산대비 효율성이라는 지표 자체는 경제적인 영역에서는 매우 유효한 지표지만 선거에 비용이 든다고 하여 선거 자체를 폐지하지 않듯 인간의 기본 권리, 사회적 기반 영역에서는 적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독립영화는 자기표현과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다. 요컨대 상업 영화가 소비를 위해서 제작되고 관객이 피동적인 ‘소비자’로 규정된다면 독립영화는 소통을 목표로 하며 관객은 영화를 매개로 함께 대화하고 의미를 만들어가는 주체이다. 감독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동시에 관람하는 관객이 독립영화에 공감하고 연대하면서 관객 개인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은 ‘표현의 자유와 소통’이라는 기본권의 범주로 다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적인 측면을 넘어서도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하고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보호하며 나아가 다양한 문화들을 보호하는 사회적인 기능을 한다. 독립영화는 정답보다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로 일상 속 공공연하게 일어나지만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폭력, 이별의 슬픔, 다양한 형태의 사

랑 등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먹고 나서 웃으며 “아~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할 수 있기보다 당황스럽게 곱씹으며 “이거 도대체 뭘 넣은 거야?!”하는 궁금증을 유발한다. 성 소수자 부모 모임의 이야기를 다룬 〈너에게 가는 길〉, 농성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해고노동자도 가정과 사회 안에서 입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 명의 인간임을 말하고 있는 〈휴가〉 등 독립영화는 익숙한 이야기가 아닌 낯선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를 고민하도록 만든다.

제작 지원의 현황과 대안

독립영화를 한 편 만들기 위해선 수천만 원의 제작비가 소요된다. 기획과 배급의 비용을 합하면 이보다 더 큰 비용이 필요하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감당할만한 수준이 아니지만, 상업적으로 인기 있는 주체가 아닌 이상 투자를 받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극적으로 제작에 성공하였다 하더라도 영화는 장르의 특성상 관객을 만났을 때 그리고 관객이 질문을 던졌을 때 완성된다. 문제의식을 품은 감독과 프로듀서, 문제를 함께 확장할 제작진이 영화를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관객에게 보여줄 공론장인 영화제, 소극장, 커뮤니티, 교육 등이 없다면 영화는 사장되고 만다.

현재도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제도나 기금은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인천에서 독립영화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천영상위원회
의 지원을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2021년 현재, 인천영상위원회가 지원하는 사
업은 인천 창작자의 작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
업인 ‘씨네(인)천’(단편영화제작지원, 장편기획
개발지원)을 살펴보면 대략 400~700만 원 사이
의 제작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지원은 기획-제
작-배급의 전체 단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과정별로 소액 소건의 지원이 책정되어 있
다. 인천에서 독립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인천
창작자들은 부족한 제작비 충당을 위해 제작
전부터 제작이 끝난 뒤에도 이리저리 지원 신청
서를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 지원마저도
받지 못하는 창작자들이 대다수이다.

독립영화는 기획, 제작, 배급의 전 과정에
서 관객과 만나며 의미가 발생하고 만들어간
다. 장르의 특성상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인천 다큐멘터
리 포트는 통합적인 지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큐포트는 정확하게는
‘피칭’이라는 개념으로 다큐멘터리 관련 기업
및 배급사에서 현금 혹은 현물로의 지원 방식
을 만들고 피칭에서 선정하여 이를 지원한다.
피칭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기획, 제작, 편집 단
계 어느 단계나 상관이 없으며 피칭을 통해서
예정된 지원 외에도 부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였다. 특히나 2018년에는 CGV계
열의 극장 9개 관에서 2주간 개봉이 확정되고
2차 판권 회사의 참여로 해외배급 및 2차 시장

까지 지원이 가능하여 제작뿐 아니라 배급까
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큐포트
는 이외에서 다큐멘터리 마스터 과정 등을 운
영하며 국내 다큐멘터리 주관사 중 메이저 주
관사의 반열에도 올랐으나 2019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사례는
앞으로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데 있어 우선적
으로 참고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적인 지원의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
아볼 수 있다. 미국의 ITVS(Independent
Television Service) 경우 독립 다큐멘터리를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미국 공영방송기금을 활
용하여 독립다큐멘터리를 지원하고 있다. 기
금을 통해 현재까지 1,670작품의 독립 다큐
멘터리를 지원하였고 그중 작품성을 인정받
아 피바디(Peabody Award)와 에미상(Emmy
Award)에서 수상한 작품이 88건에 이른다.
ITVS는 제작을 지원함은 물론 제작 지원된 작
품은 TV 방영을 확정 받아 제작에서 배급까
지의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배급이 TV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상영과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제
작된 다큐멘터리가 미전역에서 소통되고 토론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적인 공모 외에도
인종 부문과 매년 주제 공모를 통해 일반적으
로 관심도가 낮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작품
들이 제작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역할도 수행
한다. ITVS는 이런 지원을 독립적으로 수행하
기 위해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고 있으며 정

책 방향과 상관없이 독립 다큐멘터리 작품을
지원하고 있다.

다큐포트와 ITVS의 사례로 볼 때 독립영화
는 그 제작에 대한 지원과 배급에 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
한다. 현재도 수많은 독립영화가 제작 단계에
서 재원 문제로 중단되고 다른 지원을 얻기 위
해 분주한 상황 속에서 이런 통합적인 지원만
이 독립영화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
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인천문화의 성장과 독립영화

독립영화는 제작의 방식이나 주제가 독립되
어 있다는 뜻이지만 흔히들 배고픈 영화라고
자조적으로 규정한다. 독립영화가 반드시 저예
산으로 작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의 독립영화가 어려운 여건 속에 제작되고 있
는 것은 현실이다. 영화라는 매체가 예술 장르
보다 상업영역에서 대부분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독립영화는 그런 상업 시장이 다루
지 못하는 인간을 드러내는 예술 영역에서 창
조된다. 특히나 인천은 지리적·역사적으로 중
심에 가까운 주변으로 수많은 자원과 콘텐츠
가 서울로 빨려 들어가고 있기에 지역의 역사
와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의 독립영
화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인천에 기반하여
자란 독립영화인들은 창작을 통해 자신의 언
어를 더욱 다듬고 있다. 이들 작품들은 지역을

새롭게 보는 시선을 제공하고 다시 새로운 창
작을 낳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 인천의 문화
를 더욱 발전시키며 선순환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독립영화 창작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
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 그 지원의 방식을
창작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택배 노동자의 삶과 영화 <미안해요, 리키>

오석균

시인, 홍천 내면고 교사
aungsan@hanmail.net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연애하는 남녀 사이의 대화만은 아니다. 미안하다고 못 느끼거나 뭘 미안한지 모르는 것은 바로 지금 나와 우리들의 모습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이니까.

영화 <미안해요, 리키>를 보고 나서도, 뭐가 누구에게 그리 미안한지 몰랐다. 그러다가 어떤 페이스북 친구의 글을 읽었다.

우리 시골집 노모는 아직도 내가 뭔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보냈다 하면 이렇게 대꾸하곤 하신다. “자꾸 시키지 마. 배달하는 사람들 힘들겠더라. 미안하잖아.” 그러면 허투루 이렇게 대답해왔다. “괜찮아, 엄마. 그게 그 사람들 일야.”

내가 틀렸고, 엄마가 옳았다. 모든 게 엉망진창인 노동 사회에서, 택배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전혀 안 괜찮은 구조에서, 자꾸 뭘 시키는 건 그렇게 미안한 일이 된 것이다.

인터넷이 되고, 최첨단 의료 장비와 과학 기술 문명의 시대가 다가와도, 가난하고 없는 자의 고통은 여전히 아침저녁의 번덕스러운 기운처럼 요동치며, 불벌더위처럼 또는 한파처럼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한다.

유발 하라리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인간 문명의 역사가 풍요가 아닌 고통의 역사가 된 것이 바로 “농업 혁명”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역사가는 인류가 농업 혁명으로 풍부한 식량을 얻게 되어 문명

을 꽃을 피웠다고 말들 하지만, 어찌 보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인지도 모른다

수렵 채집의 시대에는 생계를 이을 식량의 양은 부족하지만, 다양한 먹거리들이 산재해 있고 저축하고 쌓아 놓지도 않으니, 그리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농기구를 이고 부지런히 논밭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먹을 것을 가지고 이웃과 그리고 타인과 목숨을 걸고 다투지 않아도 되었고, 식량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 상황이 일어날 것 같으면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다. 식량의 절대량이 적어 가족이나 종족의 인원수는 늘 적고, 많이 낚 수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아침이라고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굶이 깨우지 않아도 되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는 말도 안 되는 격언에 거품을 물고 늦잠 자는 아이들은 닭달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저 배가 고프면 말려둔 육포나 과일을 먹고 웅달샘을 찾아 물을 마시고 다시 잠들면 되었다.

그러나 농업 혁명은 풍부한 식량자원 대신에 몇 가지 그림자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 몇 가지 단일 품종에 목을 매는 시대이다 보니, 아침저녁으로 논밭에 나가 허리를 구부려 일하고, 흉년을 대비해서 창고를 짓고, 몇 년 혹은 최소한 몇 달 치 식량을 쌓아 두어야 덜 불안한 시대가 되었다.

이웃과 나누기 전에 자기 가족의 미래를 우

선 걱정하다 시간이 다 가고, 하늘을 쳐다보며 오지 않는 비 혹은 너무 많은 비를 걱정하다 통곡해야 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식량 도적이 생기고, 목숨을 걸고 먹을 것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혹은 내가 누구의 식량을 강탈하고, 그러다가 다치거나 죽고, 그러면서 우리 몸과 마음은 여러 가지 이름 모를 병과, 사고, 노동으로 인한 통증으로 끔끔대며 앓는 문명을 이어갔다.

오래전 인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농업 혁명을 이어 산업 혁명과 과학 혁명 그리고 이제는 정보 혁명까지. 수많은 전쟁과 환경 파괴를 거치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강을 멀찌감치 건넌 사피엔스의 모습으로 진화됐다.

많은 무릎뼈는 갈아 끼우고, 녹내장이나 백내장은 눈알을 열어 잘라내고, 이가 빠지면 잇몸에 시공해서 임플란트하고, 시력이 나쁘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끼우고, 좋은 신발과 쿠션 좋은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어디라도 쉽게 날아간다.

아픈 허리를 대신해서 세탁기가 빨래를 대신하고, 그 빨래는 널 필요 없이 건조기가 건조를 한다. 하루 입은 옷은 스타일러가 털어서 오염을 제거하고, 청소는 로봇이 대신한다. 한 겨울에도 사철 과일이 언제든지 쏟아져 나오고,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TV를 보면서도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면 어떤 것도 다 배달시켜 바로 먹을 수 있고, 세상



어디와도 쉽게 소통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돈과 여유만 있으면...

이런 욕망이 또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내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수많은 택배 노동자가 존재한다.

돈만 있으면 세상 어느 것도 불러낼 수 있는 도깨비방망이가 있고, 그 방망이를 여의봉처럼 휘두르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 일을 대신해서 우리 앞에 원하는 것을 가져다 놓는다, 돈 때문에.

그런데, 괜찮은가? 그렇게 편하게 사용하고, 비용을 지급하면 그뿐인가? 오히려 많은 수요를 만들어 내니 원활한 자본주의 경제를 위해 좋은 일인가? 도덕적으로 괜찮은가? 정말 미안하지 않은가?

책으로, 영화로,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출퇴근하는 모습을 통해 그런 택배 노동자를, 혹은 까대기(택배 물품 분류)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간혹 보았다. 그러려니 했다. 그러다가 저런 영화를 봤다. [미안해요, 리키] 왜 미안해야 하는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괜찮다고 그것이 계속 좋은 일로만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부당하다고 그것이 계속 나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일이 다른 일로 혹은 다른 사람의 세계로 자꾸만 점차 점차 이어지면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갛다는 그 하나로 시작된 말이 혹은 행동이 기차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백두산도 가고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말과 행동이, 사회 구조를 잘 들여다보면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억울하게도 하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저 시험을 봐서 점수가 안 되어서 떨어지면 본인 실력 탓이고, 온종일 엄마 아빠 없이 빈방에 갇혀 있으면 그저 못난 부모의 가난 탓인가? 과연 그 속에 숨은 불균형이나 희책은 없는 것일까

4차 산업혁명으로 이제 자율주행차에서 전투 로봇까지, 거의 못할 것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그 세상을 마구 움직이는 힘과 에너지를 누군가는 독점하려 하고, 또 누군가는 숨겨 자기 자식에게만 넘기려 한다. 그러면서 너희들과 자기는 본질부터 다르다고 생각한다. 일면 맞고 일면 틀리다.

백 사람이 각각 한 대씩의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백 명이 자동차 한 대를 나누어 조립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나, 그런 삶이 도리어 누구도 자동차 전체를 볼 수 없는 삶을 만들었다. 그저 카드로 긁고 차를 타고 다닐 뿐, 제대로 전체와 의미,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이상하게 다시 우리는 대부분 노동 현장으로 내몰린다.

서유미의 단편 소설 「스노우맨」에 보면 허리



까지 눈이 내린 날도 회사에 출근하려 눈을 파헤치며 가다가 눈 속에 동사한 우수 사원을 보고, 그 옆에서 지쳐 잠드는 남자의 모습을 통해 인간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기계적인 노동과 경쟁사회를 이렇게도 예들려 보여주고 있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영화 <미안해요, 리키>에서 프랜차이즈 택배회사에 다니는 주인공이 절망적인 얼굴로 토해내는 대사다.

작년에도 12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했다고 한다. 택배 노동자의 고된 노동과 슬픔이 고스란히 그것도 딸 앞에서 울지도 웃지도 못하게 차분히 담겨 있다. 택배 기사 리키의 삶은 성실 그 자체다. 그는 오쭈머리 갈 시간을 아끼기 위해 차량에 오쭈머리를 싣고 다닌다. 그에게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 일에 누구보다 충실한 아내와 자식이 있다. 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그들의 미래

는 보이지 않는다. 택배 차량을 위해 아내는 차를 양보하고 버스를 타고 요양 보호 일을 하러 다니고, 딸은 휴일에 아빠를 따라 택배 일을 돕는다.

뭐가 문제일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회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기업, 택배를 받으며 사인을 거부하는 진상 고객, 끝없이 막히는 도로, 잘못 기재된 주소, 그리고 폐장도들...

물론 어떤 일도 다 힘들다. 그러나 '기계와 기술이 노동을 어떻게 바꾸었나'라는 점에서 우리는 특별히 이런 점을 참조해보아야 한다. 왜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최첨단이 되어도 대다수 서민의 노동은 이렇게 힘들게 움직여야 하나? 그리고 과연 그 대가는 정당한가? 그 노동은 정당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시행되고, 인간성을 잃지 않는 선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예전에 중국 어느 지역을 여행할 때, 마른 남자들이 여행객을 가마에 태우고 언덕을 올라가는 코스가 있었다. 그 좁은 길을 슬리퍼만 신은 깡마른 아저씨들이 카메라를 든 풍채 좋은 관광객을 실어 나른다. 체구가 무척 큰 한 동료는 미안하다고 팁을 삼만 원짜리 주교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데 그런 팁들이 계속 그런 여행 상품을 만들기도 한다.

이종철 작가의 만화 「까대기」를 보면 택배가 모이고 흩어지는 집배 과정에서 노동하는 사

랍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까대기 아르바이트생은 분류+하차를 하고, 택배 기사들은 짐 신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노동은 알뜰한 수당에 인간의 몸을, 허리를 골병들게 한다.

내가 누리고 있는 편리함 그 이면에 누군가의 노동과 노력이 숨어 있다면, 과연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가장 정직한 노동이 가장 대우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오래 돈을 보고 있으면 돈이 돈으로 안 보인다고 한다. 은행에서 돈을 세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오래 그렇게 보고 있으면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타성인지 잘 모른다. 그저 다치고 아픈 사람만 억울하다.

게다가 독점이다. 에너지의 독점이고, 권력의 독점이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고, 많이 갖고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좌우하고, 돈은 돈을 따르고,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부자는 더 쉽게 부자가 된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 더욱 택배 노동이 강화되고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아주 조금 더 있기는 하다. 그것은 우리 문화의 배경이 ‘길’이 아니라 ‘집’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외국에서는 길거리에서 밥을 사서 그 자리에서도 편하게 먹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곳도 있다. 가게에 앉아서 누가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으면 미안해서 고마워서 팁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차려준 음식을 먹어야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뷔페는 일부 호텔 것만 빼놓고 싸구려라는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좋은 집에 앉아서 차린 음식을 먹고자, 없는 돈에도 대출받아 집을 사고, 좋은 집을 자랑하고자 가구를 그득그득 들인다.

그리고 집에 앉아서 택배를 받고자 한다. 조금만 움직이면 매장에 나가서 물건을 보고 고를 수도 있지만, 앉아서 받는 것이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는 정서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켄 로치 감독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많은 진실, 독점과 불균형 사이에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 하는 이 약자들의 이야기,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절망 서사를 끝까지 담담하게 풀어낸다. 우리가 거장들에게 경의를 바치는 이유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을 때까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의 원제목인 ‘Sorry We Missed You’는 택배 수신자가 부재중일 때 택배 기사 노동자



가 남기는 대문 앞에 붙여두는 쪽지다. 우리는 카톡이나 문자로 부재 시 어디에다 맡겨달라는 서비스가 있지만, 몇몇 유럽국가에서는 수신자가 이 쪽지를 보고 직접 택배 물품을 찾아가야 하는 일도 있다. (예컨대 우체국 등으로) 그래서 ‘죄송합니다...’라는 문구가 있다. 그런데 이 미안하다는 영화의 의미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왜 미안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미안해야 하는지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 영화는 의미가 없다.

영화 <미안해요, 리키>에서 택배회사 사장은 주인공에게 “서명하면 개인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인 겁니다.”라고 말했지만, 서명하는 순간 운명의 주인은 택배회사 사장이 된다. 말이 개인사업자이지 주인공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구조가 그러하다. 아니 그동안 어떤 구조는 합리적이었나?

현재 한국에는 영세한 1인 사업자들이 많다. 이들은 영세하나 한편으로는 사업주로서의 보수성까지 가지고 자기를 고집적으로 지키려 한다. 그래서 세상이 잘 바뀌지 않는다.

프리랜서라는 이름의 노동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 대리운전, 오토바이 음식 배달, 전동 킥보드 수거 및 충전 등등 이른바 4차 산업으로 탄생한 수많은 앱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형태를 넘어서 시간제 일자리로 최소 서너 가지의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로 프리랜서들을 양산하고 있다.

사람들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위해선 또 다른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기업은 고객의 편의를 위한 각종 의무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책임과 여러 비용을 갑을관계로 계약한 프리랜서들에게 전가하면서 수수료를 빼먹는 장사를 하는 것이다. 추가 비용은 당연히 프리랜서의 자부담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만약 사고가 나서 프리랜서가 다치기라도 하면 온전히 자신의 보험으로 해결해야 한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일을 하지만, 누군가는 가지고 있는 자본을 이용해 쉽게, 앉아서 높은 수수료를 챙기고, 중개료를 모아 때돈을 벌기도 하면 좀 이상한 것 아닌가. 기술이 발달해도 가지지 못한 자는 몸을 바쳐 노동하다 병이 들고, 상황을 이용할 줄 아는 자본가들은 타인의 노동을 이용해 편만한 수익을 쉽게 벌어들인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멋진 TV 화면을 보면서, 고급 차와, 멋진 정수기, 최신 세탁기와 아름다운 가구를 보고 꿈꾸며 하루를 산다.

약자들은 말없이, 그리고 가끔은 거짓말로, 그저 견디며 살아왔지만, 희망은 요원하고, 꿈은 광고와 쇼핑몰 화면에 갇혀서 그득그득하다.

무덤덤 여름도 참고 견디면 조금씩 서늘해져가는 가을바람을 곧 만날 수 있다. 그러나 그다음은? 그다음엔? 어느새 다시 차가운 칼바람이 무심히 불어올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당장 견딜 수 있으니, 과연, 되었는가?

백년가게의 가치

손다혜
영화감독, 인천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s3548227@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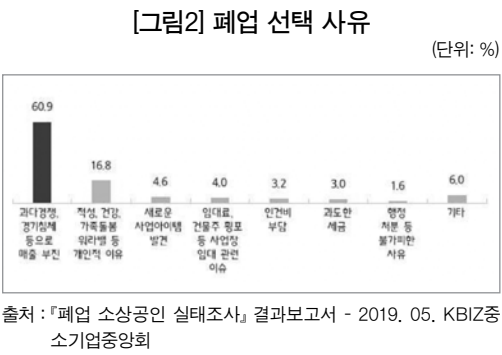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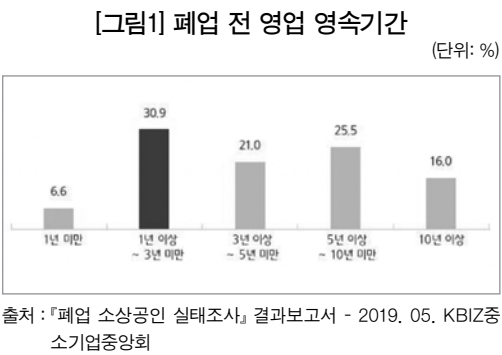
지역에는 ‘백년가게’라고 불리는 가게들이 존재한다. 이 가게들은 대부분 지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자신들만의 노하우를 계승하고 발전 해온 가게들이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지역의 노후한 것들은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식들이 생겼다. 끊임없는 재개발과 재건축시장 속에서 본연의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살아남아 ‘지역 안에 존재함’만으로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백년가게이다.

중소기업벤처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선정 되는 ‘백년가게’는 매체·플랫폼 등을 통한 홍보뿐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시설 개선 지원, 대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가게를 30년 이상 유지해온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포상이자 앞으로 100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는 도구인 것이다. 한 가게가 백년가게로 지정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는 성공모델이다. 정부가 인증한 전통 있는 가게라는 뜻을 가지고 손님들에게 신뢰감을 주어 안정적인 운영을 꾀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제외하고도 ‘백년가게’가 소상공인들의 성공모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다.

한 가게가 30년 이상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변화를 거듭하는 현대 사회에서 한 자리를 지키며 무언가를 오래도록 행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것보다 큰 의미가 있다. 치솟는 임대료 전쟁과 자재들의 가격 상승 등 현실적으로 가게를 오랫동안 지

속한다는 것은 짐작하는 것 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 것뿐만 아니라 단골을 만드는 일, 손님이 불편해하는 것을 찾아 개선하는 일 등 넘어야 할 산이 끝이 없는 일이다. 여러 이유들로 한국에서는 가게를 오래 유지해봤자 겨우 1년~3년 사이에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 중 제일 큰 요인은 과다경쟁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한 가게들은 줄줄이 폐업을 선택한다.



백년가게라고 불리는 가게들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 모두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되새기며 영업하는 것이다. 공통적으로 나

타나는 원칙은 바로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백년가게는 대를 이어 내려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변화를 거듭하는 시대의 발걸음에 맞춰 개선·발전을 해나가는 것이다. 일본에는 4대 째 이어온 ‘긴자 스시코 혼텐’이라는 초밥집이 있다. 이 가게의 4대 주인장인 스기야마 마모루가 말하는 원칙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참신한 시도를 거듭해야 전통을 지켜갈 수 있다.”이다. 프랑스의 직물명가 장로즈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고전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험을 한다.”라는 원칙이 엿보인다. 오래된 가게를 그저 오랫동안 영업해온 가게로만 바라보는 것이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래된 가게는 끊임없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변해가는 시대에 발맞추어 자신만의 특색을 지키며 자기발전을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색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온 백년가게는 지역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중기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인천 중구 신포동 신포시장 안에는 대를 이어온 떡가게가 있다. 바로 ‘신포떡집’이다. 특이하게도 이 가게의 현재 주인장은 ‘이종복’이라는 시인이다. 푸근해 보이는 인상에 날카로움이 있는 주인장의 떡가게에는 인근에 존재하는 다양한 예술가와 문화기획자들이 종종 놀러온다. 그럴 때면 주인장은 믹스커피 한 잔과 그 날 만든 작은 떡 한 조각을 내고 소박한 의자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1950년대 아버지부터 대를 이어온 떡가게를 지키며 시인 이종복

씨는 인천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준다. 오래된 가게가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명확해지는 사례다. 그 지역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것이다. 어느 날 신광떡집을 지나면 누군가는 가게 안에 들어가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누군가는 가게 밖에서 사진을 찍기 바쁘다. 원주민들에게는 심심할 때 들어가 이야기 나누며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공간이 되고 외국인들에게는 의미있는 랜드마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백년가게의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오래된 가게는 그 지역의 역사를 떠올리게 만들기도 한다. 한 자리에서 오랜 영업을 하는 가게 특성은 자연스럽게 과거를 기억한다. 인천 부평은 해방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미군기지가 들어선 지역이다. 옛 미군기지가 있던 부평공원 근처에는 1950년-70년대까지 주로 미군을 대상으로 한 클럽, 술집, 기지촌이 많았다. 부평공원 근처 ‘부일식당’은 기지촌 드림보트클럽 자리였다. 실제로 부일식당 안으로 들어서면 클럽에서 사용했던 바닥재와 계단이 여전히 남아 있다. 1983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쳤지만 드림보트를 기억할 수 있는 일부 자재들은 조금씩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인천 중구 신포동에는 ‘버텨라인’이라는 재즈 라이브 클럽이 남아있다. 1983년부터 영업을 한 버텨라인은 한 자리에서 오래 영업한 클럽으로서의 역사성도 있지만 남아있는 건물 자체가 1900년대 양복점으로 시작한 건물로서 유구한 역

사를 상기시킨다. 공간 안에 있는 뽕 뚫린 천정구조는 버텨라인이 지나온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물모양의 천정구조는 일명 트러스 구조로 일반 재즈라이브클럽보다 층고가 높아 공연을 할 때 깊은 울림을 느낄 수 있다. 현재 버텨라인은 라이브공연 뿐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재즈 역사 강의를 진행하는 등 커뮤니티의 공간으로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건물이 지금껏 남아있는 것은 인천이 대표적인 개항장이었기 때문이다. 개항장이었던 덕분에 신문물을 받 빠르게 받아들인 도시가 바로 인천이다. 이처럼 인천의 백년가게는 인천이라는 도시의 특수한 역사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포브스〉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시장에서 100년이 넘도록 운영되고 있는 곳은 미국 152개, 영국 41개, 독립 24개, 일본 45개 정도라고 한다. 다만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100년을 넘긴 노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실제로 100년이 지나지는 않았어도 백년가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노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전통을 살리고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하며 살아내고 있는 노포들은 절대 혼자서 살아낸 것이 아니다. 노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유무형의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직접 노포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임대료 상한제 등 보다 적극적으로 방

안을 모색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터줏대감 역할을 할 수 있는 백년가게들이 더욱 많아지면 새롭게 시작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소상공인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참고 문헌

KBS 백년의 가게 제작팀, 『백년의 가게-명가의 비밀』, 샘터, 2013.

인천 문화현장

2021년 통권 45호 (1997년 창간)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발행처	사단법인 인천민예총 21566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서로 23번길 12 3층 tel. 032+423+0442 fax. 032+425+4665 E-mail, inmyc@hanmail.net Homepage, artincheon.com
편집위원장	김창길
책임편집	윤진현
편집위원	김은별, 문계봉, 문종필, 변진섭, 성창훈
디자인	도서출판 다인아트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 14 2층 tel. 032+431+0268 fax. 032+431+0269 E-mail, dainart@korea.com

값 10,000원

ISSN 1599-9513 45

※ 이 책은 제작비 일부를 인천광역시에서 지원받았습니다.

